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ISSN 2714-1187

2026년 1월 제13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기획특집 개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질리언스 연구 지형도

- 005 김도현 |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기반 여대생의
회복탄력성 증진 경험에 관한 연구
-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
- 041 정성훈 |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
- 065 조은상 | 회복탄력성을 위한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
- 103 한우리 |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의 일상 정치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

- 125 유요문·소인호 | 현대 콘텐츠 속 위장 서사와 고전소설 <삼선기>
다시 읽기
-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2007)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147 김지연 | 불교 관점에서 바라본 김광협 시세계의 생태 윤리
- 171 정미라 |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 193 이해란 | 영국의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주의
- 켄 로치의 <가족 생활> -
- 217 강익혁 | <더 굿 맨>의 미학정치
- 공공성을 넘어 커먼즈로 -

- 235 김용훈 |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 타당화
- 265 김태영 | 미혼모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페미니즘 분석
- KCI 등재후보지 이상을 중심으로 -
- 297 사용진 | 유연근무제 이용,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를 중심으로 -
- 319 우양호 |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왜 아직도 어려운가?
-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영향요인 -
- 349 이지영 |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결혼 이주여성 인식 연구
- 379 이희정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서평

- 407 김병인 | '여성의 약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리질리언스
- 415 ■ 발간 및 투고 규정
- 419 ■ 논문 심사 규정
- 423 ■ 연구 윤리 규정
- 428 ■ 임원 명단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기반 여대생의 회복탄력성 증진 경험에 관한 연구*

—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

김도현**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K시 소재 K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소마틱(somatic) 기반 신경계 안정화 기법인 CRM(Community Resiliency Model)® 활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그 실행 가능성(feasibi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을 검토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한 파일럿 연구이다. 팬데믹 기간에 중등교육 과정(중·고교)을 경험한 총 4명의 여대생을 준거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각 회기 종료 후 진행된 집단 상담, 회기별 개별 활동 기록, 그리고 개방형 자기보고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중심 의미, 상황적 구조, 그리고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회복탄력성은 감각 기반 주의전환 기술이 일상적 사건 속 정서 경험,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49445)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동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자기 탐구, 그리고 존재와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확장되는 상황적 구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불안과 안정이 교차하는 긴장 속에서 몸을 정서 조절의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가족과 친구 등 관계적 지지는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성찰의 장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저항이 공존하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RM® 기반 회복탄력성 활동이 단순히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몸’, ‘관계’, ‘성찰’이라는 세 층위에서 전개되는 자기 회복의 과정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관계, 대학생, 몸, 성찰,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모델, 회복탄력성, Giorgi현상학적 연구

1.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며, 사회 구조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쳤다. 2025년 9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7억 7,874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7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¹⁾ 팬데믹 당시 새로운 변종의 출현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일상 업무, 사회적 활동, 문화·종교 행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편을 겪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팬데믹 시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업 동기 저하, 학습 능력 약화, 또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이 시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학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핵심적인 보호 요인으로 드러난다. 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본인 및 가족의 COVID-19 감염과 입원, 원격수업, 그리고 가족·지인의 COVID-19 사망 경험은 위험요인으로 확인된다.²⁾ 특히 팬데믹

1) WHO, 2025 <https://data.who.int/dashboards/covid19/deaths>

2) 이현숙, 「COVID-19 상황에서 대학교 1·2학년 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

을 경험하면서 대학생들은 학업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회복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다수 제기되었다.³⁾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 조절, 대인관계 형성, 긍정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⁴⁾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율성과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므로, 회복탄력성의 발달 지연이나 저하는 학업 수행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개발하는 체계화된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학생상담센터와 취업진로센터 중심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도입과 취업불안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⁵⁾

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21』 2022 참조; 박경·정미·김순희, 「COVID-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2021 참조; 손주영·박지영·이은경·이은화·최수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참조; Russell, Abidogun, Lindley, & Griffin,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distress, well-being, and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s at greatest risk.”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2024, c; Fruehwirth, Biswas, & Perreira, “The Covid-19 pandemic and mental health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effect of Covid-19 stressors using longitudinal data” *PLoS ONE*, 16(3), e0247999. 2021 cf.

- 3) 지명원·이주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2022 참조; 박경자·김명찬, 「COVID-19 팬데믹에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 『한국열린교육연구』, 2022 참조; Russell, Abidogun, Lindley, & Griffin, *Ibid.* cf. 팬데믹 절정기이었던 2021년 봄, 미국 4년제 대학생 57,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높은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 반면 고위험군이 치료를 회피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문화적 장벽 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했다; Elharake, Akbar, Malik, Gilliam, & Omer, “Mental Health Impact of COVID-19 among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6(2), 2021, cf.
- 4) Reivich &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Broadway Books, 2003. Introduction cf.

그러나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하다. 유민희(2023)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련한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401편의 국내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과 감정조절, 사회성 강화, 대인관계 적응 교육, 그리고 신입생 초기부터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⁶⁾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회복탄력성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oll & Song(2023)은 미국 교육의 역사와 역할을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조명하며, 현대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그들은 15,000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기능을 회복탄력성을 배양하는 장으로 제안한다.⁷⁾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개발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Trauma Resource Institute가 개발한 Community Resiliency Model(이하 CRM®)을 선택한다. CRM®은 소마틱(somatic) 기반 신경계 안정화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체 감각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여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Nicholson et al.(2025)은 2009-2025년 사이의 CRM® 개입 연구 14여 편을 분석한 후,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는 CRM® 활동은 내수용감각(interoception)과 신경생리학적 조절에 근거한 감정조절 능력과 자기인식을 강화한다고 보고한다. 그들에 따르면 신경 및 대인간 동조(neural & interpersonal synchrony)가 촉진되어 정서적 공조와 사회적 유대가 높아지고, 학습 효율성 역시 향상된다. 특히 과업 공유(task-sharing) 접근을 통해 비전

5) 지명원·이주연, Ibid., 참조; 김재운·이소영·박은영·마나·백준상·강민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신입생의 회복탄력성 자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2), 2022, 참조; 전주람·최경, 「코로나19 일상생활에서 대학생들의 자기돌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2021, 참조.

6) 유민희,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국내 연구동향 및 지원방법 고찰: 심리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6), 2023, 참조.

7) Doll & Song, "Enhancing resilience in classrooms". *Educational Psychology Papers and Publications*, 2023, cf.

문가, 교사, 간호사, 지역 리더 등 다양한 인력이 회복탄력성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어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이 가능하다.⁸⁾

CRM®은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며, 관계적 지지망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 자기 관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기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도 필요한 접근법이다. 반면 CRM®의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인 대상 CRM® 연구가 미국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이후 회복탄력성 지원이 절실한 국내 대학생들에게 향후 CRM® 기반 소마틱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경험 과정을 탐구하는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1. CRM® 기반 소마틱 활동에 참여한 대학 재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 중심 의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의 본질적 구조는 무엇인가?
2.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CRM® 기반 5회기 활동은 참여자의 생활환경과 경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feasibi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확인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응과 회복탄력성 교육의 필요성

Resilience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성장하고 자기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자질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이 자질은 맥락, 시간,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상황에 놓인 동일한 개인 내에서도 변화하는 다차원적 특성임이 실증적으로 입증

8) Nicholson, Sapp, Miller-Karas, Duva, & Grabbe, "The Body Can Balance the Score: Using a Somatic Self-Care Intervention to Support Well-Being and Promote Healing". *Healthcare* 1258. 2025, 15-24 cf.

되어 왔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경우, 우리는 일차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 사건에도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심리적 균형을 회복한다. 더 나아가 역경 이후에도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응과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재된 성장 동력을 갖게 된다.¹⁰⁾

Resilience에 대한 번역어로는 ‘회복탄력성’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학업탄력성’, ‘적응유연성’ 등의 개념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로 이어져 왔다.¹¹⁾ 국내의 경우 대학생 회복탄력성 연구는 2011년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¹²⁾ 김영복(2022)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간호, 보건, 사회복지, 관광, 교육, 미용, 항공서비스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는 양적 연구가 98%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회귀분석이 80% 이상 활용되었다.¹³⁾ 이 후 연구 주제가 더욱 다양화되어 신입생, 편입생, 특수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자기자비,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긍정심리학적 변인과 결합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취업불안, 진로 준비, 그릿(grit)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회복탄력성 연구는 단순한 이론 검증에서 실천적 효과 검증으로 확장되었다.¹⁴⁾ 특히 2021년에는 66편의 연구 논문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심리·정

9) Connor &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2003. 3~4 cf.

10) Richardson,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002, 308~309 cf.

11) 김현구, 『사회정서학습과 미래교육』, 씨아이알, 2024, 89: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지칭한다. 적응유연성은 발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적응력을 발휘하여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둔다.

12) 손덕순·문영희, 「사회복지전공 대학生の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2011, 참조: 김은희·김인주, 「간호대학生の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2021, 참조.

13) 김영복,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동향」 『상담교육연구』 5(2), 57~59.

14) 조보람·이정민,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019, 참조: 방한승·최우성·나상은

서적 요인 분석과 지원 방안 및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는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¹⁵⁾

해외에서도 팬데믹을 계기로 회복탄력성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Doll & Song(2023)은 미국 교육의 역사와 역할을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조명하며, 팬데믹 동안 학교 폐쇄로 인해 학생들이 식사, 또래와의 사회적 교류, 가정 내 보호와 안전, 웰빙 점점을 상실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학교를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배양하는 장으로 정의하면서, 교실에서 교사-학생 간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고, 학생 간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며, 가족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현 대학생들은 팬데믹이라는 집단적 위기를 중·고등학교 시기 개인적 적응과 인내력에 의존하여 경험한 세대로, 불안과 고립의 정서 패턴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현재의 대학생활로 이행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서한 불균형을 조절할 기술적 자원 활용과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인 위치에 놓여있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개인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학습법을 개발하고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보편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또래·집단 수준에서는 안전한 의사소통 규범과 간단한 회복 루틴을 동료 멘토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제도 수준에서는 자원 연계와 환경 설계를 통해 소속감, 도움 요청, 학교 내의

문·조형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2017, 참조; 광경화·최인목, 「마음챙김과 회복탄력성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2025, 참조; 서명선·류선주, 「대학생들의 그릿이 회복탄력성,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3(3), 2023, 참조; 신지수·이한성, 「공연예술 대학생들의 전공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회복탄력성, 자기자비, 그릿의 다층적 매개효과 검증」 『문화융합콘텐츠학회지』 6(1), 2025, 참조.

15) 유민희, Ibid., 참조.

16) Doll & Song, Ibid., 2~5 cf.

17) 유지안·조규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교육과학습』 15(2), 2025, 참조.

자원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팬데믹 세대의 개인적 회복을 넘어, 대학 공동체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배양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2) 소마틱 기반 회복탄력성 활동으로서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Trauma Resource Institute가 개발한 CRM®은 스트레스 대응에 최적화된 소마틱 기반 신경계 안정화 기법으로, 개인이 신체 내부 상태와 그 동요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통해 감정 조절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Miller-Karas는 통증, 피로, 배고픔과 같은 신체 감각은 쉽게 인식되지만,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감각은 의도적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명확히 표현할 때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¹⁸⁾ 현재 Trauma Resource Institute는 CRM® 및 TRM®(Trauma Resiliency Model)의 이론적 확장과 실증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미국 내 대학 및 보건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¹⁹⁾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에모리(Emory) 대학에서 CRM®의 임상 및 공중보건 효과성을 검증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무작위대조시험과 간호사 회복력 연구를 수행해 왔다.²⁰⁾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Loma Linda) 대학은 Community Resiliency Model Treatment Manual for Loma Linda University

18) Miller-Karas, *Building Resilience to Trauma: The Trauma and Community Resiliency Models*, Routledge. 2023, 3~14; 31~52: CRM®의 첫 단계인 탐색(tracking) 활동은 개인이 고통의 감각과 웰빙의 감각 중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이 회복탄력성 영역(Resilient Zone) 또는 웰빙의 영역(Zone of Well-Being)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원하며, 더 명료한 사고와 효과적인 감정 조절로 이어진다.

19) Miller-Karas, *Ibid.*, cf.

20) Grabbe, Higgins, Baird, Craven, & San Fratello,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to promote nurse well-being". *Nursing Outlook*, 68(3), 2019; Duva, Murphy, & Grabbe, "A nurse-led, well-being promotion using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Atlanta, 2020-2021",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2(S3), 2022; Goldstein, Keita, Koomson, Tintle, Adlam, Farah, & Koenig,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Multimodal Wellness Intervention for Perinatal Mental Health. *J. Midwifery Womens Health* 2025.

를 통해 CRM®을 교육·의료 현장에서의 적용할 표준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Loma Linda Behavioral Health Center와 연계하여 의료기관 내 심리적 안전 및 자기조절 프로그램으로 CRM®을 확산하고 있다.²¹⁾

최근에는 세 건의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정신건강 향상 효과를 입증하였다. 먼저, Grabbe et al.(2019)에 따르면 미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시간의 CRM® 교육 후 PTSD, 이차외상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회복력과 전반적 웰빙이 향상되었다.²²⁾ 이어 Duva et al.(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CRM® 훈련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웰빙과 팀워크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²³⁾ 마지막으로 Goldstein et al.(2025)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4주간 CRM®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불안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수면과 건강행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²⁴⁾ 이 세 연구는 공통적으로 CRM®이 짧은 시간의 훈련만으로도 정신건강 지표를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Nicholson et al.(2025)은 CRM® 관련 앞선 세 편의 연구를 분석한 후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p \leq .05$)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²⁵⁾

이러한 연구 효과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Trauma Resource Institute는 신경생리학적(neurophysiological) 자기조절과 공중보건적 회복탄력성 증진 (community-based resiliency promotion) 기법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Grabbe et al.(2023)은 건강영향 피라미드(Health Impact Pyramid, HIP)를 토대로 CRM®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CRM®이 전문가뿐 아니라 훈련받은 비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도 전파 가능한 과업 공유(task-sharing)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CRM®은 사회적 네트워크

21) White, *Community Resiliency Model Treatment Manual for Loma Linda University Healthcare*, Loma Linda University Electronic Theses, Dissertations & Projects, 2022, cf.

22) Grabbe, Higgins, Baird, Craven, & San Fratello, *Ibid.*, cf.

23) Duva, Murphy, & Grabbe, *Ibid.*, cf.

24) Goldstein, Keita, Koomson, Tintle, Adlam, Farah, & Koenig, *Ibid.*, cf.

25) Nicholson, Sapp, Miller-Karas, Duva, & Grabbe, *Ibid.*, 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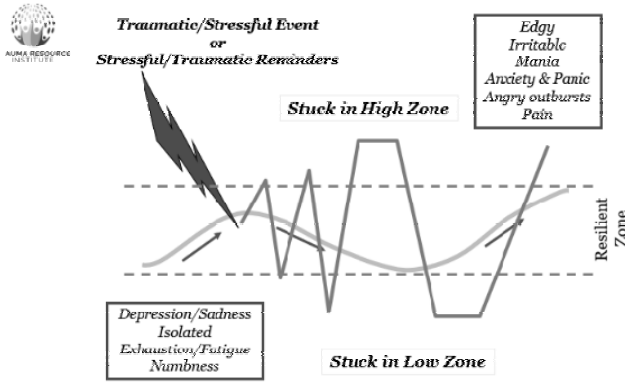
크를 통한 비공식 확산이 가능하고, 낙인을 완화하며, 예방적 기능을 지닐 수 있어 HIP의 개인 자기돌봄부터 지역·체계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저비용·확산 개입 모델로 평가된다.²⁶⁾

실제 HIP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 허리케인 플로렌스(Florence) 이후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뉴 하노버 카운티(New Hanover County)는 CRM®을 보급하여 ‘회복탄력성 문화(resilience culture)’를 조성했고, 지역사회 차원의 집단적 회복 효과를 창출하였다.²⁷⁾ 결국 CRM®은 단순한 인지적 접근을 넘어 소마틱 기반 신경계 안정화를 통한 상향식(bottom-up) 회복 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시킨 셈이다. 이는 몸의 감각을 매개로 정서 안정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회복탄력성을 확장하는 핵심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CRM®의 기본 목표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신경계가 불균형 상태에 놓였을 때, 개인이 스스로 안정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소마틱 기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신경계가 회복탄력성 영역(Resilient Zone)에서 벗어나면 불안과 과각성 상태(High Zone)나 무기력과 저각성 상태(Low Zone)에 머무르게 되며, 개인은 이 두 상태를 오가며 정서적 불안정

26) Grabbe, Duva, & Nicholson, 2023.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an interoceptive awareness tool to support population mental wellness”. *Global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 and Health*, 12, cf: Frieden, “A framework for public health action: The health impact pyrami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0, 590~595: Frieden이 제안한 건강영향 피라미드는 공중보건 개입의 효과와 개인의 노력 정도를 다섯 단계의 다층적 구조로 설명한다. 가장 아래층(1단계)은 교육, 소득, 주거,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으로, 인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결정 요인을 포함한다. 2단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맥락을 변화시키는 개입으로, 법과 정책, 환경 설계, 인프라 개선이 해당된다. 3단계는 예방접종이나 금연 정책처럼 장기적인 보호 효과(long-lasting protective interventions)를 제공하는 개입, 4단계는 개인별 질병 관리나 치료와 같은 임상적 개입(clinical interventions), 그리고 꼭대기인 5단계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과 상담(counseling and education)이 위치한다. 이 구조는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상담과 같은 상위 단계 개입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개선이나 환경 설계와 같은 하위 단계 개입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27) New Hanover County, *Building a Culture of Resilience After Hurricane Florence: Community Report*, New Hanover County Government, 2018, cf.



〈그림 1〉 스트레스 사건에 의한 불안정한 상태(High Zone)와 우울하고 피곤한 상태(Low Zone)

성을 경험한다.

Miller-Karas는 이러한 상태를 인지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경계 반응으로서 소마틱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이 감각·감정·사고를 식별하고 훈련을 통해 다시 회복탄력성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²⁸⁾ CRM® 활동을 교육분야에 접목한 Neal et al. (2025)는 CRM®을 초등학교 교실 환경에 적용한 파일럿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 자기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짧고 반복 가능한 CRM® 기반 회복탄력성 기술을 교실 수업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테네시주의 도시 빈곤 지역 학교 학생(K-7) 126명을 대상으로 소아전문 간호사와 대학원생이 지도를 맡았으며, CRM®의 여섯 가지 웰니스 기술 중 자원화(Resourcing), 탐색하기(Tracking), 접촉하기(Grounding)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교직원과 리더는 3시간의 사전 교육을 통해 아동기 부정경험(ACEs), 회복탄력성, 트라우마 반응을 학습하였고, 학생들은 20분 수업과 감정 설문,

28) Miller-Karas, Ibid., 78~97.

〈표 1〉 CRM® 6단계 기본 모듈

CRM® 6단계	기본 활동
1단계: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안의 감각을 알아차리기: 편안하거나 중립적인 느낌, 그리고 불편한 느낌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기
2단계: 접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재하는 감각에 집중하기: 지면에 닿는 접촉감처럼 실재하는 감각에 주의력을 모으며, 즐겁거나 중립적인 신체 느낌 찾기와 불편한 느낌이 발견되면 중립적인 감각을 찾아 머물기
3단계: 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편향 대응의 기술 • 안전, 따뜻함, 고요함의 느낌을 이끌어냄으로써 회복력 향상
4단계: 표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체표현 활동을 통해 신체적 느낌과 감정 바꾸기
5단계: 지금 도와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도와줘 활동: 물 한잔 마시기 현재 머무르는 방에서 주변 사물 인지하여 명칭 붙이기 방안을 걸으면서 20부터 역으로 숫자 세기 주변 소리에 집중하기 손이나 발로 지각되는 실재감 느끼기 벽에 몸 기대거나 팔로 벽 밀어내기
6단계: 주의전환하여 머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감정 다루기 만약 정서적 불편함을 느끼면 1. 주의를 편안함이나 차분함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로 옮기기 2. 차별하거나 중립적인 느낌을 자각하기 3. 신체적 접촉감에 주의 집중하기

심박수 측정 및 CRM® 실습을 거쳐 6주간 매일 10분씩 ‘OK Zone’ 보드를 활용한 연습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평균 심박수는 95-101 bpm에서 80-84 bpm으로 감소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존감·자비심·자신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29) Neal, Donohoe, & Gaffney, “Improving Self-Regulation: Resiliency Skill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63(1), 2024,

CRM®은 신체 감각을 자각하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감각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도록 훈련한다. 특히, 탐색하기, 접촉하기, 자원화, 표현활동(Gesturing), 지금 도와줘(Help Now!), 주의전환하여 머물기(Shift and Stay)의 6단계 활동은 단기간 교육만으로 습득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반복 연습을 통해 평생 활용할 수 있어 예방접종과 유사한 장기적 보호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된다.³⁰⁾

CRM® 6단계 기본 모듈의 각 단계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CRM®은 항상성(allostasis)을 ‘신체가 필요로 하는 균형을 예측·조절하는 뇌의 기능’으로 설명하며, 만성적 스트레스와 지지 결여가 항상성 부하(allostatic load)를 초래해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주목한다.³¹⁾ 유해한 스트레스(toxic stress)는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뇌 발달과 신체 건강을 해치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PTSD와 유사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CRM®은 이러한 부하를 완화하고 신경계의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해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예방 개입으로 CRM®은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은 준거적 표집방법(criterion-based selection)을 활용하였

31~38: Neal et al.(2025)에 따르면 CRM® 기반의 신경생리학적 자기조절 훈련이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OK Zone’ 개념을 통해 아동 스스로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회복영역을 확장한다. 그들은 교사와 학생이 공통의 언어로 감정과 회복탄력성을 논의함으로써 트라우마 기반 학교문화(trauma-informed school culture)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실 내 분노 및 불안 행동이 감소하고 정계·정화 건수도 줄어드는 비공식 결과를 확인하였다.

30) White, Ibid., cf.

31) Sennesh, Theriault, Brooks, van de Meent, Barrett, & Quigley, “Interoception as modeling, allostasis as control”, *Biological Psychology*, 167, 2021, 108222.

〈표 2〉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1	2	3	4
성별	여	여	여	여
연령	20	20	20	20
거주형태	자취	자취	부모와 동거	기숙사
학력	대학 재학	대학 재학	대학 재학	대학 재학

다. 연구 참여자는 K시 소재 K대학 재학생으로 회복탄력성 사전 설문에 참가한 46명 가운데 참가희망자를 모집하였다.³²⁾ 모집된 지원자 6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원자 6명 중에 팬데믹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낸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파일럿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CRM® 5회기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CRM® 기반 5회기 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정서·충동 조절 능력이 관계적 지지망 회복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확장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24년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Trauma Resource Institute에서 제공한 Activity booklet: Community Resiliency Model(2022)를 번역하여 활동으로 안내하였다.³³⁾

32) 사전 검사는 Revich와 Shatté(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기초로 김주현(2011)이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KRQ-53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KRQ-53은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검사로, 크게 자기조절능력(18문항), 대인관계능력(18문항), 긍정성(17문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전검사 결과, 예비그룹의 응답자 (N=46)의 기술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그룹의 자기조절능력 평균은 59.3점으로 한국 성인 평균(63.5점)보다 낮았으며, 정서·충동 조절에 취약한 학생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65.9점, 긍정성 평균은 61.9점으로 한국 성인 평균에 근접하였다.

33)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필자는 Trauma Resource Institute의 CRM® 공인 지도자 자격을 획득(2024. 04. 05)하였으며, 해당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도록

〈표 3〉 CRM® 5회기 프로그램

회기/ CRM 단계	주제	수업 목표	핵심 활동	수업 시간
1회기/ 1단계: 탐색하기	신체 감각의 자각과 구분	중립적/편안한 감각과 불 편한 감각을 구별하고, 정 서 상태를 신체적 층위에 서 구분할 수 있다.	- 감각 어휘 훈련 - 편안하거나 중립적인 느낌, 그리고 불쾌한 느 낌의 차이 발견하기	40분
2회기/ 2단계: 접촉하기	신체 접촉을 통한 현재화와 안정화	신체 접촉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며 감각을 통한 자 기조절 능력을 기른다.	- 바닥에 앉기, 눕기, 벽 기대기를 통한 신체 감 각과 접촉하기	40분
3회기/ 3단계: 자원화	행복 자원을 통한 회복탄력성 강화	행복 자원을 탐색하고 감 각과 연결하여 신체적 안 정감 및 회복탄력성을 증 진한다.	- 나의 행복 자원 3가지 탐색하기 - 행복 자원 그림 그리기	40분
4회기/ 4단계: 표현 활동 5단계: 지금 도와줘	제스처와 활동을 통한 감정 조절	자신만의 진정 제스처와 활동을 찾아 감정과 신체 상태를 안정화할 수 있다.	- 자신감/기쁨 제스처 연 습하기 - 지금 도와줘 활동 실습	40분
5회기/ 6단계: 주의전환하 여 머물기	주의전환 기술을 통한 정서 회복	불편한 감각이나 감정에 서 주의를 전환하여 회복 탄력성 영역에 머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 주의 전환 활동 3단계 실습, - 불쾌한 감정 다루기 - 자기돌봄 계획 세우기	40분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①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CRM® 기반 5회기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는 집단상담을 통
해 참가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종료 후 2-4주 이내에 8문항의 개방형 자기보

모든 교육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한다.

고 설문을 수집하여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보완적으로 확보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분석에 반영되었다. 연구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된 면담 자료가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비밀과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익명으로 연구서에 기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도 하차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② 분석 방법

현재까지 회복탄력성 연구는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회복탄력성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으며, 실제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성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쿠투(D. Coutu)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일종의 반사작용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한 개인이 체화한 삶의 방식이다. 대다수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이들 세 가지는 냉철한 현실 직시를 바탕으로 현실 수용, 인생은 스스로 지켜온 가치들에 비추어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범한 임기응변 능력으로 제시한다.³⁴⁾ 어떤 사람들은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어느 누구라도 모든 상황에서 회복탄력적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은 일정한 노력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자기개발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내재화된 태도와 가치관이므로 지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경계가 과각성 상태나 무기력과 저각성 상태를 경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연결감을 체험하는 경험의 특수한 성격 상 질적 분석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으로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Giorgi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Giorgi et al.(2017)에 따르면 현상학의

34) 다이앤 L. 쿠투 외, 『회복탄력성』, 김수미 역, 21세기 북스, 2018. 7~38.

철학적 틀을 심리학적 연구 절차로 변환시켜, 구체적인 참여자의 경험 진술을 심리적 의미 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분석한 후 기술적으로 정리하는 점에서 차별적이다.³⁵⁾ 먼저 참여자들의 모든 진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한다. 이어 연구자의 시각에서 텍스트를 구분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한다. 이후 각 의미 단위를 참여자의 회복탄력성 경험이 구성된 맥락적·상황적 층위에서 구조화하고, 이를 학문적 언어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종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회복탄력성 현상의 본질적 구조로 기술함으로써 분석을 완결한다.

4. 연구 결과

1) 중심 의미와 상황적 구조

참여자들의 자기보고와 집단면담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전환한 결과, 참여자의 진술에서 감정과 인지적 변화가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어구를 분리하면서 중복되거나 경험의 구조 밖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 113개 수준의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도출하였다. 맥락을 제거한 의미 단위간 관계를 상황적 조건과 심리적 과정을 통합한 후 보편적 언어로 재기술하여 중심의미(Central Meaning)로 분류하면 16개로 환원된다. 16가지 중심의미는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하며, 의미화할 수 있는지 참여자들의 개별 경험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맥락을 통합하여 다섯 가지 상황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는 일상적 사건 속에서의 정서 경험,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기 탐구,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로 구조화된다.

35) Giorgi A., Giorgi, B., & Morley,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C. Willig & W. Stainton-Roger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London*, SAGE, 2017, cf.

〈표 4〉 중심 의미와 상황적 구조

중심 의미(의미 단위)	상황적 구조
1. 정서적 불안정과 어려움 - 불편, 소름, 당혹, 힘듦, 제약, 긴장, 서투름, 미숙	일상적 사건 속에서의 정서 경험
2. 시간적 여유에서 얻은 활력 - 잠, 휴식, 씬, 산책, 걷기, 취미, 일상, 자기 시간	
3. 정서적 안도 - 편안, 안정, 안도, 차분함, 평화, 편의	
4. 부정적 감정 - 불안, 불쾌, 짜증, 좌절, 무기력, 억눌림, 당황	
5. 신체 감각으로부터 자기 이해 - 감지, 자각, 둔감, 몰랐음, 차이, 새로움, 신기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6. 신체적 반응을 통한 정서의 객관화 - 진정, 다스림, 조절, 대처 시도, 극복	
7. 지연된 신체 감각 인식 - 발견, 의식, 인지, 반추를 통한 확인, 되돌아봄	
8. 관계적 지지의 경험 - 부모님, 가족, 친구, 동료, 지지, 위로, 격려, 응원, 도움, 보호, 배려, 사랑, 신뢰, 관심, 존재감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9. 관계적 개입과 변화 - 함께, 재회, 대화, 모임, 활동, 공유	
10. 관계 속 자기 존재 - 소속, 연결, 존재, 추억, 사진, 여행	
11. 낮은 자기 효능감 - 자신감, 단단함, 발전, 개선, 성장, 회복, 훈련	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기 탐구
12. 주의전환의 과정 - 음악, 독서, 글쓰기, 선택적 주의, 집중	
13. 심리적 저항과 불편함 - 저항, 한계, 어색함, 낯설, 판단, 비교	
14.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를 허용하기 - 수용, 인정, 허용, 괜찮음, 불완전, 수긍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
15. 존재 의미의 재구성 - 가치, 의미, 기준, 목표, 이유, 필요, 중요성, 방향, 근거, 선택	
16. 무지의 자각에서 존재 긍정으로 - 깨달음, 성찰, 회상, 구별, 물음, 탐구, 의문, 해석, 존재 긍정, 철학적 사유	

① 일상적 사건 속에서의 정서 경험

일상적 사건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정서적 경험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 2는 신체적 불편함과 의지의 관점에서 시험 기간 중 몸이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설명했다.

“주말부터 몸이 아파서 계속 불편했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공부를 이어갔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다. 아픈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지켜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참여자 2의 경험은 신체적 불편함과 의지가 충돌하는 복합 정서 상황에서 정서는 쾌·불쾌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의미화 과정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자 4는 시간적 여유에서 얻은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날 일정 변화를 이야기하며 시간적 여유가 자신에게 주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일 수업이 비어서 두 시간이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대되었다. 평소에는 점심을 빨리 먹고 곧바로 졸음이 쏟아지곤 했는데, 내일은 마음 편히 밥도 먹고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는 기분이 들었다.”

참여자 4의 경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작은 변화가 자율성을 통해 정서적 회복으로 연결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정서적 안도의 관점에서 참여자 1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야기하며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모임을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집에 왔다. 사실은 그래서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후에 친구들이 모임 사진을

계속 보내주었다. 사진을 보면서 ‘내가 빠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쪽 이어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참여자 1의 경험은 소속감을 통해 자기 존재가 정서적으로 재확인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 3은 부정적 감정의 관점에서 수업 중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께 글쓰기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다. 내 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자극해서 ‘더 잘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처음엔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3의 경험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반성적 거리두기를 통해 성장의 계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네 가지 중심 의미에 대한 탐구에서 보여지듯이, 정서 경험은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고 전환되기도 하는 변화를 속성으로 한다.

②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정서는 신체 감각을 통해 감정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며,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행위가 자기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다루기 버거운 감정으로서 긴장이나 불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참여자 1은 신체 감각으로부터 긴장 상황에서 드러난 자신의 신체 반응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긴장하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온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이 긴장이 내 몸에 남기는 신호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다.”

참여자 1의 경험은 구체적 신체 감각을 통해 긴장이라는 정서가 몸에서 먼저 드러나며, 이를 알아차리는 행위가 정서적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신체적 반응을 통한 정서의 객관화 관점에서 참여자 3은 불안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불안이 심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예전에는 단순히 힘들다고만 느꼈는데, 수업 이후에 내가 왜 그런 신체 반응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을 조금 더 차분히 바라보게 되었고,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3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생리적 기반을 인식할 때, 정서가 단순한 주관적 침잠이 아닌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연된 신체 감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자 4는 긴장과 위축된 상태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았다.

“나는 긴장하거나 위축될 때 즉시 그 감각을 알아차리지는 못한다.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야 ‘아, 그때 몸이 그렇게 반응했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4는 긴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각하면서도 지연된 인식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기 수용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신체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의식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객관화하고, 반응을 통제하기보다 수용과 이해를 통한 자기 조절로 나아가게 된다.

③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각 참여자의 경험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탱하고, 회복

하고, 때로는 불안해 하는지 보여준다. 관계적 지지의 경험에 대해 참여자 2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힘들 때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린다. 그때 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떨어져 지내다 보니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 2가 들은 목소리는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온기를 느끼는 감각적 지지의 형태로 보여진다.

관계적 개입과 변화의 관점에서 참여자 3은 친구들과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 친구들이 계속 전화해서 ‘나와라, 같이 밥 먹자’ 하면서 억지로 불러내 주었다. 그때는 사실 귀찮기도 하고 나가기 싫었지만, 막상 나가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풀리고 무기력했던 감정이 사라졌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참여자 3의 경험은 정서적 고립상황에서 친구들의 연락이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의 적극적 개입이 개인의 정서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관계 속 자기 존재의 관점에서 참여자 4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확인을 구한다. ‘정말 네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은연중에 묻는다. 그러다가 그 확인을 받을 때 비로소 ‘아,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그 확인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혹시라도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이 된다.”

참여자 4는 관계적 안정이 자기 존재감의 근거로 작동하면서도 관계적 의존이 존재 불안을 동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관계적 지지와 연결은

개인의 정서적 회복과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감각적·정서적 수단이다. 그 내용이 타자의 목소리, 손길, 인정이던지 모두 ‘나’의 존재가 세계 안에서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매개이다.

④ 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기탐구

정서 회복을 시도하는 실천의 과정 속에서 ‘낯섦’과 ‘저항’ 그리고 ‘자기 돌봄의 시도’가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드러낸다. 낯선 자기 효능감의 측면에서 참여자 2는 주의전환 활동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정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도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꼈다.”

참여자 2는 활동을 통한 자기 효능감을 낯선 방식으로 체험하고 기술적 효과를 넘어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신뢰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주의전환의 과정에서 참여자 1은 색감 주의전환 활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했다.

“무드등의 빛이나 컵받침의 색을 유심히 보니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도 이런 활동 덕분이다.”

참여자 1은 감각적 섬세함을 통해 지각의 깊이를 회복하지만, 이는 그 앞에 펼쳐졌던 상황을 재구성하는 힘으로서 주의전환의 효과를 보여준다.

심리적 저항과 불편함의 관점에서 참여자 3은 감각 활동을 돌아보며 이렇게 진술했다.

“숫자 세기나 물 마시기는 나에게 편안했다. 그런데 감각을 집중해서 느끼는 건 아직은 낯설고 어려웠다.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참여자 4도 불편함을 언급했다.

“감각에 집중하는 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주의 전환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실천의 어려움은 자기 변화의 전조로서, 낯선 감각에 대한 저항과 수용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서 회복 실천은 개별성의 차이를 전제해야 하며, 불편함 또한 자기 탐색의 일부이자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주의전환도 자신에게 맞는 회복의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⑤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

정서적 경험을 마주하는 성찰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반성적 계기로 이어진다. 개인은 불안, 관계, 한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유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를 허용하는 영역에서 참여자 1은 스스로에 대한 강박을 성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불안을 인식하고, 주의 전환을 통해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참여자 1은 완벽해야 한다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성찰의 결과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자유의 토대를 마련한다.

존재 의미의 재구성의 관점에서 참여자 2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늘 곁에 계셨다. 앞으로 내가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평생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진정한 내 편은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다.”

참여자 2는 부모의 현존을 통해 자기 존재의 안정과 연속성을 발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존재의 의미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관계가 사랑과 지지를 담보할 때 자기 존재의 지속성을 보증하는 정서적 근거가 된다.

무지의 자각에서 존재 긍정이라는 관점에서 참여자 4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보여준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 무지한 인간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자기파괴적이고 엄세적인 판단을 내리곤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은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믿는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존재의 유한성과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한다면 존재 긍정의 가장 깊은 형태이자 실존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강박, 지지적 관계, 한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를 의미화된 존재로 전환시키는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 보여준다.

2) 본질적 구조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섯 가지 상황적 구조로서 일상적 사건 속에서의 정서 경험,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기 탐구,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은 회복탄력성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신체적 사건이자 관계적·실존적 차원을 아우르는 맥락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역경을 단순히 극복하는 능력’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³⁶⁾을 넘어, 일상적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총체적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보아야한다.

〈표 5〉 상황적 구조와 본질적 구조

상황적 구조	본질적 구조
일상적 사건 속에서의 정서 경험	몸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관계적 맥락에서의 지지와 연결	관계
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기 탐구	성찰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	

이런 상황적 구조는 정서 경험의 본질로서 ‘몸’, ‘관계’, ‘성찰’의 세 층위에 서 드러나는 자기 회복의 과정을 본질적 구조로 삼는다.

우선, ‘몸’은 정서의 창구로서 개인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지각의 통로가 된다. 참여자들은 불안과 안정이 교차하는 정서적 긴장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역경의 부재가 아니라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균형을 재조율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은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수용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³⁷⁾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라고 표현한 진술은 이러한 역설적 균형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신체 감각은 정서 조절의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불안이 심장 박동, 열감, 땀 등으로 드러난다고 진술했으나, 동시에 벽에 기대기, 사물을 만지기, 넓은 공간에서 울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신체 감각을 회복의 매개로 활용하였다. 이는 최근 회복탄력성 연구에서 강조되는 소마틱 접근과 맞닿아 있으며, 신체 기반 자각 훈련이 정서 조절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³⁸⁾

다음으로, ‘관계’는 회복탄력성의 핵심 조건으로 드러났다. 가족과 친구는 불안과 무기력을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으며,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목소

36)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in Development*, Guilford Press, 2014, 7~8.

37) Southwick & Charney, *Resilience: The Science of Mastering Life's Greatest Challen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8~9.

38) *Ibid.*, 16~17 cf.

리만 들어도 위로가 된다”라거나 “친구들이 억지로 불러내어 무기력에서 벗어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관계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강화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³⁹⁾ 동시에 관계는 불안을 유발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회복탄력성이 단순히 지지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관계적 역동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찰’의 장으로서 5회기 활동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저항이 공존하는 장이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주의전환 활동을 통해 정서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했으나, 다른 참여자들은 감각 집중 활동이 오히려 불편하고 기분을 악화시킨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 개입이 개인별 차이를 수반하며, 일률적 개입이 아니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Bandura(1997)가 주장한 자기 효능감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회복탄력성 개입은 도전의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Ungar(2011)는 개인의 지각된 능력·정서 상태·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회피나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⁴⁰⁾ 참여자들은 경험을 단순히 정서적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성찰로 확장하였다. “항상 관찰이야 한다”라는 강박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과정, 가족을 평생의 지지 기반으로 재발견하는 경험, 인간 존재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시도는 회복탄력성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실존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39) Hopper & Cosco, “What can we learn about resilience from large-scale longitudinal studies?”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Springer, 2023, 93~94; 본 연구는 영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회복탄력성의 과정을 탐구한 대규모 종단 연구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포함한다. 고위험군 아동이 역경을 대처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가족 관계, 지지 체계 등이 확인되고 논의된다.

40)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1997, 79~115 cf: 개입의 역효과(ineffective)와 관련한 논의는 Ungar, “The social ecology of resilience: Addressing contextual and cultural ambiguity of a nascent constru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1), 2011, 13 cf.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참여자의 회복탄력성 습득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첫째, 몸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 감각은 정서의 첫 창구로서 참가자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지각의 통로가 된다. 둘째, 관계를 통한 안정감은 자기 효능감과 돌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셋째,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낯섦과 불편함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성찰로 이어져, 개인이 불안과 한계를 포용하며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내적 성장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소마틱 기반 정서 경험은 신체적·관계적·존재적 충위를 아우르며, 개인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회복하는 통합적 의미 구조로 드러난다. 이는 회복탄력성 실천이 단순히 개인적 자질을 향상하거나 특정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경험 세계를 전인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회복탄력성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RM® 기반 5회기 활동을 적용하여 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팬데믹 기간에 중등교육 과정을 경험한 K대학 여성 재학생 4명을 준거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파일럿 연구로서 연구문제 1과 2에 따라, 소마틱 기반 신경계 안정화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지각한 신체 감각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질적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매 회기 종료 후 집단 상담과 개별 활동 기록,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2-4주 후 개방형 자기보고 설문을 통해 자료로 확보하였다. 분석은 Giorgi(2017)의 절차에 따라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중심 의미와 상황적 구조, 그리고 본질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연구문제 1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CRM® 활동 경험은 일상적 사건 속 정서 경험,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의 상호작용, 관계적 지지와 연결,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자기 탐구, 존재와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이라는 다섯 가지 상황적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단순한 정서 조절이

나 심리적 자질이 아니라, ‘몸’, ‘관계’, ‘성찰’이라는 세 층위에서 나타나는 자기 회복의 본질적 과정임을 드러낸다. 참여자들은 불안과 안정이 교차하는 긴장 속에서 몸을 정서 조절의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가족과 친구 등 관계적 지지는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성찰의 장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저항이 공존하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2인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학기 중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운영상 큰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았다. 수용성의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감각 기반 활동이 일상 활동과 병행 가능한 형태임을 보고하였다. 다만 활동 개시 초기에는 감각 집중 활동이 낯설거나 불편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 향후 신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청된다. 적응 이후에는 신체 감각 주의전환 활동이 불안 감소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는 관계적 지지와 자기 이해가 심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⁴¹⁾ 특히 CRM®의 비치료적 성격과 자기조력 중심의 접근은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소마틱 기반 활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Miller-Karas(2023)가 제시한 소마틱 기반 신경계 안정화 원리와 더불어, 내수용감각(interoception)이 자기조절과 회복탄력성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뒷받침한다.⁴²⁾ 더불어 회복탄력성 개발

41) CRM® 기반 5회기 활동 전후 KRQ-53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회복탄력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활동 전, 팬데믹 시기를 중·고등학교에서 보낸 4인의 대학생은 한국 성인 평균보다 낮은 회복탄력성 지수를 보였다. 자기조절능력은 평균 55.7점으로 사전 설문 그룹(N=46) 전체 평균(59.3점)과 성인 평균(63.5점)보다 낮았다. 대인관계능력(66.2점)은 성인 평균(67.8점)보다 약간 낮았으며, 긍정성(62.8점) 또한 성인 평균(63.4점)에 못 미쳤다. 그러나 활동 후 사후 검사에서는 세 영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은 평균 62.5점으로 6.8점 상승하여 성인 평균에 근접하였고, 대인관계능력은 67.9점으로 성인 평균을 상회하였다. 긍정성 역시 67.9점으로 5.1점 상승하며 성인 평균을 초과하였다. 특히 자기조절능력의 상승 폭은 뚜렷하여, 감정조절력과 원인분석력 등 하위 요인의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42) Farb, Daubenmier, Price, Gard, Kerr, Dunn, Klein, Paulus, & Mehling, “Interoception, contemplative practice, and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6, 763; Sennesh, Theriault, Brooks, van de Meent, Barrett, & Quigley, *Ibid.*, cf.

을 위한 노력이 단순한 정서 조절을 넘어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성찰의 과정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반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간의 활동을 통해 습득한 회복탄력성 기술이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습관화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 피드백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Trauma Resource Institute는 현장의 민원을 수용하여 iChill 앱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CRM®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⁴³⁾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프로그램 과정 중이나 종료 후에도 참여자가 감각 탐색과 자기조절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점검할 수 있는 비대면 상호작용 기반의 후속 지원 모델로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교육 및 상담 현장과 연계할 때, CRM®과 같은 소마틱 기반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보다 관계적 지지를 촉진하는 또래 소통 활동을 함께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자원 연계와 환경 설계를 통해 소속감, 도움 요청, 그리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스트레스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학업 적응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규모(4명)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로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자기 계발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함께, 양적 지표와 질적 분석을 통합한 혼합 방법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3) <https://www.traumaresourceinstitute.com/ichill>

■ 참고문헌

- 곽경화·최인묵, 「마음챙김과 회복탄력성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2025, 187~206면.
- 김영복,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동향: 감정노동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5(2), 2022, 49~67면.
- 김은희·김인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2021, 2183~2196면.
- 김재윤·이소영·박은영·마나·백준상·강민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신입생의 회복탄력성 자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2), 2022, 243~256면.
-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1.
- 김현구, 『사회정서학습과 미래교육』, 씨아이알, 2024.
- 다이앤 L. 쿠투 외, 『회복탄력성』, 김수미 역, 21세기북스, 2018.
- 박경·정미·김순희, 「COVID-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2021, 1316~1374면.
- 박경자·김명찬, 「COVID-19 팬데믹에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 『한국열린교육연구』, 2022, 45~66면.
- 방한승·최우성·나상문·조형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2(2), 2017, 69~91면.
- 손덕순·문영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2011, 48~69면.
- 손주영·박지영·이은경·이은화·최수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233~249면.
- 신지수·이한성, 「공연예술 대학생들의 전공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회복탄력성, 자기자비, 그것의 다층적 매개효과 검증」, 『문화융합콘텐츠헬학회지』, 6(1), 2025, 1~10면.
- 유민희,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국내 연구동향 및 지원방법 고찰: 심리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6), 2023, 351~371면.
- 유지안·조규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

- 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교육과학습』 15(2), 2025, 129~149면.
- 이현숙, 「COVID-19 상황에서 대학교 1·2학년 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21』, 2022, 1557~1572면.
- 조보람·이정민,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019, 1~11면.
- 지명월·이주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2022, 105~120면.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 Connor, K. M., & Davidson, J.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pp. 76~82.
- Duva, J., Murphy, S., & Grabbe, L. (2022). A nurse-led, well-being promotion using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Atlanta, 2020-2021.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2(S3), S271~S274.
- Elharake, J. A., Akbar, F., Malik, A. A., Gilliam, W., & Omer, S. B. (2021). Mental health impact of COVID-19 among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6(2), pp. 161~166.
- Farb, N. A. S., Daubenmier, J., Price, C. J., Gard, T., Kerr, C., Dunn, B. D., Klein, A. C., Paulus, M. P., & Mehling, W. E. (2015). Interception, contemplative practice, and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6, 763.
- Frieden, T. R. (2010). A framework for public health action: The health impact pyrami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4), pp. 590~595.
- Fruehwirth, J. C., Biswas, S., & Perreira, K. M. (2021). The COVID-19 pandemic and mental health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effect of COVID-19 stressors using longitudinal data. *PLoS ONE*, 16(3), e0247999.
- Giorgi, A., Giorgi, B., & Morley, J. (2017).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C. Willig & W. Stainton-Roger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SAGE.

- Goldstein, E.; Keita, M.; Koomson, C.; Tintle, N.; Adlam, K.; Farah, E.; Koenig, M.D. (2025)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Multimodal Wellness Intervention for Perinatal Mental Health. *J. Midwifery Womens Health*, 70(3), pp. 442~451.
- Grabbe, L., Higgins, M. K., Baird, M., Craven, P. A., & San Fratello, S. (2019).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to promote nurse well-being. *Nursing Outlook*, 68(3), pp. 324~336.
- Grabbe, L., Duva, j., & Nicholson. W. (2023).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an interoceptive awareness tool to support population mental wellness. *Global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 and Health*, 12, pp. 1~10.
- Masten, A. S. (2014). *Ordinary magic: Resilience in development*. Guilford Press.
- Miller-Karas, E. (2023). *Building resilience to trauma: The trauma and community resiliency models*. Routledge.
- Neal, A., Donohoe, M., & Gaffney, K. (2024). Improving self-regulation resiliency skill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63(1), pp. 31~38.
- New Hanover County Government. (2018). *Building a culture of resilience after Hurricane Florence: Community report*.
- Nicholson, S., Sapp, M., Miller-Karas, E., Duva, J., & Grabbe, L. (2025). The body can balance the score: Using a somatic self-care intervention to support well-being and promote healing. *Healthcare*, 13(11), 1258.
-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Broadway Books.
- Richardson, G. E. (2002).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pp. 307~321.
- Russell, E. C., Abidogun, T. M., Lindley, L. L., & Griffin, K. W. (2024).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distress, well-being, and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https://doi.org/10.3389/fpubh.2024.1442773>.
- Sennesh, E., Theriault, J., Brooks, D., van de Meent, J.-W., Barrett, L. F., & Quigley, K. S. (2021). Interoception as modeling, allostasis as control. *Biological Psychology*, 167, 108222.

- Southwick, S. M., & Charney, D. S. (2018). Resilience: The science of mastering life's greatest challen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pper, S., & Cosco, T. D. (2023). What can we learn about resilience from large-scale longitudinal studies?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Springer.
- Ungar, M. (2011). The social ecology of resilience: Addressing contextual and cultural ambiguity of a nascent constru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1), pp. 1~17.
- White, L. (2022). Community Resiliency Model treatment manual for Loma Linda University Healthcare. Loma Linda University Electronic Theses, Dissertations & Projects.
- Trauma Resource Institute, (2022), Activity booklet: Community Resiliency Model teacher training (June 29, 2022 ed.). <https://www.traumaresourceinstitute.com>
- World Health Organization. (n.d.).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Deaths.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data.who.int/dashboards/covid19/deaths>

〈부록 1〉 개방형 자기보고 설문

1. 회복탄력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2. 이번 활동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3. 행복자원 활동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지지와 응원, 돌봄에 대한 기억을 회상했을 때 떠오른 감정과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4.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거나 활력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거나 중립적인 감각을 찾아 주의전환하여 머무르는 방법을 배운 소감은 어떤가요? 주의전환하여 머무르는 활동 중에 아직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무엇이 있었나요?
 5. 주의전환하여 머무르는 방법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길러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회복탄력성은 여러분의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어떤 점이 그러한 지 기술해보세요.
 6. 회복탄력성을 지금보다 더 개발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7. 가치판단력이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등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만일 회복탄력성이 높다면 더 나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경험이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한 상황을 기술하십시오.
 8. 회복탄력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 Abstract |

Experiences of Resilience Enhancement using CRM®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 A Giorgi's Phenomenological Pilot Study

Kim, Dohyun

This pilot study introduces the Community Resiliency Model (CRM)®, a somatic-based nervous system stabilization technique for enhancing resilience, to university students at K University in K City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program and to qualitatively explore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 total of four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spent their secondary education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re selected through criterion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group counseling sessions conducted after each session, individual activity logs, and open-ended self-report survey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following the procedure of deriving the participants' central meanings, situational structures, and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silience manifested as a situational structure expanding from sensory-based attention-shifting techniques to emotional experiences in daily events, the interaction between bodily sensations and emotional responses, support and connection within relational contexts, self-exploration amidst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activities, and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existence and meaning. Participants utilized their bodies as resources for emotional regulation amidst the tension where anxiety and stability intersected. Rela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served as a crucial foundation for recovery. Furthermore, in the realm of reflection, experiences of coexisting self-efficacy and resistance were identifi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M®-based resilience activities are not merely about acquiring specific skills but represent a process of self-recovery unfolding across three dimensions: 'Body,' 'Relationship,' and 'Reflection.'

Key Words: Body, Community Resiliency Model (CRM®),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Relationship, Reflection, Resilience, Undergraduate Student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

정성훈**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도시 리질리언스의 네 가지 차원: 사안적, |
| 2. 인천의 도시 문제: 스마트 신도시와
오래된 산업단지 및 그 배후의 주택 단지 |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
4.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 |
-

■ 국문초록

도시 리질리언스(urban resilience)는 쇠퇴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한국의 도시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리질리언스는 효율성과 최적성의 역설을 드러내는 관점이며, 이 관점을 따르면 최적화 기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여분(redundancy)의 영역 혹은 역량을 존중하게 된다. 그런데 리질리언스는 매우 다의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의 한두 가지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들을 무시할 경우 도시 정책은 왜곡되기 쉽다. 본고가 경계하는 것은 리질리언트 도시를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재난 극복 역량을 갖춘 첨단 기술을 도입한 도시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다. 그래서 본고는 이른바 ‘리질리언트-스마트 도시’ 담론이 간과하기 쉬운 지점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느슨한 연임을 허용하는 여분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이어지는 생활도시의 사회문화적 기억이다. 쇠퇴한 산업단지, 재래시장,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이어지는 여분의 기술은 사회문화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223)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적 기억과 함께 전승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 확인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제어 : 리질리언스, 도시연구, 리질리언트-스마트 도시, 생활도시, 여분, 기술, 사회적 기억, 문화

1. 머리말

최근 들어 도시연구에서도 생태학에서 비롯한 개념인 ‘리질리언스(resilience)’가 ‘회복력’, ‘복구력’, ‘탄력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면서 널리 쓰이고 있다.¹⁾ ‘리질리언트 도시(resilient city)’는 예전에 그것과 비슷한 방향의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었던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생태 도시(ecocity)’ 등과 비교할 때 최근의 도시 문제, 특히 많은 곳에서 쇠퇴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한국의 도시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도시론(urbanism)이다. 첫째, 이전의 상태를 안정되게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조건에서 도시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²⁾, 둘째, “세상일은 변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여 느린 변화에 대처한다는 점에서³⁾, 셋째, 성장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속과 보존의 관점에서도 작동하는 효율성과 최적성의 역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⁴⁾, 넷째, 최적화 기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여분(redundancy)⁵⁾의 영역 혹은 역량을 존중하며, 따라서 쇠퇴 지역에

-
- 1) 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번역어도 아직 resilience의 다양한 함의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차하여 쓴다.
 - 2) 이 개념을 생태학에 도입한 선구자인 홀링이 리질리언스 관점을 안정성(stability) 관점과 대비시켜 제시하였듯이, 리질리언스는 어떤 안정 상태나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교란에 노출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Holling, C. S.,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 4, 1973, p.21.
 - 3) 브라이언 워크, 데이비드 솔트, 『리질리언스 사고』, 지오북, 2015, 35면.
 - 4) 위의 책, 31면.
 - 5) 리질리언스 연구에서 redundancy는 ‘대체성’, ‘예비능력’ 등으로 번역되어 왔는데, 이 번역어들은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 즉 잉여, 불필요한 중복

대해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섯째, 자연생태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도 중시하며, 따라서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⁶⁾

그런데 리질리언스는 매우 다의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이다. 그래서 그것의 한두 가지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들을 무시할 경우,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은 왜곡되기 쉽다. 특히 필자가 경계하는 것은 리질리언트 도시를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재난 극복 역량을 갖춘 첨단 기술을 도입한 도시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다. 그래서 본고는 이른바 ‘리질리언트-스마트 도시’⁷⁾ 담론이 간과하기 쉬운 지점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을 허용하는 여분의 기술(redundant technology)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이어지는 도시의 사회문화적 기억이다. 대개의 경우 쇠퇴한 산업단지, 재래시장, 마을공동체 등의 공간을 통해 이어지는 여분의 기술은 이른바 첨단 기술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기억과 함께 전승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과 기억은 뒤에서 살펴볼 도시 리질리언스의 여러 차원들 중에서 시간 차원의 핵심적인 개념들이며, 이 두 가지는 도시의 정체성 확인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고는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이 갖는 의미를 밝힘에 있어서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의 발상과 개념들을 참조한다. 하지만 루만이 사안적, 사회적, 시간적의 세 차원으로 국한했던 의미의 차원들에 공간적 차

등의 느낌을 지워버린다. 필자는 지나치게 부정적이지는 않으면서도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에서 ‘여분’이라는 번역어를 택하고자 한다. 복잡한 체계들에 관한 이론인 루만의 사회이론에서도 redundancy는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그간 루만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과 연구성과들에서는 ‘여분’ 혹은 ‘중복’으로 번역되어 왔다.

- 6) 2000년대 이후 리질리언스 연구에서는 ‘사회적-생태적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혹은 ‘사회적-생태적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리질리언스에 대한 여러 관점과 관련해서는 신진식, 「리질리언스 개념의 정립」, 『리질리언스: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 2022, 39-42면.
- 7) Khatibi, Hamed et al, “The resilient-smart city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and novel frameworks exploration”, Built Environment Project and Asset Management Vol. 11 No. 4, 2021, pp. 493~510.

원을 추가하여 네 차원으로 확장한다든지, 사안적 차원의 비중이 높은 행정 도시와 대비하여 공간적-시간적 차원이 중시되는 생활도시 개념을 활용한다든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루만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도시라는 분절적-공간적 생활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참조하고 변형한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작업은 의미의 공간적 차원, 생활세계와 생활도시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변형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고는 도시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기술과 기억의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글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계기는 한편에는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스마트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근대적 산업단지와 그 배후의 단독주택지역이 남아있는 인천의 도시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본고에는 인천의 여러 장소들이 언급된다. 물론 산업화 이후의 국면에 접어든 한국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에 인천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다른 도시들의 리질리언스와 관련해서도 함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한 본고는 일반화된 진술보다는 지역적 사례들에 기초한 고민을 펼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의 2장에서는 인천의 도시 문제에 대한 단상을 서술하고, 3장 이후에 사례들과 함께 이론적 개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2. 인천의 도시 문제: 스마트 신도시와 오래된 산업단지 및 그 배후의 주택단지

인천광역시 내부의 한편에는 한국의 선구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있으며, 그 밖에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여러 신도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부평, 주안, 가좌동 등지에 오래된 산업단지들이 남아 있으며, 공단 배후의

8) 정성훈, 「생활세계와 생활도시 - 신뢰와 확산의 구별을 통한 인문학적 접근」, 『도시인문학연구』 제16권 1호, 2024; 정성훈, 「공간의 의미 부각과 현대성의 위기」, 『사회와 철학』 제20집, 2010.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오래된 주택단지들이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 빈집 운동, 노년층 서로 돌봄, 공동육아 운동 등 이른바 ‘공동체’, ‘협동’, ‘연결’ 등을 연상시키는 일들은 전자의 지역보다는 후자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운동을 소개하는 발표나 강연에서는 간혹 다음과 같은 반론들이 제기된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성도 의심스러우며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단은 빨리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재개발되어서 다 없어질 동네 아닌가?’, ‘젊은 층이 떠나고 있으니 지속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안정된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에너지 절약과 기후 위기를 고려한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구도심을 고밀도 콤팩트시티 혹은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등등이 그런 반론들이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 지어진 낡은 공장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저층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신도시의 고층아파트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 등등을 고려하면, 위의 반론들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제를 정당화하는 성격도 갖는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재난 위험,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그들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여러 산업단지, 재래시장, 구도심 상가 등에서는 자주 화재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부평공단 배후의 삼산동 영성마을은 재개발이 좌절되어 재개발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단독주택지구이다. 영성마을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운동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⁹⁾ 1998년에 설립되어 부평구 부평3동 마을공동체 운동을 이끌었던 희망세상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결국 동네의 아동 인구가 너무 줄어서 몇 년 전에 폐원하였다.¹⁰⁾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경우 분명히 최신 설비를 갖추고

9) 정성훈, 「인천 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보는 생활도시의 마을자치 - 부평구 영성마을을 중심으로 -」, 『기전문화연구』 45권 1호, 2024.

10) 폐원 이전의 활동에 관해서는 정성훈, 원재연, 남승균, 『협동과 포용의 살림공동체: 이론, 역사, 인천 사례』, 보고서, 2019의 5장 참조.

밀도 높은 주거로 인해 손실이 적은 고밀도 콤팩트시티가 더 높은 것은 분명하다.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교통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시티의 효율은 더욱 높을 것이다.

물론 이런 현실을 수긍하고 마는 태도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경제적인 이유이건, 생활습관 때문이건, 이웃과의 관계 때문이건, 낡은 공장에서 일해야 하고 노후주택단지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맹점이다. 게다가 인천에서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을 내걸고 시작된 많은 사업들이 자금 조달,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로 멈춰버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의 맹점은 송도국제도시,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등 한국에서 스마트시티 혹은 스마트빌리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깃털 훼손, 습지 훼손, 농지와 산림의 소멸 등 엄청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척을 동반하는 이런 초대규모 건설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목이 훼손되고 화석연료가 소비된다. 그래서 과연 고밀도 스마트시티가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단지의 마을공동체 운동에서는 소형 태양광 보급, 햇빛발전협동조합 결성, 품앗이를 통한 주택 단열 보수, 혹서기와 혹한기의 마을회관 공동생활과 식사 등 여러 가지 녹색 실천 운동이 벌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인천에서 초고층 아파트 단지의 전기소비량이 저층 단지의 전기소비량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고밀도 스마트시티의 기후 위기 대응 효과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¹¹⁾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이 두 가지 생활양식 혹은 주거양식 중에서 어느 것이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해 더 나은 것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낡은 산업단지와 오래된 주택단지를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시 리질리언스를 한두 가지 사안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주로 후자의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술과 기억이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1) 이범훈, 장동민, 「초고층과 일반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20, no.3, 285~290면. 이 논문의 저자들도 지적하듯이 초고층 단지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3. 도시 리질리언스의 네 가지 차원: 사안적,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

도시는 복잡한 사회적-생태적 체계이다. 그래서 도시 리질리언스 역시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생태학자 홀링(C. S. Holling)은 리질리언스의 속성을 “체계들의 지속에 대한 측정기준”,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고 개체군들과 상태 변수들 사이의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들의 능력에 대한 측정기준”이라고 규정한다.¹²⁾ 그는 리질리언스 관점과 대비되는 안정성 관점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랜덤 세계(random world)의 사례로 인간의 영향으로 교란이 일어난 거대한 호수를 든다. 그런데 사회, 도시 등은 훨씬 더 복잡한 랜덤 세계이다. 그래서 ‘지속(persistence)’을 위한 동일성(identity)을 설정하는 것부터 어려우며¹³⁾, 개체군을 인간 인구로 잡을지 아니면 다른 생명체들을 포함할지에 따라 측정기준은 바뀐다. 상태 변수들도 경제적 변수를 중심에 둘지 기온이나 토양과 같은 생태적 변수를 중심에 둘지에 따라 측정기준은 바뀐다.

그래서 리질리언스를 도시나 지역사회와 같이 복잡한 체계에 적용할 경우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진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여기서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사안적(sachlich),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복잡한 사회체계의 연구를 위해 루만은 의미(Sinn)를 이것과 다른 것의 차이로 세계가 떠오르는 사안적 차원, 자아 관점과 타아 관점의 차이 등 불일치하는 관점들 사이의 차이로 세계가 떠오르는 사회적 차원, 이전과 이후 혹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로 세계가 떠오르는 시간적 차원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펼쳤다.¹⁴⁾

12) “But there is another property, termed resilience, that is a measure of the persistence of systems and of their ability to absorb change and disturbance and still maintain the same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s or state variables.” Holling, C. S.,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 4, 1973, p.14.

13) ‘인찬’, ‘광주’ 등의 도시는 인구의 교체가 일어날 뿐 아니라 공간 경계도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왔다.

14) Luhmann, N., Soziale Systeme -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Suhrkamp, 1984, pp.112-121.

필자는 루만의 제자 슈티히베(Rudolf Stichweh)가 제기한 네 번째 의미 차원, 즉 가까운/먼 차이 혹은 친숙한/낯선 차이로 떠오르는 공간적 차원을 도시 연구를 위해서는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¹⁵⁾ 루만의 탐구 대상이었던 ‘기능적으로 분화된 세계사회’와 달리 도시는 분절적 분화, 중심/주변 분화 등 오늘날에는 기능적 분화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성격을 갖는 분화 형식들에 준거해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행정적 구분에 의한 도시는 사안적 차원에서 떠오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친숙한 생활세계로부터 떠오르는 도시, 필자가 ‘생활도시life city’로 규정한 도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간적 차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 차원으로서의 확장은 세계사회라는 자기생산적 체계와 그것의 기능체계들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었던 루만의 사회적 체계 이론을 도시, 지역, 공동체 등 공간적 경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그것의 설득력은 본고를 비롯한 구체적 연구성과 자체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1) 사안적 차원

21세기에 들어 도시 담론에서는 기술공학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도시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콤팩트시티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ICT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¹⁶⁾ 그리고 고밀도 스마트시티가 지구 생태계의 복원력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진, 폭우, 화재 등의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첨단 기술도 도입되어 있으므로 리질리언트시티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나온다.¹⁷⁾ 리질리언스를 탄소 배출량 기준,

15) Stichweh, R., “Raum, Region und Stadt in der Systemtheorie”, Die Weltgesellschaft, Suhrkamp, 2000; 정성훈, 「공간의 의미 부각과 현대성의 위기」, 『사회와 철학』 제20집, 2010.

16) 베를린 스마트시티 구상을 통해 건설된 ‘아들러스호프’와 ‘유렘캠퍼스’가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며 전류, 난방 등의 흐름을 제어하는지에 관해서는 김화임, 「베를린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20권 3호, 2019, 358~362면.

17) Shiyao Zhu, Dezhi Li, Haibo Feng, Tiantian Gu, Kasun Hewage, Rehan Sadiq,

그리고 재난 예방과 그에 대한 대응 능력 기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이해한다면, 즉 사안(Sache)을 두 가지로 좁힌다면, 이런 주장들은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 리질리언스에는 도시 주민의 심리적 리질리언스, 도시 경제의 리질리언스, 커뮤니티의 문화적·상징적 리질리언스 등 훨씬 더 많은 사안들이 포괄된다. 예를 들어,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재난 시기에 물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비물리적 연결망을 통해 정서적, 문화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도시 문화는 새로운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첨단 신도시보다는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¹⁸⁾ 그리고 인천에서는 화재 위험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를 신축 쇼핑몰로 재개발한 동네에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쇠락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나듯이, 사안적 차원에서는 복수의 리질리언스가 서로 모순되곤 한다. 이런 모순은 리질리언스가 퍼지(fuzzy) 개념, 즉 모호하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다. 그런데 사실 리질리언스 이외에도 이른바 생태적 관점을 갖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이런 모순을 품고 있다. 지속가능성도 무엇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서로 모순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쿠자누스의 표현처럼 ‘아는 무지(docta ignorantia)’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생태 시스템 전체를 관찰하는 관점, 더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관점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모순은 제거될 수 없으며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되지만, 시간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

“Smart city and resilient city: Differences and connections”, WIREs Volume10, Issue6, 2020. <https://doi.org/10.1002/widm.1388>.

18) COVID-19 시기 어린이집이 휴원되었던 시기에 부모와 이웃의 협동으로 북카페, 마을도서관 등의 공간을 이용해 품앗이 돌봄을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서울 마포구, 경기 용인시 수지, 원주 등의 사례에 관해서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COVID-19 시기 어린이집 대응지침의 한계와 감염병 재난기 돌봄공동체를 통한 아이돌봄 정책」, 『도시공동체 정책보고서』 제3권, 2022, 19~67면.

2) 사회적 차원

사안적 모순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것과 저 것의 모순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 입장과 저 입장의 갈등으로 첨예화된다. 루만에 따르면, 리스크(risk, Risiko)와 피해(danger, Gefahr)의 차이는 객관적인 사안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모험적 사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장에 주거지나 생업공간으로부터 쫓겨나는 해로운 사안이 된다. 대개의 경우에는 전자가 도시에서 권력 우위를 갖고 있는 자들, 결정하는 자들이며, 후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자, 즉 당사자들이다.¹⁹⁾

기술공학자들과 도시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 신도시를 위한 재개발 사업은 리질리언스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사안이다. 반면에 갯벌을 잃게 되는 어민들이나 재래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인들은 스스로는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위험한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생활과 생계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의 선택은 어느 쪽이든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선택이 아니다. 리스크와 피해의 차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대칭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술이다. 공학, 경제학, 행정의 전문가들은 과학적, 기술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스마트 신도시가 생태 리질리언스에 기여할 뿐 아니라 떠나게 되는 주민들의 복지에도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할 것이다. 간혹 대항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체적인 경향은 도시라는 체계가 더 많은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는 더 많은 토론이나 제도적 민주주의를 통해 막을 수 있거나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개연적 변이들에 대한 다수의 선택들의 연쇄가 기술이라는 진화적 성취를 굳건하게 하고 그런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처럼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0-80년대에 매우 비개연적이고 인

19) ‘결정하는 자(Entscheider)’와 ‘당사자(Betroffene)’라는 관점(Perspektive)의 구별에 관해서는 Luhmann, N.,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p.116.

공적인 주거 환경으로 보였던 3층 혹은 5층의 아파트는 지금 초고층 스마트 주상복합 건물들 틈에서 마치 자연스러운 주거환경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기술 지배’ 등의 담론을 구사하면서 인간과 기술을 구별하는 휴머니즘적 기술철학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기술과 자연의 구별, 기술과 인간의 구별, 기술과 공동체의 구별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²⁰⁾ 인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체는 거의 없으며, 인간은 기술과 연결되어서만 살 수 있고, 공동체는 기술 덕분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성마을을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의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낡은 경로당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마을회관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검증된 기술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리고 여러 기술적 장치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이다.

3) 시간적 차원

리질리언스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차원의 개념이다. 리질리언스를 위해서는 미래의 재난을 예측해야 하며, 재난 이후의 회복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복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는 쇠퇴하거나 재생하기 마련이다. 그 사이에 인구의 상당수는 교체되며, 공동체들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난다. 리질리언스는 어떤 안정 상태나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교란에 노출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리질리언스를 어떤 달성 가능한 목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설정하고, 리질리언스를 이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회적 생태적 체계(social ecological systems: SES)’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체계와 자연생태계는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들의 집단 능력에 따라 교란 이후의 시스템을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만들어

20) 기술철학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아카넷, 2020 참조.

놓을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시켜놓을 수 있는 창발성도 발견된다.”²¹⁾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자연생태계 또한 교란 이후의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는 교란 이후의 자연생태계 리질리언스에 기술적 개입이 중요하며 기술은 결국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리질리언스 논의에서는 진화이론이 다양성, 적응, 안정 등의 몇몇 지표들을 중심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체계의 진화를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변이, (매체를 통한) 선택, (체계의 자기조직을 통한) 재안정화의 세 단계로 파악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체계의 재안정화가 곧 바로 변이를 유발한다는 루만의 신다윈주의적 진화이론²²⁾을 리질리언스 연구에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도시 혹은 지역사회는 작동상 닫혀 있는 자기생산적 체계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자체와는 달리 그 자체를 진화의 단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한 도시가 세계사회와는 독자적으로 진화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 하나의 도시를 동일성(identity)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억에 기초한 도시문화 개념, 그리고 공간적 차원에서의 생활도시 개념에 기초하면, 도시의 시공간적 동일성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볼 기술 개념 자체는 세계사회 차원에서의 진화적 성취이지만 ‘여분의 기술’은 도시문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고유의 진화적 성취로 관찰될 수 있다.

4) 공간적 차원

도시 리질리언스 논의에 있어서 곤란한 지점 중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 문제이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세계사회 속에서 지리적 행정구역을 경계로 한

21) 박진희,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9, 2015, 102~103면.

22) 루만의 신다윈주의 진화이론은 『사회의 사회』의 3장 전체에 걸쳐 논의되는데, 세 단계에 관해 정리된 서술은 Luhmann, 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Suhrkamp, 1997, p.454~455.

행정도시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 특히 인천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에서 시민들의 삶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도시의 리질리언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 경계 대신에 의미의 상징적인 공간 차원에서 떠오르는 지평 개념을 도입하면 도시 리질리언스 논의는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돌봄과 살림의 생활세계라는 지평에서 떠오르기 마련인 친숙함과 낯섬의 차이, 신뢰와 확신의 차이를 도입하면 친숙하며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생활도시’가 떠오른다. 생활도시는 그 지리적 경계 혹은 사태적 경계는 불명확하지만 돌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운동, 주민자치 운동 등을 통해 실천적 삶의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부각된다.

생활도시는 사회적 기억과 기대를 공유하는 문화적 단위로 관찰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라는 행정단위는 더 이상 개항도시, 산업도시 등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며 그렇다고 국제도시, 스마트도시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도 아니다. 그에 반해 서로 돌봄과 마을축제를 통해 형성되는 생활도시는 재난의 기억, 회복의 기억 등을 공유하며 계속 이어질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피난로가 없는 호프집에서 불이 나 인근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사망한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는 한때 많은 이들이 잊고 싶어했던 기억이었지만, 최근에는 재난 기억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에 인천 구도심에서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화재 장소 근처의 인천학생문화회관의 추모전시를 찾아오고 친구들과 재회하는 등 구도심의 문화적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축제(마츠리)처럼 수많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축제 기간에 맞추어 돌아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렇듯 친숙한/낯섬의 구별을 이용한 생활도시의 공간적 경계는 기억과 기대를 통해 도시의 시공간적 동일성을 확인해줄 수 있게 한다.

4.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

1) 사회의 진화이론에서 기술과 문화

루만은 그의 사회이론을 의미의 세 차원에 따라 분화이론(사안적), 매체이론(사회적), 진화이론(시간적)으로 펼쳐나가며, 기술(Technik)과 문화(Kultur)를 진화이론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다음 절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이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루만은 기술을 사회적 체계의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의 자기생산에서 ‘진화적 성취(evolutionäre Errungenschaften)’의 하나로 간주한다. 진화적 성취란 진화의 결과로 “기능적 등가물에 비해 뚜렷한 우월성을 갖는 구조적 배열”²³⁾이며, 미리 주어진 조건 연관들과 격리되어 “증가하는 복잡성 조건 하에서의 유효성을 입증”²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기체의 눈, 사회의 화폐 등이 속한다. 루만은 진화적 성취 중에서 기술을 “기능하는 단순화”²⁵⁾, 다른 배열들에 비해 “팽팽한 엮임(strict coupling)”²⁶⁾으로 규정하며, 기술 장치(Technologie)는 인공적 객체들을 이용해 합의를 절감하는(save consensus) 기능을 갖는다고 말한다.²⁷⁾

기술이 복잡성을 감축하는 팽팽한 엮임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들의 변이를 비롯한 진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근대적 기술의 대표 사례인 인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쇄는 한편으로는 예전의 필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합의를 절감하고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텍스트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변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독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폭발적 증가를 낳았으며, ‘비판’이라는 변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격리된 구조적 배열을 통해 합의를 절감하도록 팽팽하게 엮여 있다고 해서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나 결정을 비롯한 인간의 개입들을 아예 가

23) Luhmann, 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Suhrkamp, 1997, p.506.

24) 위의 책, p.517.

25) 위의 책, p.524.

26) 위의 책, p.525.

27) 위의 책, p.518.

로막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 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는 특정 지점에 효과적으로 결정의 필요, 감시의 필요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루만은 팽팽한 엮임의 사이사이에 어떻게 결정의 필요를 집어넣는지가, 즉 느슨한 엮임(loose coupling)을 배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²⁸⁾ 그는 유기체의 안정성은 팽팽한 엮임의 회피를 전제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팽팽한 엮임과 느슨한 엮임이 적절히 배치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최근의 스마트 ICT 기술들 중에는 인간의 감시도 결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향, 즉 느슨한 엮임을 거의 배제해버리는 효과를 갖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루만의 기술 개념을 도시 리질리언스에 적용해 구체화하는 서술은 여분의 기술을 다룰 다음 절에서 하겠다.

루만은 문화를 “사회가 자신의 기억을 가리키기 위해 발명”된 개념이자, 복잡한 사회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선별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한다.²⁹⁾ 그리고 문화는 같음과 다름을 비교하는 형식³⁰⁾이기도 하다. 근대 사회에서 문화는 많은 경우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지역 등에서 상이한 사회적 기억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였다. 본고는 생활도시에 주목하며 이 친숙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과 문화의 엮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므로, 문화 개념을 다른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억’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2) 기술적 혁신의 역설

도시에서 기술적 혁신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변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새로 생기면 버스 탑승을 거부하게 되고 이것은 버스회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버스가 다니는 경로에 있던 직장이나 학원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혁신을 주는 변이는 다른 변이들과 달리 대개 긍정적 선택(positive selection)으로 이어진다. 그에 반해 검증된 기술적 장치에 대한 혁신 없이 이루어지는 변이들, 예를 들어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 기존

28) 위의 책, p.525~527.

29) 위의 책, p.587~588.

30) 위의 책, p.590~591.

직장을 거부하겠다는 변이는 부정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다른 도시에서 검증된 기술적 장치로 인한 변이는 곧바로 확신을 주면서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택들은 도시사회 체계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재안정화 과정으로 이어진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과 주거지역이 점차 재편된다. 그리고 루만에 따르면, 부정적 선택도 체계의 자기조직화에, 즉 재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도시에 적용해보자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서 폐쇄된 교통 인프라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모든 기술적 혁신이 이러한 변이-선택-재안정화의 단계로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기술학이 보여주듯이³¹⁾, 기술적 혁신 중에는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거부된다. 앞바퀴가 더 큰 자전거는 더 빨리 달릴 수 있음에도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경험적인 공포로 인해 선택되지 못했던 사례는 기술사회학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우 이용객이 없어서 폐쇄되었던 영종도의 자기부상열차나 최근 서울의 한강버스를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부를 ‘기술 민주주의’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사회적 구성’의 일부일 뿐이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은 개인들의 의지나 입장 혹은 상호주관성 같은 것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프로세스이다. 터널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도 터널이 뚫린 후에는 대부분 그 터널을 통해 이동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습지 파괴와 인공적 환경을 비난하던 여러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고려해 결국 그곳의 집을 구매한다. 그 밖에도 개인들의 의지, 견해 등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선택들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안정화가 다시 변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리질리언스는 약화될 수 있다. 팽팽하게 엮인 기술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제약이 심화된다면, 새로운 변이와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멈출 수 있다. 예전의 기술이 안착시킨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창조성을

31)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아카넷, 2020, 113면 이하. 이 책 3장 ‘경험으로의 전환’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없다면, 즉 새로운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될 빈 틈이 없다면, 따라서 느슨한 커플링의 여지가 없다면, 쇠퇴가 시작되며 재난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 신기술이지만 미래에 낡은 기술이 되어버릴 인프라를 너무 팽팽하게 짜 놓게 되면, 진화의 잠재력은 고갈되어 버린다. 빈 틈 없는 공간에서는 점진적 혁신이 일어날 수 없고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파국만이 가능하다.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초대형 재난이 대자본에게 축복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³²⁾

3) 여분의 기술과 여분의 공간

리질리언스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술과 여분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분의 기술(redundant technology)’의 기본적인 뜻은 ‘당장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도 첨단 기술에 비해 그리 효율성이 높지 않은 기술’, ‘첨단 기술과 중복되는 기능을 갖는 기술’이다. 그래서 여분의 기술은 최적화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 대형 건설사의 효율적인 최신 공법에 비교해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는 기술은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일 뿐 아니라 재난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여분은 매우 긴요한 ‘대체성’ 혹은 ‘예비능력’이 될 수 있다. redundancy를 긍정적 함의를 갖는 “대체성/예비능력”으로 번역하는 서지영은 그것을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분산된 인프라 네트워크, 분산된 자원 네트워크 등)”, “중요자원 및 인프라 공급을 위한 물리적 자원 및 인력의 여분을 마련·공간, 기능의 다양성 추구”³³⁾로 규정한다.

여분의 기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와 배열이 재난기에 발휘하는 예비능력은 이미 COVID-19 시기에 많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다. 한국이 그나마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은 것은 마스크를

32) 사실 매우 땅값이 높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지역에서는 재난이 대자본의 축복이 되기도 했다. 쓰나미로 쓸려나갔던 태국의 푸켓, 카오락 등이 그런 경우이다.

33) 서지영,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STEPI Insight』 제14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11~12면.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는 도시의 오래된 산업단지는 그 역사만큼이나 잘 검증된 기술, 재난기에도 분산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분의 기술을 품고 있다.

여분의 기술은 여분의 공간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공장만이 아니라 상가나 마을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부터 차이나 타운에서 신포동을 거쳐 동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길, 흔히 ‘개항로’라 불리는 인천의 일부 구도심 지역은 이른바 ‘레트로 성지’로 부각되고 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카페, 음식점, 양조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구옥 보수 기술자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성마을의 마을회관, 마더센터 등의 여러 공간들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부업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돈을 모아 마련한 마을회관의 새로운 주방시설, 마더센터의 전기 도자기 가마 등은 주민들의 서로 돌봄과 부업을 위한 주요한 기술 장치들이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새로운 설비를 위한 합의가 쉽지 않은 아파트 내부의 공용공간과 달리 저층 주택지역은 공간을 개조해 쓸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들 사이에 단독주택지구를 배치한 1980년대에 건설된 수도권 도시들은 그 이후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이어지는 신도시들에 비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비교적 쉽게 확보한다.

대도시 기초단체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인천 미추홀구의 빈집들 중에는 청년들의 주택 리모델링 기술 교육장으로 쓰이는 집, 버섯 재배장으로 쓰이는 집도 있다. 이 집들은 소유주가 사용을 허락한 예외적인 경우인데, 앞으로 빈집 관련 법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빈집을 마을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어쨌거나 낡은 주택단지의 틈새 공간들은 그것이 활용될 수만 있다면 여분의 기술의 전승과 이 전승을 통한 혁신의 매체가 될 수 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재개발과 끊임없는 신도시 건설은 한국에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 추세를 막기는 쉽지 않다. 신도시에 도입될 기술의 효율성은 대체로 기존 기술보다 높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신기술은 수십

년 뒤의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빈 공간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여분의 기술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거대한 면적을 갈아엎는 일괄적인 재개발, 빈틈없이 팽팽하게 엮어버리는 기술의 도입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신도시의 획일화는 오래되어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재난 시기에 유용한 기술과 인프라가 유실되도록 만든다. 목공, 벽돌 건축, 지하수 개발 등의 오래된 기술은 긴급 복구와 임시 주거지 조성에 중요하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이런 기술 인력의 재생산이 멈추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마트 신도시를 위한 첨단 ICT 기술에도 여분이나 느슨한 역할을 섞어 넣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여분의 기술과 사회문화적 기억을 통한 생활도시의 정체성과 리질리언스

도시 리질리언스에 대한 측정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측정기준은 비교적 수량화하기 쉬운 생태환경 리질리언스와 도시 경제 리질리언스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 경제 리질리언스는 재난 이후 경제적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도시 경제는 그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처럼 지역 금융이 사실상 소멸된 나라에서는 외부 요인이 너무 크다. 내발적 회복력을 논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경제 영역 외에서도 도시 혹은 커뮤니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문학은 도시 혹은 지역사회에 대해 하나의 정체성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관점은 상징을 통한 ‘기억’과 ‘기대’의 정체성, 즉 시간적 차원에서의 동일성이다. 재난 이후 혹은 쇠퇴 이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혹은 부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위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는 역사적으로 변하며, 그것이 공동체 의식 혹은 공동체 감정과는 무관한 경우도 많다.

지진 등 대형 재난을 겪는 일이 많은 일본의 커뮤니티는 마을 축제라 할 수 있는 ‘마츠리’를 통해 마을이 회복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교토의 기온마츠리처럼 거대도시 차원에서 도시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

본의 대표적인 리질리언스 연구기관인 간세이가쿠인대학교 재해부흥연구소는 리질리언스를 공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의 경우 광장에서 열리는 주말시장, 겨울의 크리스마스마켓 등의 재활성화 정도를 도시 리질리언스의 확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도시와 지역사회에는 주민 참여에 기초한 이러한 문화적 상징이 약한 편이다. 기억으로부터 기대가 이어지게 할 지표가 애매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도시 주민들에게는 오래된 시장, 대형서점, 백화점, 학교 등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운영되는지가 기억의 매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징은 세대별로, 성향별로 상이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행정도시 차원에서 위로부터 대규모 축제를 열거나 대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 정체성 형성이나 리질리언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행사나 건축은 보통 그 도시의 삶과 무관한 외주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생활도시의 차원에서 여분의 기술을 전승하고 활용하는 공동체 형성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문화적 기억이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도시 리질리언스의 측정기준 중 하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의 여러 도시가 목공, 종이 등의 기술을 매개로 전통적 중심지를 유지하고 축제를 열 듯이, 인천과 같이 산업도시의 유산을 가진 도시들은 산업단지와 구도심을 통해 전승된 여분의 기술을 매개로 사회문화적 기억을 위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까지 담을 수는 없지만, 생활도시 속에서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화임, 「베를린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20권 3호, 2019, 349~369면.
- 박진희,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9, 2015, 91~118면.
- 브라이언 워크, 데이비드 솔트, 『리질리언스 사고』, 지오북, 2015.
- 서지영,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STEPI Insight』 제14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1~24면.
-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아카넷, 2020.
- 신진식, 「리질리언스 개념의 정립」, 『리질리언스: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 2022.
- 이범훈, 장동민, 「초고층과 일반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20, no.3, 285~290면.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COVID-19 시기 어린이집 대응지침의 한계와 감염병 재난기 돌봄공동체를 통한 아이돌봄 정책」, 『도시공동체 정책보고서』 제3권, 2022.
- 정성훈, 「공간의 의미 부각과 현대성의 위기」, 『사회와 철학』 제20집, 2010, 239~258면.
- _____, 「생활세계와 생활도시 - 신뢰와 확신의 구별을 통한 인문학적 접근」, 『도시인문학연구』 제16권 1호, 2024, 201~226면.
- _____, 「인천 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보는 생활도시의 마을자치 - 부평구 영성마을을 중심으로 -」, 『기전문화연구』 45권 1호, 2024, 77~94면.
- _____, 원재연, 남승균, 『협동과 포용의 살림공동체: 이론, 역사, 인천 사례』, 보고서, 2019.
- Holling, C. S.,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 4, 1973.
- Khatibi, Hamed et al, “The resilient-smart city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and novel frameworks exploration”, Built Environment Project and Asset Management Vol. 11 No. 4, 2021, pp. 493~510.
- Luhmann, N., Soziale Systeme -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Suhrkamp, 1984.

_____,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_____,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Suhrkamp, 1997.

Shiyao Zhu, Dezhi Li, Haibo Feng, Tiantian Gu, Kasun Hewage, Rehan Sadiq,
“Smart city and resilient city: Differences and connections”, WIREs
Volume10, Issue6, 2020.

Stichweh, R., “Raum, Region und Stadt in der Systemtheorie”, Die Weltgesellschaft,
Suhrkamp, 2000.

| Abstract |

Redundant Technology and Socio-cultural Memory for Urban Resilience

Jung, Sunghoon

In urban studies, resilience is an appropriate concept for addressing the problems of Korean cities where signs of decline and crisis are emerging. Urban resilience is particularly correct because it reveals the paradox of efficiency and optimality, respecting the realm or capacity of redundancy that is unnecessary under optimization criteria. Emphasizing only one or two aspects of resilience while ignoring others can easily distort urban resilience policies. This paper cautions against the tendency to equate resilient cities solely with those equipp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to address climate crises and overcome disasters. Therefore, this paper addresses two points often overlooked in the so-called 'resilient-smart city' discourse. One is what can be termed 'redundancy' that allows for loose coupling of technology, and the other is the socio-cultural memory of life city. The redundant technology inherited through industrial complexes, traditional markets, and urban communities is connected with socio-cultural memory. These two element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e city's cultural identity.

Key Words: resilience, urban studies, resilient-smart city, life city, redundancy, technology, social memory, culture

회복탄력성을 위한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

조은상**

목 차

- | | |
|-----------------|--------------------|
| 1. 서론 | 4. 회복탄력성을 위한 서사 전략 |
| 2.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 | 5. 결론을 대신하여 |
| 3. 서사여야 하는 이유 | |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회복하는 힘이 있는 마음으로의 변화에 마땅히 서사가 활용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회복탄력성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회복탄력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서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서사는 어떤 형태이고 문학치료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사 전략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복탄력성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 경험에서 형성된 심리구조를 기반으로 발휘되는 심리기능이다. 기존 심리상담의 접근과 뇌 과학의 연구를 회복탄력성의 심리구조는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감의 반복적 체험을 통한 뇌 신경망의 재-회로화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심리상담을 통한 뇌 신경망 재-회로화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적,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래된 뇌 훈련법인 ‘서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심리구조, 곧 건강한 마음은 ‘영웅 서사 구조’를 선호하고 이를 반복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뇌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문학치료에서는 영웅

* 이 논문은 2023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논문은 2025년 12월 5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로리질리언스 사업단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고견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jo47102@konkuk.ac.kr)

서사 구조의 문학텍스트에 몰입하며 체험하고 서사 구성을 연습하며 성찰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영웅 서사에 익숙한 뇌로 재-회로화하고자 한다. 결국 개인이 영웅 서사 구조로 자기 삶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이야기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 치료의 개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지만 이러한 노력은 개인과 공동체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수 있다.

주제어: 회복탄력성, 문학치료, 자기이야기, 뇌 재-회로화, 서사 이동, 영웅 서사 구조

1. 서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 테일러(Daniel Taylor)의 문장으로 논문을 시작한 적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Taylor, 2011:88)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개인의 이야기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문학치료가 하고자 하는 바(조은상, 2020:47)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 지금 그때의 이 문장만큼 정확히 회복탄력성에 대한 서사의 필요성과 문학치료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서사의 힘은 때로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다. 세계는 힘없는 작은 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민진의 〈파친코〉나 김은숙의 〈미스터 션샤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작은 나라 한국의 근현대사에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관심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이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킨 것은 결국 소설과 드라마의 ‘서사’였다. 한국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낸 것은 특수한 것을 보편에 엮어내는 능력 때문이었다. 누구나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서사 구조에 낯설고 독특한 문화가 조화롭게 결합한 것이다.

서사의 힘, 스토리텔링의 힘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를 유혹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사가 선택된다. 사람들은 이미 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교육에서도 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에조차 ‘이야기 수학’, ‘이야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사와의 결합을 시도했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의 힘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은 어떠한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이 회복탄력성이라면 이러한 힘을 가진 마음으로서의 변화에 서사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회복하는 힘이 없는 마음에서 힘이 있는 마음으로서의 변화에 마땅히 서사가 활용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회복탄력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심리상담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서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다음 회복탄력성을 위한 서사는 무엇이고 그 서사가 취하고 있는 서사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

회복탄력성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발견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심리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리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그들의 회고적 기억을 통해서 양육 환경의 영향과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이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회고적 기억을 통해서 따뜻한 관계나 돌봄의 결핍 등 열악한 양육 환경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고적 기억을 통한 추론일 뿐이고 결핍된 양육환경이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카우아이 연구는 결핍된 양육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출생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1세, 2세, 10세, 18세, 32세, 40세)마다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이다(Werner & Smith, 1982; 1992; 2001).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출생하여 성장했고 출생 전후 합병증, 만성적인 가족 갈등, 이혼, 부모의 정신병리 문제를 겪었으며 학력이 낮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위험요인 네 가지 이상을 2세 이전에 경험한 아동의 3분의 2는 10세 무렵 학습이나 행동 문제를 보이거나 18세 무렵 비행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했던 것은 똑같이 결핍된 양육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별 다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 3분의 1이었다. 그동안의 연구들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모두 문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연구 결과는 의외였다. 열악한 초기 환경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게 했고 연구팀은 이를 ‘회복탄력성’으로 칭했다.

그리고 똑같이 열악한 초기 환경에서 성장했으면서도 3분의 1의 사람들을 적응적인 삶으로 이끄는 보호 요인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 두 번째는 가족 내의 관계,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였다(Werner, 2005:12)¹⁾. “이들은 가족 내에서 유능하고 안정된 인물과의 긴밀한 유대를 형성할 기회를 가졌는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형제, 친척이 이 역할을 대신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른이나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었고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교사, 이웃, 멘토, 연인의 부모, 지도자, 목회자, 교회 구성원은 역할모델이 되

1) 물론 이 연구에서 양육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질, 다루기 쉬우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향, 언어와 운동 발달 및 자조기술의 발달이 또래보다 빠르다는 점 등의 개인 내적 보호 요인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개인 내적 보호 요인은 기질과 같은 선천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어서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외의 보호 요인으로 ‘인간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었다.”(Werner, 2005:12).

이 연구는 결핍된 초기 양육 환경이 이후 부정적 발달과 문제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열악한 초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회고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적응적 발달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물과의 긴밀한 유대 경험’(Werner, 2005:12)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어진다면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된 대상과의 긴밀한 유대의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심리학에서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모형,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에 안정된 대상과 긴밀한 유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와 세상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며 안전한 곳으로 보게 하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거부적이고 냉담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와 세상을 보는 틀이 되어 다른 상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세상은 위협적이고 거부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이론에 따라 개념이 의미하는 범주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심리학의 ‘생활 양식’²⁾, 애착 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³⁾ 인지치료의 ‘인지 도식(cognitive schema)’⁴⁾

-
- 2) 아들러는 유전과 초기 양육 경험에 의해 지니게 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서 ‘기본적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면 변화가 어렵지만 아동의 창조적인 힘은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갈 수 있다(Adler, 1969)고 본다.
 - 3) 유아가 민감하면서도 반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성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부모가 보여주는 반응은 애착유형을 발달시키며 그것이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각 개인의 느낌, 사고, 기대 등을 좌우한다 (Bretherton, 1992).
 - 4) 인지치료에서는 생물학과 유전적 경향, 인생 경험, 지식과 학습의 축적을 포함한 많은 요인이 역기능적 인지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왜곡된 인지는 어린 시절에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핵심 믿음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도식은 핵심 믿음을 둘러싼 ‘정보를 조직화하는 가설화된 마음속의 인지 구조’(Beck, 2011:33)로, ‘개인

등의 개념은 초기 경험에서 만들어지고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경험과 인식을 그 틀로 제한하게 되는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이것은 뇌 과학 연구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아기의 뇌는 가소성이 높아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경험, 학습을 통해 신경 모형을 구축하는데 나이가 들면 가소성이 줄어들어 변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모형이 형성되고 나면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역전되어 뇌에 형성된 내부 구조에 맞춰 외부 세계를 인식하며 이미 형성된 구조에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심하려고 한다(Storr, 2020:115-116). 초기 경험에 의해 뇌의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틀로 세계를 보고 경험을 해석하며 자기와 타인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관계 경험은 이후 삶에서 관계 맺는 방식만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세계와 미래에 대한 인식 등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기의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감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적응적 삶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보울비(Bowlby, 2009)의 애착이론에서는 ‘안정 애착’, 에릭슨(Erikson, 2014)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기본적 신뢰감’, 코헛(Kohut, 1999)의 자기 심리학에서는 ‘응집적 자기’ 등으로 초점을 달리하여 개념화하고 있다.⁵⁾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초기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구조, 또는 심리적 기능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초기 경험으로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 대상과의 긴밀한 유대의 경험이다. 바로 회복탄력성을 보인 3분의 1의 참여자들이 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카

이 자기 자신, 그들의 세계, 그리고 타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믿음들’이라고 하면서 건강한 성격은 안정적이고 적응적이며 상대주의적인 핵심 신념을 지니고 성격장애 환자들은 극단적이고 부정적이며 경직된 신념을 갖는다(Beck, 1996:168)고 하였다.

- 5) 안정 애착은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반응적인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감을 느끼고 탐색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성인기의 안정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 신뢰감은 양육자가 일관된 애정과 욕구의 만족을 제공할 때 아이가 자기와 세상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응집적 자기는 초기 양육자의 공감적 반응과 최적의 좌절을 통해 견고하게 형성된 심리구조로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아이 연구는 ‘안정적 대상과의 긴밀한 유대 경험’이 반드시 부모에 의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심리구조가 다른 환경적 결핍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 조건임을 증명한 셈이다. 회복탄력성은 난관을 극복하는 힘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안정되고 신뢰할만한 초기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구조를 전제로 가능한 심리기능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⁶⁾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관계 경험은 심리 내 적 조직자로서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은 안정적 대상과의 수용적인 관계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하는 ‘안정 애착’, ‘기본적 신뢰감’, ‘응집적 자기’, 또는 긍정적 반응하게 하는 신경 모형과 같은 것으로서, 적응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형성해야 하는 기초적 심리구조 아래서 발휘될 수 있는 정신적 힘이다. 회복탄력성이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내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을 의미한다”(Luthar, 2003)고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초기의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관계 경험에서 비롯되는 뇌의 신경 회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을 위해서는 초기에 안정적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초기에 형성된 신경 모형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뇌의 가소성을 설명했듯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복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심리구조를 만드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인지적인 알아차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 타기 처럼 일단 습득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과 같다.

반복적 훈련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만 하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 하

6) 초기 관계 경험이 회복탄력성의 발현과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은 실험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자이탄력성 역시 유아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Becker, 1964; Brooks, 2005).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유아의 자율성을 수용하며 격려할수록 자이탄력성이 높았고 (S.H. Kim, 2005; Lee & Mun, 2011; Jo, 2012) 반대로 강압적 체벌이나 방임은 유아의 자이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H. Kim, 2005; S.K. Lee & Mun, 2011).

는데 이것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기능하므로 의지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뇌에 형성된 인식의 틀은 암묵적 지식의 문제이다. 이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려면 뉴런의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이어주는 시냅스 부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일정한 형태로 ‘자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효과를 보려면 보통 수 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해야 한다(김주환, 2019:84-87). ‘뇌를 재·회로화(rewiring)시키는 일이며 뇌의 반응 기제를 바꾸는 일’인 것이다.

심리상담에서, 특히 대상관계이론을 비롯한 정신역동상담에서는 생애 초기 공감적이고 신뢰할만한 대상과의 결핍된 경험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을 치료 원리로 삼고 있다. 단순히 결핍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기 관계에서 비롯된, 습관화된 반응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 번의 경험으로 불가능하며 대체로 장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익숙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자기심리학에서는 이를 ‘교정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인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와 지각을 포함한 반응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이 방식은 내담자에게 공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 관계 경험의 반복을 통해 몸에 체득되게 하는, 뇌에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적응적 삶을 위해 형성해야 하는 기초적 심리구조, 또는 뇌의 신경망에 의해 발휘될 수 있는 심리기능 중 하나로서 ‘개인 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내적 특성이라 하더라도 기질과 달리 유전이나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에 구성되는 심리구조나 신경망의 변화와 확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탄력성(resilience)에 관한 최근의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과 일치한다. 탄력성은 개인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yer & McGuinness, 1996). 이것이 탄력성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서사여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교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심리상담으로 충분한 것인가? 사실 부정적인 반응 양식으로 뇌의 회로가 형성된 내담자, 즉 긍정적 심리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내담자에게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뇌 회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뇌에 새로운 연결회로를 만드는 일은 의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습관화, 체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이 과정을 위해서 내담자의 불안과 의심, 때로는 분노와 공격성을 견뎌야 한다.⁷⁾ 습관화된 방식은 그동안의 삶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생애 초기 그가 놓여있던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유리하게 선택된 반응 양식이 틀로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관계에 적절하지 않으며 갈등과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자기를 믿기 어려워하고 타인과 세계를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는데 익숙한 뇌가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고난을 극복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그러나 그것은 열악한 환경의 초기 경험 안에서 그가 불안을 낮추고 자기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습관화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뇌는 익숙한 형태로 인식하고 반응한다.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된 양식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만큼 큰 저항과 불안이 뒤따르며 때로는 상담이 중단되기도 한다.

개인으로서 상담자가 이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성숙과 전문가로서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장기간의 반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담자가 지볼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인지치료는 정신역동적 접

7) 내담자가 심한 성격장애와 좀 더 외해된 내담자의 경우에 더 그러할 수 있는데 내담자의 초기 갈등적 대상 관계가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때 치료자는 강한 정서 반응을 경험하기 쉽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는 치료자의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초기 대상과 같이 반응해서 좌절과 관련된 아동기 경험을 외상적으로 반복해선 안 되고 교정적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자아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야 한다(kernberg, 2008: 66~72).

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상담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지치료에서는 논박을 통해 사고의 틀, 스키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정서와 신체적 경험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의 한계가 지적 되어왔다. 뇌의 신경망은 인지, 정서, 감각이 한 묶음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⁸⁾ 강력하게 연결된 신경세포 집합은 학습이나 습관 형성의 토대가 되고 생각, 느낌, 신체 감각이 신경연결망을 형성하거나 변형하며 우리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재-회호화를 진행(Gazelle, 2021:32)한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을 위한 상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상담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인지, 정서, 감각에 동시에 작용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상담적 접근에만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상담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회복탄력성이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애 초기에, 또는 이후의 경험들에 의해 형성해야 하는 어떤 뇌의 신경망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지 않더라도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뇌의 신경망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을 언제든 닦칠 수 있는 고난을 대비한 마음 근육의 단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해법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개인과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기 전, 고난과 역경에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으로서 적응적 심리기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외의 전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상담자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것을 보완하는 동시에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해법의 필요성 때문이다.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은 뇌 신경망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회복탄력성은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것임을 쉽

8) 카우아이 연구 성인기 추적조사에서 심리치료가 회복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경우가 5%에 그친다는 점(Werner, 2005:13)은 언어상담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게 짐작할 수 있다. 탄력성이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생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Oetter, 1999)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사회가 보여주는 회복력은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초기 대상과 같이 경험되어 개인의 적응적 삶과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상담과 같은 개인적 접근 외에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접근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인류가 심리학을 발명하기 전부터 사용해 오던 뇌 훈련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술, 그중에서도 서사이다. 서사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일지라도 말해지는 순간 재구성되므로 모두 허구,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Boyd(2013)는 인류가 픽션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와 타인의 의도와 계획, 행동을 추론하는 마음 이론(mind theory)를 연습하게 하며 사실을 넘어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나리오 행동, 대응을 시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왔다고 말한다. 특히 “픽션은 가능한 기회와 위험을 배우도록 해주며,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고서도 피할 수 없는 좌절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수단을 제공한다.”(Boyd, 2013:274)는 것이다.

서사는 단지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더 잘 기억되도록 한다. 감정적 경험만이 아니라 픽션을 읽으며 위험과 좌절의 상황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손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 반응도 함께 경험한다.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한 상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는 세계, 신체, 정신과의 경험 중에 얻은 지각, 운동, 감정의 상태들을 재가동한다(Boyd, 2013:225). 뇌 신경망 연결회로가 생각, 느낌, 감각이 한 묶음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를 함께 제공하는 서사는 직접적 경험만큼이나 신경망 연결 회로를 만드는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텍스트의 서사에 몰입하게 될 때 독자가 현실 세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되어(Gottschall, 2023:52) 서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사 이동(narrative transportation)’⁹⁾으로도 설명이 된다. 문학작

품을 읽는 동안 독자는 ‘나’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마치 작품 속 인물인 것처럼 인물의 의식을 경험한다. 실제로 이야기에 빠져든 순간에 뇌를 스캔하면 자아 감각과 연관된 영역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torr, 2020:259). 버지니아 울프가 ‘자아의 완전한 소멸’이라고도 한 이 현상은 서사에 몰입한 독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동의 순간에 우리의 신념과 태도와 의도가 이야기에 의해 달라지며 이 변형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에 대해 반응한 뇌의 부위가 같았다는 연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¹⁰⁾ 에모리 대학교의 그레고리 번스 연구진은 소설을 읽으면 휴식 상태의 뇌 연결성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Ouassil & Karig, 2023:114). 서사는 뇌를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것이다. 서사는 인간이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역할을 연습하는 오래된 뇌 훈련법이었던 셈이다. 앞서 적응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뇌의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해 안정적 초기 대상과의 경험을 비롯한 인간관계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했는데 서사는 인간관계의 직접 경험을 대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픽션은 현실과 달리 뚜렷한 구성과 인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써 뇌의 반응을 위한 시나리오, 모델을 제공한다.

문학치료는 이러한 서사의 힘을 활용한다.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내담자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 경험을 하는 것과 더불어 문학텍스트를 통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해 온 서사의 구조, 보편문법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근원적인 성장을 조력하는 것이 문학치료이다(조은상, 2022). 그래서 내담자가 건강한 삶을 위한 적응적인 삶의 서사 구조로 자기 삶에 대

9) ‘narrative transportation’은 서사 이동, 서사 도취, 서사 몰입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글에서는 현실자아에서 벗어나 서사의 허구 세계로 이동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서사 이동’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10) Jonathan Gottschall은 “픽션이 허구임을 알더라도 정서적 뇌는 픽션을 현실처럼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영화 속 허구를 보면서 실제와 같이 반응하는 뇌의 fMRI 연구를 소개한다(Gottschall, 2014:88).

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뇌를 재 회로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사에 몰입해서 즐기는 것은 직접적인 인간관계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서사는 놀이적 성격을 지니며 쾌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몰입을 유도하고 서사가 펼쳐놓은 허구의 세계에서 상상을 통해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뇌 신경망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서사는 어려움에 처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구비문학부터 현대의 영화와 드라마의 서사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것이 서사이다. 서사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뇌의 반응 양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적응적인 삶을 유지하며 병이 나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서사는 예방적 접근으로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와 사회를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상담적 접근의 한계로 언급되었던 것들을 서사는 간단히 뛰어넘는다.

인간의 적응적 삶에 대한 서사의 기여로 관심을 돌리니 그동안 카우아이 연구에서 3분의 1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물과의 긴밀한 유대 경험에 가려서 놓치고 있던 특성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독서 능력이다. 이들은 2세에 언어능력이 또래보다 앞서 있었고 10세 무렵과 청소년기의 조사에서도 문제해결력과 함께 독서 능력이 뛰어남을 발견했다(Werner, 2005). 빠른 언어 발달과 뛰어난 독서 능력은 이들이 문학텍스트를 통한 서사적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직접적 인간관계 경험만이 아니라 서사적 경험이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번스(Berns, 2024)의 연구 결과는 이른 시기의 서사적 경험이 뇌의 신경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거의 모든 전래동화(민담)가 ‘영웅의 여정’이라는 유사한 서사 곡선을 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들은 첫 번째 서사이기 때문에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뇌에 깊이 각인되

고 결국 이것이 개인적 서사의 뼈대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쉽게도 카우아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독서 경험이나 어떤 서사를 좋아하고 즐기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전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게는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물론 관계를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따뜻한 관계 경험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서 의미 있는 삶의 서사로 구성할 수 있는가이다. 그래서 회복탄력성을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기억 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이고,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한다는 뜻이다(김주환, 2019:45). 기억 자아를 스토리텔링하는 자아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억에 ‘구조적 형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구조적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현실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구조적 형태는 곧 앞장에서 언급한 생활 양식, 인지 도식, 내적 작동모델의 산물이거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 초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살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Howard, 1991:196)는 점에서 삶의 이야기를 적응적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뇌의 내부구조가 형성된 다음에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역전되어(Storr, 2020:114) 현실에 대한 같은 경험만을 반복하게 되므로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서사는 현실과 달리 명료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억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억 자아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서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기억 자아는 서사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구조에 익숙해짐으로써 현실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다른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서사는 실제보다 시뮬레이션과 경험의 반복에 유리하다. 두려워 마주할 수 없는 문제나 좌절과 실패를 서사는 허구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대면하고 무릅쓰게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하게 한다. 현실에서라면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서사에서는 인물을 따라가며 경험할 수 있고 승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서사 이동’을 통해서 가능한데 문학치료는 ‘서사 이동’을 위해 적극적 상상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문학텍스트가 제공하는 허구의 세계 안에서 서사 전개를 따라 인물의 의식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게 하여 기억 자아가 새로운 구조로 자기와 삶에 대해 스토리텔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을 통해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조력하고자 하는 문학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경험이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그동안 문학치료에서는 리콥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원용하여 ‘이야기만들기(story-making)’의 원리(조은상, 2022)로 설명해왔다. 이야기만들기는 서사 창작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재료로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이야기(self-story)’¹¹⁾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뜻한다. 개인 내면의 자기이야기는 자기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이야기는 기억의 구조, 뇌의 신경망, 인지 도식, 내적 작동모델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의 형태를 부여한 개념이다.

이야기만들기 과정은 리콥르의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먼저 독자(참여자, 내담자)의 미메시스 I 은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형성하게 된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앞의 설명에 따르면 독자의

11) ‘자기이야기(self-story)’는 미메시스 I 으로서 ‘외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못한 채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의 일부가 말, 문자, 그림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해 담화된 결과물을 ‘자기서사로 구분한 홍재범(2020:102)의 논의를 따른다. 자기서사(self-narrative)는 수단을 통해 표현된 구체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흔한 예는 개인의 생애담과 같이 자기에 서사물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기이야기는 개인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내면에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그의 삶과 서사로 재현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재료이면서 동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억 구조나 뇌의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학치료에서는 ‘자기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문학텍스트의 미메시스Ⅱ은 텍스트가 재현하고 있는 세계로, 텍스트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즉 서사의 플롯 구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의 문학텍스트 읽기는 미메시스Ⅰ과 Ⅱ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의 삶이 재형상화(미메시스Ⅲ)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문학치료는 이 과정에 적극적 상상을 촉진하기 위한 텍스트 재형상화(미메시스iii이면서 ii이기도 한)와 상상과 성찰을 조력하는 문학치료 상담자의 개입으로 서사적 경험을 통한 개인의 변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을 위해 경험해야 할 서사 구조는 무엇인가? 앞서 회복탄력성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형성해야 하는 근원적 심리 기능(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서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마련될 때 문학치료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서사를 활용하고 어떤 서사적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복탄력성을 위한 서사 전략

1) 회복탄력성의 서사 구조

회복탄력성의 서사는 무엇이고 회복탄력성의 서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의 서사를 추론하기 위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개인적 특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사 속 주의공의 성격적 특성이나 사건의 성격, 해결 과정, 결말 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사적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은 여기에 기여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서사를 통해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레질리언스의 개인적 보호 요인은 독자가 동일시하며 모델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사 속 인물의 성격과 행위, 그 결과로서 서사의 결말 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문 210편을 내용분석 한 결과(박기령·최중진, 2016)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보호요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은 총 117개이고 그 가운데 기질 및 성격적 특성 91개 중 자아존중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이 내·외 통제감(12), 자기효능감(9), 낙관주의(9) 순이었다. 상실과 트라우마를 연구하며 ‘회복탄력성’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임상심리학자 보나노(Bonnano, 2024: 160) 역시 이와 유사하게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세 가지 신념이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optimism), 자신의 대응능력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위협을 기꺼이 ‘도전(challenge)’으로 간주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자기, 혹은 자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 자신이 내면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도전하는 태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회복탄력성을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이라고 했던 것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또는 도전으로서 성장과 변화의 계기로서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을 드러내며 고난과 역경이 ‘나’에 의해 해결되는 낙관적 미래, 즉 ‘행복한 결말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카우아이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보였던 참여자가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안다고 믿지만, 아직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일이나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또 정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해요.”

이 참여자는 5~10세에 이르는 초기 아동기 동안 기본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당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다.¹²⁾ 성격이 좋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알고 있

12) 메리라는 이 참여자는 다섯 살에서 열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 수술과 입원

는 사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 또한 그의 타인에 대한 인식도 볼 수 있는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가 속한 세계는 그에게 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무슨 일이든 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매우 낙관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학교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행을 보이고 심리 검사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외향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협조적이었다. 자기와 삶에 대해 구성하는 서사는 현실 인식을 지배하며 실제 삶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특성을 서사로 환원하면 어떻게 될까? 비범한 존재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진정한 자기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며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서사, 즉 영웅 서사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신화는 한 인간이 태어나 통과 의례를 거쳐 시련을 극복하면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Campbell, 2007:238)이다. 영웅 서사의 인물은 시작은 미미하나 특별한 능력과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비범한 존재이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성장한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김주환, 2019:21)이라는 회복탄력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의 서사를 상상해본다면 곧 그것이 곧 영웅 서사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웅 서사의 주인공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기 전이라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자존감과 효능감,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서사화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와 극복하고

을 반복했고 20개월에 여동생이 태어났으며 여러 차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늘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이었으며 자신이 아이들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신경과민 환자였다(김주환, 2019:55-56).

성장하는 해피 엔딩은 위협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해결해내는 낙관성의 서사적 재현이다.

실제로 영웅 서사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는 서사이며 그것은 주제나 내용이 아니라 ‘서사 구조’를 의미한다. 남성적 영웅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고대 영웅신화만이 아니라 돌봄과 회복을 이뤄내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민담과 현대의 드라마, 영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장 즐기는 서사 중 하나가 ‘영웅 서사’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나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세계 여러 문화에 동일한 구조의 서사가 존재함으로 발견하였고 인간의 보편심리에서 그 근원을 찾았다. 영웅 서사 역시 그러한 보편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정신적 성숙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뇌에 각인시키고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 서사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게임 스토리텔링에서도 지배적 소재는 영웅 모험담이다(배주영·최영미, 2006:112). 물론 인간에게 익숙한 서사 구조가 영웅 서사만은 아니다. 2017년 버몬트 대학교 연구진들은¹³⁾ 인간이 창작하고 즐기는 서사의 원형 6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구조는 ‘맨 인 홀(man in hole)’ 구조이고 두 번째가 영웅 서사 구조인 ‘신데렐라’ 구조였다(Ouassil, & Karig, 2023:57). ‘맨 인 홀 구조’는 영웅 서사 구조의 앞부분이 생략된 형태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많이 즐기고 좋아하는 서사의 구조인데 6가지 서사 구조 모두 행복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담아낸다. 그중에서 이 두 가지는 추락과 극복의 과정을 모두 보여주며 극복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영웅 서사 구조의 텍스트를 끊임없이 창작하고 즐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술창작의 영역에서만 아니다. 우리는 영웅 서사 구조를 즐길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영웅 서사의 구조를 선호한다.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이때 가지는

13) 버몬트 대학교와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정보통신 공학자와 수학자 연구진들은 모든 이야기를 범주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소설책 1,327권의 서사 곡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오직 6가지의 서사 구조만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Berns, 2024:156~157).

도덕적 우월성은 ‘유난히 강력하고 보편적인 긍정적 착각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자아상을 보존하는 방식이다(Storr, 2020:127-128).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자책하고 우울해졌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하는 마음은 나에 대한 영웅 서사를 만드는 뇌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영웅 만들기 장치’에 가깝다고 말한다(Storr, 2020:125). 뇌는 잠재의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웅 서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결단력 있고 용감한 주인공으로 느끼도록 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믿게 만든다. 이번엔 못 해냈지만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지금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으며 좌절을 견디는 것은 자기 삶을 영웅 서사 구조로 스토리텔링하는 마음이 하는 일이다. 영웅의 여정은 너무 오래 되어서 인간의 뇌에 깊이 박힌 첫 번째 문화유산이며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 형식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이런 구조에 익숙하고 또 원하기 때문이다(Berns, 2024:153). 영웅 서사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에 맞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며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서 이론에 따라 ‘안정 애착’, ‘기본적 신뢰감’, ‘응집적 자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서사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자기에 대해 영웅 서사를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웅 서사가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원형을 개인 심리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삶을 성숙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2) 회복탄력성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사람들이 영웅 서사 구조를 매우 선호한다는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한 유명한 시나리오 작법서가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영웅 서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며 자기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시련을 견디며 승자가 되는 서사 구조를 익히고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와 문제들 다루면서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영웅 서사 구조의 탁월한 서사텍스트로 창작하여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문학치료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영웅 서사가 취하고 있는 서사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문학치료사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가 문학치료 상담에서 영웅 서사에 보인 반응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회복탄력성과 영웅 서사 구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회복탄력성에 효과적인 영웅 서사의 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곧 회복탄력성을 위한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이 될 것이다.

논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50대 여성 내담자 문학치료 상담사례로 연구자료는 설화〈바리데기〉를 활용한 회기에서 재구성한 서사와 대화 내용이다.¹⁴⁾ 설화〈바리데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성 영웅 서사로 이해되어왔다. 무가로 전승되는 〈바리데기〉는 바리데기가 왕의 딸로 고귀한 존재이고 나중에 저승길을 안내하는 오구신이 되는 신화적 성격을 갖는다. 그에 비해 민담의 형태로 전해지는 〈바리데기〉는 영웅 서사 구조를 따르면서도 몇 가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리데기의 출생 이전의 부모의 결연 부분이 생략되거나 대폭 줄어들고 서사의 끝에서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도 생략된다.

또한 바리데기가 약물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 무가에서는 열두 개의 지옥을 지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민담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과업들로서, 민담에서

14) 내담자로부터 발달사 자료와 해당 회기 자료(녹취, 사진, 그림)를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내담자를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는 삭제했으며 내담자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 사례는 영웅 서사를 통해 지식이 구성하는 서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회복탄력성에 어려움이 있는 이가 영웅 서사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회복탄력성과 영웅 서사 구조와의 관련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장기로 진행된 상담(5년 이상)으로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바리데기〉를 활용한 한 회기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후 내담자의 변화나 성장을 이 한 회기 개입의 결과로 연결 지어 논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여성의 고난을 대표하는 화소¹⁵⁾로 대체된다. 민담에서는 열두 개의 지옥에서 엿볼 수 있는 종교적 색채와 오구신이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 서사로 바뀐 것이다. 승배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존재에 대한 서사가 아니라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서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50대 여성 내담자의 서사 이동에 민담 형태의 〈바리데기〉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활용한 〈바리데기〉¹⁶⁾의 내용을 단락별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 어느 부부가 첫딸을 낳아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곱게 길렀다.
- (2) 부부는 딸만 여섯을 낳았는데 일곱 번째로 또 딸을 낳자 화가 난 아버지가 내다 버리게 했다.
- (3) 밭에 버려진 바리데기를 황새가 보호하고 자식 없이 살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 키웠다.
- (4)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수양산 약물을 먹어야 산다고 하였다.
- (5) 여섯 딸들은 약물을 구하러 가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 (6) 바리데기가 부모의 부탁을 받아들여 약물을 구하러 갔다.
- (7) 바리데기가 길을 물으니 빨래하는 여자들이 검은 옷을 희게, 흰 옷을 검게 빨면 알려준다고 했다.
- (8) 바리데기가 빨래를 다 하자 밭 가는 노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 (9) 밭 가는 노인에게 물으니 밭을 다 갈아주면 말해준다고 하였다.
- (10) 바리데기가 밭을 다 갈아주고 그 뒤로도 온갖 고생을 하며 수양산에

15)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영웅의 여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남편을 찾아 집을 떠난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동일하다.

16) 『한국비문학대계』 7-6, 444~456면, 달산면 설화52, 배방밭에 베리데기, 조유란(여, 72) / 『한국비문학대계』 7-1, 349~352면, 현곡면 설화136, 배리데기, 권봉필(여, 67) / 『한국비문학대계』 6-5, 540~545면, 산이면 설화16, 버리데기, 이담례(여, 49) / 『한국비문학대계』 2-7, 234~235면, 둔내면 설화70, 바리데기, 한양숙(여, 77) / 『한국비문학대계』 6-11, 504~505면, 동북면 설화7, 바리데기, 임득화(여, 72) / 임석재 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1 소성면 두암리 이씨 등 설화로 구연된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공통 줄거리를 정리하고 ‘문덕순 구연본(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1, 집문당)의 바리데기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도착했다.

- (11) 수양산을 지키는 무장승은 나무하기 삼년, 불 때기 삼년, 물 길기 삼년을 하며 아들 일곱을 낳아주면 약물을 주겠다고 하였다.
- (12) 바리데기는 시킨 일을 다 하고 아들 일곱을 낳아 약물과 솜살이, 뽕살이 살살이 꽃을 받았다.
- (13) 바리데기는 아들 일곱과 무장승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
- (14) 바리데기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 상여가 나오고 있었는데 약물과 꽃으로 아버지를 살려냈다.

설화 〈바리데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발달사와 현재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대 여성 내담자 지숙은 오빠 둘에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한 살림으로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지숙을 어린 오빠들과 함께 방에 눕혀놓고 밭일을 나갔고 밭일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몇 시간을 울다 지쳐서 축 늘어진 지숙에게 젖을 먹였다. 아버지는 장남으로 홀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했고 자주 시골 본가에 가서 오래 머물다 오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으며 집을 나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시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내담자에게 자주 쏟아냈다. 지숙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갈까봐 두려웠고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본가로 가버릴까 두려워했다. 지숙은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힘든 일을 대신했으며 아버지를 붙잡아두기 위해 애교를 부렸다.

지숙은 가족 외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컸으며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부적절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40대까지 필요하지도 않은 온갖 자격증을 따는데 몰두했다. 오랜 직장 생활에도 최근까지 무능력을 들킬까 전전긍긍하며 직장 생활을 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숙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었지만 원가족 중심의 삶은 지숙이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게 했다. 자녀나 남편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다. 일상에서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억누른 부정적 감정과 불안은 갖가지 신체 증상이 되어 지숙을 괴롭혔다.

지숙은 자기감정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이후 다른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관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상대가 원치도 않는 해결을 시도하게 등 현실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지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지만 해결되기 어렵고 회복탄력성이 발휘될 수 없었다. 외상적 사건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의 회복에도 회복탄력성이 요구되는데(박남수, 2015) 지숙은 일상에서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위한 심리적 기능을 선취하는 것, 자기에 대한 영웅 서사를 계속해서 쓰는 뇌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면 지숙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숙이 어떤 서사구조에 익숙한지는 그가 구성하는 허구 서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픽션은 사실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지숙에게 영웅 서사 구조의 〈바리데기〉를 들려주고 마음에 들도록 다시 구성하게 하는 것으로 지숙이 삶에서 반복하고 있는 서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웅 서사와의 차이점을 살필 수 있다. 문학치료의 과정으로서 지숙에게 〈바리데기〉를 들려주고 마음에 들도록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이야기만들기’의 ‘텍스트 재형상화’에 해당한다. 이것은 익숙한 서사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진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인물과 동일시하며 영웅 서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치유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다음은 연구자가 구술해 준 〈바리데기〉를 듣고 지숙이 마음에 들도록 재구성한 것¹⁷⁾이다.

① 바리데기가 태어났다.

17) 지숙이 마음에 들도록 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글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리데기〉의 서사의 주요 장면을 그림카드로 개발한 설화그림카드를 원하는 순서로 배열하고 줄거리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숙은 TV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보더라도 줄거리를 기억하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말하기 어려웠다. 서사에 몰입하여 상상하는 것을 돕고 글쓰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담의 주요 장면을 시각 이미지화하여 개발한 설화그림카드를 활용했다. 위의 서사 단락은 지숙이 입말로 말한 것을 연구자가 요약하여 단락별로 정리한 것이다.

- ② 자식이 많아서 바리데기는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다.
- ③ 아버지는 가족들을 책임지느라 힘들어지고 병이 들었다.
- ④ 바리데기는 아버지에게 지금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라고 말했다.
- ⑤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업고 길을 떠났다.
- ⑥ 바리데기는 아버지와 함께 다른 삶을 찾으며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일을 했다.
- ⑦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

지속이 재구성한 서사는 민담에서처럼 버려지지는 않지만 부모가 직접 키우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 설화보다 완화된 것은 했지만 주인공 바리데기는 자식 많은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 버려진 존재로서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캠벨(1999)은 영웅 서사의 구조를 ‘분리(출발)-입문-귀환’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분리(출발)’의 단계는 앞서 제시한 민담 〈바리데기〉에서 (1)~(6)에 해당한다. ‘분리’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며 영웅이 되는 과정의 출발인 셈이다. 지속이 재구성한 서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①~⑤라고 할 수 있다. 재구성한 서사에서 바리데기가 길을 떠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리’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기존 세계를 의미하는 ‘아버지’를 업고 떠나기 때문이다. 길을 떠나서도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며 바리데기는 아버지의 짐을 털어드리고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바리데기는 철저히 아버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그 스스로 여성으로서, 모성으로서 성장하지 않는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후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입문’은 시련의 과정이 전개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 힘의 원천을 통찰하게 되는 내용이다. 지속이 구성한 서사에서 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민담〈바리데기〉에서는 (7)~(12)에 해당하는 긴 내용인데 지속의 서사에서는 매우 소략하게 언급된다. 이렇게 소략해지는 이유는 지속이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이 이 과정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내가 직접, 그거 못하시면 내가 좀 변화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찾아갈 수 있게. 내가 도움이 조금 돼줄 수 있다는 그 자체에서 뭔가가 조금 이거는 경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중략- 뭔가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돈이 있어야 될 거고 지식이 좀 있어야 되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고 다른 뭔가를 알아봐야 된다면 다른 걸 알아볼 수 있는 거겠고. 다른 삶의 방식을 아버지하고 같이 찾아가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지숙의 서사에서 바리데기는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짐을 벗고 다른 삶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바리데기에게 아무런 요구도 한 바가 없다. 민담 〈바리데기〉에서 아버지의 약을 구해달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분명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르다. 지숙의 서사에서 바리데기는 아버지가 바리데기의 눈에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조차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렵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할 것 같은 몇 가지를 나열해볼 뿐 어느 하나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을 상상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다.”라는 모호한 말에 그칠 뿐이다. 지숙의 서사에서 바리데기는 아버지의 조력자일 뿐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숙의 서사 입문 단계에서 바리데기가 보이는 행동 방식은 지숙이 현실에서의 대처를 그대로 드러낸다. 바리데기처럼 지숙은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짐작으로 움직이는데 타인과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주며 ‘심리적 분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 준다. 아버지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눈에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등에 업고 떠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자신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힘들음을 곧 자신의 힘들음으로 경험하는, 분리의 어려움과 동시에 익숙한 대처 방식을 드러낸다.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지면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 가족이 와해 될지 모른다.”는 생애 초기의 극심한 불안이 만들어낸 지숙의 대처 방식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린아이였던 지숙에게는 부모가 떠날지 모르

다는 불안을 견디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50대가 된 현재에도 삶과 서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숙이 입문의 서사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분리를 하지 못했던 것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특징이다. 아버지를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은 원 설화 바리데기와 유사해 보이지만 원 설화에서 그것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자기 길을 가게 되는 입문의 의미였던 것과 달리 지숙의 서사 속 바리데기의 행위는 아버지의 딸로서 익숙한 세계를 보존하는 의미였음을 알 수 있다. 지숙은 〈바리데기〉를 마음에 들게 재창작하면서 바리데기에 자기를 투영하여 아버지를 등에 업은, 아버지와 한 몸처럼 융합된 존재로 바꾸고 익숙한 대처 방식을 서사로 드러냈다. 영웅 서사에서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로서 성장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극복에 이르는 서사를 전개하기 어려운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담 〈바리데기〉에서 아버지의 병듦(죽음)으로 기존 세계가 막을 내리고 바리데기가 길을 떠나 소녀에서 여성으로, 다시 모성으로 성장하여 돌아오는 ‘귀환’ 역시 지숙의 서사에서 전개되기 어렵다. 원 설화에서 돌아온 바리데기는 길을 떠날 때의 소녀가 아니며 삶의 고난을 이겨낸 자로서 자신의 가족을 거느린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리고 바리데기는 자기 삶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로서 약물과 꽃으로 죽은 세계를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지숙의 서사에서 ‘귀환’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락⑦인데 세 단계 중 가장 소략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 원설화에서 (13)~(14)에 해당하는데 처음 지숙이 마음에 들도록 재구성할 때 비워놓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장면을 넣고 싶은데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결말에 이를 것인지 서사를 연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계를 재생시키는 것은 바리데기의 성장을 필요로 하지만 지숙의 서사에서 바리데기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로 머물고 있는 탓이다.

지숙이 재구성한 〈바리데기〉에서 영웅 서사의 첫 단계인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기 발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입문’ 단계와 시련의 극복과정에서 얻은 보물을 가지고 일상 세계를 재생하는 ‘귀환’의 서사가 전

개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숙이 자신의 서사에 입문단계와 귀환단계의 표지를 ⑥과 ⑦로 설정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설화 <바리데기>의 영웅 서사 구조를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음에 들게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지숙은 익숙한 자기이야기의 구조를 드러냄과 동시에 새로운 영웅 서사 구조의 특성을 그 안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시련을 통한 자기 성장의 과정이 전개되지 않는 지숙의 서사는 원가족과 심리적으로 융합되어 딸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그의 내면을 반영한다. 지숙에게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안정적인 대상이 되지 못했고 불러도 오지 않는,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대상으로, 그만큼 믿을 수 없고 위협적인 세계로 경험되었다. 소중히 대해지지 않는 경험의 축적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그 안에서 지숙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숙의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반응 양식은 패턴으로 굳어져 그의 현재 삶의 방식을 통해 반복되고 그가 상상한 허구 서사의 구조에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다. 문학치료에서 내담자에게 자전적 글쓰기보다 문학텍스트를 재구성하여 허구 서사를 써보게 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숨은 구조, 즉 근본적인 구성 요소와 그 요소들이 표현되는 방식을 탐험하는 데는 판타지가 더욱 뛰어나다(Attebery, 2025:38). 지숙의 뇌가 반복해서 지어내는 서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버림받은 아이의 서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적응적 삶을 어렵게 하고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버림받은 아이의 서사’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세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고 끊임없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반응을 반복하며 형성된 신경망의 산물인 자기이야기로서, 그 구조를 구체적인 서사 형태로 드러낸 것이다. 언제든지 가족이 와해 되고 떠나고 버려질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신경망은 그 구조를 담고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드러내고 다시 이 구조를 강화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구조적 변화를 위한 근원적 접근 없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회복탄력성은 기초적인 심리구조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내적 성숙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지숙의 삶은 열악한 초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는 등 영웅 서사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익숙하게 반복하는 서사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부모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고 돌보는 아이의 서사”였다. 지숙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익숙하게 반복해 온 반응 패턴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삶에서 반복해 온 것이 부모를 돌보는 아이의 서사임을 알아차리고 자기 삶을 실현하는 영웅 서사를 반복해서 체험하고 구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숙의 사례를 통해 본 회복탄력성에 대한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숙의 사례에서 영웅 서사를 반복해서 체험하고 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문학치료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숙의 사례에서 입문과 귀환단계의 서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모와의 심리적 융합으로 인한 분리의 어려움에 있었으므로 분리를 통해 성장으로 나아가는 서사들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학치료 상담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바리데기〉 재구성 회기에서 보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서사 이동을 위한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숙의 사례에서 서사에 몰입하여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였음에도 서사를 전개하고 그에게 익숙한 서사 구조를 반영하여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리데기에 자신을 이입했기 때문이다. 지숙이 바리데기에 이입할 수 있었던 것은 원 설화의 바

리데기가 ‘버려진 존재’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역시 올고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세계로 인해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자랐고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상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문학텍스트의 서사가 독자(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서사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내담자가 현실의 자아를 내려놓고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서사가 전개되는 방향을 따라 인물의 감정과 인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 도입에서 내담자가 쉽게 주인공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서사는 인물에 관한 것이며, 주인공에 이입할 수 없다면 그가 난관에 직면하여 해결을 해나가는 경험을 함께 할 수 없다. 영웅 서사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은 주로 계층의 아래쪽에 있으며 연약하고 주저하면서도 골리앗의 그림자 속에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은 이런 약자이다(Storr, 2019: 188~189). 이들은 약자로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내담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자보다 약자에 쉽게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함이 내담자의 어려움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욱 동일시에 유리하다.

인물의 결함이란 인물의 핵심 신념, 말하자면 그 인물이 자아 감각을 형성할 때 소중히 간직하고 적극적으로 고수해온 생각이다(Storr, 2019:97). 서사에서 이것은 이후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야 할 것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서사에서 주인공의 신념은 본격적인 자기 탐색의 길을 떠나기 전 주인공이 머무는 세계와 맺고 있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바리데기>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세계로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리데기가 ‘입문’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세계와 다르게 관계 맺으며 변화하게 된다. 바리데기는 버림받은 자로서 수동적 존재이지만 입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하는 자로서 세계와 다르게 관계를 맺는다. 내담자는 서사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보이는 결함, 즉 주인공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와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몰입할 수 있다.

문학치료에서 바리데기로의 서사 이동의 목표는 지속의 익숙한 서사 구조를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시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서사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문학치료에서 문학텍스트를 내담자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재구성해보도록 하는 ‘텍스트 재형상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작품 속 인물을 나로 상상하고 허구적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는 ‘서사 이동’ 전략이다. 지숙의 사례에서도 “바리데기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서사를 어떻게 바꾸면 내 마음에 들까?” 등의 질문으로 상상을 유도하고 재구성해보게 한 결과이다.

또 하나 영웅 서사 구조를 삶의 서사에서 구현하도록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서사 전략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지숙의 서사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다. 문학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시련이나 갈등 상황을 서사에서 삭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서사로, 사건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엄밀히 말하면 서사가 아닌 것이 된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웅 서사에서 입문 단계는 시련과 마주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힘의 원천을 발견하고 영웅임을 깨닫게 되는 핵심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련은 갖가지 유형의 영웅을 탄생케 하는 동력이며, 영웅이 지닌 마법의 힘도 결정한다.’(Vogler, 2013:205) 시련의 내용은 이 서사를 통해 주요하게 연습해야 것으로서 영웅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한 게임의 주요 내용이 입문단계에서 펼쳐지는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점은 사람들이 영웅 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게임에서 영웅 서사의 ‘분리’단계는 영상으로 처리되고 ‘귀환’단계는 열린 결말로 대체되며 본격적인 게임플레이는 “시험에 들고,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고, 관문을 통과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배주영·최영미, 2006: 114)에 대한 것이다.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영웅 서사를 즐기는 핵심은 상상 속에서 시련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가상놀이에서 발견되는 이야기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독한 말썽’(Gottschall, 2014:57)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독한 말썽’은 아이들에게 놀이가 성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몸과 뇌를 훈련하는 것이었듯 영웅 서사 역시 인간이 보편적으로 처하는 곤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인 것이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서사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해결되고 극복되어 주인공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즉 행복한 결말에 대한 것이다. 영웅 서사는 시련의 극복이 주인공의 성장으로 마무리되는 완결된 구조를 통해서 현재의 고통이 결국 해결되고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임을 믿게 한다. 게임에서는 이 결말을 열어놓았지만 모든 게이머가 게임을 하는 것은 주어지는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행복한 결말은 주인공의 고난이 성장을 통해 행복하게 끝을 맺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민담 〈바리데기〉가 전문 창작에 의해 불리는 무가 〈바리데기〉에 비해 전체적인 내용이 소략해지는 특징이 있음에도 단락(7)에서 (12)에 이르는 시련의 과정은 공들여 구술한다. 무가에서 이 부분 내용이 불교적 색채가 강한 ‘지옥을 지나며 죽은 자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반해 설화에서는 여성의 성장 과정으로서의 시련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화소로 대체되는 것도 이 부분을 상상하며 경험하게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속이 만든 서사에서 서처럼 고난의 방법을 나열만 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전개하지 않으면 체험이 될 수 없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상상하고 체험하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긍정 왜곡하지 않고 직면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보리센코(Borysenko, 2021)는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낙관성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는 ‘낙관적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보려 하는 것은 실제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특성의 내담자들이 서사에서 사건과 갈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대개 그때의 부정적 감정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학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구성하는 서사 안에 영웅 서사의 입문 과정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영웅 서사에서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머물며 주인공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문학텍스트가 열

어놓은 허구의 공간과 문학치료 상담자가 허용하는 상담 공간은 내담자에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문학치료 상담자는 서사 전개를 멈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의 장면에 머무르며 주인공이 되어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인공의 겪는 고난의 과정과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감정 등 내면 묘사가 풍부한 현대소설이 활용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은유가 풍부한 시를 쓰거나 읽는 것, 시각적 표현에 익숙한 내담자라면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하는 것도 고난과 시련의 장에 머물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웅 서사 구조를 따라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자칫 주인공의 성공이나 성취만으로 점철되는 서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웅 서사 구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자기애의 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병리적 자기애, 특히 자기애적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과 기본적 심리구조로서 영웅 서사 구조의 관계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와 또 다른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심리학과 서사학, 뇌 과학 등에서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 지음으로써 서사를 중심으로 하여 건강한 마음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의 기능과 서사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뇌 과학과 심리학의 실험 연구를 통해 입증한 결과들을 근거로 서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개념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단일 사례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이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연구를 이어감으로써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9.
- 박기령·최중진, 「청소년 레질리언스 연구 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1998-2015)」, 『청소년학 연구』 23(10), 한국청소년학회, 2016, 451~478면.
- 박남수,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회복탄력성』, 학지사, 2015.
- 배주영·최영미, 「게임에서의 '영웅 스토리텔링' 모델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4), 한국콘텐츠학회, 2006, 109~116면.
- 조은상, 「문학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학치료연구』 5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47~82면.
- _____, 「치유과정으로서 이야기만들기와 설화그림카드의 효용」, 『독서치료연구』 14(3), 한국독서치료학회, 2022, 1~26면.
- 홍재범, 「자기이야기와 자기서사 그리고 치료작업」, 『겨레어문학』 65, 겨레어문학회, 2020, 99~123면.
- Attebery, B.,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신솔잎 역, 푸른숲, 2025.
- Berns, G., 『‘나’라는 착각』. 홍우진 역, 흐름출판, 2024.
- Bonnano, G. A., 『결국 회복하는 힘』, 조용빈 역, 더퀘스트, 2024.
- Borysenco, J., 『Resilience』, 안진희 역, 도서출판 THE TERRACE, 2021.
- Bowlby, J., 『애착: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김창대 역, 나남출판, 2009.
- Boyd, B., 『이야기의 기원』, 남경태 역, 휴머니스트, 2013.
- Campbell, J.,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1999.
- _____, 『신화의 힘』, 이윤기 역, 이끌리오, 2007.
- Erikson, E.,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연암서가, 2014.
- Gazelle, G.,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손현선 역, 현대지성, 2021.
- Gottschall, J., 『스토리텔링 애니멀』, 노승영 역, 민음사, 2014.
- Kohut, H.,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Kornberg, O.,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윤순임 외 공역, 학지사, 2008.
- Ouassil, S. E. & Karig, F.,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김현정 역, 윌터박스, 2023.
- Ricoeur, P., 『시간과 이야기1』, 김한식 외 공역, 문학과지성사, 1999.
- Storr, W., 『이야기의 탄생』, 문희경 역, 흐름출판, 2020.
- Taylor, D., 『윤인주 옮김, 왜 스토리가 중요한가?』, 정연, 2011.
- Vogler, C.,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제3판, 함춘성 역, 비즈앤비즈, 2013.

- Adler, A. (1969). *The Science of living*. NY: Anchor Books.
- Beck, J. S., & Freeman, A. (1996).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Frontiers of cognitive therapy*, pp. 165~181.
- Beck, J. S., Beck, A. T., & Beck, J. S. (2011). *Cognitive behavior therapy: basics and beyond*. ed. New York.
- Bowlby, J., Ainsworth, M.,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pp. 759~77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model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ew York: Sage.
- Brooks, R. (2005). The power of parenting: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Kluwer Academic.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5, pp. 276~282.
- Howard, G. (1991). Culture tales: A narrative approach to thinking,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6(3), pp. 187~197.
- Jo, E. J. (2012). How parenting influenc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5(1), pp. 35~50.
- Kim, S.-H.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4), pp. 191~209.
- Lee, S.-K., & Mun, B.-H.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ego-resilience: The medit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6), pp. 259~274.
- Luthar, S. (Ed.). (200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tter, R. (1999). 「Klinische Entwicklungspsychologie: zur Fächer. In R. Oerter, C., von Hagan, G. Röper & G. Noam (Eds.)」, *Klinische Entwicklungspsychologie* (pp.1~10. Weinheim: Beltz.
- Oldford, L. (2011). *The Use of Harry Potter and Fairytales in Narrative Therapy*.

Journal of Integrated Studies, Vol. 2, Winter/Spring, pp. 1~12.

Werner, E. E., (2005). Resilience and recovery: Finding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Children's Mental Health*, 19(1), pp. 11~14.

Werner, E. E., & Smith, R.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 Hill.

_____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01). *Journeys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Abstract |

Narrative Strategies of Literary Therapy for Resilience

Cho, Eunsang

Resilience is a psychological function grounded in an internal psychological structure formed through experiences of attachment with stable objects. Drawing on established approache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findings from neuroscience, the psychological structure underlying resilience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re-circuiting of neural networks in the brain, facilitated by repeated experiences of secure attachment with stable relational figure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neural re-circuiting achieved solely through individ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o enable a more communal and preventive mode of intervention, narrative, an ancient form of brain training, may serve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resilience—namely, a healthy and adaptive mind—is supported by neural processes that favor the heroic narrative structure and are reinforced through repeated engagement in storytelling.

Accordingly, literary therapy aims to promote neural re-circuiting toward familiarity with the heroic narrative structure by encouraging immersive engagement with literary texts organized around this narrative form. Through repeated experiences of narrative immersion, narrative construction, and reflective practice, individuals are guided toward internalizing the heroic narrative framework. Ultimately, the aim is to help individuals narrate their lives using a heroic narrative structure and, at a deeper level, to bring about a transformation in the self-story that drives life from within the individual.

Although this study focuses on individual case analyses within the context of literary therapy, such interventions may be implemented in diverse forms at both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Key Words: Resilience, Literary Therapy, Self-story, Neural Re-circuiting, Narrative Transportation, Heroic Narrative Structure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의 일상 정치론을 중심으로 —

한우리**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해리 보이트의 일상 정치론 |
| 2.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4. 상상력의 회복을 위하여 |
-

■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 초기 민주주의의 정치적 핵심이 보통 사람들의 정치 참여와 시민 결사에 있다고 보고 이 전통을 되살려 온 활동가이자 정치철학자 해리 보이트의 논의에 주목한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동하고 조직하는 전통은 미국 건국 초기의 민주적 활력이었다. 이를 계승하는 개념인 ‘일상 정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변혁하여 다르게 살도록 촉구한다. 여기서 상상력은 기존 질서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역할과 가치를 전도하고 보이지 않던 삶을 드러내는 힘이다. 정치가 갈등을 다루는 권력과 제도의 특정한 ‘배치’라면, 모든 변화는 낡은 질서와 배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온다. 정치는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두고 다투는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상상력이 정치의 외연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에 내재해 있으며, 낡은 배치를 넘어 우리가 함께 사는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4-1963-03)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세상의 구조를 다시 만들고 실천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제어 : 상상력, 일상 정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토크빌, 해리 보이트

1. 들어가며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치안을 유지하는 일, 국경을 방어하는 일, 정의 집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일, 경제적 규제를 시행하는 일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통치를 넘어 공동체 전반과 얽힌 공공성의 문제를 질문하며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유해왔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특정 교리의 전파를 금지하는 결정은 정치적이다. 이는 정치적인 것이란 투표에 참여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행위 이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든지 정치적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셸던 월린(Sheldon S. Wolin)은 정치적인 것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말한 바 있다¹⁾. 그는 정치철학을 일종의 ‘탐구 양식’(a form of inquiry)으로 간주하고, ‘무엇이 정치적인가’라는 문제는 정치철학의 연구 대상을 정의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²⁾

흥미롭게도 월린은 정치적인 것에 관한 논의가 정치 현상을 보는 관점, 즉 ‘비전’(vision)에 의해 좌우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무엇이 정치의 영역을 정의하는가는 누가 무엇을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루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주체의 인지적 관점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월린에게 있어 정치적 비전은 일종의 시적 상상력으로 기능한다.

1) Wolin, Sheldon S.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Expanded e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4. 6면. 이하 이 책의 번역은 인용자의 것이다.

2) 위의 책, 6면.

[정치철학자들]은 공상, 과장, 심지어 기이함이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상상적 요소는 “모든 것을 하나의 우아하고 지성적인 전체”로 “결합”하는 힘으로서 코올리지가 시에서 상상력에 부여한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정치철학에서 해왔다. 예컨대 홉스가 다수의 사람이 의식적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정치 사회를 형성하는 모습을 묘사했을 때, 그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홉스는 이러한 공상적 장면을 통해 정치 질서에 내재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

Rather, they believed that fancy, exaggeration, even extravagance, sometimes permit us to see things that are not otherwise apparent. The imaginative element has played a role in political philosophy similar to that Coleridge assigned to imagination in poetry, an “esemplastic” power that “forms all into one graceful intelligent whole.” When Hobbes, for example, depicted a multitude of men self-consciously agreeing to form a political society, he knew quite well that such an act had never “really” occurred. But by means of this fanciful picture, he hoped to assist his readers in seeing some of the basic presuppositions on which a political order rests.³⁾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와 국가의 기원을 허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근거를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적 합의에 두었다. 사회계약론은 일종의 사고실험으로서 정치적 상상력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때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상상력 개념은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코올리지는 현실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을 ‘일차적 상상력’(the primary Imagination)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창조력을 ‘이차적 상상력’(the secondary Imagination)으로 구분한다. 특히 코올리지는 이차적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이 “창조하기 위해 사물을 해체하고, 확산시키고, 흩뜨리고” “이상화하며 통합”하는 복합적 능력이라고 강조한다.⁴⁾

3) 위의 책, 18면.

코올리지를 참조하며 월린은 상상력이 시에서 하는 역할과 유사하게 정치 철학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시인이 고유한 내면의 의식을 통해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듯이 정치철학자 또한 현실의 정치적 파편들을 통일된 질서 속에 배치하려는 비전을 갖는다. 시인이 독창적인 시 세계를 만들어내듯, 상상력은 정치적인 것을 재구성하는 창조적 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 정치적 상상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사건과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특정한 공적 결정과 정치 제도가 흩어진 인간의 활동을 결합하고 이에 새로운 일관성을 부여한다면, 정치적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특정한 배치”(arrangement)에 다름 아니다.⁵⁾ 정치적인 것을 ‘배치’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제도, 정치 활동, 정치적 권위, 갈등을 조정하고 바꾸어내는 과정과 실천 또한 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내 갈등하는 세력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정치적 ‘배치’ 속에서 개인과 집단은 시·공간적으로 다르게 연결되며 변화될 수 있다.

이때 상상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세계에 관한 상(像)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할 공공의 문제란 무엇인가? 어떠한 구별이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사안을 갈라놓는가? 어떠한 인간의 활동, 행위, 목소리가 공적인 문제가 되며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관습과 제도에 결합되어 구조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철학자가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정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월린의 상상적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정치 현실 너머 이를 변형케 하는 창조적인 힘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정치 전통이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비전과 상상력을 탐구한다. 특히 이 글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을 19세기 미국을

4) Coleridge, Samuel Taylor. “On the Imagination, or Esemplastic Power.”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8th. Stephen Greenblatt and M. A. Abrams (eds). New York: W. W. Norton, 2006, 1663면.

5) Wolin, 7면.

가장 입체적으로 바라본 정치철학자 중 한 명으로 간주하고, 그의 대표적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에 나타난 정치적 비전을 살핀다. 토크빌은 1831년, 프랑스 정부의 위임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여 약 9개월간 미국 곳곳을 여행하며 경제, 정치, 종교 등 사회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였다. 귀국 후 그간의 성찰을 바탕으로 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유럽, 특히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과 취약성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이 저작은 미국을 이상화하지 않으면서도 신분제에서 모두가 평등한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주의, 시민 결사, 다수의 횡포, 행정적 중앙집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미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역동을 설명한 고전으로 평가받아 왔다.

토크빌의 분석은 이후 방대한 보론과 비판을 낳았으며, 그의 관찰이 미국 초기의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윌린은 토크빌이 노예제와 인종 질서를 미국 민주주의의 ‘구성적 조건’으로 분석하지 않았기에 미국 민주주의의 폭력성과 배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수전 몰러 오킨(Susan Moller Okin)은 토크빌이 여성의 정치적 배제와 사적·공적 영역 분리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⁶⁾ 그럼에도 이 글은 특정 정치철학자의 관점, 즉 유럽 지식인 백인 남성인 토크빌의 인식적 위치(epistemic position)에서 비롯된 관찰과 속고가 해당 사회에 관한 특정한 재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9세기 미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포착한다고 본다. 나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상상력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미국의 정치적 상상력의 핵심에 시민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의미하는 ‘일상 정치’(Everyday Politics)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Community Organizing)⁷⁾이 있다고 보고, 두 개념을 주요하게 논한 미국

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Wolin, Sheldon S. *Tocqueville between Two Worlds: The Making of a Political and Theoretical Lif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9와 Okin, Susan Moller.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13 참조.

7) 오거나이징은 시민 결사, 결사체 조직, 지역사회 조직화,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하게

의 정치철학자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를 소개한다. 보이트는 지역과 일상에 기초한 시민 정치를 강조하는 정치사상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와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민운동 조직가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나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 또는 시민의 권리 요구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이트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치철학을 통합하는 실천적 관점에서 나온 일상 정치론을 제안한다. 그제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시민개개인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보이트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트의 논의는 한국의 시민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개념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교육 현장,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다양한 풀뿌리 실천을 이론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정치의 생산적·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상 정치는 민주주의를 생활과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고, 정치적인 것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가를 소개하거나 외부의 이론을 수입하는 것을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Community)가 단순히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와 같이 지리적으로 고정된 경계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한다.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서 사용자의 소속감, 신뢰, 상호작용, 헌신, 경쟁 등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거나이징(Organizing) 또한 조직 또는 조직화로 번역하기 보다는 음차함으로써 이것이 일종의 ‘과정 중의 실천’(practice in progress)임을 강조한다. 오거나이징은 완결되지 않은 채 재구성에 열려 있고, 언제나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실천으로서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화한다. 개념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참여자들이 확립된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파일스, 로레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김희송 외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를 참조.

넘어 한국 사회에 축적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천을 새롭게 드러내고 연결하려는 학문적·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2.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19세기 미국의 정치적 상상력이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참여에서 비롯되었음은 토크빌의 저작 곳곳에서 발견된다. 토크빌에 의하면, 가장 신분이 낮은 계급조차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의 번영이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는 점이야말로 미국 초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⁸⁾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미합중국에서 재산 상속에 관한 영국의 법률이 폐지되었기에 대토지 소유자의 가문과 그 후손들은 막대한 재산을 잃고 일반 대중과 뒤섞이게 되었고, 서부 개척으로 인한 국경의 잦은 변경과 이주는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즉석에서 새로운 주를 세우게 했다.⁹⁾ 토크빌은 미국에서 평등한 것은 재산만이 아니며, 사람들의 자질도 어느 정도는 동일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초등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고등교육을 받는 이는 드물다. 미국에는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아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지적 기쁨을 추구하는 취향을 가진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⁰⁾ 이는 유럽 대륙의 귀족 또는 신사 계급과는 대조되는 미국인 특유의 ‘교양 없음’이나 ‘천박함’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토크빌은 이를 미국인의 지적 실용주의와 자질적 평등으로 간주한다. 유럽이 여전히 신분과 종교의 성벽에 갇혀 있을 때 미국은 이를 초월하여 누구나 개인의 야망에 따라 자신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다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신적 토대인 개인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¹¹⁾

반면 유럽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무관심한데, 이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된 탓이다. 유럽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상태,

8) 토크빌, 알렉시스 드, 『미국의 민주주의』 1·2, 임효선·박지동 역, 한길사, 2022, 318면.

9) 토크빌, 110면.

10) 토크빌, 112면.

11) 김봉중, 『미국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 위즈덤하우스, 2019, 153면.

치안, 교회, 사제관 보수 등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마을과 관련된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저 정부라 불리는 힘센 이방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¹²⁾ 이와 달리 미국의 개인은 더이상 노예도, 또 그의 주인도 아니기에 다른 이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는 선택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토크빌의 관찰이다. 미국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동료에게도 유용하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의무이기도 하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다.¹³⁾

이처럼 미국 초기 민주주의의 강점은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적 권리의 개념을 가장 낮은 계급의 시민에까지 확산시킨 데 있다.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동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했다. 토크빌은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아메리카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지적한다¹⁴⁾. 미국에서는 여자들마저 자주 대중 집회에 참여해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흥으로 정치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일종의 생활 습관처럼 미국인들은 대중 집회에 연설하고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결사를 조직했다. 19세기 미국에는 모든 사람이 제각기 참여하는 상공 단체, 종교 단체, 도덕 단체가 있으며 오락 제공, 학교 설립, 교회 건립, 책 배포, 선교사 파견 등 다양한 목적의 결사체가 존재했다.¹⁵⁾ 자유로운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토크빌은 민주적 국가의 힘을 발견한다. 이처럼 평범한 시민이 나서서 일구는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조직화는 실로 미국 초기 정치의 주요한 특징이다.

12) 토크빌, 153면.

13) 토크빌, 675면 참조. 특히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은 토크빌이 미국을 기술하기 위해 ‘예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독립에 성공한 최초의 식민지이자 신생 국가로서 미국이 독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적 신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념—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폴리즘 및 자유방임주의—라고 정리한다. 이때 미국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토크빌의 강조처럼 결과나 조건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및 존중의 평등과 관련된다. Lipset, Seymour Martin.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6. 18면.

14) 토크빌, 326면.

15) 토크빌, 676면.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최근 미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데에는 학교, 비영리조직, 사업체, 정부, 대학 등이 이러한 결사의 전통을 잃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퍼트남(Robert Putnam)은 시민 결사를 통한 호혜적 사회관계 그물망 구축을 강조하며,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명명한다. 미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동호회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적 연대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전반이 악화되었다.¹⁶⁾ “커뮤니티라는 뿌리”를 잃은 결과 제도들은 재창조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한, 구조, 절차에 의해 고정된, 추상적이고 관료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진단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적 참여와 실천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범한 시민들이 결사를 조직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정치적 개입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시민을 제도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간주할 위험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특정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 행위, 공동체 내 특정 자산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 개발 등은 시민의 참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¹⁸⁾ 아른스타인(Sherry R. Arnstein)은 ‘시민 참여의 사다리 모델’(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을 제안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시민 참여에 정보 조작과 대중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질병) 치료를 두었으며, 중간 단계의 시민 참여로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요식적 대답을, 가장 높은 단계의 시민 참여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임 받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협력이 있다고 설명한다.¹⁹⁾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시민이 직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1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2001의 1장과 2장 참조.

17) Boyte, Harry C. *Everyday Politics: Reconnecting Citizens and Public L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2~3면. 이하 보이트의 책과 논문의 번역 및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18) 파일스, 52면.

19)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에 해당한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왔다. 파일스(Loretta Pyles)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당사자들이 리더십 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이슈를 식별하고, 권력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²⁰⁾으로 정의한다면, 파파와 싱할(Michael Papa & Arvind Singhal)은 “한 집단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자원·인간적 잠재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본다.²¹⁾ 두 정의는 모두 당사자 개인과 집단의 ‘역량 증진’(empowerment)과 더불어 ‘사회 변혁’(social changes)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두 정의에서 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법안 통과, 예산 확보, 자금 조달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참여”를 통한 의식 및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정당 중심의 대중 동원과도 구별된다.²²⁾ 단순히 일시적 열기나 감정적 동원을 통해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직접 행동²³⁾을 중심으로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역사적·세대 간·상호교차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실천”이기에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변혁적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 또한 될 수 있다.²⁴⁾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²⁵⁾

Institute of Planners 35.4 (1969): 216~224. 217면.

20) 파일스, 50면.

21) 파일스, 39면, 재인용.

22) Boyte, *Civic Agency and the Cult of the Expert: A Study for the Kettering Foundation*. Kettering Foundation, 2009. 18면.

23) 직접 행동(direct action)은 생산, 소비, 의사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지점에 개입하여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확립된 제도적 구조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계획적·집단적 활동을 의미한다. 파일스, 382면 참조.

24) 파일스, 70면.

25) 파일스, 63면.

3. 해리 보이트의 일상 정치론

건국 초기 뉴잉글랜드의 타운 제도가 보여주듯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은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공의 문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다루는 데 있다. 이는 19세기 말,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및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 운동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제인 애덤스(Jane Addams)의 헐 하우스(Hull House)는 1889년 시카고의 도시 빈민 지역에 설립되어 이민자와 노동계급의 교육, 보육, 직업 훈련, 법적·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헐 하우스는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전개된 미국의 진보 시대(Progressive Era)를 대표하는 정착 운동(settlement movement)의 중심 공간으로, 민주주의를 일상의 삶과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구현하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⁶⁾ 애덤스와 동료들은 도시 노동자의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공동체적 돌봄과 참여를 통해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진보 시대의 개혁적 전통은 1950~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으로 계승된다. 특히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와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SNCC)는 입법과 선거 중심의 제도권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비폭력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구조적 차별에 도전하였다. 이들은 짐 크로(Jim Crow) 법으로 제도화된 인종 분리, 흑인 공동체를 겨냥한 투표세(poll tax)와 문해력 시험, 투표권 박탈, 주거·교육·고용 차별과 일상화된 경찰 폭력에 맞섰다. 이들은 거리, 교회, 학교, 지역 공동체와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은폐된 폭력을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인 것’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구성하였다.

특히 이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리 보이트는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SCLC) 소속이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현장 책임자(field secretary) 중 한 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조직하던 활동가였다. 이후 보이트는 미네소타 대학 민주주의와 시민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2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아, 「제인 애덤스(Jane Addams)의 민주주의 인식과 실천」, 『역사비평』 135, 2021, 426~458면 참조.

Citizenship) 소속으로 ‘공적 실천 프로그램’(Public Achievement)을 개발한다. 학생들이 모여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발굴, 조사, 실천하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미 전역의 다양한 대학과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대학의 공적 실천 프로그램은 학부생과 볼더 지역의 초, 중, 고교생을 연결하고 이들이 평등한 공동체 구축 및 지역 수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²⁷⁾ 정치철학자로서 보이트는 미국 초기 민주적 전통에 기반한 생활과 노동 중심의 실천적 맥락에서 정치를 설명한다.²⁸⁾

일상 정치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뉴딜과 시민권 운동의 민주적 가치를 되살리고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 환경 운동, 신앙 기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청년 시민 참여 운동을 재조명한다. **일상 정치는 시민을 민주적 삶의 방식의 공동 창조자로 본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한 공동체와 자유주의의 핵심인 정치를 통합한다. 실질적 이해집단 간의 협상과 시민적 이상도 결합한다. 이러한 정치 연금술의 핵심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누락된 개념인 ‘노동’에 있다.

Everyday politics, in its largest implications, retrieves democratic themes of the New Deal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as well as more recent feminist and environmental efforts, faith-based community organizing, and the current movement around youth civic engagement. **It sees citizens as co-creators of a democratic way of life.** It integrates community, the theme of communitarians, with politics, the centerpiece of liberalism. It melds practical, interest-group bargaining with civic ideals. The key to such political alchemy is a concept missing from theories of participatory

27)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ublic Achievement: About. <https://www.colorado.edu/publicachievement/about> (검색일 25.11.9.)

28) 현재 보이트는 옥스버그 대학(Augsburg College)의 사보 민주주의와 시민권 센터(Sabo Center for Democracy and Citizenship)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남아공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 전국 시민 재생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ivic Renewal)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기관 및 지역의 시민 조직,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과 함께 일하며 공적 노동과 시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정치를 펼치고 있다. University of Minnesota. Harry Boyte: Affiliate Faculty. <https://www.hhh.umn.edu/directory/harry-boyte> (검색일 25.10.13.)

democracy: “work.”²⁹⁾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 초기 민주적 정신을 계승하며 현대적인 것으로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동안 정치를 전문화하는 동시에 시민성(citizenship)을 탈정치화해 왔음을 비판한다. 기존의 시민사회 담론은 시민을 단순히 유권자, 의뢰인, 시위자, 혹은 자원봉사자로 축소해왔으며, 정치를 그저 정부, 컨설턴트, 로비스트, 전문가가 개입하는 영역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전문가 숭배’(the cult of the expert)는 공적 삶(public life)을 위축시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약화시킨다.³⁰⁾ 이로 인해 정치는 정부의 주도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분배 논리로 축소되고, 정작 그 “무엇”에 관한 논의, 즉 ‘공동의 부’를 창조하는 실제적 과정은 사라진다.³¹⁾ 이 과정에서 시민성은 권력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것이거나 순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시민성 발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보이트의 관점은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이 처한 환경의 공동 창조자이자 맥락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행위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치 행위 주체로 강조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뉴딜 정책과 흑인, 성 소수자, 여성 등이 가시화된 시민권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닿아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시민 역량’(civic agency)이 회복되어야 한다. 시민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환경을 만드는 공동 창조자이다. 시민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동등하고 창조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노동, 특히 ‘공적 노동’(public work)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29) Boyte, Harry C. *Everyday Politics: Reconnecting Citizens and Public L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15면. 강조 인용자.

30) Boyte, *Civic Agency*, 2면.

31) Boyte, *Everyday Politics*, 58면.

보이트가 정의하는 공적 노동은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재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일상 정치의 핵심 개념”이다.³²⁾ 공적 노동은 시민적 개입을 서비스 또는 자원봉사로 보지 않으며 직업, 규율, 개인적·제도적 노동이 갖는 공적 성격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각각 고립된 채 학문을 축적하는 현재의 경쟁적인 대학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공적 노동으로, 교사를 공적 노동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³³⁾ 일상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공적 노동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을 단순한 유권자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가 아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개개인의 시민적 개입은 공적 노동이 된다.

무엇보다 보이트의 논의는 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인 자

〈표 1〉 보이트의 ‘일상 정치’

구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일상 정치
주요 관심사	분배 정의	도덕 질서	시민 역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 정부	참여적 도덕 질서	공적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
시민은 누구인가?	유권자, 소비자	공동체 구성원, 자원봉사자	공동 창조자·행위자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투표, 법 준수, 권리 존중	타인을 돕고 참여하는 것	공적 노동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불평등, 무지	급진적 개인주의	기술 관료주의, 무력감
중심 과제는 무엇인가?	권리와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	공동체 형성, 가치 교육	시민 역량의 개발
핵심 방법은 무엇인가?	투표, 대중 동원, 공공 의견 개진	봉사	조직화, 민중교육, 공적 노동 문화 창조

32) Boyte, *Everyday Politics*, 5면.

33) Boyte, *Civic Agency*, 28면.

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는 구별되는데, 각각의 이론들은 주요 관심사, 핵심 문제, 주요 과제, 시민성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표 1>은 보이트가 제안한 ‘시민 참여의 세 가지 틀’(Three Frameworks of Civic Engagement)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³⁴⁾ 보이트에 의하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된 관심사는 분배 정의로, 사회가 제도를 통해 재화, 기회, 권리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 틀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분배와 무지로 보며, 투표나 대중 동원,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파악한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적 관계와 소속의 윤리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참여적 도덕 질서로 설명되고,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교육과 여론 형성을 통한 도덕적 합의가 중요해진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의 요소를 통합하는 실천적 관점이다. 이는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한다.³⁵⁾ 일상 정치론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과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를 촉진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 전문가,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이나 시민의 권리 요구로 축소하는 것을 넘어 시민 개개인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⁶⁾

34) Boyte, *Civic Agency*, 37면.

35) Boyte, “Civic Education,” 764면.

36) 보이트의 관점은 시민 역량 및 적극적 시민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논의와 결합하여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 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한 호스킨스(Bryony Hoskins)은 시민성 모델을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지식 및 기술 교육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시민성 모델과 공공정신, 연대, 공동선을 위한 행동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시민성 모델을 분리하고, 이와 다른 비판적 시민성 모델을 제안한다. 호스킨스에 의하면, 비판적 시민성 모델은 사회 행동과 정치 행동을 통한 사회 비판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호스킨스,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김국현 역, 한국문화사, 2020, 29~45면 참조.

무엇보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론은 정치의 생산적·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1에서 보듯 일상 정치는 시민 역량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공적 노동을 일종의 “삶의 방식”(a way of life)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가 공적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이라면, 정치 활동은 공동의 세계를 구축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된다. 정치의 창조성은 정치가 마치 “시(poetry)와 같이 의미(meaning), 목적(purpose), 정의(justice), 심지어 아름다움(beauty)에 관한 질문”이라는 데 있다.³⁷⁾ 정치가 기준에 숨겨져 있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면, 정치의 목적은 수반되는 갈등이나 애매모호함을 지우는 데 있지 않다. 정치 활동은 모호함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종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보이트는 “모호함으로 충만하고, 가치의 갈등과 얽혀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적 노력”이 정치라고 설명한다.³⁸⁾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마치 재즈처럼 “반복적이고 열려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³⁹⁾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설립한 ‘공적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에 담긴 기술, 역량, 재능, 예술성을 설명하며 재즈에 비유한다. 일상 정치는 재즈처럼 “열린 과정이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공동창조적 창발(emergence) 행위이다.⁴⁰⁾

이처럼 일상 정치는 시민을 시인이자 음악가와 같이 민주적 삶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이들로 바라본다. 나아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갈등을 담아내고, 공동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동을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다. 조직화, 즉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종종 분열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이상을 호명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여전히 어떠한 울림을 준다.⁴¹⁾ 예를 들어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문화 웰니스 센터(Cultural Wellness Center)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사례가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과 더불어 변혁적·치유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37) Boyte, *Civic Agency*, 14면.

38) Boyte, *Civic Agency*, 14면.

39) Dzur, Albert. “Professionalism,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Harry Boyte.” *National Civic Review* 108(1), 2019, 35면.

40) Dzur, 35면.

41) Boyte, “Civic Education,” 764면.

보여준다. 1996년에 개소한 이 센터는 미국 흑인과 토착민의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며 시민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이 단체는 사람들이 삶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들 스스로 건강의 기준을 정의하고 개인적 수준뿐 아니라 커뮤니티와 문화적 수준에서 질병과 병약함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⁴²⁾

문화 웰니스 센터는 그들이 ‘민중의 질병 이론’(People’s Theory of Sickness)이라고 이름 붙인 철학의 세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치유와 회복에 책임이 있다. 둘째, 커뮤니티는 건강한 삶을 위한 자원과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문화와 건전한 정체성의 연결이 인종차별의 트라우마를 변화시킨다. 이곳의 모임은 병약함, 질병, 건강, 의료, 범죄, 폭력, 인종, 계급, 종교, 영성, 가족 교육, 직장, 노화,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유기적 지식’⁴³⁾ 또한 생산하고 있다.⁴⁴⁾

4. 상상력의 회복을 위하여

정치철학자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 정치를 단순하게 묘사하거나 분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인식적 틀을 형성하는데 일조해왔다. 이때 정치철학자의 상상적 비전은 정치 질서 내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정치 질서 바깥에 놓인 선(善)에 비추어 현실을 해석하려는 “건축적”(architectonic) 형태를 띤다.⁴⁵⁾ 이를 통해 정치철학자들은 정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유의 틀을 제공해왔다. 예

42) Boyte, *Civic Agency*, 32면.

43)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기적 지식’(organic knowledge)은 보이트의 맥락에서 교실이나 제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험과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생성되는 앎,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 속에서 체화된 지식을 뜻한다.

44) Boyte, *Civic Agency*, 32~33면.

45) Wolin, *Politics and Vision*, 19면.

를 들어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the idea of the Good)를 통해 정의로운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the Good life)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논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적 비전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상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긴급히 요구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일상 정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보이트의 논의는 지역 공동체와 교육 현장, 시민운동에서 축적되어 온 다양한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치와 공적 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는 참여는 하되 의사 결정의 권한은 없는 시민 참여 모델과 단순히 정책을 수행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으로 축소된 시민성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 이처럼 보이트의 논의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불매운동 또는 투표와 같이 개별화된 참여에서 벗어나 정치 참여의 방식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촉진한다.

무엇보다 이 글은 보이트의 논의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동하고 조직하는 미국 초기의 민주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한다. 「독립선언서」(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가 암시하듯, 미국은 독립과 평등에 관한 일련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나라이다.⁴⁶⁾ 다양한 민족적·종교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로 세워진 국가인 미국은 일찍부터 인종적·계급적·젠더적 폭력이 존재했으며 동시에 이를 넘어 평등과 권리의 신장을 위해 투쟁해 온 개인들의 지난한 역사를 품고 있다.

이를 계승하는 개념인 일상 정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보통 사람들의 정치 참여와 시민 결사로 만들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두 개념은 시민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제가 발생한 환경을 만드는 공동 창조자이기도 하다는 데 주목한다. 시민은 자신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자유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다.

46) Lipset, Seymour Martin.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6, 31면.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끊임없는 시민적 개입과 공적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완결되지 않는 과정이며, 재구성에 열려 있어 언제나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실천이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과 공적 노동을 통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일상 정치는 법정, 의회, 청문회, 정당과 같이 제도화된 관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지닌 개인과 집단이 관계 맺으며 공동의 부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다시 정치란, 더불어 사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긴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즉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며 변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배치이다.⁴⁷⁾ 이 배치를 바꿔내는 힘은 결국 지역과 일상에 기초한 개인과 집단의 조직화에서 나온다. 정치적 변화가 낡은 질서와 배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상상력은 다양한 세력과 집단 간의 창조적 재조정과 변형을 촉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상상력은 기존 질서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역할과 가치를 전도하고 보이지 않던 삶을 드러냄으로써 정치를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두고 다투는 문제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란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임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상상력이 정치의 외연이 아니라 핵심에 내재해 있으며, 낡은 배치를 넘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구조를 다시 만들고 실천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47) Wolin, *Politics and Vision*, 41면 참조.

■ 참고문헌

- 김봉중, 『미국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 위즈덤하우스, 2019.
- 김진아, 「제인 애덤스(Jane Addams)의 민주주의 인식과 실천」, 『역사비평』 135, 2021, 426~458면.
- 토크빌, 알렉시스 드, 『미국의 민주주의』 1·2, 임효선·박지동 역, 한길사, 2022.
- 파일스, 로레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김희송 외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 호스킨스, 브라이오니.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김국현 역, 한국문화사, 2020, 29~45면.
-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1969, pp.216~224.
- Boyte, Harry C. *Everyday Politics: Reconnecting Citizens and Public L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 Boyte, Harry C. *Civic Agency and the Cult of the Expert: A Study for the Kettering Foundation*. Kettering Foundation, 2009. <https://eric.ed.gov/?id=ED510128> (검색일: 2025.10.24.)
- Boyte, Harry C. “Civic Education as Public Leadership Developmen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6(4), 1993, pp.763~769.
- Coleridge, Samuel Taylor. On the Imagination, or Esemplastic Power.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8th. Stephen Greenblatt and M. A. Abrams (eds), New York: W. W. Norton, 2006, pp.1663~1664.
- Dzur, Albert. “Professionalism,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Harry Boyte.” *National Civic Review* 108(1), 2019, pp.32~39.
- Lipset, Seymour Martin.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6.
- Okin, Susan Moller.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13.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2001.
- Wolin, Sheldon S.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Expanded e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4.

Wolin, Sheldon S. *Tocqueville between Two Worlds: The Making of a Political and Theoretical lif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9.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ublic Achievement: Abou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https://www.colorado.edu/publicachievement/about>.

(검색일 25.11.9)

| Abstract |

Democracy for Ordinary People
and Community Organizing
: Centering Harry C. Boyte's Everyday Politics

Han, Woori

This article explores the tradition of early American democracy rooted in ordinary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organizing, focusing on the activities and political philosophies of Harry Boyte. His discourse seeks to reconfigure "the political" through forms of participation grounded in locality and everyday life. If the essence of political order lies in a stable institutional arrangement designed to address conflicts that arise from communal life, then political vision and imagination become essential for transforming and reconfiguring such arrangements. Democracy for ordinary people urges us to imagine and organize ourselves so that we may see the world differently, speak differently, and live differently. Politics cannot be reduced to a struggle over the 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creative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with differing interests and perspectives come together to build a shared world. Imagination, therefore, is not peripheral to politics but inherent at its core, possessing the capacity to move beyond established arrangements and to reconfigure and enact the structures of the world we inhabit together.

Key Words: Imagination, Everyday Politics, Community Organizing, Tocqueville, Harry Boyte

현대 콘텐츠 속 위장 서사와 고전소설 〈삼선기〉 다시 읽기

—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2007)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요문*·소인호**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고전소설 〈삼선기〉 속 위장 서사의 미학 |
| 2. 드라마 〈커피〉 속 위장 서사의
구조와 기능 | 4. 위장 서사로 다시 읽은 〈삼선기〉의 의미 |
| | 5. 나가는 말 |
-

■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콘텐츠와 조선 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위장(僞裝) 서사의 구조와 의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전소설 〈삼선기(三仙記)〉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이다. 본고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현대 위장 서사의 장르적 관습을 보여주는 비교 준거로 설정하여, 〈삼선기〉와 공유하는 구조적 상동성과 미학적 차별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와 고전의 서사는 견고한 남성 주체의 내면을 위장된 타자가 교란하여 자아의 재편을 유도한다는 공통된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위장이 사실로 수용되는 방식과 그 파급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현대 로맨스 드라마인 〈커피〉가 위장을 통해 주체 내부의 정체성을 심문하는 ‘심리적 변화’에 집중하고 결말에서 기존 질서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선호한다면, 고전 세태소설인 〈삼선기〉는 위장을 사실로 내면화하며 주체를 둘러싼 도덕적 세계관 자체를 해체하고 전연 다른 질서로 ‘이행’하는 경로를 밟는다.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 청주대학교 교수

특히 <삼선기>는 위장의 폭로 이후 남성과 여성이 협의하여 ‘교방 창설’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창안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서사적 실험성을 보여준다. 이는 위장 서사가 로맨스의 쾌감을 위한 일시적 촉매를 넘어, 관계 질서를 재편하고 대안적 삶을 상상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현대적 문제의식으로 고전을 재독해함으로써, 고전 서사가 지닌 개방의 미학을 조명하고 오늘날 K-콘텐츠의 서사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창조적 전환의 자산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위장 서사, <삼선기>, <커피프린스 1호점>, 웹툰소설, K-콘텐츠.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K-콘텐츠에서 ‘위장(僞裝) 서사’는 하나의 클리셰로 고착되어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남성(男裝) 화소를 중심으로 한 서사 구성은 인물 간 관계에 긴장을 부여하고 이야기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치로 작동하며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로맨스라는 통속 장르의 맥락에서 이러한 위장 서사는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며 서사적 결말을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장르 전략으로 기능한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대중적 소구력을 갖는 것과 별개로, 위장이라는 장치가 지닌 전복적 잠재력이 ‘개인 간의 로맨스 성취’라는 장르적 목적 내에 머물게 됨으로써 서사의 확장성 측면에서 일정한 유형화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적 변용 양상을 시론적 렌즈로 삼아, 고전소설 속 위장 서사를 다시 조명함으로써 서사적 장치로서 ‘위장’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조선 후기 고전소설인 <삼선기(三仙記)>이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장르론적 차원에서 ‘웹툰소설’로 분류되어 상층 지식인 사회에 대한 풍자적 기능에 주목되거나,¹⁾ 인물의 성격 변화²⁾ 및

1) 이석래, 「<삼선기> 연구」, 『논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1979, 74면; 김기동, 『한국 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698~702면; 조동일, 『한국문화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510면; 박일용, 「조선후기 웹툰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하)」, 『한

사회문화적 배경론³⁾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⁴⁾ 그러나 이러한 선행 논의들은 〈삼선기〉 서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 ‘위장’의 기능적 층위와 그것이 사실로 수용되는 내적 논리에는 깊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위장 서사를 분석의 중심에 놓고, 위장이 단순한 외형적 변신을 넘어 인물의 상징 질서를 어떻게 교란하고 재편하는지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⁵⁾

이를 위해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하 〈커피〉)을 비교의 준거로 삼는다. 물론 대중문화사적 계보에서 볼 때 남장여자 서사는 1990년대 영화 〈가슴 달린 남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변주되어 온 오랜 관습이다. 그럼에도 〈커피〉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작품이 2000년대 이후 현대 로맨스 드라마에서 ‘위장으로 인한 주체의 존재론적 흔들림’과 그로 인한

국학보』 51, 일지사, 1988, 77~99면; 이문규, 「〈삼선기〉 연구」,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606~612면; 이상구, 「〈삼선기〉 연구: 구조적 특성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9, 안암어문학회, 1990, 86~92면.

- 2) 여세주, 「조선조 남성혜절형 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6~127면; 진은진, 「〈삼선기〉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 『어문연구』 3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77~201면; 이기대, 「〈삼선기〉의 인물형상과 지향가치의 실현방식」,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23~148면; 최천집, 「〈삼선기〉에 나타난 정체성 찾기 과정」,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287~319면.
- 3) 조광국, 「〈삼선기〉에 구현된 조선 후기 신흥 교방의 한 양상」, 『한국문화논총』 26, 한국문화회, 2000, 485~495면; 조광국,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221~226면.
- 4) 위의 연구 외에도 다음의 글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박양리, 「〈삼선기〉의 서사방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2006, 33~58면; 문범두, 「〈삼선기〉 연구 -서사구조와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71~102면; 김진영, 「〈삼선기〉에 나타난 서사관행의 변주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말 글』 102, 우리말글학회, 2024, 309~338면.
- 5) 최근 혜절소설의 특성 중 하나인 ‘풍자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이 작품 속 위장 서사를 풍자나 해학과 다른 차원의 대중적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의 요소가 서사 진행의 핵심 기제로 기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엄태웅, 「〈배비장전〉의 주제-혜절 이면에 숨어 있는 소통과 연대의 방식」, 『Journal of Korean Culture』 64, 고려대학교 한국어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4, 160~165면; 엄태웅, 「고전소설 혜절 모티프 속 지역민과 서울 사람의 형상에 담긴 의미」, 『어문논집』 102, 민족어문학회, 2024, 111~140면.)

‘감정적 파동’을 가장 밀도 있게 형상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⁶⁾ 즉, 〈커피〉와 〈삼선기〉는 ‘공고한 신념을 지닌 남성 주체를 위장된 타자가 교란하여 자아의 재구성을 유도한다’는 구조적 상동성을 공유한다. 본고는 시대와 장르가 판이한 두 작품을 대립시키는 도식적 비교를 지양하고, 두 텍스트가 각자의 장르적 규범 안에서 위장이라는 장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그것이 주체의 세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성의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할 것이다.⁷⁾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위장 서사의 개념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장이란 단순한 외적 변신을 넘어, 위장이 타자에게 하나의 사실로 수용되고 기능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치관의 전복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위장의 본질은 외형의 변형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 질서의 교란과 감정적 동요를 통해 서사 구조를 재편하는 힘에 있다.⁸⁾ 현대 로맨스 장르에서 위장이 대개 로맨스의 쾌감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 기존 질서로 안착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삼선기〉는 위장이 폭로된 이후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창안하는 개방적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본 연구는 현대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전을 재독해하되, 이를 통해 고전 서사가 현대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서사 양상의 차이를 통해 ‘위장’이라는 장치가 지닌 미학적 잠재력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고전 서사 〈삼선기〉⁹⁾를 오늘날의 창작 자원으로 재조명하

6) 신주진, 「〈커피프린스 1호점〉의 포스트모던 서사 전략: 드라마」, 『세계의 문학』 32(4), 민음사, 2007, 32면.

7) 한편 〈커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성애적 긴장이나 젠더 질서의 전복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2(1), 한국방송학회, 2008, 162~200면; 김지혜, 「TV 드라마에 나타난 연애 각본의 변형과 젠더/섹슈얼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 〈커피프린스 1호점〉(2007)과 〈난폭한 로맨스〉(2012)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7(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7~40면.)

본고는 이러한 젠더 중심의 독해를 넘어, 현대 위장 서사의 구조와 기능을 대중적 흥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삼선기〉와 비교함으로써 고전 서사의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8) 신수정·김지윤,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남장여자’ 연구 -궁중 로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169~194면.

는 동시에, 고전소설 연구 내부의 논의 지형을 서사 전략의 측면에서 확장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¹⁰⁾

2. 드라마 〈커피〉 속 위장 서사의 구조와 기능

드라마 〈커피〉는 ‘위장을 통한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사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한국 대중문화사 속 남성 서사의 흐름 중에서도 본고가 특히 〈커피〉에 주목하는 이유는 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의 내면적 파동이 여타의 작품에 비해 높은 밀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재구성’이란 자연 발생적 관계 형성이 아니라, 외적 조건이나 상황의 개입으로 기존 관계가 해체되거나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주인공 고은찬은 생계를 위해 남장을 하고 카페 ‘커피 프린스’에 입사한다. 이 설정은 단순한 외형 은폐를 넘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동성사회(homosociality)’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최한결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한다.¹¹⁾

-
- 9) 텍스트는 1918년 2월 8일에 발행한 이문당(以文堂)에서 발행한 〈삼선기〉(90장본)이다. 해당 원본은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247~336면에 재영인된 것을 참조하였고, 읽기의 편리를 위해 띄어쓰기는 필자가 표기하였다. 또한 원전 인용시 재영인된 책의 면수를 인용문 마지막에 달아놓도록 하겠다.
- 10) 이명현에 따르면 “고전소설의 문화적 가치는 실체화된 텍스트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이며, “그 가치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재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 차원의 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현,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경진, 2017, 84면 재인용.)
- 11) ‘동성사회’는 세드윅(Sedgwick)의 저서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cocial Desire』(1985)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남성 간의 사회적 유대, 연대, 우정, 충성, 제휴 등의 관계를 말하며, 이는 이성애적 욕망과 구별되지만, 반드시 동성애적 욕망과는 동일하지 않은 영역을 지칭한다. (Sedgwick, E 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c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김지혜, 앞의 논문, 20면 참조.)

흥미로운 점은 최한결이 이미 다른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설정이다.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성인 고은찬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결국, 은찬의 남장은 이성과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동성’이라는 위장을 통해 관계의 물꼬를 트는 전략적 장치가 된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동료애는 점차 사적 감정과의 긴장을 형성하며, ‘사장-직원’에서 ‘형-동생’으로 이어지는 의사(疑似) 관계 속에서 갈등을 고조시킨다. 이는 한결이 은찬에 대한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를 기존 질서 안에서 억제하려는 심리의 반영으로, 로맨스를 지체시키면서도 동시에 축진하는 장르적 활력을 불어넣는다.¹²⁾

서사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지점은 최한결이 ‘남성 동료’로 인식했던 은찬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사랑의 감정이 은찬을 향한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공고했던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서의 혼란은 ‘성적 지향’이라는 현대적 범주에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전통적 규범’이 내면화된 주체가 위장된 타자에 의해 자아의 핵심적 신념을 위협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³⁾ 이성애자로서의 자아를 의심하게 된 한결은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은찬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등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지만, 끝내 환청과 환영을 겪으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한 번만 말할게. 너 좋아해.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못 해 먹겠어.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 〈커피프린스 1호점〉 제10회 中

이 대사는 주체가 위장된 관계 속에서 겪은 혼란을 직면하고 새로운 가치

12) 이것을 ‘츄데레 캐릭터’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비우호적 관계 속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숨기는 유형에 대해선 유요문,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 갈등 전환 양상과 여성영웅소설 다시 읽기」,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405~406면을 참조하였다.

13) 한결은 한유주를 짝사랑해 온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찬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음을 자각하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관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위장 서사는 단순히 오해를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존의 자아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수용하게 만드는 서사적 동력이다. 이러한 긴장감은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며 강력한 ‘흥미소’로서 작동한다.¹⁴⁾ 이러한 패턴은 이후 〈미남이시네요〉(2009), 〈성균관 스캔들〉(2010), 〈구르미 그린 달빛〉(2016) 등으로 이어지며 효과적인 장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위장 서사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는 〈커피〉가 동성애 코드를 가볍게 차용하며 최종적으로 이성애적 결합으로 선화함으로써 보수적 질서를 강화한다고 지적한다.¹⁵⁾ 다만 본고는 이를 장르적 맥락에서 재고하고자 한다. 현대 로맨스 드라마에서 위장은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결말을 지연시키는 통속 장르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사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장이 해소되며 기존 질서로 안착하는 경향은 장르적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커피〉의 위장 서사가 여타의 현대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위장이 단순히 로맨스의 촉매를 넘어 주체의 존재론적 흔들림과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는 데 있다. 이는 대중적 흥미를 자극하는 강력한 요소인 동시에, 주체의 내면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서사적 성취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성찰은 결국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적 한계 내에서 개인의 사랑 완성이라는 목적에 수렴된다. 즉, 위장을 실감 나는 사실로 수용함으로써 유발된 고뇌는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서사적 동력은 최한결의 고백 이후 관계가 안정되는 순간 장르적 소명을 다하고 휘발되는 성격을 띤다.

14) 이러한 긴장감은 시청자의 몰입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며, 위장 서사가 대중적 흥미 소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장한 은찬이 남성들 사이에서 행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오해, 우정, 갈등은 유머와 긴장을 동반하여 시청자의 감정 이입을 이끌어낸다. 즉 최한결의 정체성 혼란과 수용의 과정은 위장 서사가 내면의 변화와 성장 서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위장 서사는 현대 콘텐츠에서 관계 구조의 변동과 개인의 내면 변화라는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5) 홍지아, 앞의 논문, 189면.

반면, 시대와 장르가 판이한 고전소설 〈삼선기〉의 경우는 어떠할까. 〈삼선기〉는 남성을 속이는 ‘훼절(毀節)’에 특화된 세태소설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위장이 수용되는 방식과 그로 인한 파급력에서 현대 콘텐츠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삼선기〉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내적 자아 탐색보다는, 위장이 점차 견고한 사실로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도덕적 세계 자체가 해체되는 과정에 집중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위장 서사가 로맨스의 틀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서사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고전소설 〈삼선기〉 속 위장 서사의 미학

앞서 살펴보았듯, 현대 콘텐츠에서 위장 서사는 주로 인물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로맨스를 유발하는 축매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아 구성으로 나아가는 서사 구조가 형성된다. 조선 후기 고전소설 〈삼선기〉 역시 이와 유사한 위장 서사의 구조와 전략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작품은 여성 인물의 능동적인 기획과 다단계 위장 행위가 서사의 중심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관습과는 다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 인물의 혼란이 개인의 내면 변화를 넘어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는 점 역시 〈삼선기〉만의 독특한 미학적 지점이다. 이는 고전소설 일반의 유형성 안에서도 〈삼선기〉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서사적 실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콘텐츠의 로맨스적 관습과 대비할 때 그 미학적 지향점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 작품의 서사적 중추는 평양 기녀 흥도화와 유지연(이하 양기(兩妓))이 도덕군자 이춘풍의 지조를 꺾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위장이다. 이들은 먼저 남장을 통해 스승-제자의 관계를 맺고, 이후 다시 선녀로 변장하여 ‘천정인연(天定因緣)’을 연출함으로써 이춘풍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견인한다. 여기서의 위장은 단순한 변복(變服)이나 기만을 넘어, 인물의 가치 전복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등장인물 관계의 서사 장치로 작동한다.

리칭이 스양타 못허야 밧고 살펴보니 선연헌 골격과 발월헌 괴상이 반약의 풍치와 리티빅의 용모를 겸허엿고, 단정헌 범절과 온공헌 거동이 불사록 반갑고 사랑허야 노을 마음이 업는지라. 삼 인이 디좌하니 주기를 분변치 못허깃고 공부를 시험하니 비록 경학은 업스나 영오헌 지조와 특달헌 의식 의표에 능가는지라. 식로히 경학을 잠심하니 강하를 터놓는 듯, 불과 슈월 동안에 지식이 통투하니 슈야로 강론허야 즐거운 마음을 충량치 못허되 량인이 너모 스제지분을 츠려 슈삭이 지능되 헌 번도 우러” 보지아니코 웃는 양을 보지 못허는 뵈시고 잇서 일동일정을 디신허고 조금도 티만헌 모양이 업스니 리공의 정덕헌 성정으로도 행복홀지라.

- 〈삼선기〉, 263면.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두 여성은 남장을 통해 이춘풍과 지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커피〉의 고은찬이 남성 동료로서 최한결에게 접근하여 정서적 유대를 쌓는 것과 구조적으로 상통한다. 즉, 남장이라는 위장은 남성 주체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진입하여 동성사회적 친밀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관을 허무는 첫 번째 단추로 작동한다. 이춘풍이 이들의 수려한 용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문적 재능에 행복했다는 서술은, 위장이 주체의 이성적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을 시사한다.¹⁶⁾

특히 〈삼선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가짜로 꾸며진 설정이 인물의 인식 속에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탈바꿈되는 치밀한 설득의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커피〉의 최한결이 타자의 위장을 별다른 의구심 없이 곧장 사실로 수용하고 그 화살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려 스스로를 심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삼선기〉의 이춘풍은 초기에는 낯선 타자의 등장을 철저히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논리적·상징적 설득을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 내면화하여, 그 결과로 자신이 밧 딛고 있던 ‘세계’ 자체를 해체해 나가는 경로를 밟는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6) 그런 점에서 이기대가 언급한 ‘지기(知己)적 관계’의 형성과도 상통한다. (이기대, 앞의 논문, 135면.)

작품 속 이춘풍은 “인물 아까운 괴물”¹⁷⁾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유교적 이념에 경도된 인물이다. 또 “인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¹⁸⁾ 사회적 관계망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도덕주의자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은 양기(兩妓)가 평양으로 경치를 구경 가자고 제안할 때 ‘태어난 지 28년만에 처음 강산을 구경한다’고 언급한 점이나,¹⁹⁾ 이 소식을 들은 이춘풍의 두 아우가 신기해하며 칭찬했다는 점²⁰⁾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이춘풍의 설정은 그의 세계관이 얼마나 ‘경색(梗塞)’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고한 태도는 <커피>에서 최한결이 다른 여성과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며 자신의 세계 안에 고립되던 모습과 흡사하다.

다만, <삼선기>의 독창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층적 위치에 있다. 남장을 통한 1차 교란 이후, 이들은 선녀(벽도낭랑)로 분장하여 2차 위장을 감행한다. 여기서 위장은 양기가 이춘풍의 견고한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일 뿐, 그것 자체가 가치관을 뒤집는 유일한 열쇠는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위장을 통해 일단 이춘풍의 내면에 들어간 뒤, 그 거짓 설정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믿게 만드는 서사의 설득력이다.

이춘풍은 처음에는 선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지만,²¹⁾ ‘전생의 인연’이라는 서사와 선녀의 신비로운 권위, 그리고 치밀하게 연출된 위장 증거들

17) <삼선기>, 250면.

18) 최천집, 앞의 논문, 294면 재인용.

19) <삼선기>, 266면. “너 세상에 눈지 이십팔 년에 강산 구경을 못했더니 저 소년은 진기출중한 인지로 평칭을 갖치 잇슬 모양이오, 진실 무의한 사람이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흥금을 널널 도리 업고 아모 썩라도 너 혼즈는 출입이 즈미 업고 ...”

20) <삼선기>, 267면. “니하림 형제 이왕에 량칭의 직모를 흠양하다가 형장과 동형하야 강산 구경하든 소식이 신기하야 량인을 디하야 치하 왈 “우리 사형이 너모 고상하시와 세정을 아조 모르시드니 량위 공즈를 만스 신후잠적흔 의스를 위로하고 공부상에 디단 유익하시더니 지금 쏘 동형하시와 서도 물식을 구경하오면 우리 사형의 과도흔 면성을 널널 썩 지극 감수하오며 량공즈는 세정에 한숙하니 당부홀 일 업다” 하고 형장을 츠릴시 ...”

21) <삼선기>, 276면. “리공이 그 노주의 말삼을 드르미 하도 허황밍랑하오나 당장 너 눈으로 보았스니 이상하도다. 그런 중 날다려 ‘삼지팔란을 격그리랴’ 하니 더욱 우습도다. 세상에 허무흔 일이 만커니와 더욱 신선이니 귀신이니 흠은 아조 업는 줄 아랴드니 디강 고이하도다.”

에 의해 점차 압도된다. 유학자로서 현실만 존재한다는 공고한 신념이 위장된 허구를 점진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치관의 전복은 ‘술’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금욕을 실천하며 술을 극도로 멀리하던 이춘풍은 선녀가 원하는 술을 마시며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린다.²²⁾ 이후 다시 남장한 여성들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인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²³⁾ 위장 서사가 주체의 내면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시화한다. 즉, 〈커피〉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주체를 재구성한다면, 〈삼선기〉는 위장을 통해 주체의 도덕적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편한다.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자. 〈커피〉의 최한결이 ‘성(sex)’이라는 근대적 경계에서 흔들렸다면, 〈삼선기〉의 이춘풍은 ‘도(道)’라는 전근대적 확신에서 무너진다. 한결의 서사가 위장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정체성의 문제로 수렴된다면, 춘풍의 서사는 위장을 사실로 수용함으로써 ‘내가 믿어온 도덕적 법도가 과연 절대적인가’를 묻는 세계관의 붕괴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삼선기〉의 위장 서사는 단순히 로맨스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 콘텐츠인 〈커피〉가 로맨스적 위장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감정적 긴장에 집중한다면, 〈삼선기〉는 위장이 견고한 현실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도학적 세계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현대적 클리셰와 다르게 위장을 통해 도달한 세계의 균열을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미학적 토대가 된다.

22) 〈삼선기〉, 283면. “도로 나와 석덕에 올나 구경하다가 류싱이 술을 드리거늘 리공 왈 “그더 날과 갖치 잇슨 지 거의 일 년이로디 나의 술 못 먹는 줄을 모르는가?””

23) 예를 들어 이후 다시 남장한 유지연이 이춘풍과 평양 경치를 구경하다가 술을 한번 권하는데, 이때 이춘풍은 평소대로 근엄하게 꾸짖다가도 결국 술을 마시는 풍류남아(風流男兒)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후로도 남장한 양기(兩妓)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재등장하니, 술은 위장 서사가 만들어낸 가치 전복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삼선기〉, 296면. “량량이 좌우에 뵈셔 안즈 다시 술을 권홀시 벽도 량” 왈 “오날 질거음이 평양 직접의 흥류 량싱을 다리시고 경학 강론과 엇더흐시닛고?” 리공이 혼연 왈 “온즈흐 즈미는 잇거니와 질탕흐 풍취야 엇지 이만 흐오리오!”)

4. 위장 서사로 다시 읽은 <삼선기>의 의미

<삼선기(三仙記)>는 1918년 이문당에서 간행된 90장본이 유일본으로 전하며,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창작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성립 시기가 시사하듯, 이 소설은 전근대적 도덕 담론과 근대 이행기의 변화된 사회 감각이 혼재한 경계 위에서 탄생한 텍스트다. 기존 연구는 이 작품을 주로 휘절소설로 분류하고 상층 지식인의 위선을 풍자하는 서사로 읽어왔으나, 본고는 앞선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의 핵심 동력이 ‘위장’이라는 서사적 메커니즘을 통한 주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장의 <커피> 분석에서 도출된 ‘정체성의 혼란-찾기’라는 현대적 경로와, 3장의 <삼선기> 분석에서 나타난 ‘세계관의 토대 해체’라는 고전적 경로가 어떻게 상호 교차하며 의미를 생성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선기>가 지닌 서사적 의미를 심층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삼선기>는 풍자의 웃음과 다른 ‘변화’에 의해 추출된 대중적 흥미가 존재한다. 기존 휘절소설이 주인공의 타락을 희화화하며 독자의 도덕적 우월감을 자극했다면, <삼선기>는 이춘풍의 내면이 균열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한다. 다시 말해, 현대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커피>는 위장이 즉각적인 사실로 수용되어 주체 내부의 ‘성적 정체성’을 심문하는 내밀한 고뇌에 집중하고, 고전 세태소설인 <삼선기>는 위장이 점진적으로 사실화되며 주체를 둘러싼 ‘도덕적 신념’의 근간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견고한 자아를 지닌 남성 주체가 위장된 타자의 개입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규정’해야만 하는 서사적 긴장을 공유하고 있다. 독자는 이춘풍의 몰락을 비웃는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위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전이를 따라가며 그가 기존 신념에서 탈각하여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변화의 차이에 몰입하게 된다. 결국 <삼선기>에서 위장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참여와 내적 긴장을 유도하는 고도의 대중적 흥미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²⁴⁾

24) 이러한 위장 서사의 흥미소적 미감은 이미 17세기 소설인 <구운몽>의 휘절담 초기 형태에서도 관찰된다. 양소유는 혼약 상대인 정경패가 궁금하여 여장을 하고 몰래 접

둘째, 〈삼선기〉의 위장 서사가 기존 휘절소설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은 위장 이후의 질서 수립 방식에 있다. 일반적인 휘절소설에서의 위장은 남성의 도덕적 파탄을 증명하거나, 반대로 그를 다시 가부장적 질서로 복귀 시키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활용된다.²⁵⁾ 그러나 〈삼선기〉의 서사가 본격화되는 지점은 오히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의 대응 방식에 있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 〈커피〉를 비롯한 현대 로맨스물에서 위장의 폭로가 대개 주체 간의 정서적 합일과 이성애 질서로의 안정적 복귀로 이어지는 것은 통속 장르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삼선기〉의 이춘풍은 위장이 ‘사실’로 내면화되었기에 겪어야 했던 세계관의 붕괴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제3의 해법’으로 승화시킨다.

“그런게 아니라 너 명식이 경학하든 선비로 기첩을 엮엽히 세고 드러 가면 위선 아오 등의 모양이 엇지 되며, 또 너의 등을 다려다가 규중에 가두고 는 공부할 지경이면, 너의 등 적막함은 고스하고 너 일도 쓸 썩 업슨 좃시라. 공연히 식구만 붓햄이니 무슨 효암이 잇스리오! 너의 등 편함이 곳 너의 편함이니 조흔 도리로 의론하라 함이요, 너의 등 공동 함은 아니라. 그럼으로 예부터 스즈의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흔 연괴 로다.”

- 〈삼선기〉, 306면.

근하는데, 이를 알게 된 정경패는 분노하여 보복을 꾀한다. 그녀는 시녀 가춘운을 선녀로 분장시켜 양소유를 유혹하게 한 뒤, 귀신으로 위장시켜 공포심을 유발하는 계략을 펼친다. 이는 양소유의 호색함을 비웃고 놀리기 위한 유희적 장치로, 주변 인물들의 공모 속에 계획된 일종의 ‘속임수 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위장 서사는 인물의 결함을 풍자하거나 서사적 유희를 구성하기 위한 흥미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휘절소설로 이어지면서 풍자성이 강화되거나, 반대로 〈삼선기〉처럼 흥미성과 감정 이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변용된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 25) 이에 대해 송소라의 논의가 주목된다. 송소라는 휘절소설을 젠더비평으로 읽으면서 남성연대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서사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송소라는 휘절소설이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여성혐오적 시선을 내면화한다고 평가했다. (송소라, 「남성휘절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1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15~147면.)

위 인용문에서 이춘풍은 자신의 체면과 여성들의 처우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교방 창설’이라는 대안적 삶을 제안한다. 주목할 것은 이 결단이 이춘풍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여성들과의 ‘의론(협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장을 주도했던 여성 인물들은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서사적 주도권을 잃지 않고, 이춘풍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설계하는 ‘협의적 주체’로 우뚝 선다.²⁶⁾ 이는 위장 서사가 인물의 개별적 욕망 성취를 넘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설계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거시적 서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삼선기>의 이춘풍은 두 여성의 정체가 모두 드러난 이후, 자신의 기존 가치관이 전복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된다. 그에게 닥친 딜레마는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신념, 사회적 위치,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문제로 확장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춘풍이 딜레마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제3의 해법’을 창출한다는 점이다.²⁷⁾ 두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문의 체면이 손상되고, 그렇다고 이들을 감추거나 숨긴다면 그녀들의 규방 내에서의 적응이 문제된다. 이 상황에서 이춘풍은 교방을 창설하고 스스로 모가비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²⁸⁾

26) <삼선기>, 309면. “즉일에 의론이 구일하야 평양성 훈복판에 슈빅 간 교방을 창설하고 ‘관서 데일루’라 현판하고 정당은 슈미당이니 춘풍용 리학조 선성님이 거하고 동변 강선루에는 좌슈석 흥도화 랑〃이 십이 교방을 거느려 거하고 우변 슈선루에는 우수석 류지연 랑〃이 십이 교방을 거느려 거하고 중앙 만화당은 장광이 삼십간이니 이십스 교방이 모여 련습하는 곳이라.”

27) 이재은은 필자가 말한 제3의 길에 대해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한다고 보았다. 이 대안적 남성성이 남성 사회에 위협이 되기에 남성연대에 편입되지 못한 채 새로운 세계에 편입된 것이라 해석한다. (이재은, 「조선 후기 휘절소설 속 ‘복수의 남성성들’과 남성 젠더 실천의 다층성」, 『한국고전연구』 64, 한국고전연구학회, 283~291면 참조.) 이 글 역시 <삼선기>를 젠더적 차원에서 독해하지 않았지만, 이춘풍이 위장을 통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일종의 대안적 세계를 창안 혹은 새로운 세계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28) 이렇게 본다면 <커피>의 최한결의 서사는 고은찬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동성사회로 복귀하는, 즉 남성성을 안전하게 회복하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의 휘절소설에서 남성성을 상실한 도덕군자형 남성이 여성을 만나 다시 동성사회의 일원

결국 <삼선기>의 위장 서사는 남성을 기존 질서로 복귀시키는 도구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 콘텐츠인 <커피>가 위장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감정적 긴장에 집중한다면, <삼선기>는 위장이 견고한 현실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도학적 세계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공동체적 질서의 재창안으로 나아간다. 이는 위장의 폭로가 곧 기존 질서로의 귀속을 의미하는 현대적 관습을 넘어, 위장을 통해 도달한 세계의 균열을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축하는 미학적 개방성으로 연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의 제명을 남성 주인공이나 특정 여성의 이름이 아닌 ‘세 신선의 이야기(三仙記)’로 정한 것은, 이 서사가 특정 성별의 승리나 복귀가 아닌 복수 주체 간의 수평적 공존과 협력 구조를 지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위상을 도구적 차원에서 주체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장르적 관습을 새롭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장 서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서사적 성취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대 콘텐츠의 위장 서사가 지닌 장르적 관습을 <삼선기>의 실험적 양상과 대비함으로써 서사적 상상력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했듯, 현대의 위장 서사는 대개 인물의 정서적 유대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작동한다. 그리고 위장의 해소와 함께 주체들을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복귀시키는 경로를 취한다. 이는 독자에게 관계의 안착이라는 장르적 쾌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효한 서사 문법이다. 한편, <삼선기>는 위장을 통해 발생한 가치관의 균열을 발판 삼아, 주체들을 전연 다른 사회적 공간(교방)으로 진입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개방의 미학’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위장 서사가 관계의 완성을 지향하는 봉합의 미학을 보여준다면, <삼선기>는 위장의 폭로를 기점으로 공동체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열어젖히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의 시도가 고전이 현대보다 우월

으로 복귀하는데, <커피>는 바로 이 구조를 잘 따라가고 있다. 반면, <삼선기>의 이혼 풍의 서사는 동성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획한다는 점에서 분명 독특하다.

하다는 단성적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전을 재독해함으로써, 고전 속에 내재된 서사적 유연성과 주체성의 감각을 발굴하려는 시도다. 환연하자면 현대 서사의 관점을 통해 고전 서사를 조명할 때 새롭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삼선기>가 보여준 상호적 서사 기획과 제3의 질서 창안은 오늘날의 창작 환경에도 여전히 유효한 미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결국 위장 서사로 다시 읽은 <삼선기>는 단순히 양반 계층 혹은 조선 후기 현실을 풍자하는 서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콘텐츠 생산 환경에서 클리셰를 전복하고 서사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전환의 자산으로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고전 서사가 지닌 이러한 실험성은 오늘날 K-콘텐츠가 추구해야 할 서사적 다양성의 훌륭한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현대 콘텐츠와 고전소설에 나타난 ‘위장 서사’의 구조와 미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전소설 <삼선기>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시론적 준거로 삼아 고전의 텍스트를 재독해한 결과, 위장이라는 장치가 시대와 장르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미학적으로 확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와 고전의 위장 서사는 공고한 남성 주체를 위장된 타자가 교란하여 자아의 재편을 유도한다는 구조적 상동성을 공유한다. 둘째, 위장이 수용되는 방식에 있어 <커피>가 위장을 즉각적 사실로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심리적 경로를 택한다면, <삼선기>는 위장을 점진적으로 사실화하며 주체를 둘러싼 도덕적 세계를 해체하는 경로를 밟는다. 셋째, 위장의 폭로 이후 <커피>가 기존 시스템의 회귀를 통해 정서적 안착을 꾀한다면, <삼선기>는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통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개방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동안 <삼선기>는 주로 상층 지식인의 위선을 꼬집는 휘절소설로 읽혀왔으나, 본고는 위장 서사라는 렌즈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닌 서사적 실험성과

협의적 주체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위장의 폭로를 파멸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모델(교방 창설)로 연결하는 대목은, 위장 서사가 개인의 연애사를 넘어 사회적 상상력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는 특정 현대 콘텐츠 한 편을 주요 대비군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현대 위장 서사 전체의 지형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전을 다시 읽는 역(逆)방향의 접근은 고전을 오늘의 창작 자원으로 되살리는 유효한 비평 전략임을 증명하였다. 〈삼선기〉가 보여준 개방의 미학과 협의적 주체성은 클리셰의 반복에 직면한 오늘날의 K-콘텐츠가 서사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원전 텍스트

- 〈삼선기〉(이문당, 1918);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247~336면 재영인.
정규복·진경환 역, 『구운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3~125면.

2. 논저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698~702면.
김지혜, 「TV 드라마에 나타난 연애 각본의 변형과 젠더/섹슈얼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 〈커피프린스 1호점〉(2007)과 〈난폭한 로맨스〉(2012)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7(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20면.
김진영, 「〈삼선기〉에 나타난 서사관행의 변주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말 글』 102, 우리말글학회, 2024, 309~338면.
문범두, 「〈삼선기〉 연구 -서사구조와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71~102면.
박양리, 「〈삼선기〉의 서사방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2006, 33~58면.
박일용, 「조선 후기 휘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하)」, 『한국학보』 51, 일지사, 1988, 77~99면.
송소라, 「남성휘절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1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15~147면.
신수정·김지윤,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남장여자’ 연구 -궁중 로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169~190면.
신주진, 「〈커피프린스 1호점〉의 서사전략」, 『세계의 문학』 32(4), 민음사, 2007, 320면.
엄태웅, 「〈배비장전〉의 주제 -휘절 이면에 숨어 있는 소통과 연대의 방식」, 『Journal of Korean Culture』 64,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4, 160~165면.
_____, 「고전소설 휘절 모티프 속 지역민과 서울 사람의 형상에 담긴 의미」, 『어문논집』 102, 민족어문학회, 2024, 111~140면.
여세주, 「조선조 남성휘절형 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6~127면.
유요문,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 갈등 전환 양상과 여성영웅소설 다시 읽기」,

-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405~406면.
- 이기대, 「〈삼선기〉의 인물형상과 지향가치의 실현방식」,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23~148면.
- 이명현, 『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경진, 2017, 84면.
- 이문규, 「〈삼선기〉 연구」,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606~612면.
- 이상구, 「〈삼선기〉 연구: 구조적 특징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9, 안암어문학회, 1990, 86~92면.
- 이석래, 「〈삼선기〉 연구」, 『논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1979, 74면.
- 이채은, 「조선 후기 휘절소설 속 ‘복수의 남성성들’과 남성 젠더 실천의 다층성」, 『한국고전연구』 6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264~266면.
- 조광국,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221~226면.
- _____, 「〈삼선기〉에 구현된 조선후기 신흥 교방의 한 양상」,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485~495면.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510면.
- 진은진, 「〈삼선기〉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 『어문연구』 3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77~201면.
- 최천집, 「〈삼선기〉에 나타난 정체성 찾기 과정」,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287~319면.
-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키피프린스 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1), 한국방송학회, 2008, 178면.
- Sedgwick, E 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c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Abstract |

Re-reading Disguise Narratives in Modern
Korean Content and the Classical Novel

〈Samseongi(三仙記)〉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rama
〈Coffee Prince 1st Shop〉(2007)

Yoo, Yomoon·So, Inho

This study seeks new interpretative possibilities for the Joseon Dynasty classical novel 〈Samseongi〉(三仙記)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disguise narratives in modern content and classical fiction. By establishing the drama 〈Coffee Prince 1st Shop〉 as a comparative reference demonstrating the genre conventions of modern disguise narrative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structural homology and aesthetic distinctions shared with 〈Samseongi〉.

Analysis reveals that both modern and classical narratives share a common structure in which a disguised other disrupts the inner world of a rigid male subject, leading to a reconstruction of the self. However,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way the disguise is accepted as fact and in its resulting impact. While the modern romance drama 〈Coffee Prince〉 focuses on psychological changes that interrogate the subject's internal identity and prefers a safe return to the existing order at the conclusion, the classical secular novel 〈Samseongi〉 internalizes the disguise as fact, deconstructs the moral worldview surrounding the subject, and follows a path of transition toward an entirely different order.

In particular, 〈Samseongi〉 demonstrates unique narrative experimentation in that the male and female characters cooperate to create a new communal orde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yobang following the revelation of the disguise. This proves that disguise narratives can function as a strategic resource for reorganizing relational orders and imagining alternative ways of life, moving beyond a temporary catalyst for romantic pleasure. By re-reading the classic through a contemporary le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lluminating the aesthetics of openness inherent in classical narratives and uncovering assets for creative transformation that can expand the narrative

diversity of today's K-content.

Key Words: Disguise Narrative, 〈Samseongi〉, 〈Coffee Prince 1st Shop〉, Corruption Narrative, K-content.

불교 관점에서 바라본 김광협 시세계의 생태 윤리

김지연*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보살행의 실천 |
| 2. 동일 법성의 평등 | 5. 맺음말 |
| 3. 이타적 공동체 윤리 | |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광협 시의 새로운 의의를 규명하고, 나아가 현재 직면한 생태·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자꽃 마을』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시세계에 드러난 생태윤리를 불교 생태학적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순서는 ‘동일 법성의 평등’, ‘이타적 공동체 윤리’, ‘보살행의 실천’ 등이다. 첫째, 김광협 시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불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동일법성(同一法性)을 띠고 있다. 동일법성의 자각은 존재들 간 평등성을 획득하고 상호 존중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평등한 모든 존재들은 동화를 통해 삼라만상의 자유로운 교감을 이어나간다. 둘째, 동일 법성의 평등관에서 비롯된 상호간 동화와 교감은 김광협의 시에서 삼라만상의 공동체 윤리로 확장된다. 불교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이타적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한다. 이 행위는 타자 중심의 자기희생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광협 시세계의 이타행은 자기자신에게 되돌려지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성격을 띤다. 셋째, 김광협 시의 화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마음으로 작품 속 존재들에게 불이의 동체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동체자비는

* 제주대학교 강사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 같은 자발성을 띠게 되므로 생태 윤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김광협, 『유자꽃 마을』, 동일법성, 보살, 이타행, 공동체 윤리

1. 머리말

김광협은 1941년 제주에서 태어나 1993년 작고한 시인이자 언론인이다. 그는 1963년 『신세계』 제1회 신인상 공모에 「빙하(冰河)를 위한 시」가 당선되고, 1965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강설기(降雪期)」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등단 이후 그는 창작 시집 6권을 출간하였으며,¹⁾ 시선집 2권, 번역 시집 2권, 번역서 1권 등을 세상에 내놓았다.²⁾ 왕성한 활동의 결과, 1974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81년에는 시집 『농민(農民)』이 대한민국 문학상에 선정되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도 특이한 이력을 남겼다. 1966년 시 「대통령에게」를 발표하고, 1968년 청년문학가협회 권익 옹호 활동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기소당하거나, 1971년에는 폐습(弊習) 시리즈 연재 중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방면의 발자취에도 불구하고, 작고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는 『강설기』, 『농민』,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논의 내용은 김광협 시의 현실 인식과 시적 진술³⁾, ‘농민의 삶’이 작품에 수용

-
- 1) 『降雪期』, 현대문학사, 1970, 1~117면; 『千波萬波』, 현대문학사, 1973, 1~192면; 『農民』, 태멘, 1981, 1~114면; 『禮成江曲』, 한샘, 1983, 1~82면;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1984, 1~204면; 『山村抒情』, 예하, 1992, 1~196면.
 - 2) 『황소와 탱크』, 정음사, 1983, 1~312면; 『유자꽃 마을』, 신원문화사, 1990, 1~198면(이상, 시선집); 토니 가터 외, 김광협 옮김, 『아메리카 인디언 청년 시집』, 백록, 1991; 투르게네프, 김광협 옮김, 『투르게네프 산문시』, 예하, 1992, 1~139면(이상, 번역시집); J.클레어런스, 김광협 옮김, 『미국의 공해정책론』, 백록, 1993, 1~238면(번역서).
 - 3) 윤호병, 「김광협의 시세계」, 『한국 현대시인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7, 449~

된 측면⁴⁾과 그의 농민시 특징⁵⁾,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에 드러난 제주어 문학의 과제 진단,⁶⁾ 『강설기』의 생태적 의의⁷⁾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만으로는 김광협의 시세계를 조명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일부 특정 시집에만 연구의 초점이 놓인 것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본 연구는 『유자꽃 마을』을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시선집은 김광협의 기 출간 시집들을 아우르고 있어서 그의 작품세계를 통람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⁸⁾

그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관심 가졌던 문제 중 하나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한강 수질보전 행정에 관한 연구」(1984)⁹⁾를 발표하고, J. 클레어런스의 『미국의 공해정책론』(1993)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관심사는 자연과 환경 그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시인의 그와 같은 현실 인식이 작품 표면에 노정되기보다는 대부분 내재화된다는 사실이다.¹⁰⁾ 이러한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유자꽃

471면.

- 4) 송상일, 「살아진다의 부정과 긍정」, 『천사의 품문』, 탐라목석원, 1991, 129~135면; 김병택, 「김광협: 농민의 삶」,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출판부, 2005, 115~119면.
- 5) 김지연, 「김광협의 농민시 고찰」, 『영주어문』 제27집, 영주어문학회, 2014.2, 143~170면.
- 6) 이성준, 「제주어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배달말』 제51권, 2012.12, 121~160면.
- 7) 김지연, 「김광협 시에 관한 생태적 고찰」,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12, 505~528면.
- 8) 이 시선집에는 『降雪期』, 『千波萬波』, 『農民』, 『禮成江曲』,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등, 『山村抒情』을 제외한 그의 기출간 시집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다. 그는 『유자꽃 마을』 서문에서 자신이 수록 작품들을 직접 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시선집 표지에는 ‘김광협 대표시집’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그가 얼마나 이 시집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 9) 김광협, 「한강 수질 보전 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보건의학회지』 제10권 제2호, 1984.11, 9~40면.
- 10) 이 점에 대해 『농민』(1981)의 서문을 통해서도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서문(2면)에서 “이 시집은 여러 모양의 삶들 중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마을』의 서문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서문에 “시인이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 자연과 천지 우주에 대한 각자(覺者)이어야 한다”¹¹⁾라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 진술에 내포된 시인의 생태·환경 의식은 불교사상과 상통하는 점점을 보여준다.¹²⁾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의 자아 개념이 파편적·개별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불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하는 연결망에 의해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교사상에 대한 한순미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 작가들은 불교사상을 현실의 저항담론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미학적 실천 원리로써 민중문학의 담론을 형성해나갔다.¹³⁾ 바로 이 지점에서 김광협은 당시 문단 내 위치가 선명히 구별된다. 그는 생태적 현실 인식으로써 논문과 신문기사¹⁴⁾를 발표하거나 공해 관련 서적을 번역하는 반면, “시가 조금치나마 시대의 산물이 되어지는 것을 거부”¹⁵⁾한 채 ‘농민’을 대표적 상징 소재로 삼아 전통서정의 미학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그는 1970~80년대를 아우르는 리얼리즘의 문학 흐름과 유사한 기저의 결을 지니면서도 정작 그들과는 다른 문학적 창법을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딛고 있던 문학의 표면적 기반은 ‘전통서정’에 기울어진 듯 보이지만, 그의

터전인 농촌의 모습들을 순박하게 그려본 것이다 …중략… 나는 이 시집 속에 들어 있는 시가 조금치나마 時代의 産物이 되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농민』에 수록된 작품 중 대다수가 1970년대에 발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수록 작품 중 1970년 이전 발표 12편, 1970~1979년 발표 48편, 1980년 발표 8편), 이 시집은 1970년대 이후 불어닥친 농민문학의 계몽적 주요 흐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준다. (김지연, 「김광협의 농민시 고찰」, 『영주어문』 제27집, 영주어문학회, 2014.2, 158~166면 참조)

- 11) 김광협, 『유자꽃 마을』, 신원문화사, 1990, 3면.
- 12) 그의 시 〈분홍색 석가모니〉(『산촌서정』)에도 ‘아슈브다’, ‘鹿行’, ‘鳥行’, ‘魚行’ 등 생경한 불교 용어와 명칭들이 잘 체화되어 있어서 시인의 불교적 친연성을 짐작하게 한다.
- 13) 한순미, 「고통의 시대와 저항담론으로서의 불교사상」, 『호남문화연구』 51, 호남학연구원, 2012.6, 259~265면 참조.
- 14) 김광협, 「핵심 빼놓은 한강 종합개발」, 『신동아』 327호, 1986.12, 496~505면;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한국」, 『신동아』 제96호, 동아일보사, 1972.8, 234~241면; 「경제와 문화」, 『문예진흥』 10, 1987.3, 15~18면; 「한강치수, 그 허점을 따진다」, 『신동아』 302, 동아일보사, 1984.11, 402~413면 외 다수 있음.
- 15) 김광협, 『農民』, 태멘, 1981, 2면.

생태적 현실 인식은 ‘내재화된 리얼리즘’으로 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지질 연대표상 ‘홀로세 Holocene(11,700년 전~현재)’라 명명된다. 홀로세 이후 인류 문명의 발생과 발달에 따라 이상기온, 자연과 생태계 파괴 등 전방위적 문제가 도래하였다. 파울 크루첸(Paul J. Crutzen)은 ‘홀로세’의 인위적·파국적 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인류세 Anthropocene’라는 용어를 제안하였으나, 인간중심적 시각이라는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툴루세 Chthulucene’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¹⁶⁾ 그는 이 개념을 통해 툴루세란 인류만의 시간과 공간이 아닐뿐더러, 현재 직면한 생태·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요청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¹⁷⁾ 이때 해러웨이가 보여주는 ‘실뜨기(string figure)’ 형상화는 주제와 상대가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이 개념이 불교의 바탕이 되는 연기(緣機)적 사유와 접맥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태·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툴루세를 열어나갈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불교사상에서 찾아 실천적 생태윤리를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김광협의 시세계를 ‘불교’와 전일론적(holistic) 세계관을 견지하는 ‘생태학’의 연계 하에 불교생태학적¹⁸⁾ 방법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자꽃 마을』 서문에 드러난 ‘자기 자신의 삶, 자연과 천지 우주에 대한 각자’의 함의에 대해, 그 시세계에서 실마리를 찾아 생태윤리의 실천적 지향을 밝혀나갈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첫째, ‘동일 범성의 평등’, 둘째, ‘이타적 공동체 윤리’, 셋째, ‘보살행의 실천’ 등의 순서로 이어나가게 된다. 이 논의를 통하여 한국현대시사의 김광협 시에 대한 새로운 의의 규명은 물론, 생태·환

16)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옮김,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문화와 과학』 97, 문화과학사, 2019.봄, 164~166면 참조.

17) 현남숙, 「D.해러웨이의 다중적 생태정치」, 『한국여성철학』 제35권, 한국여성철학회, 2021.5, 85~86면 참조.

18) “불교생태학이란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제반 학문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 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2006, 28면)

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 윤리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2. 동일 법성의 평등

근대 이전,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방식은 물활론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과 자연, 주체와 타자가 분리됨으로써 자아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자타가 분리된 이분법적 세계관의 기저에는 세계 존재들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차별적 인식이 숨어 있다. 이 차별적 인식은 인간중심의 사고에 의해 인간 외의 존재들을 객체로 보고 인간이 그들 위에 군림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생태학자 머레이 북친 역시 생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 그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한 수직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인간이 자연을 피지배 대상으로 객체화함으로써 그것을 착취하고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과 달리 김광협은 시세계에는 인간과 자연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이 드러나고 있다.

취꽃, 취도라지, 용담꽃, 수박풀꽃 쇠풀
 집단에 잔뜩 묶어 놓곤 요놈의
 꽃들을 복순이한테 안아다 주리라
 곰곰 생각하고 있는데, 장끼 한 마리
 푸드드득 날아 그놈 날아가는
 골짜구니께 굽어보니 복순이
 게서 적삼 풀어 있고 복숭아나무도
 아닌 복순이 가슴에 분홍빛
 홍도 곱게 익어가는 소리만
 아슴뿔 들릴락 말락.

— 〈홍도(紅桃)〉 전문

근대 산업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자연은 과학기술로써 조작과 이용이 가능한 정복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자연 존재들은 그 스스로의 내재적 가치²⁰⁾를 인정받는 대신 인간의 필요와 쓰임새에 따라 도구적 가치가 결

19)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답론』, 서울출판사, 1999, 109면.

20) ‘내재적 가치’ 개념은 첫째, 어떤 목적 실현이나 다른 존재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for its own sake)’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둘째, 외부의 가치 평가자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in itself) 가치 있는 것’으로

정되었다.²¹⁾ 위 작품에서도 도구적 가치관의 흔적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칙꽃, 칙도라지, 용담꽃, 수박풀꽃들을 쇠꼴 집단에 묶고 있다. 꽃들은 쇠꼴 집단의 일부이자 동시에 화자의 마음을 복순이에게 전해주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그 꽃들은 메신저로서 도구적 가치의 대상이 되어 있다. 화자가 산길에 피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꽃들의 존재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꺾거나 훼손하여 그것들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꽃들을 복순이에게 전하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장끼 한 마리가 날아오름으로써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갑작스레 등장한 장끼는 이기심 뒤에 가려졌던 화자 본연의 마음(自性)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²²⁾ 장끼의 날갯짓은 시상의 전환과 더불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화자가 자연 대상들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간과됐던 꽃들의 내재적 가치들도 차례차례 환기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장끼가 날아간 골짜기에서 성장하던 복숭아 나무는 ‘적삼 풀어헤친 복순이’로 변환하여 드러난다. 화자에게 단지 도구적 가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들이 화자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존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청정한 자성이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가 부여된다고 본다. 이 청정한 자성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만물의 본체로서 불성이다.²³⁾ 외형적 형태가 존재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불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 삼라만상의 자연 존재들은 모두 ‘동일법성(同一法性)’을 띠게 된다.²⁴⁾ 이런 맥락에 따라, 내재적 가치를 회복한 꽃

이해되기도 한다.(김남준, 「생태중심주의에서 내재적 가치 논쟁」, 『윤리교육연구』 54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9.10, 63면)

- 21)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는 자연에 있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만 그 존재들의 가치를 승인한다.”(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 윤리』, 철학과현실사, 2007, 87면)
- 22) 모든 존재에게 청정한 자성, 즉 ‘불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다운 인간의 본성이 내재한다는 뜻이며, 모든 사물의 궁극적이 본체가 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2007, 289면)
- 23) 서재영, 「선(禪)의 생명평등 사상과 수행문화」, 『한국선학』 제23권, 한국선학회, 2009.8, 425면.
- 24) 모든 존재의 동일 법성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다.(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동국대

들과 화자는 동일 법성으로서 평등성을 획득한다. 골짜기의 복숭아나무가 복순이로 변모하는 의인화의 기저에는 동일 법성의 자각에서 비롯된 상호존중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일 법성의 이해는 단지 모든 존재들의 평등성을 자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작품에 이르러서는 존재들 간의 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종려나무 그늘에 누워
출렁이는 바다만 바라보았다.
푸른 물 위로 금빛 고기가 뛰어오르고
몽개구름 아래로 흰 돛배가 지나고
가벼운 바람은 뺨을 간질이고
풀잎들은 줄음같이 떨었다.
안텔센의 동화를 읽으면서
나도 한 마리 금빛 고기가 되었다.
흰 돛배도 되고 바람기도 되고
초록 향기로운 풀잎도 되었다.
— 〈종려나무 그늘에 누워〉 전문

유자꽃 꽃잎 새이로
파아란 바다가 출렁이고,
바다 위론 똑딱선이 미끄러지더이다.
뒤틀마루 위에 유자꽃 꽃잎인 듯
백발을 인 조모님은 조을고
내 소년도 오롯 잠이 들면,
보오보오 연락선의 노래조차도
갈매기들의 노래에 묻어
이 마을에 오더이다.
보오보오 연락선이 한 소절 올 때마다
떨어지는 유자꽃
— 〈유자꽃 피는 마을〉 부분

〈종려나무 그늘에 누워〉에는 주인공 화자가 등장한다. 종려나무 그늘에 누워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시야에 ‘금빛 고기’와 ‘몽게구름’, ‘흰 돛배’, ‘풀잎’이 차례로 들어온다. 1~2행의 화자는 다소 먼 거리에서 그들을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한적한 어촌 마을 풍경의 일부로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3행의 ‘금빛 고기’와 4행의 ‘몽게 구름과 흰 돛배’, 5행의 ‘가벼운 바람’, 6행의 ‘풀잎들’ 모두 언뜻 보기엔 서로 무관한 존재인 듯 보인다. 그러나 관찰자 시선에 놓여 있던 대상들은 점차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들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5행에서 화자의 뺨을 간질이는 바람과 6행에서 줄음같이 떠는 풀잎들이 그것이다. 풀잎들이 “줄음같이 떠는” 모습은 1행의 “종려나무 그늘에 누워” 있는 화자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풀잎과 화자가 간접적인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인드라망²⁵⁾이라는 연결망 위에서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화자는 자신 역시 인드라망의 전일적 세계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들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 대상들과 동화됨으로써 화자 스스로 한 마리 금빛 고기가 되고, 흰 돛배도 되고 바람기도 되고, 초록 향기로운 풀잎도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존재들 간의 동화는 “『입보리행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로 바꾸어 보기 방법인 자타상환법(自他相換法)”²⁶⁾과 다르지 않다. 나 자신과 타존재를 바꾸어 봄으로써, 나 자신을 타존재로 보는 것처럼 타존재 또한 나 자신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화자가 모든 자연 대상들에 내재된 동일 법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은 〈유자꽃 피는 마을〉에 이르러 삼라만상의 자유로운 교감으로 드러난다. 1행의 유자꽃 꽃잎 사이에서 출렁이는 2행의 파아란 바다는 서로 상

25) 화엄에서는 법계의 모습을 인드라망으로 설명한다. 무한히 큰 보배그물의 그물코에 달려 있는 보석들은 서로의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래서 그것은 중중무진한 연기 속에서 어느 하나만 빛나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빛나는 세계, 일체 만유가 모두 중심이고 주인공인 평등한 세계를 상징한다.(양형진, 「불교와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 『한국선학』 1권 0호, 한국선학회, 2000, 416면)

26) 안옥선, 「생태적 삶의 태도로서 ‘동일시’와 ‘동체자비」, 『동아시아불교문화』 1권 0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 237면.

입(相入)²⁷⁾하는 존재들이다. 이어지는 3행의 똑딱선의 등장 역시 돌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다. 이 자연스러운 연계는 연기적 발생에 의한 것이다. 서로 스스럼없는 상입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유자꽃 꽃잎·파아란 바다·백발 조모님·내 소년·연락선 노래·갈매기·연락선·유자꽃으로 이어지는 삼라만상의 연기(緣機)가 조화롭게 형상화된다. 삼라만상이 “먼지 하나에서 거대한 우주까지 모든 존재가 시공간적으로 서로 침투하여 상호작용하는 전일론적 체계”²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영향관계의 시작과 끝에는 유자꽃이 놓여 있다. 이것은 곧, 만물의 시작이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임(色卽是空 空卽是色)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자꽃으로 상징되는 삼라만상의 동일 법성은 ‘색(色)이자 공(空)’으로서도 평등성을 획득하게 된다.

3. 이타적 공동체 윤리

앞선 논의가 동일 법성의 평등관에서 비롯된 상호간 동화와 교감의 측면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그것이 삼라만상의 공동체 윤리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체 윤리에 있어서 ‘공동체’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의 한정된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제도의 개혁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성품 변화를 통한 전략”²⁹⁾을 추구한다. 보다 구체

27) 양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으로 하여 관계 전제로 나아가게 할 때, 이와 같이 양자가 작용을 주고받는다든 측면이 상입(相入)이다. (권상우, 「화엄사상의 탈현대적 사유·주체와 타자」, 『철학논총』 제46집, 새한철학회, 2006, 18면)

28) 윤종갑,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과 복잡계 이론」, 『동아시아불교문화』 제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290면

29)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제도 개혁이나 혁명에 의존하는 전략과 구성원 각자의 성품 변화를 통한 전략이 그것이다. 불교는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올바른 성품

적으로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이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이타적 행위의 점진적인 양상이 김광협의 시세계에 잘 드러나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오이를 깎다가
 문득 칼날과 칼끝을 바라보며
 칼날과 칼끝은 안으로,
 항상 너의 깊은 안으로 해서
 어른들께 드러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쟁쟁 들리느니
 어머니, 지금 이 자식은
 서울 구석에서도 오이를 깎으면서
 어머니의 음성을 되새겨 듣사옵니다.
 칼날과 칼끝을 안으로 함은,
 사랑이니라, 자비로움이니라.
 베풀이니라, 은혜로움이니라.
 오이를 깎다가
 문득 그 서슬 푸른 칼날과 칼끝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음성을 되새기웁니다.

— 〈오이를 깎으면서〉 전문

〈오이를 깎으면서〉에 드러나는 화자의 이타적 행위는 타자에게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다. 1행과 2행, 오이를 깎는 화자의 시선이 칼날과 칼끝에 머문다. 일반적으로 칼은 날카롭고 예리한 특성 때문에 대상을 훼손하거나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데 오이를 깎고 있는 화자에게 “칼날과 칼끝은 안으로, 항상 너의 깊은 안으로”라는 어머니 음성이 상기되어 떠오른다. 자칫 타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기에 칼날과 칼끝을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는 나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먼

형성에 개개인의 올바른 심성 형성 또는 도덕의식의 변혁에 의한 태도 변화-호소하는 전략을 취한다.”(안옥선, 『불교윤리의 현대적 이해』, 불교시대사, 2002, 64면)

저 생각하는 배려가 담겨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긴 화자는 “고향을 떠나 서울 구석에서도 오이를 깎으면서” 어머니 음성을 듣는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타지에서조차 어머니 음성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화자에게 이미 체화된 이타심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화자는 그렇게 ‘칼날과 칼끝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로움’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타자를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이 다음 작품에 이르러서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드러난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꾼.
 흙이 오라 하면 가고,
 가서 소리 없는 말씀 나누시고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꾼.
 나무나 풀이 오라 하면 가고,
 가서 소리 없는 말씀 나누시고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꾼.
 비바람이 거세면 거센 대로
 비바람이 오라 하면 가고,
 가서 소리 없는 말씀 나누시고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꾼.
 햇살이 오라 하면 가고,
 이슬이 오라 하면 가고,
 가서 소리 없는 말씀 나누시고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꾼, 농사꾼.
 — 〈부모님〉 전문

화자의 부모님은 농사꾼이다. 주지하듯이 농사꾼이란 비료와 농약 치기, 전정 등 농작물 관리와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농사꾼의 농사 행위는 일반적인 농작물 관리와 수확의 과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농사란 인간 대 자연의 이분화된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연에게 행하는 일방적 행위다. 그것은 농작물 관리라는 시혜의 측면에서 볼 때 이타행이지만, 수확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착

취 행위이기도 하다.

반면, 작품에 그려진 농사꾼 부모님의 농사 행위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의적 암시가 들어 있다. 우선, 화자의 부모님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농사꾼이다. 그들은 ‘흙’, ‘나무나 풀’, ‘비바람’, ‘햇살’, ‘이슬’이 부를 때마다 농토로 향한다. 그 부름에 호응한다는 건, 자연을 관리·착취당하는 도구적 타자로 바라보는 대신 동등한 존엄성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들은 “가서 소리 없는 말씀을 나누시고” 돌아올 뿐 그 행위에는 서로 어떤 대가가 따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된 농사 행위는 지배·피지배의 수직 관계에서 벌어지는 착취가 아니며, 동등한 존재들 사이의 친교에 가깝다. 그것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쌍방향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농사꾼이 농작물에 행하는 시혜의 의미다. 이 행위가 일방적인 이타행에 머물지 않고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이타행이란 타자 중심의 자기 희생이 전제된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농사꾼의 희생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지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행위로 묘사되고 있다.³⁰⁾이 작품에 드러난 농사꾼의 농작물에 대한 시혜는 일방적 이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소리 없는 말씀 나누는” 행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自利)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사 행위가 풀, 흙, 풀, 비바람, 햇살, 이슬 등 모든 삼라만상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됨으로써 자리아타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 행위는 ‘자타 동등 배려’³¹⁾가 된다. 자타 동등 배려의 자리아타행이 다음 작품에서는 사사무애(事事無碍)로 형상화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30) 안옥선은 『입보리행론』을 분석하면서 자리아타적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 『입보리행론』에 따르면, 자기 희생적 자비는 자기를 희생하지만 그 희생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희생이 아닌 자리(自利)로 환원되는 것이다. 표면상 자기희생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리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안옥선, 『생태적 삶의 태도로써 ‘동일시’와 ‘동체자비’』, 『동아시아불교문화』 1권 0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 240~241면 참조)

31) 위 논문, 241면.

복사꽃 꽃잎 지는 한낮,
연분홍 꽃잎 사이
바다는 푸르고
햇빛은 와 속살긴다.
당유자(唐柚子) 이파리에.
— 〈서귀포의 봄〉 전문

이 세상 모든 것은
결백하게 부르고
결백하게 대답한다.
— 〈설일초(雪日抄)〉 부분

〈서귀포의 봄〉에 등장하는 존재들에는 복사꽃, 당유자 등 생명체와 햇빛, 바다 등 비생명체 뿐만 아니라, 바다, 햇빛 등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의 모든 구성원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들이지만, 엄연히 다른 현상적인 차이를 지닌 존재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는 상즉상입(相卽相入)³²⁾의 관계에 놓여 있다. 삼라만상의 상즉상입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다. 이 세계에서는 개체 하나하나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고유성을 발휘하면서도 어떤 걸림도 없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³³⁾

32)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양자는 고유한 성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으로 하여 관계 전체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양자가 작용을 주고받는 측면이 상입(相入)이고, 양자가 관계 맺음을 가진다는 것이 상즉(相卽)이 된다. 그래서 상즉과 상입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화엄에서는 관계를 맺는 대상이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무한한 지평으로 나아가 무한한 존재와 관계 맺음을 설명하고자 한다.(권상우, 「화엄사상의 탈현대적 사유·주체와 타자」, 『철학논총』 제46집, 새한철학회, 2006, 17~18면)

33) “상즉상입의 원리에 따라 사건이나 사물을 이해할 경우, 인간과 사회가 각각 자율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융섭하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불교와 사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유승무, 「상즉상입의 불교사회학」, 『동양사회사상』 제10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36~41면 참조)

복사꽃 꽃잎과 바다, 당유자 앞에 햇살이 속살기는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 걸림 없이 존재하고 있다. 복사꽃은 분홍 꽃잎 사이로 바다의 푸르름을 돋보이게 하고, 햇빛으로 전이되어 당유자 앞에도 내려앉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이타행을 보여준다. 또한, 꽃이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바다와 햇빛 등 다른 존재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자리(自利)의 성격도 띤다. 그들은 낱알의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막힘없는 상즉상입의 자리아타를 맺어나간다.

이러한 상즉상입의 근본 원리는 <설일초(雪日抄)>에 등장하는 만물의 존재 방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첫 행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백하게 부르고 결백하게 대답”하는 소통을 이어간다. 연기적 측면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가 인(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답하는 행위는 과(果)에 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대답하는 인과(因果)의 주체들이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뭉뚱그려진 채 ‘이 세상 모든 것’이라 명명된다. 다시 말해, 그들 각자 실체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인과의 발원지로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그 행위들 또한 ‘인’과 ‘과’ 어느 하나의 역할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역할이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 그들은 자성을 가진 실체성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 속에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호작용은 ‘자리’ 또는 ‘이타’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도된 인과가 아니다. 그 인과는 자리아타적 관계 맺음이며, 근본적으로는 삼라만상의 상호의존적 존재 방식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그것을 ‘결백’하고 ‘정당’한 행위라 표현한다. 그 결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직간접적이고 중첩적인 영향 관계 속에 서로 결백하고 정당하게 융합하면서 사사무애 법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김광협의 시에 드러난 이타적 윤리는 첫째, 일방적 이타행이 아니라 자리(自利)로서 소급되는 쌍방향 윤리라는 점, 둘째, 상호의존적 존재방식에 따라 그 행위의 원인·주체(因)나 결과·대상(果)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 그 역할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공동체 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4. 보살행의 실천

김광협 시세계의 공동체 윤리가 자리아타 원리에 따라 구현되고 있음을 살펴해보았다. 그런데 그의 시에 드러나는 이타행은 보살사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대승 불교의 성립 이후, 보살사상은 아라한(阿羅漢)의 개념에서 벗어나 차츰 보편화되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현세에 머무르며,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자기의 비심(悲心)을 성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삼는 자”³⁴⁾이다. 보살의 제일 덕목인 자비(이타심)란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며, 이러한 이타행은 보살이 행해야 할 책무로 규정된다.

내 누이 시집 가는 날은
 산머위꽃도 노랗게 웃던 날.
 께르륵 동녕바치야
 줍쌀 한줌 건네면 께르르륵 헤헤헤
 동네방네 께르륵 께께르륵 헤헤헤
 내 누이 시집 가는 날은
 나는 너를 하냥없이 기다렸노라.
 농사꾼 내 부모도 너를 기다렸노라.
 줍쌀만 주랴, 술지게미만 주랴.
 온 상을 하나 차려 주지.
 께르륵 동녕바치 너 내내 아니 오니
 누이 잔치도 어디 한 구석 섭섭터라.
 너는 지금 어디 저 각수암(角秀岩) 바위틈새기
 한줌 흙 쓰고 누워 들국화쯤 기르냐.

34) 부파불교의 『구사론(俱舍論)』에서도 보살의 이타행이 강조되고 있다. “보살은 오래도록 자비를 닦아서 비록 자기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남에게 이익되는 것을 좋아한다. ……남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남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자기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의 괴롭고 즐거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김진, 『보살사상과 자비의 윤리』, 『철학논총』 제48집, 새한철학회, 2007, 117면)

저 동백꽃 꽃물로 되어 어찌어찌 흐르나.

— 〈깨르륵 동녕바치〉에서

〈깨르륵 동녕바치〉의 배경은 누이의 잔칫날이다. 깨르륵 동녕바치에서 ‘깨르륵’은 의성어이며 ‘동녕바치’는 거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³⁵⁾ 혼인 잔치가 벌어진 날, 화자는 시끌벅적한 풍경 속에서 한없이 동녕바치를 기다린다. 화자가 동녕바치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에게서 이익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되레 화자는 동녕바치에게 좁쌀과 술지게미, 거나한 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 없는 보시의 이타행(無住相布施)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無住相布施)로 중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³⁶⁾ 보살의 자비심이다. 심지어 화자는 “너 내내 아니 오니 누이 잔치도 어디 한 구석 섭섭타라”라고 독백하며 동녕바치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오지 않는 동녕바치를 기다리며 그 부재를 아쉬워하던 화자는 동녕바치의 안위를 염려하는 보살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보살은 “연기법에 대한 사무친 통찰 속에서 태어난 인간”³⁷⁾이다. 동녕바치의 부재로 인한 섭섭함으로부터 화자는 반야 지혜의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연기에 대한 정각(正覺)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동녕바치가 “각수암 바위틈새기에 한줌 흙 쓰고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연기적 혜안이 그것이다. 한줌 흙으로 돌아간 동녕바치는 들국화의 양분이 되고 동백꽃으로도 피어나게 된다. 삼라만상은 개별

35) “제주에는 내 어릴 적부터 ‘깨르륵, 깨르륵’하는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동네 사람들을 웃기며 동냥질을 하는 멧쟁이 거지가 있었다. ‘동녕바치’는 ‘동냥아치’의 제주도 말”(김광협, 『유자꽃 마을』, 앞의 책, 21면 각주)

36)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실천 수행법의 하나이자 보살의 실천 덕목이 육바라밀의 제1 덕목이 보시이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에 의하여 반야바라밀을 증득할 수 있고, 중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無所作為), 즉 무위심(無爲心)이 되어야만 그 안에 진정한 자비심도 일어나는 것이라 하여, 응하되 마땅히 머무름 없이 행하는 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를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조성희, 「보살행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22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10, 175면)

37) 고영섭,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연기사, 2001, 75면.

적인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는 상호작용에 의해 실체가 규정된다. 각수암 바위틈새기에 흙이 된 동녕바치는 들국화와 동백꽃과 영향을 주고받는 인연생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그 연기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중층적인 상호작용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즉상입의 상호관계 속에서 동녕바치와 한줌 흙, 들국화와 동백꽃, 그리고 화자는 서로를 포괄하며 서로의 실체를 규정하는 불이(不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의 동체인식은 다음 작품들에서도 드러난다.

나와 하늘과 땅이 농부 하나를 묻었다.
 순수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건강한 의식.
 눈보라도 하냥 몰아치며 몰아치며 있었다.
 저쪽 하늘과 땅, 이쪽 땅과 하늘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세상은 드디어 달했다.
 기막힌 일이로되 기막히지 말자며
 나와 하늘과 땅은 농부 하나를 묻었다.

— 〈매장(埋葬)〉 부분

무덤 위에서
 청개구리는
 상모(喪母)의 찬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뜨거운 눈물을 길어올린다.

— 〈청개구리〉 부분

삼라만상은 시공간의 연기 그물 속에서 인연을 맺음으로써 생겨나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게 된다. 〈매장(埋葬)〉은 그와 같이 인연을 다한 한 농부의 실제 매장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첫행에서 화자는 하늘과 땅을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호명하고 있다. ‘나와 하늘과 땅’은 서로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불이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농부 하나를 묻었다는 것을 연기적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자

면, ‘하늘과 땅’이 농부와 ‘순수자연’으로서 인연 화합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그 현상에 대해 ‘순수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불교에서 인식하는 자연관은 “모든 존재자가 상의성(相依性)과 연생성(緣生性)과 공성(空性)을 법으로 하여 통일된 한 생명의 큰 바다를 이룬다”³⁸⁾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들과 농부의 인연화합은 모두가 더불어서 자연의 큰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무릇, “보살은 연기 법에 대한 사무친 통찰 속에서 태어난 인간”³⁹⁾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형상화된 ‘매장’ 행위는 화자의 단순한 자비(이타행)가 아니라, 하늘·땅·농부와 더불어 법계 자연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법계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한 뿌리(物我同根)라는 인식이 배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적 깨달음은 〈청개구리〉에서 동체자비로 구현되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청개구리에게 투사되고⁴⁰⁾ 있다. 화자는 투사의 동일화를 통해 청개구리를 객체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감정을 소유한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상모(喪母)의 찬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청개구리는 화자 자신으로서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게 된다. 보살의 동체자비는 ‘온 세상을 한 몸으로 여기는 위대한 자비’⁴¹⁾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므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동체자비의 이타행은 생태 윤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광협 시의 이타행은 연기의 깨달음 위에 발아하여 ‘동녕바치, 하늘과 땅, 청개구리’로 표현된 삼라만상으로 확장되어 드러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38) 김종욱,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불교평론』 2호, 2000.봄, 406면.

39) 고영섭,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연기사, 2001, 75면.

40) 투사란 대상에게 자신의 태도, 감정 등을 부여하는 자기자신과 동일화하는 것을 말한다(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257면)

41) 윤영해, 「자아 개념의 해체와 불교의 생태 윤리」, 『환경철학』 6권0호, 2007, 210면.

5. 맺음말

본 연구는 김광협 시의 새로운 의의를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생태·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생태 윤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자꽃 마을』에 드러난 생태윤리를 불교생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순서는 첫째, ‘동일 법성의 평등’, 둘째, ‘이타적 공동체 윤리’, 셋째, ‘보살행의 실천’ 등이다.

첫째,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청정한 자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 청정한 자성이 만물의 본체이고 불성이며, 부처님에서 중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은 동일 법성(同一法性)을 지닌다. 김광협 시세계에서는 도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내재적 가치를 회복한 모든 존재들이 동일 법성으로서 평등성을 획득한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의인화의 기저에는 그러한 동일 법성의 자각에서 비롯된 상호존중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 법성의 이해는 단순히 모든 존재들의 평등성을 자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시세계에서 존재들 간의 동화를 통해 삼라만상의 자유로운 교감으로 이어진다.

둘째, 동일 법성의 평등관에서 비롯된 상호간 동화와 교감은 김광협 시에서 삼라만상의 공동체 윤리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불교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제도의 개혁보다도 구성원들이 이타적으로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이타적 행위의 점진적인 양상이 김광협 시세계에 잘 드러나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 행위는 타자에게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타자 중심의 자기희생이 전제된다. 그러나 작품에 드러난 이타행은 자기자신에게 되돌려지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성격을 띤다. 이 상호작용은 ‘자리’ 또는 ‘이타’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도된 인과가 아니다. 그 인과는 쌍방향의 자리아타적 관계 맺음이며, 근본적으로는 삼라만상의 상호의존적 존재 방식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이 존재방식에 따라 그 행위의 원인·주체(因)나 결과·대상(果)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역할이 뒤바뀔 수도 있다. 그 결과, 모든 존재들은 중첩적인 영향 관계 속에 걸림 없이 융섭하면서 사사무애 법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리한 자리이타는 공동체 윤리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작품 속에서 화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마음으로 작품 속 존재들에게 불이의 동체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투사의 동일화를 통해 시적 대상을 객체가 아닌 자신과 같은 감정의 소유자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한 몸으로 여기는 보살의 동체자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들을 한 몸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에게 행하는 자비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 같은 자발성을 띠게 되므로 그 이타행은 생태 윤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광협 시의 이타행이 연기의 깨달음 위에 발아하여 삼라만상으로 확장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김광협은 1970~80년대를 아우르는 리얼리즘의 문학 흐름과 유사한 기저의 결을 지니면서도 정작 그들과 다른 문학적 창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그가 딛고 있던 문학의 표면적 기반은 '전통서정'에 기울어진 듯 보이지만, 그의 생태적 현실 인식은 '내재화된 리얼리즘'으로 가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다른 행보를 보인 그의 문학은 당대 전통서정시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지함으로써 문단을 풍성하게 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김광협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시사의 주요 흐름에서 비껴난 문학인들의 창작적 모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 바란다. 덧붙여, 본고의 논의 내용이 생태·환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 윤리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영섭,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연기사, 2001, 1~159면.
- 권상우, 「화엄사상의 탈현대적 사유·주체와 타자」, 『철학논총』 제46집, 새한철학회, 2006, 3~21면.
- 김광협, 『유자꽃 마을』, 신원문화사, 1990, 1~198면.
- 김남준, 「생태중심주의에서 내재적 가치 논쟁」, 『윤리교육연구』 54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9.10, 59~118면.
- 김종욱,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불교평론』 제2권제1호(통권2호), 2000.봄, 384~407면.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1~390면.
- 김진, 「보살사상과 자비의 윤리」, 『철학논총』 제48집, 새한철학회, 2007, 109~135면.
-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1~410면.
-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2007, 1~465면.
- _____, 「선(禪)의 생명평등 사상과 수행문화」, 『한국선학』 제23권, 한국선학회, 2009.8, 419~450면.
- 안옥선, 『불교윤리의 현대적 이해』, 불교시대사, 2002, 1~462면.
- _____, 「생태적 삶의 태도로서 ‘동일시’와 ‘동체자비」」, 『동아시아불교문화』 1권0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 223~249면.
- 양형진, 「불교와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 『한국선학』 1권0호, 한국선학회, 2000, 415~428면.
- 유승무, 「상즉상입의 불교사회학」, 『동양사회사상』 제10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33~58면.
- 윤영해, 「자아 개념의 해체와 불교의 생태 윤리」, 『환경철학』 6권0호, 2007, 189~216면.
- 윤종갑,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과 복잡계 이론」, 『동아시아불교문화』 제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277~299면.
- 윤호병, 「김광협의 시세계」, 『한국현대시인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7, 449~471면.
- 정운, 「“華嚴經”의 禪觀 小考」, 『禪學』 제32호, 한국선학회, 2012.8, 39~66면.
- 조성희, 「보살행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22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10, 175~199면.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 윤리』, 철학과현실사, 2007, 1~397면.

한순미, 「고통의 시대와 저항담론으로서의 불교사상」, 『호남문화연구』 51, 호남학연구원, 2012.12, 259~302면.

현남숙,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한국여성철학』 제35권, 한국여성철학회, 2021.5, 79~106면.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옮김,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틀루세: 친족 만들기」, 『문화과 과학』 97, 문화과학사, 2019.봄, 162~173면.

| Abstract |

Ecological Ethics in the Poetic World of Kim Gwang-hyop from a Buddhist Perspective

Kim, Jiyeon

This study examines Kim Gwang-hyeop's poetic world through a Buddhist-ecological perspective, taking Village of Citron Blossoms as the primary text. The discussion unfolds in three parts: first, the "equality of the same Dharma-nature" (dongil beopseong, 同一法性); second, the ethic of an altruistic community; and third, the practice of altruistic action.

First, Buddhist philosophy maintains that all beings possess pure self-nature. In Kim's poetry, beings freed from instrumental valuation recover their intrinsic worth, thereby attaining equality as expressions of the same Dharma-nature. This understanding does not remain at the level of merely recognizing equality; rather, it leads to mutual interpenetration and resonance among beings, which unfold into the free and vital communion of all phenomena in the universe. Second, the interpenetration and communion arising from the equality of Dharma-nature are extended into a communal ethic embracing the myriad phenomena of the cosmos. Buddhism stresses that in building a desirable community, what matters above all is the altruistic transformation of its members. Such action is first directed toward the other and premised upon self-sacrifice for the other; yet that sacrifice is ultimately returned to the self as an act of jari-ita (自利利他)—benefiting both self and others. The principle of jari-ita thus holds significance for the sustainability of communal ethics. Third, the unconditional altruistic giving (muju-sang busa, 無住相布施) revealed in Kim's poetry recalls the Bodhisattva's pāramitā. The speaker, with the awakened mind of a Bodhisattva, discloses a nondual recognition of the shared body of all beings (dongche-jabi, 同體慈悲). Through this recognition, it becomes possible to practice the Bodhisattva's compassion, which regards all beings as one body. Because such compassion arises with the spontaneity of caring for oneself, this altruistic action hold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cological ethics.

It is hoped that this study's exploration of Kim Gwang-hyeop's poetry will help to outline a blueprint for ecological ethics.

Key Words: Kim Gwang-hyeop, Village of Citron Blossoms, Dharma-nature equality, Bodhisattva, altruistic action, communal ethics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정미라**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
| 2. 개인의 등장과 근대적 분열 | 4.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 |
| | 5. 맺는 말 |
-

■ 국문초록

헤겔의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이념이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다.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에서 ‘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마무리되는 ‘인륜성’을 자유 실현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인륜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에서 행해진 자유에 관한 헤겔의 이러한 논의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헤겔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한 국가주의 철학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수렴된다. 본 논문은 헤겔이 자신의 『법철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헤겔에 있어서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헤겔, 개인의 자유, 근대의 자연법, 국가, 인륜적 공동체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223)

** 전남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헤겔의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이념이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 체계 중 ‘정신철학’에서 자유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특히 그의 학문적 체계 중 객관정신에 해당하는 『법철학』은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논리적 과정을 담고 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추상법”을 제시한다. 그는 『법철학』의 첫 장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법’에서 개인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산(소유)권의 문제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실현의 우선적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헤겔에게서 재산은 사회적으로,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된 소유라는 점에서 단순한 점유와 구별되며, 재산에 관한 사회적인 인정 문제, 즉 재산에 관한 권리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추상법’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지닌 주체들은 서로에 대해 단순히 사적인 개인이 아닌, 서로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로 인정하는 법적 개인(Person)¹⁾이며, 이러한 법적 개인이 ‘추상법’의 주체를 구성한다. 또한 개인들이 서로를 법적 개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들의 고유한 권리가 된 재산권은 ‘추상법’이라는 사회적 수단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²⁾ 헤겔은 ‘추상법’과 함께 자유의 물질적 조건이, 그리고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개인이 정치적 질서의 시작이자 자유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인 ‘재산권’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철학』은 궁극적으로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라는 공동체적 삶을 다루고 있는 “인륜성”으로 마무리

-
- 1) Person은 일반적으로 인격으로 번역되는데, 인격은 한국어에서 도덕적 능력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법적 개인으로 번역함.
 - 2) 헤겔은 ‘추상법’을 “자유가 구현되는 최초의 양식”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7*,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33 Zu. 독일어에서 Recht는 법이라는 의미와 권리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권리(Recht)는 재산에 관한 ‘법’(Recht)을 통해 규정된다.

된다.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헤겔의 『법철학』은 각각의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차원 높은 개념의 변증법”적인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진리는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의 형식”³⁾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법철학』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추상법’은 자유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 지양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헤겔은 ‘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마무리되는 ‘인륜성’을 자유 실현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인륜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에서 행해진 자유에 관한 헤겔의 이러한 논의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헤겔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한 국가주의 철학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수렴된다.⁴⁾

본 논문은 헤겔이 자신의 『법철학』에서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개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서양 근대의 분열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헤겔의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고(2장), 근대의 위대한 성취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함께 새로운 도덕규범으로 등장한 자율성의 문제에 관한 헤겔의 문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3장). 마지막으로 『법

3) Hegel, G.W.F., 앞의 책 § 31 Anmerk 헤겔은 사유의 구조를 다룬 자신의 『논리학』에서 “지양된 것은 그러한 지양을 통해 무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지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 이전의 지양된 것을 여전히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 지양된 것은 동시에 보존된다”라는 변증법적 사유의 구조를 통해 지양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Hegel, G.W.F.,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5*, Frankfurt a. M., Suhrkamp, 1970, 113면.

4) 이와 관련된 논의는 Ottmann H., *Individuum und Gemeinschaft bei Hege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2면~4면. 참조. 헤겔을 국가주의 철학자로 비판한 대표적 사상가는 포퍼를 들 수 있다.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헤겔에게 “국가는 모든 것이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며”, 헤겔 철학이 “개인적 인륜성과 양심을 완전히 경시하는 국가의 절대적이고 인륜적인 권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사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Popper, K.R.: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Feinde*, Tübingen, J.C.B.Mohr, 1992, 39면.

철학』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 실현과의 연관성 속에서 헤겔의 인륜적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4장)

2. 개인의 등장과 근대적 분열

근대성을 상징하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근대 사회는 사유하는 “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유럽 사회를 지배해 온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유대감과 농경사회 특유의 공동체 의식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과학의 발전은 개개의 인간에 내재해 있는 사유 능력의 중요성을, 그리고 경쟁에 근거해 있는 시장 경제의 발전은 공동체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촉발시켰다. 따라서 근대적 개인은 신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자율적인 판단 능력, 즉 이성 능력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사유능력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인 주체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고의 능력으로서 진리와 선을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또한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해주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세계의 주인으로서 세계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지니게 하는 중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개인이 지닌 절대적인 권리의 확장은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하고, 이와 함께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을 함축하게 된다.

근대 대부분의 정치사상가들은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의 확장이 초래하게 된 사회적 무질서의 위험 속에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원리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작한다. 특히 자연법에 이론적 토대를 둔 홉스를 위시한 사회계약론자들은 어떠한 규범도 존재하지 않은, 무질서한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질서가 가능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원천을 이성에 토대를 둔 개인들의 상호적인 계약으로부터 추론해낸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해

매개된 행위인 계약을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정치적 질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로 규정한다.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외면적인 결합체이며, 오직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상호적인 계약이 개인들의 이성에 의존하는 한 계약은 궁극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파기될 위험을, 개인들의 계약에 의존한 국가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을 노출하게 된다.

헤겔은 자신의 「자연법」 논고에서 근대의 지배적인 철학적 사유라 할 수 있는 근대의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 사유가 지닌 모순을 지적하며, 자신의 실천철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인륜성”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는 근대의 자연법을 홉스로 대변되는 경험주의적 자연법과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자연법으로 구분하는데, 그에 의하면 근대 자연법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로부터 자신들의 사유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갖는다. 근대의 자연법은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으며,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홉즈는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유추하여 개인을 자기보존이라는 자연적 권리를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주체로 규정한다. 또한 칸트는 개인을 사유의 무한성으로부터 추론되는, 이성적 능력을 선형적으로 부여받은 이성적 주체로 이해한다. 헤겔에 의하면 홉즈의 이기적 주체나 칸트의 이성적 주체는 모두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고립된 개인이며,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 이러한 개인들은 궁극적으로 타인과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관계하게 된다.

자기보존이 절대적 목적인 홉즈의 이기적 주체들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내적 원리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관계한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타인들과 대립함으로써 법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⁵⁾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인들은 자기보존이 위협받는 무질서한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적인 계약을 맺게 되며, 자신들을 외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를 요청하고, 궁극적으로 질서를 위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절대적인 자유와 권

5) Hobbes, T., *Leviathan*, Frankfurt a. M., Suhrkamp, 1984, 96면.

리를 지닌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국가의 절대 군주에게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내맡기게 되며, 개인과 개인들, 그리고 개인과 국가와의 계약을 통한 상호적인 관계는 결국 “최고권력 아래로 주체들이 절대적으로 굴종하는 관계”⁶⁾로 귀착된다. 홉즈의 자연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로 부터 출발하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즉 자신들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인간의 선형적인 이성 능력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는 칸트는 실천이성인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격적인 개인들이 다른 인격적 개인들과 공존하는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 자연상태에서도 사회적 삶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칸트에 의하면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격은 자신의 내면적인 보편적 법칙에 따라 다른 자유로운 인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한다.⁷⁾ 그러나 도덕적 주체인 인격은 항상 자신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인격들은 다른 인격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좇을 것이며, ‘...’ 자신의 권리, 즉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바를 행하고 그것을 위해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⁸⁾는 권리의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권리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충돌은 개별적 인격의 도덕법칙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로서 법, 즉 “공법”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⁹⁾ 따라서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는 외적인 공법의 지배를 받

6) Hegel, G.W.F., 앞의 책, 30면.

7) 이와 관련하여 이충진은 칸트에게서 “자연상태는 각각의 개인들의 상호적 관계를 규제하는 보편적 법칙하에 있는 인간관계이되 법칙적 규제의 실현이 공적 권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인간관계”로 규정한다. 이충진, 『이성과 권리』, 철학과 현실사, 2000, 140면.

8) Kant, I.,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I*, Berlin und Leibzig, 1907, 312면.

9)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 Berlin und Leibzig, 1907, 307면.

게 되며,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도덕적 자율성이 아닌 법적 규제, 즉 법적 규제의 체계인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결국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 즉 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구분은 “다수 사람들의 강제법칙 아래로의 통합”¹⁰⁾을, 그리하여 개인의 자율성은 “강제의 보편적 체계”¹¹⁾인 법과 국가에 의해 훼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홉즈는 개인들의 상호적인 불신으로부터, 칸트는 도덕성에 의존한 개인들의 자의성으로부터 강제성을 지닌 국가를 요청하지만, 그들의 공통된 이론적 토대는 이기적 개인으로 이해하든, 혹은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든 개인의 절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홉즈와 칸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개인을 절대적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지만 그들의 자연법 사상은 동일하게 법과 국가로 대변되는 “보편의지에 대한 개별의지의 대립을 전제”¹²⁾하며, 궁극적으로 국가로 대변되는 보편의지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헤겔은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근대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실체화 속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자연법사상은 근대의 시대 정신인 원자적 개인들을 실체화함으로써 고립적인 “개별자의 존재를 첫째이자 최고의 것으로 설정”¹³⁾한다. 즉 ‘주체의 절대성’에 근거해 있는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며, 개인에 내재해 있는 타자 관계성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늘 변화하는 ‘생동성’을 포착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헤겔은 ‘개인’의 등장과 함께 야기된 근대적 분열을 극복하고자 했던 홉즈와 칸트의 계약론적 시도는 결국 그들의 이론적 토대인 개인의 자연적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헤겔은 「자연법」 논고에서 자연법 비판을 통해 근대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새로운 원리로서 “인륜성” 개념을 제시한다. ‘인륜성’은 공동의

10) Kant, I., 앞의 책, 313면.

11) Hegel, G.W.F., 앞의 책, 472면.

12) 같은 곳.

13) Hegel, G.W.F., 앞의 책, 454면.

역사와 문화 속에 표현된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러한 민족은 단순한 집단 공동체라기 보다는 그 안에서 “생동하는 존재”¹⁴⁾인 개인과 개인이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연결된 “관계”들의 총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헤겔은 『법철학』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이러한 “인륜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3.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헤겔이 「자연법」 논고에서 행했던 근대 자연법 사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현실 세계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구체적 원리를 추적하는 『법철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헤겔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연적 권리로부터 시작해 법적 강제성으로 귀착하는 홉즈의 사유와 자율적 주체성을 중시하는 칸트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를 각각 “추상법”과 “도덕성”이라는 장에서 다루므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기반한 근대적 정신을 자유 실현의 중요한 토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헤겔이 『법철학』의 첫 장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법’에서 다루는 개인의 권리는 홉즈가 제시한 자연적 권리가 아닌, 상호 인정관계라는 토대위에 구축된 사회적 권리로서 법적 권리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연적 권리는 타인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법적 제도에 토대를 둔 사회적 권리로 인정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헤겔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현실적 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법철학』에서 ‘추상법’을 개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번

14) Hegel, G.W.F., “Über die wissenschaftliche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in: *Jenaer Schriften, Werke in zwanzig Bänden Bd.2*, Frankfurt a. M., Suhrkamp, 1970, 113면.

15) Hegel, G.W.F., 앞의 책, 481면. 김준수에 의하면 헤겔의 인륜성 개념은 “총체주의적(holistisch)”이며, “이러한 모델 속에서는 전체가 개체에 선행하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개체들의 존립과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없이는 전체도 있을 수 없으며, 양자는 상호 구성적”이다. 김준수, 「근대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근대의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Hegel, G.W.F., 『자연법』, 김준수 옮김, 한길사, 2004, 172면.

째 계기로 규정한다.

‘추상법’은 법적 주체인 법적 개인의 소유권을 문제 삼는데, 소유권은 생존을 위한 물질 자원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다. 즉 소유권은 자연적인 욕구나 충동, 그리고 자의에 따라 외적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점유와 달리 타인에 의해 인정된 사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두 가지 측면, 개인과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즉 헤겔이 ‘추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유권은 한편으로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자유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소유권은 개인들 상호 간의 인정관계를 전제함으로써 자유의 현실적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법’의 소유권 속에 표현되는 이러한 인정관계는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법적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지니게 되며, “법의 명령은 법적 개인이 되어라. 그리고 타인을 법적 개인으로 존중하라”¹⁶⁾로 귀결된다.

법의 이러한 명령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법적 개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추상법’의 주체인 법적 개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들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에 자신을 내맡기는 자연적 개인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의식으로 고양됨으로써 타인을 자신과 같은 동등한 법적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¹⁷⁾ 헤겔에 의하면 상호인정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동일성에 기반한 개인의 보편적 의식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등하다’라는 근대적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근대의 법은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추상법은 궁극적으로 강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6)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36.

17) 헤겔은 선행된 연구의 “결과”를 『법철학』의 “출발점”(Anfangspunkt)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철학』이 이미 이전에 논의된 자신의 실천철학의 핵심 개념인 상호 인정이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Hegel, G.W.F., 앞의 책 § 2 Anmerk. 짙은 법적 개인이 지닌 이러한 보편성을 “내적인 독립성과 상호주관적인 인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Siep, L., “Intersubjektivität, Recht und Staat, in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und Horstmann R.P. (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258면.

법의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법은 보편적인 의식으로 고양된 개인들의 ‘동일성’에 기반한 상호인정관계를 전제하지만, 개인이 지닌 특수한 성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추상법은 개인들의 특수한 욕구를 억압하게 되며, 이와 함께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에게 단순한 의무와 명령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결국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은 법을 자신의 행위를 강제하는 억압적인 외적 기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법에 반하는 불법을 행하기도 한다. 헤겔은 강제성에 기반한 법이 함축하고 있는 불법의 가능성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추상법이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 즉 상호인정이라는 보편성에 근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추상법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헤겔은 ‘추상법’을 통해 근대가 성취한 개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자유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국 추상법이 지닌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개인들의 특수한 성격에 토대를 둔 자율성의 영역인 ‘도덕성’으로 이행한다. ‘도덕성’의 도덕적 주체는 외적으로 강제하고 명령하는 추상법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인 자율성에 의해 보편적인 ‘선’을 구현하고자 한다. ‘추상법’이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법’에 의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형태, 즉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도덕성은 모두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을 지향함으로써 타인과 긍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¹⁸⁾ 헤겔은 도덕적 주체를 “특수하고 주관적인 의지로서 보편적인 것 자체를 원하는”¹⁹⁾ 존재로 규정한다. 형식적 동일성에 토대를 둔 법적 주체가 동등한 권리에 근거해 있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 주체는 “주관적이고 특수한 욕구 충족의 총체”인 “복지”(Wohl)를 행위의 동기로 삼는데, 자신의 “복지”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를, 궁극적으로 모두의 복지가 가능한 “공동의 가치, 즉 선”을 추구한다.²⁰⁾

18) Hegel, G.W.F., 앞의 책, § 112 Zu. 참조.

19) Hegel, G.W.F., 앞의 책, § 103.

20) 헤겔은 복지와 행복이 “모든 유한적인 것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23. 따라서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은 자유의 실현이며 세계의 절대적인 궁극적 목적”이다. Hegel, G.W.F., 앞의 책, § 129.

헤겔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근대적인 인정이 도덕적 주체에게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은 “자유 의 이념을 체현하는 실재적 요소”이며, 이러한 주관성이 “자유 의 실현을 위한 참다운 소재”를 구성한다. 따라서 헤겔은 도덕적 주체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도덕적 주체에 의해 표현된 “주관적인 자유의 권리가 … 고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자 중심점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한다.²¹⁾ 즉 “자유 의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자유라고 불리는 것”²²⁾이며 개인의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²³⁾는 근대 이래 보편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관점과 함께 헤겔은 도덕적 주체를 자신의 실천철학의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칸트의 도덕성에 관한 사유를 자신의 자유에 관한 철학적 논의 속에서 받아들인다.²⁴⁾

그러나 헤겔은 개인의 주관성과 내면성에 의존하는 도덕적 주체가 지향하는 ‘선’이 도덕적 주체에 의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칸트의 도덕성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헤겔에 의하면 도덕적 주체는 선을 추구하지만 선과 일체가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다. 도덕적 주체는 자신의 특수한 내면적 주관성에 의존해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 “아직 선 속에 흡수되고, 그에 적합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²⁵⁾ 도덕적 주체는 자신과 보편적인 선을 구별하며, 자신이 “본질적인 것”으로 자각한 ‘선’을 목적으로 삼고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선’과 ‘관계’할 뿐이다.²⁶⁾ 따라서 도덕적

21) Hegel, G.W.F., 앞의 책, § 124 Anmerk.

22) Hegel, G.W.F., 앞의 책, § 105 Notiz.

23) Hegel, G.W.F.,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 503 Anmerk.

24) 나종석은 헤겔이 “칸트의 실천이성에 기초를 둔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나종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186쪽. 보비오는 추상법과 도덕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륜성의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하여 자연법 전통의 “해체이자 완성”으로 이해한다. Bobbio, N. “Hegel und Naturrechtslehre”, Riedel, M.(Hrsg),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2*, Frankfurt a.M., Suhrkamp, 1975, 81면.

25)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131.

26) Hegel, G.W.F., 앞의 책, § 108 Zu. 참조.

주체는 “선 속에 있는 대신 선과의 관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선의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종속관계를 모순적인 방식으로 전도시킨다.”²⁷⁾ 즉 도덕적 주체는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으로서 ‘선’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선의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의존하여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본질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선을 종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자율적인,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있는 도덕적 주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선’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자의성을 내포하게 되며, 선은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완전히 무력한 것”²⁸⁾이 된다.²⁹⁾ 결국 도덕적 주체는 ‘선’의 이념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선’에 반하는 ‘악’을 행함으로써 타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게 된다.³⁰⁾ 따라서 도덕적 주체에 결부되어 있는, 이성적 능력에 토대를 둔 절대적 자율성이라는 칸트의 이념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 놓았지만, 이러한 절대적 자율성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제로 변질된다.

4.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

도덕성과 관련된 헤겔의 비판은 도덕적 주체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도덕성만으로는 도덕성이 추구하는 선의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헤겔은 도덕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연법」 논고에서 처음 제시한 ‘인륜성’ 개념을 발전시킨다. 헤겔은 ‘인륜성’을 통해 도덕성에 결핍되

27) Theunissen, M., “Die verdrängte Intersubjektivität i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Horstmann E.P.(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340면.

28) Hegel, G.W.F., 앞의 책, § 141 Zu.

29) 양계륜에 따르면 “헤겔이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도덕적 주체의 주관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의성과 우연성”이다. Angehrn, E.,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211면 이하.

30) 이와 관련하여 토이니센은 “도덕성이 선에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Theunissen, M., 앞의 책, 340면.

어 있는 객관성의 문제를 사회적 제도와 규범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륜적 공동체에서 작동되는 규범과 제도들은 ‘추상법’이 지향하는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닌, 보편적인 존재로 고양된 도덕적 주체들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 함께 만들어낸, “생동하는 선”³¹⁾으로서 규범과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생동하는 선”이란 규범과 제도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만드는 도덕적 주체들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과 주체들의 총체성을 의미하는 인륜성은 “자기의식적인 존재들의 토대이자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목적으로서, 결국 현존하는 세계로, 자기의식의 본성으로 형성된 자유의 개념”³²⁾이다.³³⁾ 도덕적 주체와 인륜적 제도들은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거쳐, 도덕적 주체들은 인륜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내재하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륜적 주체로 고양될 뿐 아니라 자신의 반성능력을 통해 인륜적 제도들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인륜성을 통한 도덕성의 지양은 헤겔의 철학적 방법론인 변증법에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지양이라는 개념에 내재한 “폐기와 보존, 그리고 고양”이라는 삼중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덕성의 폐기가 아닌, 도덕성의 보존과 더불어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³⁴⁾

31) Hegel, G.W.F., 앞의 책, § 142.

32) 같은 곳.

33) 이와 관련하여 정미라는 “인륜적인 것은 도덕적 주체에게 낯선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자신의 의식이 외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정미라, 『실천철학의 원리로서 자유의지』, 『이성과 자유』, 21세기북스, 2006, 132면.

34) 우드는 칸트의 도덕철학과 인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헤겔의 실천철학이 모두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칸트철학과 헤겔철학을 “상호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헤겔 철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이 두 철학은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근대적, 계몽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이성적인 자율성의 윤리학의 두 형태”로 규정한다. Wood W. “Hegel’s Critique of Morality”, in: Siep L.(Hrsg)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147면. 이에 반해 투겐트하트는 도덕성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도덕적 주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기존의 법률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이 행해야 할 바는 이미 공동체 속에 놓여있다. 개별자의 고유한 양심은 사라지지 않으며 반성의 자리에 신뢰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헤겔이 도덕성의 인륜성으로의 지양과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Tugendhat, E., *Selbstbewußtsein und Selbstbestimmung*, Frankfurt a. M.,

헤겔은 인륜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철학』 서문에서 제시한 “자유 의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의지의 자유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³⁵⁾이 아닌, ‘나와 우리의 통일’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위 할 경우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며, 타인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나의 특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들을 함축한 보편성을 담지해야만 한다. 헤겔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실천적 의지는 단순히 욕망과 충동만이 아닌 이론적인 사유 활동을 포함한다. 즉 헤겔은 의지를 추동하는 실천적 힘은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지만, 욕망을 실현하는 행위에는 사유가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유는 무엇보다 보편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의 특수한 행위가 타인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을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욕구를 실현하려는 사유하는 의지는 타인들의 인정이라는 보편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데, 의지의 이러한 보편성은 규범과 법규, 그리고 관습을 포함한 제도들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³⁶⁾

헤겔은 ‘인륜성’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서 개인들의 의지가 표현된 공동체의 구체적인 형태들로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제시한다. 인륜성의 세 가지 계기인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는 현실 세계에서 각각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병렬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첫 번째 단계인 가족에서 다음 단계인 시민사회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국가로 지양되는 - 이전 단계가 폐기되고 동시에 보존되며,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 변증법적 관계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헤겔은 인륜

Suhrkamp, 1979, 349면. 그러나 근대의 도덕적 주체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겔이 제시한 인륜성은 단순히 개인을 규제하는 외적 제도가 아닌 상호주관성을 자신의 원리로 삼으며, 도덕적 주체의 반성적 사고를 전제하고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35) Hegel, G.W.F., 앞의 책, § 15 Anmerk.

36) 헤겔은 자유의지의 사변적 구조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 이해하며, 이러한 통일이 실현될 때 비로소 의지는 자유로운 것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앞의 책, § 5~ § 7.

성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인륜성’의 첫 번째 계기인 가족은 구성원들이 자연적인 감정인 사랑에 의해 매개된 공동체이며, 개인들은 자신들을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가족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특수한 권리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헤겔은 가족에 내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비대칭성을 사랑이 지닌 “오성으로써는 풀리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모순”으로 정의한다. 개인의 개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꺼이 타인에게 자신을 방기하는 것이 사랑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이다.³⁷⁾ 그러나 가족을 연결하는 자연적 감정으로서 사랑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며, 공동체가 확대될수록 사랑에 의한 개인들의 친밀한 연결성은 희미해진다. 또한 가족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가족으로 분화되며, 분화된 가족들은 더 이상 자연적 사랑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주체로서 서로가 외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헤겔은 자연적인 사랑에 의해 매개된 가족으로부터 분화된, 독립된 가족들에 의해 작동되는 공동체를 ‘인륜성’의 두 번째 단계인 ‘시민사회’로 규정한다. “근대세계에 속하는 것”³⁸⁾인 시민사회는 근대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사회라 할 수 있다. 인륜성의 첫 번째 계기인 가족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가 우선시되었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욕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적인 인격체”³⁹⁾로서 개인

37) 헤겔은 개인과 공동체의 직접적인 통일을 ‘사랑’ 속에서 찾는다. 이러한 사랑은 그의 초기철학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매개시키는 보편적인 원리로 사용되나 그의 『법철학』에서는 “직접적인 자연적인 감정”으로서 인륜성의 최초 단계인 “가족”이 근거하는 원리이다. Theunissen은 ‘상호인정’에 근거한 개인과 공동체의 통일에 의해 “타자속에서 자기결에 있음 (Beisichsein im Anderen)”(Hegel, G.W.F., 앞의 책, § 7 Zu.)이라는 헤겔의 자유의 의미를 “의사소통적 자유”로 규정하고 ‘타자’가 더 강조 될 때는 ‘사랑’이며 ‘자기결에 있음’이 강조될 때는 ‘인정’임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라는 동일한 원리에 근거해 있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다. Theunissen, M., *Sein und Schein*, Frankfurt a. M., Suhrkamp, 1980, 49면.

38) Hegel, G.W.F., 앞의 책, § 182 Zu.

39) Hegel, G.W.F., 앞의 책, § 187.

들이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욕구만족을 위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공동성의 형식”⁴⁰⁾을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욕구 충족이 자기의 노동과 타인의 노동, 그리고 타인의 욕구 충족과 매개되어 있는 - 욕구의 체계”⁴¹⁾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범을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전면적인 상호의존의 체계”⁴²⁾이기 때문이다.⁴³⁾

헤겔은 개인의 욕구를 무한히 인정하는, 근대를 특징짓는 ‘시민사회’를 통해 비로소 국가의 이념이 현실성을 갖게 된 것으로 진단한다. 헤겔에게 시민사회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인륜적 총체로서 자유의 실현”⁴⁴⁾이 가능한 국가의 토대를 구성한다. 즉 시민사회는 개인의 특수한 욕구의 권리를 무한히 인정하며, 동시에 개인들이 욕구 만족을 위해 타인과 필연적으로 매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개 과정은 개인들을 “도야(Bildung)”⁴⁵⁾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공동성에 의해 매

40) Hegel, G.W.F., 앞의 책, § 182.

41) 같은 곳.

42) Hegel, G.W.F., 앞의 책, § 183.

43) 이와 관련하여 헤겔은 “시민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그 밖에 일체의 것은 그에게 무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나 타인과 관련되지 않고는 스스로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없으니, 결국 타인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가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특수한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에 공동의 형식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복리와 타인의 복리를 다 함께 만족시킴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82 Zu.

44) Hegel, G.W.F., 앞의 책, § 258 Zu.

45) Bildung은 도야, 교양, 교육, 형성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도야’로 번역해 사용한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노예가 노동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대상을 새롭게 만들고(bilden), 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Bildung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Bildung은 노동과 욕망으로 상호 긴밀하게 얽혀있는 『법철학』의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어찌는 수 없이 타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노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그는 “노동과 도야를 통한 자기형성으로 공동성의 형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극복되고 국가로 고양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87 Anmerk.

개되어 있기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와 의지 그리고 행위를 공동의 방식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⁴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비로소 도야된다. 그리하여 헤겔은 시민사회를 “보편성의 형태로 고양된 무한히 주체적인 인륜적 실체성에 다다르기 위한 절대적인 통과점⁴⁷⁾”으로 규정한다. 헤겔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즉 국가의 이념은 개인의 특수한 권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리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기의식과 상관없이 개인들을 보편적인 존재로 도야시키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에게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로서 국가란 “인격적인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이익이 완전히 발양되어 그들의 권리가 그 자체로 인정되는 동시에 그들 개인이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향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를 가지고 ‘...’ 공동의 이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활동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동체이다.⁴⁸⁾ 그는 이러한 국가를 국가의 이념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권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근대의 시민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의 이념의 단초를 발견한다.⁴⁹⁾ 따라서 국가는 근대적 이념에 내재해 있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들의 자율성에 근거한 지와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이념은 개인의 의지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인 세계사 속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실현된다. 헤겔은 자유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논리적 과정을 서술한 『법철학』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토대를 두며, 이러한 의지가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인 세계사와 함께 마무리한다. 따라서 “자유

46) Hegel, G.W.F., 앞의 책, § 187.

47) Hegel, G.W.F., 앞의 책, § 187 Anmerk.

48) Hegel, G.W.F., 앞의 책, § 260.

49) 헤겔은 시민사회보다 국가가 먼저 존재하지만, 국가의 이념은 시민사회가 발전하게 된, 자신이 살았던 근대에야 비로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철학자로서 헤겔은 “황혼이 깃든 후에야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Hegel, G.W.F., 앞의 책, 54쪽)처럼 시민사회를 경험한 후에야 국가의 이념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헤겔은 철학의 과제를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시대는 개인의 특수한 권리의 무한한 확장을 인정하는 시민사회이며,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특수성의 권리에 근거해 있는 근대적 국가의 이념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Hegel, G.W.F., 앞의 책, 26면.

개념이 현존”⁵⁰⁾하는 인륜적 공동체와, 이러한 인륜적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개인들에게 이질적이며 낯선 외적인 제도가 아닌, 자유롭고자 하는 개인들의 본성에 내재하는 “제 2의 본성”⁵¹⁾이라 할 수 있다.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는 변화하지 않은 실체적 존재가 아닌, 세계사 속에서 “활동과 행위”⁵²⁾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나 동시에 개인들의 자유 실현을 위한 궁극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5. 맺는 말

헤겔은 철학의 과제를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하는 것”⁵³⁾으로 규정한다. 철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며, 과거에 대한 단순한 서술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인 근대적 정신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해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지배적인 가치가 됨으로써 야기된 근대의 분열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가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논리적 과정을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헤겔은 『법철학』을 궁극적으로 ‘인륜성’으로, ‘인륜성’의 마지막 단계를 ‘국가’로 끝맺으면서 많은 철학자들에게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철학자라는 오해를 불러왔다. 그러나 『법철학』에 지속적으로 관통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근대적 이념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이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할 뿐이다.

헤겔은 인간을 독립된/고립된 주체로 이해하는 근대적 사유, 특히 자연법적 사유를 비판하며, 인간을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과 사회, 역사를 만들어가는(bilden) 주체로 이해한다. 즉 개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매개된 존재이며, 개인의 정체성

50) Hegel, G.W.F., 앞의 책, § 142.

51) Hegel, G.W.F., 앞의 책, § 151.

52) Hegel, G.W.F., *Nürnberg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1817*,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4*, Frankfurt a. M., Suhrkamp, 1971, § 175.

53)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26면.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헤겔은 이러한 관계성을 예나시절부터 통합의 원리로 발전시켜온 상호 인정개념을 통해 포착하며, 이러한 인정관계가 법과 규범, 제도들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원리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실현은 타인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타인과의 인정관계는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외적인 제도, 즉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헤겔은 고립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그리고 개인이 종속되어야 하는 국가라는 외적인 정치체제를 그 자체로 옹호하지 않는다. 그에게 인륜적 공동체와 이러한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인정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하는 정치체제이며,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실현이라는 국가의 이념이 현실성을 획득해 나가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로 귀결되는 헤겔의 『법철학』을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헤겔 『법철학』의 논리적 전개 과정과 근대 자연법 사상과의 치밀한 철학적 논의를 배제하고, 결과주의에만 매몰될 때 가능하다. 물론 세계사 속에서 국가의 이념인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이다.⁵⁴⁾

본 논문의 주된 주제는 헤겔이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적 논의들, 즉 추상법과 도덕성, 시민사회를 자신의 철학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내는지를, 그리하여 국가의 이념에 내재해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이 헤겔의 국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여전히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본 논문의 논의를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가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54) 헤겔이 제시한 국가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헤겔의 국가는 “규범적인 정치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종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562면.

■ 참고문헌

- 김준수, 「근대의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Hegel, G.W.F., 『자연법』, 김준수 옮김, 한길사, 2004.
- 나중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 이충진, 『이성과 권리』, 철학과 현실사, 2000.
- 정미라, 「실천철학의 원리로서 자유의지」, 『이성과 자유』, 21세기북스, 2006.
- Angehrn, E.,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 Bobbio, N. “Hegel und Naturrechtslehre”, Riedel, M.(Hrsg), *Material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2*, Frankfurt a. M., Suhrkamp, 1975.
-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3*,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_____, *Nürnberger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 - 1817*,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4*, Frankfurt a. M., Suhrkamp, 1971.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5*, Frankfurt a. M., Suhrkamp, 1972.
- _____,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7*,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_____,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II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8,9,10*,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 Berlin und Leibzig, 1907.
- _____,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I*, Berlin und Leibzig, 1907.
- Hobbes, T., *Leviathan*, Frankfurt a. M., Suhrkamp, 1984.
- Ottmann H., *Individuum und Gemeinschaft bei Hege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 Popper, K.R.: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Feinde*, Tübingen, J.C.B.Mohr, 1992.
- Siep, L., “Intersubjektivität, Recht und Staat, in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und Horstmann R.P. (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Theunissen, M., *Sein und Schein*, Frankfurt a. M., Suhrkamp, 1980.

_____, “Die verdrängte Intersubjektivität i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Horstmann E.P.(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Tugendhat, E., *Selbstbewußtsein und Selbstbestimmung*, Frankfurt a. M., Suhrkamp,
1979.

Wood W. “Hegel’s Critique of Morality”, in: Siep L.(Hrsg)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Abstract |

The Ethical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Freedom in Hegel's Philosophy of Law

Chung, Mila

The core theme of Hegel's practical philosophy is the freedom of an individual, the dominant ideology in modern Europe and a key slogan of the French Revolution. In his Philosophy of Law, Hegel defines 'the ethical(die Sittlichkeit)' which begins with 'family,' going through 'civil society,' and concludes with the 'state', as the final stage of realization of the freedom. By doing so, he demonstrates that the freedom of an individual can be concretely realized only within the community of 'Sittlichkeit,' ultimately within the 'state.' Hegel's discussion of freedom in the Philosophy of Law has provoked various criticisms, most of which can be reduced to branding Hegel as a statist philosopher(Staatsphilosoph) who places the community, in the end the state over the individual. This work aims to illuminate the true meaning of Hegel's ethical community(sittliche Gemeinschaft) and the state by examining the problem of mediation (Vermittlung)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community, which Hegel demonstrates in his Philosophy of Law.

Key Words: Hegel, the ethical community, the individual freedom, the modern natural law, the state

영국의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주의 — 켄 로치의 〈가족 생활〉 —

이혜린*

목 차

-
- | | |
|---------------------|--------------------------|
| 1. 켄 로치의 영화 〈가족 생활〉 | 3.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반가족주의 |
| 2. 정신의학 제도에 대한 고발 | 4. 1960년대의 시대정신과 〈가족 생활〉 |
-

■ 국문초록

켄 로치 감독의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두 가지 주요 담론인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다룬다. 영화는 조현병(당시 ‘분열증’)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 제니스가 가족과 정신의학 제도의 억압적 구조에 포획되는 과정을 사실주의적 재현방식을 통해 고발하는데, 이는 R. D. 랭과 데이비드 쿠퍼 같은 반정신의학자들의 핵심 주장, 즉 “광기는 핵가족 환경에서 배태되며, 정신의학은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영화는 또한 제니스의 부모가 상징하는 기성세대의 획일적이고 순응적인 가치체계와 1960년대 영국의 청년 세대의 대항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넘어 가족이라는 미시적 제도로부터 정신병원과 공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회시스템의 공모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영화는 제니스가 기존의 주류 정신의학 시스템에 의해 무력하게 ‘정상화’되고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순응적 노동력 혹은 정신의학의 임상 자료로 사용되는 냉정한 결말을 제시하면서 1960년대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주의 및 탈제도화를 향한 시도가 마주했던 주류 시스템의 견고함을 보여준다. 영화 〈가족 생활〉은 켄 로치 감독 특유의 사회적 리얼

* 전남대학교 강사

리즘 연출 방식에 입각하여 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1960년대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과 그 시대 정신을 통해 해명해내는 중요한 문화텍스트로서 그 가치가 크다.

주제어 : 켄 로치, <가족 생활>, 조현병, 반정신의학, 대항문화운동, 반가족주의

1. 켄 로치의 영화 <가족 생활>

<가족 생활>(Family Life, 1971)은 켄 로치(Ken Loach) 감독¹⁾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그가 앞서 연출한 BBC방송의 텔레비전용 드라마 <분열된 마음>(In Two Minds, 1967)을 스크린용 영화로 다시 제작한 작품이다. 이미 TV에서 방영된 <분열된 마음>이 영화로 다시 제작된 배경에는 이 드라마가 당시 영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커다란 사회적 반향과 논란이 있다. <분열된 마음>은 당시 정신의학이 ‘조현병’(schizophrenia, 정신분열증)²⁾으로 진단한

- 1) 켄 로치(1936~)는 1960년대 BBC 방송의 드라마 연출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스무편 이상의 장편 영화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 차례에 걸쳐 수상하여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오른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그의 작품들은 1960년대 후반 영국 사회의 하층계급을 다룬 <불쌍한 암소>(Poor Cow, 1967), <케스>(Kes, 1969) 등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랜드 앤 프리덤>(Land and Freedom, 1995),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2000),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The Wind that Shakes Barley, 2006) 등 국제적 차원의 노동 및 정치문제로 영역을 확장해갔으며,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와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2019) 등 최근작에서는 영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선다. 그의 영화는 영국적 토양에서 성장한 ‘사회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 전통에 충실하여 다큐멘터리 연출방식을 극영화에 적극 활용하고 개개인들이 직면하는 사회 현실적 문제들을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2) 우리나라에서 ‘schizophrenia’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은 2010년까지 ‘정신분열병’이었으나,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이 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치료와 회복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1년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조현병’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정신분열’이라는 ‘schizophrenia’의 원래 의미가 담겨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므로 이 글에서도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여성 인물의 상황을 다루었는데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적 형식을 결합하는 파격적 연출 방식을 통해 정신 상담 및 전기충격요법과 같은 치료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치료방식은 물론,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관점이나 정신의학의 관행에 대해 커다란 논란과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은 드라마의 제작자인 토니 가넷(Tony Garnet)과 각본가 데이비드 머서(David Mercer), 그리고 연출을 담당했던 켄 로치를 다시 카메라 앞에 모이게 했고, 영화 <가족 생활>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조현병을 다룬 TV 드라마가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이를 장편 영화로 다시 만들게 된 배경에는 당시 몇몇 정신의학자들이 주도했던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의 영향력과 그들이 영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반정신의학은 1950년대 후반 기존의 정신의학 체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제기하며 영국의 정신의학계 내부로부터 등장했다. 이 흐름을 주도한 R. D. 랭(Ronald David Laing), 데이비드 쿠퍼(David Cooper), 아론 에스터슨(Aron Esterson) 등은 영국의 정신의학계에서 촉망받던 정신과 의사들로서 전두엽 제거술이나 전기충격요법 등 당시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치료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신의학 분야가 그간 “사회 안에서 수행해 온 사회 통제적 기능”을 지적하며, 정신의학적 치료가 “사실상 세밀한 사회통제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다.³⁾ 정신의학계 내부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랭과 쿠퍼는 ‘반정신의학 그룹’의 중심인물로 임상 활동과 저서, 대중강연 등을 통해 1970년대 영국 사회에서 커다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었다.

이들 반정신의학 그룹의 의사들은 실제로 드라마 <분열된 마음>과 영화 <가족 생활>의 제작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랭의 저서 『분열된 자아』(*The Divided Self*, 1960)⁴⁾와 랭과 에스터슨이 함께 쓴 『온전한 정신,

하도록 한다.

3) Crossley, Nick,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A Socio-historic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47(7), 1998, p. 878.

4) 『분열된 자아』(*The Divided Self*) 는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R. D. 랭의 대표적 저서로

광기, 그리고 가족』(*Sanity, Madness and the Family*, 1964)은 드라마와 영화 양쪽의 각본에 기본 토대가 되었다. 특히, 조현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례 분석으로 구성된 후자의 책은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로 구성되는 드라마와 영화의 독창적 형식에 영감을 주었다.⁵⁾ 나아가 랭과 쿠퍼 등은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 과정에 자문 역할로 직접 관여했는데, 이 때문에 〈분열된 마음〉과 〈가족 생활〉은 “정신의학은 억압적 제도이고 광기(madness)는 핵가족 환경에서 배태되며, 정신이상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들의 반정신의학 이론의 핵심 주장을 구현하는 이른바 ‘랭의 영화’(Laingian Film)로 통용되었다.⁶⁾ 이처럼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기존의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키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반정신의학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편,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를 관통하는 대항문화운동(counter-culture movement)과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항문화운동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전체에 걸쳐 영국의 청년세대가 주도한 문화적 저항 운동으로서,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전통적 규범과 관습, 행동양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대안적 문화를 실천했던 일련의 흐름을 가리킨다. 대항문화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즘과 원자폭탄 투하 등의 끔찍한 폭력으로 드러난 유럽 사회의 도덕적 위선과 구태의연하고 보수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와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반전, 반제도, 반권위 등을 지향”하며, 대학, 병원, 공장, 가족 제도 등 기존의 낡은 사회제

서 ‘1960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정신분열증 연구에 전환적 관점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가족 생활〉의 원작 드라마인 〈분열된 마음〉은 이 책이 정신분열증에 대해 제시하는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의 제목 ‘In Two Minds’가 책 제목인 ‘The Divided Self’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5) Snelson, Tim, “From *In Two Minds* to MIND: The Circulation of ‘anti-psychiatry’ in British Film and television during the long 1960s.” *History of Human Sciences*, 34(5), 2021, p. 61.
- 6) Cresswell, Mark and Zulfia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Som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Journal of British Cinema and Television*, 14(1), 2017, p. 19.

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탈제도화’(anti-Institutionalization)를 실천하려고 했다.⁷⁾ 크게 보아 앞서 언급한 반정신의학의 흐름 역시 이 대항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대정신 아래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영화 〈가족 생활〉은 직접적으로는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기성세대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청년세대에 의해 주도된 이와 같은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 생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 텍스트로서 그 가치가 크다. 영화는 제니스(Janice)라는 한 젊은 여성의 심적 문제를 정신의학 제도가 다루는 방식을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곤경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해명함으로써 1960년대 영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과 충돌의 지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영화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가족, 더욱 구체적으로는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원작 드라마의 제목 〈분열된 마음〉이 〈가족 생활〉로 바뀐 정황은 영화가 개인의 내면에 대한 탐구에서 가족, 또는 가족 관계로 그 강조점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영화는 한 여성의 심리적 내면의 문제를 그녀와 그녀의 부모로 구성되는 ‘가족 생활’과 연결지어 조명하고 그들의 ‘가족 생활’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 개인의 정신적 곤경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비판은 영국의 반정신의학 그룹을 하나로 묶는 요소이며 이들의 이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었다.⁹⁾ 예컨대, 반정신의학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조현병을 “존재론적 불안의 직접적 표현”으로 설명했지만, 이후 이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현상학”적 관점으로 이동했으며, 후기에 오면 가족에 대한 논의를 조현병 가족에 국한 시키지 않고 서구 사회의 가족 제도를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방향으로

7) Wall, Oisín,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From Institutional Psychiatry to the Counter-Culture, 1960-1971*. Routledge, 2018, p. 94.

8) Crossel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6.

9)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43.

전개된다.¹⁰⁾ 랭의 『위생, 광기, 그리고 가족』, 『가족의 정치학』(*The Politics of the Family*, 1969), 쿠퍼의 『가족의 죽음』(*The Death of the Family*, 1971) 등과 같은 책은 이들 반정신의학자들의 가족에 대한 논의를 잘 드러내주는 주요 저작들이다. 특히, 쿠퍼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반정신의학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잘 집약해 준다.

가족의 권력은 그것의 사회적 매개 기능에 있다. 그것은 어느 착취적 사회에서든지 모든 사회적 제도를 위한 통제 가능한 전형적인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효과적인 권력을 강화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형식이 공장, 조합 조직, 초·중등학교, 대학, 기업, 교회, 정당, 정부 기구, 군대, 정신병원을 포함한 병원 일반 등등의 사회 조직을 통해 복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The power of the family resides in its social mediating function. It reinforces the effective power of the ruling class in any exploitive society by providing a highly controllable paradigmatic form for every social institution. So we find the family form replicated through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factory, the union branch, the school (primary and secondary), the university, the business corporation, the church, political parties and governmental apparatus, the armed forces, general and mental hospitals, and so on.

가족을 착취적 사회의 “모든 제도의 조건 형성의 장치”¹²⁾이자 매개로 보는 이러한 쿠퍼의 관점은 반정신의학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잘 집약해 주면서, 이들이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낡은 관습과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던 대항문화운동과 결합하는 접점이 된다.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반정신의학의 관점은 영화 <가족 생활>에서 잘 드러난다. 제니스라는 여성 인물이 겪는 조현병적 증상, 또는 정신적 곤경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살피지며, 이러한 과정은 기성세대인

10) *ibid.*, pp. 147-48.

11) Cooper, David, *The Death of the Family*. Penguin Books, 1971, p. 6.

12)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58.

부모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행하는 억압적 질서와 규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내 준다. 이 글은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영화 <가족 생활>이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영국 반정신의학 그룹의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서구 근대의 핵가족 모델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반정신의학 그룹의 반가족주의 담론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반정신학과 <가족 생활>이라는 문화적 생산물을 1960년대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이라는 보다 커다란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영화가 드러내는 시대정신과 그에 대한 영화적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생활>에 대해 당시 영국 정신분열증 협회(Schizophrenia Association)는 “전기충격요법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이미지”와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들어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¹³⁾ 하지만 영화계 쪽에서는 “상업적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영화의 예술성과 진정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비평적 찬사를 받았으며, 대항문화운동 진영에서는 “정신의학 시스템이 사회적 통제 요원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입문서”로 호평했다.¹⁴⁾ <가족 생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원작 드라마 및 영화와 반정신의학 그룹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생산물이 영국의 정신의학 분야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거나, 켄 로치의 사회적 리얼리즘적 측면에 주목하여 노동계층의 재현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⁵⁾ 본 연구는 영화 <가족 생활>

13) Snelson, “From *In Two Minds* to MIND,” p. 74.

14) *ibid.*, pp. 74-75.

15) 흥미로운 점은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의 흐름에 동조하는 쪽에서도 영화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피터 세즈윅(Peter Sedgwick) 같은 사회주의 비평가의 관점이다. 그는 영화가 제니스라는 젊은 세대 여성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노동계층 인물들인 그들의 부모에 대한 재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영화의 관점이 노동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Sedgwick, Peter, “Who’s mad-you or the system? Dangerous half-truth in attack on the NHS.” *Socialist worker* 5(February) <https://www.marxists.org/archive/sedgwick/1972/02/family.htm>). 하지만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지적처럼, <가족 생활>

의 영화적 재현방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1960년대 반정신의학과 대항 문화운동으로 집약되는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의 특징과 그 핵심에 놓인 ‘반가족주의’ 담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족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 및 뿌리 깊은 가부장주의에서 기인하는 젠더 불평등 문제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곤경과 가족의 문제를 연결시켜 조명하는 반정신의학이나 대항문화운동의 접근방식은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유의미한 참조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신의학 제도에 대한 고발

〈가족 생활〉은 제니스라는 열아홉 살 여성의 정신적 곤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제기하는 영화이다. 제니스는 겉으로는 온순하고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의욕이나 목표가 없으며 심적으로 만성적 무기력과 좌절 상태를 보인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곳을 자주 옮겨 다녔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을 배회하다 경찰에게 이끌려 집에 오게 되면서 부모에게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¹⁶⁾는 비난을 받는다. 제니스가 임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니스의 부모는 낙태를 종용하고 결국 “창피한 줄 모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대가로 그녀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간다.¹⁷⁾

영화의 도입부는 정신과 의사 도널드슨(Donaldson) 박사가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인 베일든 씨 부부를 각각 차례로 면담하는 과정을 담은 시퀀스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영화는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다큐멘터리적 연출 방식을 사용하여, 관객이 제니스가 처한 상황을 피상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은 또한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노동계층 삶의 세밀한 부분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Cresswell and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p. 31.).

16) 켄 로치(감독), 〈가족 생활〉(*Family Life*), Kestrel Films, 1971, 00:09:06.

17) *ibid.*, 00:29:30.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의사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던 원작 드라마와 달리, 제니스를 면담하는 도널드슨 박사 역할에 실제 정신과 의사 마이크 리들(Mike Riddle)을 캐스팅한 방식은 그의 상담 장면을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이러한 연출 의도를 더욱 강화 한다.¹⁸⁾ 나아가 도널드슨 박사의 상담 장면들은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제니스의 ‘비정상성’과 부모의 ‘정상성’에 대한 손쉬운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한다.

제니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모 역시 심층 상담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도널드슨 박사의 이러한 접근은 정신질환에 대한 반정신의학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기존의 정신의학 제도는 제니스와 같은 사례를 ‘조현병’이라는 의학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약물 사용과 전두엽 절제술, 전기충격요법 등 강압적인 신체 치료를 정당화했다. 반면, 반정신의학은 “정신이상 상태와 정상 사이의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와 같은 정신의학의 기본 개념이나 그 목적에 반기를 들었다.¹⁹⁾ 예컨대, R.D. 랭은 “조현병은 하나의 꼬리표일 뿐이며 그것이 가리키는 특정한 행동은 개인이 아닌 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²⁰⁾ 그는 ‘조현병’은

18) 이러한 연출 방식은 켄 로치 특유의 사회적 리얼리즘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허구적 상황에 실제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영화의 사실적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둔다. 실제 정신과 의사를 기용한 도널드슨 박사 역할 외에도 <가족 생활>은 사실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캐스팅 방식을 거의 모든 인물에게서 구현한다. 예컨대, 전문 배우는 제니스의 아버지인 베일든 씨 역을 맡은 빌 딘(Bill Dean) 거의 유일하며, 제니스 역을 맡은 샌디 랫클리프는 실제 10대 시절 반항적인 ‘문제아’로서 교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 제니스의 어머니 베일든 부인 역의 그레이스 케이브(Grace Cave)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단체에 소속된 여성을 캐스팅한 것으로서 실제로 영화 속 베일든 부인과 매우 흡사한 캐릭터를 지닌 인물이다. 켄 로치 감독은 <가족 생활>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위엄있는 어머니와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딸의 갈등 관계를 캐스팅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캐스팅 방식에 대해 “나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배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신념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라고 설명한다(Hayward, Anthony, *Which Side Are You On?: Ken Loach and His Films*, Bloomsbury, 2004. p.123.)

19) Snelson, “From *In Two Minds* to MIND,” p. 55.

‘제도’로서의 정신의학이 만들어 낸 하나의 개념이자 프레임일 뿐이며, “조현 병이라고 부르는 경험이나 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이 만들어낸 특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심리 증상이라고 주장한다.²¹⁾ 영화에서 도널드슨 박사가 제니스가 겪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의 뿌리를 가족 및 사회와의 연관 관계 속에 위치 지워가는 과정은 이와 같은 랭의 반정신의학적 관점을 잘 반영한다.

제니스의 정신적 곤경에 접근하는 영화의 반정신의학의 관점은 여러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도 재현된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는 똑같은 집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영국의 대단지 공영주택의 모습이 정지 화면처럼 롱테이크로 제시된다. 숨 막힐 듯 규칙적이고 획일화된 산업도시의 이미지는 제니스를 둘러싼 삶의 조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문제가 동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25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창고 관리인으로 일한 성실한 노동계층 가장인 제니스의 아버지 베일든 씨와 ‘흡잡을 데 없는’ 주부인 베일든 부인은 반듯하게 줄지어 늘어난 이 공영주택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성’과 ‘전형성’을 부여받는다. 도널드슨 박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상’이나 ‘의무’, ‘책임’ 등의 어휘들은 제니스의 ‘비정상성’과 ‘무책임’의 근거가 되며, ‘존경심’이나 ‘권위’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강조한다.

도널드슨 박사와 베일든 씨 부부의 면담 장면은 ‘공영주택’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베일든 씨 부부의 관점이 제니스가 겪는 정신적 곤경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베일든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²²⁾ 지도와 교정의 주체로서 제니스의 삶에 균림할 때, 제니스는 자기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쁜 애야”²³⁾라는 제니스의 자조적인 진술은

20)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2에서 재인용.

21) *ibid.*, p. 884에서 재인용.

22) 켄 로치, 〈가족 생활〉, 00:11:03.

자신을 ‘늘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부모의 부정적 관점을 제니스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의 자신 사이의 극심한 괴리에 시달리는 제니스에게, 어느 순간 “너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²⁴⁾라는 베일든 부인의 말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²⁵⁾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다. 반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제니스와 베일든 씨 부부의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 내재된 이러한 권력 관계야말로 제니스가 느끼는 정신적 곤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나 사회 내부에 구조화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관계를 개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본 반정신의학자들은 “개인 상호 간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직화”²⁶⁾를 주장하며 1960년대 동안 영국에서 여러 치유공동체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했다. 이는 가족, 학교, 병원과 같은 “제도와 기관의 역할을 탈신비화하고 파괴하여 개인들 간에 ‘진정한’ 인간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었다.²⁷⁾ ‘빌라 21’(Villa 21)과 ‘킹슬리 홀’(Kingsley Hall) 등은 반정신의학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대안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설립했던 실험적인 치유공동체로서, 영화에서 제니스가 머물게 되는 도널드슨 박사의 병동은 바로 이를 모델로 재현한 것이다. 영화 속에서 도널드슨 박사와 의료진은 흰 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고 제니스를 비롯한 환자들 역시 일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친교를 나눌 수 있으며, 침대에 강제로 누워있지도, 의료적 시술 행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한 치유공동체는 기존의 정신의학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반정신의학자들이 설립한 치유공동체는 “의료진-환자 관계의 비형식화,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탈낙인 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나아간”²⁸⁾ 것이었으며, “의사들의 권위적 역할, 환자들의 수동적 역할, 치유 행위

23) *ibid.*, 00:24:11.

24) *ibid.*, 00:07:30.

25) *ibid.*, 00:24:32.

26)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77.

27) *ibid.*, p. 82.

28) *ibid.*, p. 78.

의 가치, 제도화된 정신의학의 철학적 유효성 등에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보다 정신의학 치료에서 정신병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매우 실험적인 시도들이었다.²⁹⁾

하지만, 영화는 도널드슨 박사가 운영하는 치유공동체 병동이 해체되면서 제니스가 기존의 정신의학 치료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을 다루는 관점과 이것이 사회와 연관되어 기능하는 방식을 드러내 준다. 기존의 정신의학계를 대표하는 의사 캐스웰(Caswell)은 “1500명을 수용하는 병원에서 30명의 환자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³⁰⁾는 주장으로 도널드슨 박사의 병동을 문제 삼게 되고, 결국 병동이 폐쇄되면서 제니스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다른 환자들처럼 주사 요법과 전기충격 시술 등 신체 치료를 받게 된다. 캐스웰에게 제니스는 명백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정신의학의 치료 목표는 “제니스 같은 환자들을 정상적 삶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다.³¹⁾

그러나 영화는 캐스웰의 주장대로 신체 치료를 받은 제니스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정신의학이 치료의 목표로 삼는 ‘정상화’나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캐스웰이 말하는 ‘사회’란 자본과 산업의 요구와 논리에 충실히 복종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화의 마지막에 캐스웰이 자신이 담당하는 의과대학 수업 강의실로 제니스를 데리고 들어와 그녀를 조현병 환자의 가장 전형적 사례로 소개하는 장면이다. 제니스는 캐스웰이 이끄는 대로 온순하고 복종적인 모습으로 전형적인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국 정신의학은 제니스를 자신이 규정한 정신질환의 틀 속에 집어넣어 그에 부합하는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자신의 체계를 강화해주는 임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영화 〈가족 생활〉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 정신의학의

29) *ibid.*, p. 52.

30) 켄 로치, 〈가족 생활〉, 00:50:02.

31) *ibid.*, 00:55:01.

자기 재생산 방식과 그것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시스템과의 연관성, 공모성을 재현함으로써 정신의학의 근본적 목표나 역할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

3.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가족주의

1960년대는 유럽 전역에서 소위 ‘문화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문화혁명의 주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경제 성장과 그것에 기반한 ‘베이비 붐’을 동력으로 형성된 청년세대로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으며, 여기에 전후 미국의 자유분방한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보편적 청년문화를 형성했다.³²⁾ 이 청년문화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틀에 박힌 관습이나 규범, 권위에 기초한 위계질서 등에 반발하며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와 충돌을 겪었고,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동안 영국에서는 대항문화운동으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소위 ‘68혁명’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모델에 기반한 정치 혁명이라기보다, 일상적 행동이나 사고의 영역, 즉 학교나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 관계, 남녀 관계 등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의 대변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화혁명’으로 일컬어졌다.³³⁾ 이와 같은 문화 대변동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향, 새로운 실천”³⁴⁾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이 세대의 대변자이자 ‘68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허버트 마르크루제(Herbert Marcuse)에 따르면 “새로운 감수성”의 등장이기도 했다.³⁵⁾

〈가족 생활〉에서 제니스가 부모와 겪는 갈등과 불화는 바로 이와 같은 대항문화의 맥락을 그 사회적 배경으로 한다. 〈가족 생활〉에는 원작 드라마에

32) Marwick, Arthur, “Youth Culture and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Long Sixties,” *Between Marx and Coca-Cola: Youth Cultures in Changing European Societies, 1960-1980*, eds. Axel Schildt and Detlef Siegfried, Berghahn Books, 2006, pp. 39~40.

33) *ibid.*, p. 43.

34) *ibid.*, p. 56.

35) Marcuse, Herbert, *An Essay on Liberation*. Beacon Press, 2000, p. 22.

등장하지 않았던 제니스의 남자친구 팀(Tim)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팀은 예술가이자 자유분방한 히피 생활을 하는 인물로서 대항문화의 정신을 제니스에게 설파한다. 그가 제니스에게 영화의 첫 장면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공영주택 단지의 길게 늘어선 똑같은 집들과 그 너머의 공장 굴뚝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들은 기성세대의 낡고 진부한 생활방식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서 대항문화의 핵심적 주장을 잘 드러낸다.

[...] 저기 밖을 봐. 저게 네 부모님이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지. 저게 바로 네 부모들이야. 그들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그걸 네게도 강요하지. 그걸 정상이라고 해. 봐,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게 제정신인 거야?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시간을 잘 지키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에 가서, 저 공장들 가운데 한 곳에 가서 하루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그런 얘기인 거고, 그게 바로 가족이란 거야. 빌어먹을 훈련 캠프 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 네가 그걸 똑같이 하게 만들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어디에 있는 건데? 너는 어디에 있는 거냐?³⁶⁾

[...] Look at that out there. That's your mum and dad. Get that. Early to bed, early to rise, out to work. That's your mum and dad. Do as they're told. That's what they got to do to you. And that's normal. You see, that's normal. But, is it sane? I mean, do you think it's sane? 'Cause I don't. Punctual. Passive in their place. So that they can go out there, out to one of those factories, and do a day's work. That's what it's about. That's what it is and that's what families are. Like bloody training camps. Aren't they? To get you to do the same thing. Where are you in all this. Eh, I mean, where are you?

팀의 말에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정상적'(normal)이라고 강요하는 것들, 예컨대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가서 하라는 일이나 하는 것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이와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기성세대의 수동적이고

36) 켄 로치, 〈가족 생활〉, 00:58:40.

무비판적인 순응적 사고방식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깔려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순응적 사고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초래했고, 결국 나치즘과 원자폭탄이라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 대항문화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강제수용소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태연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적 삶으로 일관하는 부모 세대의 도덕적 권위와 위선에 대한 전후 청년세대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항문화운동이 “모든 형태의 억압적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해방의 서사’(the narrative of liberation)로 향하게 했다.³⁷⁾

‘가족’에 대한 팀의 신랄한 비판 역시 대항문화의 가족 제도에 대한 단호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팀에 따르면, 기성세대의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사고방식은 대학, 병원, 공장, 군대와 같은 일련의 사회제도의 산물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서 순응적 주체를 만들어 내는 ‘훈련 캠프’(training camps)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제도에 대한 팀의 신랄한 비판은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영화의 메시지를 대변하는데, 영화가 재현하는 제니스의 부모 베일든 씨 부부의 삶이 바로 ‘훈련 캠프’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잘 요약해주기 때문이다. 도널드슨 박사와의 면담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가족 생활은 부양 및 양육과 집안 관리라는 부부의 분업구조에 기반한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부부의 성(性) 역시 생식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베일든 씨 부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형성을 위해 필요한 생식의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진 제니스의 임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러운,’ ‘해픈’ 등의 낙인을 동원한 비난으로 자신의 성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보수적 태도에 대해 “섹스가 나쁜 건가요?”라고 되받아치며 점잖은 체 “지저분한 일요신문이나 보는” 아버지의 위선적 태도를 조롱하는 제니스의 비난 역시 개방성과 솔직함에 기반한 성적 자유를 지향하는 대항문화의 관점을 반영한다.³⁸⁾ 베일든 씨 부부가 대변하는 이러한 규범화된 가족 생활의 모델은 제니스의 언니 바바라(Barbara)의 주체적이고 독립적 태도를 ‘불손한 것’으로

37)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35.

38) 켄 로치, 〈가족 생활〉, 01:16:38~01:17:15.

규정하고 제니스에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편해”라는 순응적 태도를 내면화시키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제니스가 부모가 정상적인 것, 옳은 것으로 정해 놓은 가족 생활의 규범을 이탈하려 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순응적인 노동력이 되지 못했을 때, 그녀는 즉각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되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베일든 씨 부부가 대표하는 “주류의 ‘똑바른’ 사회와 그 문화”⁴⁰⁾와 이를 거부하는 대항문화 간의 충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은 ‘25년 근속 기념 시계’를 제니스가 내던져 박살 내는 장면이다. 이 시계는 아버지 베일든 씨의 소중한 전리품으로, 반듯하게 일렬로 늘어선 공영주택의 집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영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추구해온 지배적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정신의학이 강제하는 치료를 받으며 온순한 사회인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돌아간 듯한 제니스가 규칙적으로 재깍거리는 아버지의 시계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는 바로 시계로 대표되는 가치체계, 혹은 시계가 통제하는 질서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의 분출로 볼 수 있다.

팀과 제니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원에서 푸른색 스프레이를 뿌려대며 즐거워하는 장면 역시 대항문화의 저항적이며 전복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제니스의 부모가 가꾼 반듯한 정원은 그들의 가족 생활을 정상적이며 반듯한 것으로 완성해주는 사회적 상징과도 같지만, 거기에 제니스의 자리는 없으며 제니스와 바바라 같은 가족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요소들을 잘 가려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팀은 제니스에게 스프레이를 건네주며 “너는 그걸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네 표시를 할 수는 있지”⁴¹⁾라고 하는데, 이는 베일든 부부가 통제하는 세계에 대한 팀과 제니스의 거부이자 기성세대의 진부함과 고루함을 유희적 놀이로 파열시키려는 시도인 동시에, 기성세대가 구축해놓은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내려는 대항문화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9) *ibid.*, 00:26:01.

40) Nelson, Elizabeth, *The British Counter-Culture, 1966-1973: A Study of the Underground Press*.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p. 8.

41) 켄 로치, 〈가족 생활〉, 00:59:39.

팀은 제니스에게 집을 떠나 독립할 것을 권유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제니스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제니스가 다시 병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이르면 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 제니스는 약물을 강제로 주입 당하고 전기충격 치료를 반복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남아 캐스웰 박사의 대학 강의실에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사례로 실험과 관찰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제니스의 침묵과 무관심한 태도, 얼이 빠진 듯한 체념적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영화가 제시하는 결말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화는 주류 사회와 그것이 지탱하는 사회시스템에 맞서는 대항문화의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문제의식을 영화의 바탕에 흐르게 하지만, 켄 로치의 리얼리즘은 결국 대항문화가 맞서야 하는 주류 시스템의 견고함과 집요함을 냉정하게 재현하는 쪽을 선택하는 듯하다.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들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대항문화운동을 형성했던 여러 흐름과 집단들이 어떤 단일한 형태의 목표나 신념, 조직 등으로 묶였던 것은 아니며 전체를 포괄하는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었기에 이는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조차도 결국 반영웅, 반지식을 추종하는 이들 대항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영국 청년세대의 대항문화는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 현실에 대한 해석과 비판에 기초해 대안적 삶의 방식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화를 창안해내려 했고 영화 <가족 생활>은 한 가족의 ‘가족 생활’이라는 미시적 영역에 대한 사실적 재현으로 그 문제의식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1960년대의 시대정신과 <가족 생활>

<가족 생활>은 영국의 1960년대를 배경으로 제니스라는 젊은 여성이 겪는 정신적 붕괴를 따라가며, 그녀가 당시의 정신의학이 규정하는 조현병 환자의

42)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p. 90-94.

프레임 안으로 포획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제니스가 겪는 정신적 곤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영국 사회가 통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 위치시킨다. 여기서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은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읽어내는 핵심적인 맥락을 부여한다.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흐름은 전후 영국 사회의 근간이 된 가치체계, 사회규범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서 영국의 청년 세대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생활〉의 서사가 직접적으로 기대고 있는 반정신의학은 영국 사회에서 규율적 제도로서의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대중화하고 사회에서의 정신의학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논쟁을 열어주었으며, 이미 흔들리고 있던 정신병원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동요시켰다.⁴³⁾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정신건강 환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체로 나서는 ‘서비스 이용자 운동’(the Service Users’ movement)을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에 영국에서 대형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⁴⁴⁾ 뿐만 아니라, 반정신의학의 영향력은 정신의학계를 넘어 당시 영국의 미디어,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형성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⁵⁾ 예컨대, 반정신의학의 관점과 실천은 다수의 예술적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다. 반정신의학 그룹이 운영한 대안적 치료공동체인 ‘킹슬리 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사일럼〉(*Asylum*, 1972)으로 만들어지고 그곳의 거주자였던 메리 반즈(Mary Barnes)라는 여성의 체험은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반정신의학 그룹을 이끌었던 랭의 책 『분열된 자아』는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고, 『매듭』(*Knots*)은 영화, 연극, 라디오극으로 각색되었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다룬 TV드라마 〈분열된 마음〉은 영국 내에서 커다란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영화 〈가족 생활〉은 영국을 넘어 유럽 사회의 호평을 얻게되어 이후 켄 로치 감독의 영화

43) *ibid.*, p. 7.

44) *ibid.*, p. 7.

45)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0.

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제작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반정신의학이 이처럼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신의학 자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사회 및 국가 권력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권력구조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 제도라는 점을 제기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정신의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작 전체를 통해 “미시정치적 차원, 즉 가족이라는 차원에 대한 해방을 통해서만이 사회는 거대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⁴⁶⁾ 그들은 가족이라는 제도가 지니는 정치적 측면을 밝혀내면서 사회제도를 바꾸는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만 개인이 가족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 그렇게 되면 국가라는 허구적 억압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족 생활의 잠재적 해로움”에 대한 반정신의학의 관점이 ‘킹슬리 홀’과 ‘빌라 21’과 같은 치유 공동체의 설립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 및 공동체 지향”이라는 측면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접점이 되었다.⁴⁷⁾

랭과 쿠퍼 등 반정신의학자들은 대항문화운동 그룹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세운 ‘킹슬리 홀’과 ‘빌라 21’은 자치공동체의 본보기이자 대항문화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예컨대, ‘킹슬리 홀’에서는 반정신학과 철학 관련 강좌가 열렸고 대항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와 회합을 열었으며, 실험 연극 그룹, 아방가르드 시인, 예술가, 음악가, 무용수들과 사진사, 신좌파(New Left) 이론가들, 런던의 반대학(anti-university) 학생들, 코뮌운동의 지도자 등이 킹슬리 홀에 모여들었다.⁴⁸⁾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 그룹은 ‘탈제도화’(disinstitutionalization)라는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가운데, 반병원(anti-hospital), 반대학(anti-university), 반가족(anti-families) 등 기존의 거대한 사회제도들에 대한 ‘안티’(anti)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사회 변화가 “사회를 서로 묶어주는 개인 상호간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직화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일치했기 때문이다.⁴⁹⁾ 랭과

46)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63.

47)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5.

48) *ibid.*, p. 885.

함께 반정신의학 그룹의 중심 인물 중의 하나이자 ‘빌라 21’을 이끌었던 쿠퍼는 자신이 참여한 ‘반대학’ 운동에 대한 인터뷰에서 ‘안티’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안티’는 게임 규칙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게임이든, 병원이라는 맥락이든, 어떤 예술의 형태이든 학문적 상황이든 게임 규칙에 있어서의 기본적, 질적, 급진적 변화이다. 그것의 기본적 목표는 모든 거짓된 구분, 구획화, 즉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틀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학문적 틀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다. 예컨대, 관료적 학문 제도의 전체적 본성, 거짓된 학문 분야 사이의 구획, 그리고 이것의 많은 다른 분야로의 확장 등의 측면에서 말이다.”⁵⁰⁾

The ‘anti’ signifies a basic change in the rules of the game, whatever game one’s playing, whether it’s in the context of a hospital, a certain art form, academic situation, it’s a basic, qualitative, radical change in the rules of the game. Whereby the basic aim is to break down all false compartmentalizations, in other words, boxes that people get into. So we’re concerned to breakdown academic boxes, in terms of the total nature of the bureaucratic academic institution, false discipline compartmentalization and this extends to many other areas.

이러한 ‘반제도’, ‘탈제도’ 운동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경직성과 폭력적 측면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이 합류하는 지점이 되었으며 이는 ‘킹슬리 홀’과 ‘빌라 21’ ‘런던 반대학’(Antiuniversity of London) 등 대안적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실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를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한 담론인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 접근하며, 이들 담론을 영화의 서사 및 연출을 통해 교직하고 합류시킨다. 영화는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과 소외, 정신적 곤경을 그가 속한 ‘가족 생활’ 내부의 심층으로 밀착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49)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77.

50) *ibid.*, p. 79에서 재인용.

사회와 기존의 정신의학이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 접근하는 부조리한 방식을 고발한다. 또한 이를 대항문화운동의 관점과 연결하여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전후 영국 사회의 문화변동 과정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대 간 문화적 갈등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며 개인이 직면하는 정신적 위기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이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혜안을 기르는 데 이 영화가 커다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영상 자료

- 켄 로치(감독). <가족 생활>(Family Life). Kestrel Films, 1971. (영화)
켄 로치(감독). <분열된 마음>(In Two Minds). BBC, 1967. (TV 드라마)

2. 문헌 자료

- Cooper, David. *The Death of the Family*. Penguin Books, 1971.
- Cresswell, Mark, and Zulfia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Som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Journal of British Cinema and Television*, vol. 14, no. 1, 2017, pp. 19~38.
- Crossley, Nick.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A Socio-historic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7, no. 7, 1998, pp. 877~89.
- Hayward, Anthony. *Which Side Are You On?: Ken Loach and His Films*. Bloomsbury, 2004.
- Marcuse, Herbert. *An Essay on Liberation*. Beacon Press, 2000.
- Marwick, Arthur. “Youth Culture and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Long Sixties.” *Between Marx and Coca-Cola: Youth Cultures in Changing European Societies, 1960-1980*, eds. Axel Schildt and Detlef Siegfried. Berghahn Books, 2006.
- Nelson, Elizabeth. *The British Counter-Culture, 1966-1973: A Study of the Underground Press*.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 Snelson, Tim. “From *In Two Minds* to MIND: The Circulation of ‘anti-psychiatry’ in British Film and television during the long 1960s.” *History of Human Sciences*, vol. 34, no. 5, 2021, pp. 53~81.
- Sedgwick, Peter. “Who’s mad-you or the system? Dangerous half-truth in attack on the NHS.” *Socialist worker* 5(Feb) <<https://www.marxists.org/archive/sedgwick/1972/02/family.htm>>
- Wall, Oisín.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From Institutional Psychiatry to the Counter-Culture, 1960-1971*. Routledge, 2018.

| Abstract |

The Anti-familialism of Anti-psychiatry and
Counter-Culture Movement in 1960s British Society
: Ken Loach's *Family Life*

Lee, Hyeran

Ken Loach's film *Family Life* approaches individual mental issues based on the two major discourses that caused a significant stir in 1960s British society: 'anti-psychiatry' and the 'counter-culture movement'. The film exposes, through a realist portrayal, the process by which Janice, a young woman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becomes trapped within the oppressive structures of her family and the psychiatric system. This mirrors the core argument of anti-psychiatrists like R. D. Laing and David Cooper: that "madness is bred in the nuclear family environment, and psychiatry performs a function of social control." The film also delves deeply into the clash between the uniform, conformist value system of the older generation, symbolized by Janice's parents, and the counter-cultural spirit of Britain's youth in the 1960s. It critically depicts the collusive relationship within the vast social system—extending from the micro-institution of the family to mental hospitals and factories—moving beyond an exploration of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issues. The film presents a severe conclusion where Janice is helplessly 'normalized' by the existing mainstream psychiatric system, becoming either a compliant labor force for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or a clinical case for psychiatry. This demonstrates the resilience of the mainstream system faced by the 1960s anti-psychiatry and counter-culture movements' attempts toward anti-familialism and deinstitutionalization. The film *Family Life*, grounded in director Ken Loach's signature social realism approach, elucidate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issues through the lens of the cultural upheaval and zeitgeist of 1960s British society.

Key Words: Ken Loach, *Family Life*, schizophrenia, anti-psychiatry, counter-culture movement, anti-familialism

〈더 굿 맨〉의 미학정치* — 공공성을 넘어 커먼즈로 —

강의혁**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좋은 사람’이라는 문제적
기표와 커먼즈의 위기 | 3. 공간의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인클로저와 남
성적 서사의 파열 |
| 2. 〈더 굿 맨〉의 시작: 정동의 사유화와
인클로저의 역할 | 4. 영화적 형식과 인식적 커머닝: 파편화된 서사
에서 커먼즈의 인식적 지도로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필 해리슨(Phil Harrison)의 영화 〈더 굿 맨〉(*The Good Man*, 2012)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아래 형해화된 ‘공공성’의 논의를 넘어 ‘커먼즈(Commons)’와 ‘커머닝(Commoning)’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는 주인공 마이클의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이 실제로는 타자의 자율적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정동적 인클로저(Affective Enclosure)’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커먼즈 분야의 이론과 미학 분야에서 발전된 이론적 프레임을 통해, 사유화된 도덕과 남성적 영웅 서사가 어떻게 공동체의 자생적 커머닝을 억압하는지 규명한다. 나아가 영화의 이중적 서사 구조가 관객에게 신자유주의적 총체성을 직시하게 하는 ‘인식적 커머닝’의 장을 제공함을 고찰함으로써, 사유화된 선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위한 미학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커먼즈, 커머닝, 더 굿맨, 정동적 인클로저, 낯설게하기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2-2618)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부교수

1. 들어가며: ‘좋은 사람’이라는 문제적 기표와 커먼즈의 위기

현대 사회에서 ‘공공성(Publicness)’은 오랫동안 사적 이익에 대비되는 보편적 선(Common Good)이자 국가의 책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공공성의 위기는 단순히 공적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규정해온 근대적 틀인 ‘공/사 이분법’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공공의 이름으로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주체들이 도덕적 시혜를 공공의 선으로 참칭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성은 그 본연의 민주적 역동성을 상실한 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도구로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 필 해리슨(Phil Harrison) 감독의 2012년작 <더 굿 맨>(The Good Man)은 바로 이러한 공공성의 황혼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열망하는 한 개인의 도덕적 결단이 어떻게 구조적 폭력과 결탁하는지를 지정학적인 필터를 통해 폭로하는 문제작이다.

전통적인 공공성 담론은 국가라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무질서를 규제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외부에서 공익을 수호하는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공공성의 척도로 삼는 경영의 주체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선’은 신자유주의적 개발 논리와 동일시되며, 공적 가치는 수치화된 성과와 자본의 확장성으로 치환된다. 영화 속 마이클(Michael)이 추진하는 남아공 전기 공급 사업은 이러한 현대적 공공성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사업은 ‘인도주의’와 ‘공공 구호’라는 수사를 동원하지만, 실상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개척과 국가의 행정적 통제를 전파하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공성은 타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의 질서를 확장하는 인클로저(Enclosure)의 명분으로 작동한다.¹⁾ 이는 공공성이 더 이상 공유된 삶의 기반을 다시는 것

1) 아렌트(Hannah Arendt)는 공공성을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 타인과 소통하며 ‘공동 세계(Common World)’를 구축하는 정치적 장으로 파악한다. 그녀는 공공성이 가족이나 경제와 같은 사적 영역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대화의 공간임을 강조

이 아니라, 사적 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부 구조로 전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 이분법의 교착 상태와 공공성의 도구화를 돌파하기 위해 최근 급격히 부상한 개념이 바로 ‘커먼즈(Commons)’와 ‘커머닝(Commoning)’이다. 커먼즈는 국가(공적 영역)도 시장(사적 영역)도 아닌, 공동체가 삶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관계를 맺는 ‘제3의 영역’ 혹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지향한다. 커먼즈 담론의 핵심은 그것이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실천인 ‘커머닝’을 통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역

한다. “To live together in the world means essentially that a world of things is between those who have it in common, as a table is located between those who sit around it; the world, like every in-between, relates and separates men at the same time. The public realm, as the common world, gathers us together and yet prevents our overgrowing upon each other, so to speak.” Hanna Arendt,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52면. 또한, 공론장 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하버마스 역시 공공성을 이성적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정의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이 공론장을 식민화하고, 비판적 토론이 상품 소비와 홍보로 대체되는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경고한 바 있다. “The bourgeois public sphere may be conceived above all as the sphere of private people come together as a public; they soon claimed the public sphere regulated from above against the public authorities themselves, to engage them in a debate over the general rules governing relations in the basically privatized but publicly relevant sphere of commodity exchange and social labor.”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ans.). MIT Press, 1989, 27.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고전적인 공공성 논의가 공공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시장의 합리성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의 탈정치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공공성의 위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주장한다. “Liberal democracy cannot be defeated by being erased... It is being undone by being economize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inciples are being converted into market ones, and democratic values are being translated into market ones. What was once political is now economic; what was once public is now a matter of human capital and market shares.” Wendy Brown,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Zone Books, 2015, 17. 본 논문은 이미 공공성의 가치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식민화되었다는 웬디 브라운의 진단을 공유하고, 이를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동적 관계라는 점에 있다. 이는 공공성을 국가의 하달이나 개인의 시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평범한 주체들이 삶의 토대를 탈환하고 재생산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로 재정의한다.²⁾ 특히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나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 같은 학자들이 강조하듯, 커먼즈는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적 소외를 극복하고 삶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실천적 장을 의미한다.³⁾

영화 <더 굿 맨>의 서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비판적 힘을 얻는다.

-
- 2) 최근 기후 위기와 팬데믹의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시민의 생명과 공유자원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커먼즈에 대한 논의가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는 ‘공공성’ 모델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마시모 드 안젤리스(Massimo De Angelis)는 시장과 국가의 한계의 강력한 대안으로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공공성, 즉 커먼즈가 새로운 합의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한다. “The limits of the state and market in dealing with the current global crises—from climate change to pandemics—reveal the necessity of ‘commons-based’ alternatives. These crises are the result of a system that prioritizes capital accumulation over social reproduction. The commons emerge as the only site where the ‘social’ can be re-appropriated from the ‘economic’, providing a space for a different kind of publicness based on mutual aid and collective stewardship.” Massimo De Angelis,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Zed Books, 2017, 14.
- 3) 라인보우의 경우,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인클로저가 민중의 생존 수단을 빼앗는 경우, 민중이 이에 저항하며 지키고 했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s)’를 강조한다. 그는 “Commoning is the act of transforming a resource into a common. It is a social process, not a thing. [...] To common i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ers’ needs for survival and well-being.”이라고 주장하며, 커먼즈가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자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Peter Linebaugh,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y and Commons for 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45. 이에 반해 페데리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확장에 있어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강제화되었는지를 정치하게 분석한다. 그녀는 “In the case of the housewife, the ‘production’ we are talking about is the production of labor-power. It is a production that involves not only the performance of physical tasks but also a process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ervicing’ that is essential for the worker’s readiness to return to the job.”이라고 주장하며, 돌봄과 같은 정동노동이 자본에 의해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치부되면서 실제로는 정동노동을 착취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하여 왔음을 폭로한다. Silvia Federici,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PM Press. 2012, 24.

벨파스트의 주인공 마이클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 추구하는 ‘공공의 선’은 철저히 사유화된 도덕적 열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아공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축해온 삶의 커먼즈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피소(Sifiso)가 전기를 몰래 연결하며 마을의 빛을 지켜내려 했던 행위는 법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의 커머닝이었으나, 마이클의 ‘공적 지원’이 개입하는 순간 이는 말소되어야 할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마이클의 선의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공동체의 삶을 해체하는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이 말하는 ‘공공성’이 실제로는 커먼즈에 대한 공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개인의 윤리적 투쟁이 어떻게 전 지구적 차원의 인클로저를 완성하는 하위 주체가 되는가를 영화는 냉정하게 추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성의 계보적 변화와 그 한계를 전제로 하여, 영화 〈더 굿 맨〉을 커먼즈와 커머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공공성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개발 논리로 포섭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주인공 마이클의 속죄 행위가 타자의 자율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정동적 인클로저’로 기능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영화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적 장치들—이중적 서사 구조와 브레히트적 소외 효과—이 어떻게 관객에게 신자유주의적 총체성을 직시하게 하는 ‘인식적 커머닝’의 장을 제공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유화된 도덕과 형해화된 공공성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커머닝이 지닌 미학적,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더 굿 맨〉의 시작: 정동의 사유화와 인클로저의 역설

커먼즈(Commons)는 단순한 ‘공유 자원’의 물리적 실체를 넘어, 공동체가 자본과 국가의 외부에서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기 위해 맺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커먼즈의 핵심은 동사적 실천인 ‘커머닝(Comming)’이다. 마시모 드 안젤리스(Massimo De Angelis)에 따르면, 커머닝은 자본의 축적 논리가 아닌 ‘필요’에 응답하는 생산 방식이며, 이는 공

동체 구성원 간의 수평적 돌봄과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⁴⁾ 드 안젤리스는 커머닝이 자본의 인클로저에 대항하는 유일한 사회적 힘이며, 이는 법적 소유권보다 ‘삶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실천임을 강조한다.

영화 속에서 커머닝의 가장 강렬한 상징은 남아공 소년 시피소가 수행하는 ‘불법 전기 연결’ 시퀀스에서 발견된다. 카메라는 시피소가 위험천만하게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잇는 모습을 긴박하게 포착한다. 법적 관점에서 이는 ‘절도’이지만, 커먼즈의 관점에서 이는 국가가 포기한 공공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복원하려는 생존의 커머닝이다. 시피소가 연결한 전기는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밤이면 어둠에 잠기는 마을 전체에 빛을 선사하며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웃들이 모일 수 있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공간을 창출한다. 이를 드 안젤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범죄행위로 구분되기보다는 자본의 회로 바깥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커머닝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119) 시피소의 이 위태로운 전선 잇기는 곧 타자와의 관계 잇기이자, 빛이라는 공유 자원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주권적 행위이다.

반면, 벨파스트의 주인공 마이클의 서사에서 커머닝은 철저히 부재한다. 그는 매끄럽고 정돈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지만, 그의 거주지는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유화된 공간이다. 사고 이후 그가 겪는 고립감은 그가 속한 사회가 커머닝의 토대를 상실하고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 파편화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시피소의 전기가 마을의 연결망(Network)을 형성한다면, 마이클의 죄책감은 그를 타인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는 중산층의 집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외부를 응시할 뿐, 누구와도 그 고통을 공유하려 하지

4) 커먼즈 이론과 관련, 커머닝이라는 동사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커먼즈가 어떤 대상 또는 자원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커먼즈가 끊임없는 관계와 실천으로 구성됨을 강조한 마시모 드 안젤리스는 커먼즈를 커먼즈의 주체(Commoners)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와 이를 통한 상호 돌봄으로 규정한다. “There are no commons without commoning, and there is no commoning without commoners who are engaged in a social process of mutual aid and horizontal care. These relations are based on reciprocity rather than exchange-value, creating a ‘moral economy’ that protects the common life from the enclosures of the market.” (앞의 책, 184.)

않는다. 마이클의 죄책감은 결국 그를 시피소 마을의 전기공급사업으로 이끌게 되지만, 이 또한 커먼즈의 가치인 수평적 참여와 상호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위계적인 시혜와 자본주의의 교환을 남아공 공동체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인클로저(enclosure of the market)’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된다.

영화의 전후반부를 통해 마이클은 소위 ‘윤리적’인 고민과 갈등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우발적인 죽음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을 찾아가 직접 사죄하고 금전적·물질적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죽은 이가 후원하고 있던 남아공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이클의 ‘개인적 속죄’는 자신이 속한 북아일랜드의 공간적 불평등이나 계급적 마찰에 대한 둔감한 감수성과 극명하게 대조되기도 한다. 즉, 영화가 마이클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부각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구조적’ 불평등과 갈등에 둔감하면서도 동시에 ‘개인화’된 윤리에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클의 선택은 철저히 원자화된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그가 수행하는 도덕적 결단은 타자와의 진정한 연대가 아닌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동적 소비’의 형태를 띤다.

이런 마이클의 내면적 ‘불일치’는, 웬디 브라운이 지적하듯, 그가 얼마나 정치적 갈등과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윤리’나 ‘관용’의 문제로 치환하는 신자유주의의 ‘탈정치화’의 논리에 포섭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⁵⁾ 영화는 마이클이 사무실에서 세련된 PPT를 통해 남아공 사업을 설명하는 장면과 시피소가 마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생활하는 장면을 교차편집으로 대조하여 보여준다. 마이클에게 ‘공공의 선’은 데이터와 수치로 환원된 관리의 대상이며, 이는 자신의 도덕적 점수를 높이는 ‘인간 자본(Human Capital)’에의 신

5) 웬디 브라운은 ‘관용(tolerance)’의 언어가 정치적 변혁과 연대를 개인 도덕의 차원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를 수행한다고 밝힌다. “Depoliticization involves construing inequality, subordination, marginalization, and social conflict, which still derive from political economic powers and discourses, as personal and individual, on the one hand, or as natural, religious, or cultural on the other. ... Tolerance as a discourse of power tends to substitute moralizing or culturalizing for political analysis.” Wendy Brown,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15.

자유주의적인 투자가 된다. 브라운의 통찰처럼, 마이클은 민주적 연대나 구조적 변혁이라는 정치적 언어 대신 ‘지원’, ‘후원’, ‘관용’이라는 시장 친화적 언어로 타자의 고통을 재정의한다. 이는 공공성을 시장의 논리로 포섭하는 신자유주의적 인클로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이클의 윤리적 정동은,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의 용어를 빌면, ‘잔혹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클이라는 주체가 열망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대상이 실제로는 그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그는 이 ‘좋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클에게 ‘남아공 전기 사업’은 자신의 붕괴된 도덕적 자아를 복구해 줄 유일한 낙관적 대상이다. 그는 이 기획에 몰두하며 활기를 되찾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 마이클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의 성공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 때, 그 사업의 여파로 시피소의 마을은 철거되고 시피소는 범죄자로 몰려 쫓기게 된다. 마이클이 열망했던 ‘좋은 사람’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기반이 되었던 타자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고 만다.

영화 후반부에서 마이클이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는 목소리는 시피소가 경찰에 쫓기며 정면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클로즈업과 겹쳐진다. 이 몽타주는 마이클의 정동(죄책감의 해소와 보람)이 어떻게 타자의 삶의 토대(커먼즈)를 침식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마이클은 자신이 ‘거룩한 매듭(holy knot)’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⁶⁾ 그 매듭은 타자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다. 정동의 사유화는 이처럼 낙관주의의 탈을 쓰고 공동체의 커머닝을 인클로저한다. 개인의 도덕적·심리적 성취가 타자의 실질적 몰락과 정비례하는 이 구조는 신자유주의적 윤리가 가진 근본적인 약탈성을 폭로한다.

영화 <더 굿 맨>은 이처럼 공간적 대비를 통해 그 주제의식을 표출한다. 마이클이 대표하는 ‘공공성’은 남아공의 낙후된 마을을 돕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자생적으로 구축하는 ‘커먼즈’를 파괴한다. 결국 영화는 미

6) 영화의 제사는 “Mankind is knit together with a holy knot.”이다.

시적인 시각으로 잡히지 않는 전지구적 차원의 폭력과 그 폭력을 합리화하는 정동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서 영화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클로저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동의 삶, 즉 커먼즈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3. 공간의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인클로저와 남성적 서사의 파열

〈더 굿 맨〉은 벨파스트의 재개발 지역과 남아공의 비공식 거주지라는 두 개의 지정학적 공간을 병치한다. 이 두 공간을 매개하는 것은 마이클이라는 인물의 ‘선한 의지’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마이클의 시선에서 타자의 고통은 구조적 모순이 아닌, 개인적 시혜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불행’으로 재정 의된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마이클의 시계가 ‘탈분쟁 시대(Post-Conflict Era)’의 평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벨파스트는 오랜 폭력의 역사가 새겨진 하나의 역사적 공간이 아니라 그저 세련된 도시미 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일 뿐이다. 마이클이 걷는 벨파스트의 거리는 과거의 참여한 역사적 갈등이 자본의 세련된 디자인 아래 은폐된 공간이며, 도시미화사업에 의한 역사적 기억의 인클로저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다.

마이클이 친구 어머니의 이주를 돕기 위해 빈민가를 방문했을 때 만나는 아이들의 폭력성은 마이클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야만’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마이클은 차 안에 홀로 갇혀 외부를 관찰하거나, 직접 몸을 던져 대결하는 ‘고뇌하는 개인주의적 영웅’의 형상을 취한다. 카메라가 마이클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클로즈업할 때, 관객은 역설적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것—도시 정비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공간적 배제와 인클로저의 폭력—을 목격한다. 마이클의 ‘관용’은 공간의 역사적 맥락을 거세한 채, 그저 이주를 거부하는 노인을 돕는 도덕적 행위로만 머문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 노인이 왜 이주를 거부하는지, 아이들의 폭력성은 어디에 기인하는지, 왜 도시미화와 이주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등의 질문으로 관객들을 이끌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왜 마이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는 공간에 새겨진 고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는 배경으로 소비한다.

남아공의 상황도 벨파스트와 상응한다. 마이클의 후원은 시피소의 공동체에 빛(전기)을 선사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공권력이 미치지 않던 공간을 국가와 시장의 통제권 안으로 포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벨파스트의 강제 이주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무허가 숙소의 파괴와 축출로 이어진다.⁷⁾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이 실제로는 자본의 영토 확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영화는 마이클의 후원금이 전신주를 세우는 동안, 그 전신주를 따라 군대와 경찰의 감시망이 함께 들어오는 과정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농치지 말아야 할 점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벨파스트와 남아공 마을의 병치와 교차에서 두 주인공, 마이클과 시피소가 모두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가부장적 영웅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피소가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마이클이 아내에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장면은 이들의 남성적 에토스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갈등을 구조적 논의가 아닌 개인적 결단과 물리적 행동으로 해결하려 시도한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를 지정학적으로 병치시킨다. 마이클이 아내를 배제한 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고뇌를 증폭시킬 때, 시피소 역시 삼촌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남성적 성장’의 궤도를 그린다. 하지만 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분투할수록, 그들이 속한 공간의 모순과 비극은 심화된다. 시피소의 선행(전기 연결)이 결국 여자친구의 죽음과 공권력의 투입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는, 신자유주의적 ‘지원’의 논리가 어떻게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파괴하는지 증명한다.

또한 마이클의 선행이 결국 남아공의 마을을 파괴하면서도 그 자신의 남성

7) 마이클의 ‘선한 의지’는 벨파스트와 남아공을 매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선한 의지’는 자본에 의한 공간적 약탈의 세련된 대리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하비(David Harvey)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신자유주의의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하며 생산을 통한 축적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공격 자산이나 공동체적 권리를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의 확장과 축적을 이어간다고 설명한다. “The credit system and finance capital become, as Marx pointed out, major levers of speculation and ‘predatory’ fraud, promot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David Harvey, *The New Imperialism*, Oxford UP, 2003, 147.

성의 회복, 그리고 가부장적 역할로의 복귀로 이어지는 모습은 이 비극적 아 이리니 배후에 존재하는 자본의 냉혹한 서사를 반증한다. 마이클은 남아공 사업을 통해 벨파스트에서의 무력감을 상쇄하고 자신의 ‘유능함’과 ‘선함’을 재입증한다. 이 과정에서 마이클의 가족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이지만, 그 평온은 타자의 타전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일종의 빗더미 위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이들의 남성적 영웅 서사가 성취되는 순간, 정작 그들이 받을 딛고 있는 땅의 커먼즈가 어떻게 증발하는지를 시각화한다.

이런 면에서 이 영화의 백미는 마이클이라는 남성적 주인공에게 관객이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마이클의 시각적 시각지대를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마이클이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방황하고 고뇌할 때, 카메라의 시선은 종종 그 뒤편에 남겨진 아내와 딸의 얼굴을 비춘다. 그들은 마이클의 서사 안에서 ‘보호의 대상’ 혹은 ‘시선 밖의 타자’로 존재하지만, 그들의 표정에 서린 슬픔과 피로감은 마이클의 영웅주의적 서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폭로한다. 특히 친구 어머니의 고단한 표정이나, 후원 결정 후 마이클이 혼자 느끼는 ‘도덕적 고양감’과 대비되는 현지 여성들의 처참한 삶은 이 영화의 심층에 흐르는 ‘여성적 정동’을 형성한다. 즉, 영화는 마이클의 표면적 서사에 저항하는 또 다른 층위의 정동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남성 주인공들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리정치학 속에서 후원자와 수혜자로 연결될 때, 여성적 시선은 각각의 역사적 현장에서 겪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고통과 삶의 질곡을 증언한다.

결국 영화 서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마이클의 ‘실패’는 개인의 도덕성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그 자체에 기인한다. 영화는 남성적 서사를 끊임없이 분절하고 휘방 놓는 여성적 감성과 정동의 리듬을 통해, ‘개인의 선함’이라는 알리바이가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관객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르면, 정작 필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나 ‘관용’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이 공간이 타자의 공간을 어떻게 인클로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인 통합과 정치적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인식적 커먼즈’야말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관객들은 마

이클의 실패한 영웅 서사 너머에서만, 커먼즈의 정치와 실천의 요청을 보고 듣게 된다.

4. 영화적 형식과 인식적 커머닝: 파편화된 서사에서 커먼즈의 인식적 지도로

형식면에서 볼 때, 이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 마이클과 감정적으로 밀착하게 만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밀착을 배반하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기법이다. 이는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보장함으로써, 영화를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닌 지성적 사유의 장으로 변모시킨다. 영화는 등장인물이 보지 못하는 것을 관객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입 혹은 동일시(identification)를 방해하고, 비판적/지성적 거리를 영화적으로 보장하여 관객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더 나아가 영화의 이런 거리두기는 등장인물에게 적절한 동일시와 이 동일시를 방해하는 장치들을 통해 강화된다.

영화 초반, 마이클은 평범하고 양심적인 소시민 가부장으로 그려진다. 퇴근길 택시를 새치기한 사소한 이기심이 타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을 때, 카메라는 마이클의 얼굴을 집요하게 클로즈업하며 그의 내적 동요를 포착한다. 관객은 마이클의 고통에 쉽게 공감한다. 그가 장례식을 찾아가고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는 과정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멜로드라마적 동일시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 동일시는 마이클이 ‘해결책’을 찾는 순간 균열을 일으킨다. 그가 죽은 이의 유지를 이어 남아공의 시피소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자, 영화의 톤은 급격히 활기를 띈다. 마이클의 죄책감은 ‘후원’이라는 화폐적/도덕적 행위를 통해 증발한다. 이때 영화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개인적인 구원이 죽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 관객은 마이클의 안도감에 동참하기를 멈추고, 그의 선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특히 아내에게 살인을 고백한 후 이어지는 배란다 시퀀스는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는 감독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카메라는 마이클의 오열을 담는 대

신, 차가운 도시의 불빛과 그의 뒷모습을 정적인 룡샷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절제는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전염되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마이클이 처한 구조적 위치를 조망하게 한다. 전반부의 정동이 ‘동일시과 공감’이었다면, 후반부는 ‘비동일시와 회의’로 전이된다. 이러한 정동의 이동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제목인 ‘The Good Man’의 의미를 재정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제목은 이제 마이클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도덕적 평온을 얻기 위해 타자를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묻는 거대한 질문이 된다.

구성면에서 볼 때 역시, 이 영화는 이중적 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영화는 한편으로 마이클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고민과 방향,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통해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는 ‘좋은 사람’(the good man 혹은 good Samaritan)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 명의 ‘좋은 사람’인 남아공 소년 시피소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춘다. 1세계와 3세계, 도시와 시골, 아일랜드와 남아공은 영화의 색조(필터)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언뜻 보기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교차하며 영화가 전개된다. 벨파스트의 장면들이 차가운 블루 톤과 정적인 미장센으로 도시의 권태와 죄책감을 표현한다면, 남아공의 장면들은 거친 질감의 옐로 톤과 역동적인 핸드헬드 카메라로 생존의 긴박함을 담아낸다. 이처럼 이질적인 두 세계는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하나의 맥락으로 엮이기 시작하며,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서야 관객들은 남아공의 삶과 아일랜드의 삶이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마이클과 시피소라는 두 남성 주인공의 서사가 병치되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남성적 영웅주의’가 어떻게 공간의 역사성을 지워버리는지를 영화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듯 벨파스트의 삶은 남아공의 삶에 의해, 그리고 남성적 서사는 여성적 서사에 의해 ‘낮설게 하기’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낮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는 ‘소외효과(Verfremdungseffekt, Distancing Effect)’를 유발시키면서 관객이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익숙한 현상을 낯설게 바라보게 만든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관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유가 멈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그는 제4의 벽을 허무는 방백, 무대 장치의 의도적 노

출, 노래를 통한 흐름 끊기 등을 통해 관객을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아닌 ‘지적 각성’의 상태로 이끌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객은 무대 위, 또는 영화적 사건을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을 향해 열려있는 사회적·역사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⁸⁾ 브레히트의 소외 효과가 무대 위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했다면, 필 해리스은 이를 ‘지정학적 교차 편집’이라는 영화적 문법으로 구현해낸다.

결국 이러한 낯설게 하기는 미학적 장치이면서도 인식의 각성을 위한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굿 맨>에서는 마이클의 ‘개인적 도덕성’이 주는 안도감에 관객이 머물지 못하도록, 교차 편집, 사운드의 불협화음, 두 명의 주인공이라는 내러티브 기법 등을 통해 관객의 의식을 끊임없이 현실의 지정학적 모순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객은 마이클의 선행에 안도하려 할 때마다 시피소의 비참한 현실로 강제 이송되며, 자신의 감각이 지닌 계급적 편향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더 굿 맨>의 형식적 탁월함은 아일랜드와 남아공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독은 두 공간을 단순히 대비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이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영화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 영화의 ‘낯설게 하기’는 하나의 요소가 다른 하나의 요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소외효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 정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그 반대항에서 작동하고 있는 커먼즈의 필요성과 논리를 가시화하는 데에 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남아공 지원사업의 성공을 자축하는 마이클이 세련된

8)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는 그의 이론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을 위한 작은 지침서」(A Short Organum for the Theatre)에 잘 소개되어있다. 그는 여기에서 소외효과 목적의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고양하는 데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A representation that alienates is one which allows us to recognize its subject, but at the same time makes it seem unfamiliar. ... The new alienations are only intended to free the socially alterable phenomena from the stamp of familiarity which protects them against our grasp today” Bertolt Brecht, “A Short Organum for the Theatre,” 1948, in *Brecht on Theatre: The Development of an Aesthetic*,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Willett, Hill and Wang, 1964, 192.

레스토랑에서 건배사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남아공의 비참한 거리 풍경과 중첩된다. “인류는 성스러운 매듭으로 묶여 있다(Mankind is knit together with a holy knot.)”는 마이클의 고결한 축사는 경찰에 쫓기는 시피소의 거친 숨소리와 도살당하는 염소의 비명 소리 위로 오버랩된다. 이러한 편집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마이클의 선의)가 다른 의미(시피소의 비극)에 의해 부서지고 파열되는 과정인데, 이렇듯 ‘낯설게 하기’가 고정된 의미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하나의 장소성과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비판과 상상력을 가동시킬 때, 바로 이 영화의 미학/정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된다. 마이클의 축사가 들리는 동안 화면에 가득 차는 것은 피 흘리는 염소와 시피소의 공포에 질린 눈이다. 이 극명한 낯설음을 통해 마이클의 언어는 그 신성함을 잃고 약탈의 언어로 폭로된다.

마이클의 낙관주의는 시피소의 절망과 교차되며 그 허구성이 폭로되고, 근시안적이고 나르시스트적인 남성적 정동은 그 도덕적 기반이 해체되게 된다. 관객들은 벌랜트가 말한 ‘잔혹한 낙관주의’가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라는 정동을 통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영화적 형식을 통해 목격하며, 마이클의 실패와 시피소의 몰락이라는 인물 중심적 내러티브의 한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삶의 복잡함과 정치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영화가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선의의 관계’가 실은 얼마나 거대한 파괴의 일부일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인식적 충격이다.

물론, 이 영화는 관객에게 쉬운 해결책이나 해방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클의 일상이 가지는 ‘글로벌한 정치적 의미’를 인식적 지도로 그리게 만든다.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의 도덕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이 과정은, 관객 개개인의 사유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인식적 커머닝’으로 봐야 한다. 인식적 커머닝이란, 우리가 흔히 사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치부하는 영역(도덕, 죄책감, 동정심)이 사실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지형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깨닫는 과정이다. 영화의 엔딩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시피소의 시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관객에 대한 ‘질문’이다. 이 시선은 마이클의 ‘개인적 구원’이라는 닫힌 서

사를 파열시키고, 그 자리에 우리가 공유해야 할 비극적 진실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기입한다.

결국 영화의 제사로 쓰였던 “Mankind is knit together with a holy knot.”이라는 문구는 영화가 끝난 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초반의 마이클에게 이 매듭은 시혜와 후원이라는 ‘도덕적 연결’이었지만, 영화적 산종의 과정을 거친 후 이 매듭은 자본의 폭력과 지정학적 모순이 얽힌 ‘공동의 운명’으로 재구성된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은 거룩한 선행의 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인클로저하는 자본의 그물망이다. 영화는 이 그물망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커먼즈로 향하는 첫걸음을 강조한다.

〈더 굿 맨〉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인클로저를 강화하는지 폭로한다. 동시에, 남성적 서사를 끊임없이 휘방 놓는 여성적 정동과 영화적 거리두기를 통해, 관객이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 총체적 인식을 갖춘 주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진실은 단일한 고백이나 영웅적 결단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개인의 도덕 뒤에 숨은 구조의 모순을 응시하고, 그 모순적 운동을 멈추지 않는 기록의 정신 속에 있다.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커먼즈(Commons)’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커먼닝을 시작할 때, 비로소 정동의 인클로저는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Brecht, Bertolt. "A Short Organum for the Theatre," 1948, in *Brecht on Theatre: The Development of an Aesthetic*,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Willett. Hill and Wang, 1964.
- Brown, Wendy.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Zone Books, 2013.
- _____.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Harvey, David. *The New Imperialism*, Oxford UP, 2003
- De Angelis, Massimo.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Zed Books, 2017.
- Federici, Silvia.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PM Press. 2017.
-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lated by T. Burger. MIT Press, p. 27.)
- Harrison, Phil, director. *The Good Man. Manifest/Indie Sales*, 2012.
- Linebaugh, Peter.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y and Commons for 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 Abstract |

The Aesthetic Politics of The Good Man
: Beyond Publicness to the Commons

Kang, Euihuack

This study explores the ethical and political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societ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mmons and Commoning, moving beyond the hollowed-out discourse of publicness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rough an analysis of Phil Harrison's film *The Good Man* (2012). The research examines how the humanitarian relief efforts of the protagonist, Michael, function as an 'Affective Enclosure' that ultimately destroys the autonomous survival foundations of the 'Other.' Utilizing theoretical frameworks from the fields of the commons and aesthetics, this paper clarifies how privatized morality and masculine heroic narratives suppress the self-generating commoning of communities. Furthermore, by examining how the film's dual narrative structure provides an arena for 'Epistemic Commoning'—enabling the audience to confront neoliberal totality—this study proposes aesthetic strategies for restoring communal life in a true sense, transcending privatized goodwill.

Key Words: Commons, Commoning, The Good Man, Affective Enclosure, Defamiliarization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 타당화*

김용훈**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프로그램 개발 |
| 2. 이론적 배경 | 4. 맺음말 |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성 개입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경험, 정체성 인식, 공동양육 경험 및 프로그램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체성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비구조화와 공동양육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구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인식, 관계 조율, 양육 행동 실천, 반성적 성찰을 통합한 총 8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 적용 결과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과 높은 수용성이 확인되었다. 또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부교수

한, 주 1회, 회기당 90-120분의 운영 구조는 학령기 아버지들의 생활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 참여를 정체성 재구성과 가족체계 맥락에서 접근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향후 효과성 검증 연구와 지역사회 기반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아버지됨 정체성, 아버지 양육참여, 공동양육, 프로그램 개발, 예비 타당화

1.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전통적인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넘어, 자녀 양육과 가족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존재로 재정의되고 있다(이운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성 역할 인식의 전환,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 책임의 확대 등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있으며, 가족학 및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아버지됨(fathering)’이 주목받고 있다. 아버지됨은 생물학적, 법적 지위로서의 아버지(fatherhood)를 넘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 돌봄 및 교육참여 전반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 과정으로 이해된다(Volling et al., 2019). 즉, 아버지됨은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화하는가에 따라 양육참여의 방식과 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 역할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자녀 발달에 독자적이고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 연구들과도 일관되게 연결된다(Cabrera, Volling, & Barr, 2018).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민감한 상호작용, 놀이 참여, 학습 지원이 영유아기뿐 아니라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자녀의 인지적 성취와 사회, 정서적 역량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으며(Rollè et al., 2019), 초기 부자 상호작용의 질은 이후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Sethna et al., 2017). 최근에는 아버지의 정서적, 행동적 관여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과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이 강조되고 있다(Puglisi et al.,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됨 정체성의 성숙이 양육참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며, 그 효과가 아동 발달 전반에 걸쳐 지속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 개인의 발달을 넘어 가족체계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 실천은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내 정서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양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 Montigny et al., 2020). 특히 공동양육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가 가족체계 내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지속하는 핵심적인 관계 맥락으로, 국내 연구에서도 공동양육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족 기능 요소로 확인되었다(김수아, 2021). 이는 아버지됨 정체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구조를 재조정하는 중심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정책적 차원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양성평등 돌봄 실현을 위해 남성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직장 문화, 부양자 중심의 사회 규범은 여전히 많은 아버지에게 직업-가족 역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양소남, 2013).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버지 개인의 역할 인식과 가족 내 상호작용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부부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 부모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Cowan et al., 2022; Havighurst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영유아기 양육이나 정서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직면하는 발달 과업과 정체성, 가족, 공동양육 맥락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령기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 지원, 또래 관계 형성 등 부모 역할이 재구조화되

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기반 개입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과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됨 정체성(fathering identit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구분석 결과와 전문가 내용 타당도, 참여자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예비 타당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버지의 정체성 강화와 가족 상호작용 개선을 통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개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와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와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아버지됨 정체성의 개념

아버지됨은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 양육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된다(Volli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아버지됨 정체성이란, 아버지가 자녀 양육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형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육 행동을 조직하며, 양육 경험을 통해 역할의 의미를 지속해서 재구성해 가는 심리적, 관계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한 태도나 신념이 아니라, 역할 인식, 책임감, 양육 효능감, 반성적 성찰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적 정체성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됨 정체성이 명확하고 통합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과 정서적 반응 조절이 가능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Marsiglio & Roy, 2012; Palkovitz, 2019).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됨 정체성은 양육참여의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2) 학령기 발달 맥락에서의 아버지 역할

아버지됨은 생애주기와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는 발달적 과정이다. 학령기에는 자녀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량이 확대되며, 아버지는 정서 조율, 학습 지원, 사회적 행동 모델링 등 보다 복합적인 교육적,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ollè et al., 2019). 이 시기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ummings et al., 2010).

특히 아버지는 규칙 설정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이고 도전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촉진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Grossmann et al., 2002).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단순한 양육 기술 전달을 넘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체성 기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가족체계 및 공동양육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상호 연결된 하위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으로 이해하며, 아버지는 배우자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에 동시에 관여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Minuchin, 1974).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러한 하위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양육의 질은 아버지 참여 효과를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Feinberg, 2003).

협력적인 공동양육은 부모 간 상호지지와 역할 조율을 강화하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높인다(Cowan & Cowan, 2019). 반대로 공동양육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의 기능적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다(McHale, 1995). 최근 연구들은 아버지 대상 개입에 공동양육 요소를 통합할 때 개입 효과가 가족 기능 전반으로 확장되고 지속할 가능성이 커짐을 보고하고 있다(Cowan et al., 2022).

4) 학령기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개입의 필요성

학령기 가족 맥락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은 자녀 개인의 발달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관계, 가족 상호작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개입은 정체성, 양육 기술, 관계적 맥락을 통합한 다차원적 접근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체성 기반 개입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양육 행동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접근이다(Palkovitz, 2019).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학령기 아버지의 정체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되, 가족체계와 공동양육 맥락 속에서 실제 양육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은 역할 인식의 명료화, 공동양육 관계에서의 아버지 역할 재위치 화, 실제 양육 행동의 실천,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는 변화 기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심리교육, 상호작용 활동, 성찰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조화하였다.

3. 프로그램 개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와 아버지됨 정체성 수준, 공동양육 경험, 가족 상호작용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혼합연구 접근을 적용하였다.

학령기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참여는 개인의 역할 인식과 양육 효능감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관계, 가족체계 내 상호작용 구조 등 관계적·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단일 방법에 따른 접근보다는, 양적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과 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질적 자료를 통해 아버지의 실제 경험과 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혼합

연구 설계가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양적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양적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 수준, 가족관계 및 공동양육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13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양적 연구(N=100)

설문 항목		구분
연령	20대	2(2%)
	30대	22(22%)
	40대	72(72%)
	50대	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8(8%)
	전문대 졸업	12(12%)
	대학 졸업	46(46%)
	대학원 졸업	34(34%)
직업	생산직	2(2%)
	자영업	16(16%)
	서비스직	6(6%)
	사무직	20(20%)
	전문직	38(38%)
	기타	18(18%)
월수입	300만 원 미만	32(32%)
	300만 원 이상	68(68%)
자녀 수	1명	12(12%)
	2명	56(56%)
	3명	24(24%)
	4명 이상	8(8%)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교의 총 5개 학급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10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 누락이 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모자란 5부를 제외한 1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적 설문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동양육 경험, 가족 기능 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와 직접 연관된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요구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H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승인번호: 2021-01-07),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중도 철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참여자와 자료 수집

질적 연구는 양적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실제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 과정, 공동양육 과정에서의 갈등과 조율 경험, 그리고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내재한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1~13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면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질문은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역할 인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조율 과정, 그리고 아버지 대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후 전사하

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아버지됨 정체성과 양육참여 경험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핵심 구성요소 도출, 회기별 세부 내용 구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질적 분석 결과는 양적 요구분석 결과와 통합적으로 검토되어, 학령기 아버지를 위한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비밀 유지, 자료의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질적 연구 전 과정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적 연구(N=10)

이름	연령	자녀연령	직업	교육	수입	자녀 수
김○○	39	13	전문직	대졸	300만 원 이상	1
이○○	42	12	사무직	대학원 졸	300만 원 이상	2
석○○	43	11	전문직	대졸	300만 원 미만	2
한○○	43	13	사무직	대졸	300만 원 미만	2
정○○	47	13	생산직	대졸	300만 원 미만	3
박○○	38	11	서비스	전문대졸	300만 원 미만	1
최○○	41	12	자영업	대졸	300만 원 이상	2
윤○○	45	13	전문직	대학원 졸	300만 원 이상	2
장○○	44	11	사무직	대졸	300만 원 미만	3
오○○	49	14	자영업	대졸	300만 원 이상	2

2) 측정도구

① 양적 연구 측정도구

양적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

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목적으로 한 기초 자료 수집 도구로 활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 의뢰로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중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질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발달적 특성과 생활 맥락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문항 수정 과정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아버지 역할 인식, 가족 및 공동양육 맥락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구성 내용을 조정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 양육 및 부모교육 관련 연구 경험을 갖춘 발달심리 전문가와 양육코칭을 담당하는 관련 학과 교수에게 문항의 적절성, 표현의 명확성,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의 표현과 배열, 응답 범위를 수정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네 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첫째,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영역(6문항)은 아버지됨 인식, 역할 가치관, 양육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인식 영역(5문항)은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표 3〉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설문지: 양적 연구

	질문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일반적인 배경	아버지 됨 인식, 역할 가치관, 양육 자기효능감	1~6번	6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양육 어려움 여부 및 해결 방법	7, 8번	2
	자녀 양육 관심 영역	9번	1
	양육 활성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이유	10, 11번	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실시 시간과 횟수	12, 13번	2
	운영 방법과 운영자	14, 15번	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주제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제	16~18번	3

측정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요구 영역(4문항)은 회기 구성, 운영 시간대, 실습 비중, 교육 운영형태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넷째, 프로그램 주제 선호도 영역(3문항)은 정서코칭, 의사소통, 공동양육 등 아버지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육 주제를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구성과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 측정도구

질적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공동양육 과정에서의 조율 방식, 그리고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면담은 아버지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면담 질문지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먼저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및 부성 역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외 부성 교육 프로그램인 Supporting Father Involvement(SFI) 프로그램과 Dads Tuning in to Kids(Dads TIK)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개념과 면담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됨 정체성, 정서적 관여, 공동양육 경험, 양육 스트레스 및 지원 요구와 관련된 핵심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자의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 경험을 반영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실제 양육 맥락과 생활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예비 문항은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질문의 내용 적절성, 표현의 명료성, 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민감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표현을 수정·보완하고, 중복 문항을 정제한 후 최종 면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면담은 발달심리사 및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비밀 유지, 자발적 참여 원칙 및 중도 철회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면담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과 어려움,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협력 과정,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면담에 활용된 주요 질문 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설문지: 질적 연구

내용	질문
아버지 됨 인식	아버지가 된 이후 삶이나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좋은 아버지’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양육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탐색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3-1.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2.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3. 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프로그램 운영과 내용	4.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프로그램 방식 및 운영형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6.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좋은 요일과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7.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나요?

3) 분석

① 양적 연구 분석

양적 자료는 데이터 정제 및 코딩 절차를 거친 후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집단 간 비교나 인과적 관계 검증보다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 특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동양육 경험, 가족 기능과 관련된 응답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 교육 주제에 대한 요구 경향을 기술통계 수준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회기 구성, 활동 내용 설계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질적 분석 결과와 통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분석 접근은 혼합연구 설계에서 요구분석 단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적 선택으로, 이후 프로그램 구성 및 타당화 과정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였다.

② 질적 연구 분석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절차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한 후, 연구자들은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진술의 단편적 의미보다, 참여자의 경험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연구 목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식별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 유사한 의미 단위로 묶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기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초기 주제 간의 관계와 위계를 재검토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설명력이 높은 상위 주제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가 전체 자료를 충분히 대표하는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분석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드화와 주제 도출 전 과정에서 연구자 간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해석을 조정하였다. 해석의 모호성이 발견될 때는 원자료로 되돌아가 진술의 맥락을 재검토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이해가 분석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분석 전 과정에서 성찰적 기록을 병행하였다. 또한, 일부 분석 결과는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참여자 검토 절차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최종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 진술문을 선정하여 결과 제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 결과는 학령기 아버지가 경험

하는 양육참여의 의미 구조와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핵심 구성 요소 도출, 회기별 세부 내용 구체화를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4) 결과

① 양적 연구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 경험과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기준과 전략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먼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다수는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일정 수준 이상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육 역할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담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순한 참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수행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는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의존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모, 친지, 동료에게 문의하거나 서적 및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체계적인 부모교육이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역할수행을 학습하려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들이 양육 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즉각적인 조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버지됨 역할을 발달적, 학습 가능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은 자녀의 학습 지원과 재능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로 교육적 지원자나 성취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서적 상호작용이나 관계 조율자의 역할 인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는 아버지됨 정체성이 관계적, 정서적 차원보다는 기능적 역할수행에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자녀의 학습 지원과 또래 관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역할 기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역할수행의 기준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됨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구조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중심의 부모교육을 넘어, 아버지됨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체계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론적·실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 결과

질적 면담 자료를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핵심 주제, 6개의 하위 영역, 17개의 의미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핵심 주제는 첫째,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 둘째,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 셋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녀 양육의 중요성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서 비롯된 시간 부족과 역할 충돌, 양육 참여에 대한 죄책감,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회사 일 때문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빠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진술을 통해, 양육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제약 속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방식과 감정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이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라는 경험을 공유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준의 불분명성 역시 핵심적인 의미 범주로도 출되었다. “좋은 아버지가 뭘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진술은, 아버지들이 양육 행동 이전에 아버지됨 역할에 대한 기준과 방향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들이 단순한 양육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미구조화와 역할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버지

〈표 5〉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결과: 양적 연구

분석 영역	주요 결과	빈도	백분율	정체성 기반 해석
양육 어려움 경험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 어려움 경험	82	82	역할수행 의지는 있으나 지속적 부담과 혼란 경험
양육 어려움 대처 방식	비공식적 지지 및 개인적 판단 중심	82	82	역할을 학습 가능한 정체성으로 인식하지 못함
양육 역할 인식	자녀 학습 성취 중심	36	36	기능적, 부분적 아버지 역할 인식
	자녀 재능, 특기 지원 중심	30	30	성취 조력자 중심의 정체성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필요 또는 매우 필요	88	88	역할수행에 대한 체계적 지원 요구
프로그램 필요 이유	자녀 학습 지원	48	48	교육참여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 또래 관계 지원	44	44	관계 조율자의 역할 요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필요 인식과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교육을 받으면 아빠로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진술을 통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과 자신감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또래 아버지와의 상호지지 경험은 중요한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통해, 또래 집단 내 경험 공유와 공감의 아버지됨 역할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들이 개인적 문제해결을 넘어, 관계적, 집단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핵심 주제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추상적인 부모 역할 교육에 머무르기보다 학령기 자녀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정서적·교육적 역할수행 중심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참여자들은 “아이 감정을 어떻게 읽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숙제나 공부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 교류 및 학습·양육 코칭 역량 강화를 핵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확장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진술은, 프로그램이 개인 차원의 교육을 넘어 가족 간 소통 증진과 실행 중심의 구조를 갖추기를 바라는 요구를 반영한다. 종합하면, 질적 분석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한 양육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비구조화와 역할 기준의 불명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들은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또래 아버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양육 역할을 재정의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 기반의 체계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결과: 질적 연구

핵심 주제	하위 영역	의미 범주	대표진술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	일, 가정 병행의 어려움	시간 부족과 역할 충돌	“회사 일 때문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양육 참여에 대한 죄책감	“아빠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자녀와의 관계 형성 부담	의사소통의 어려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표현의 어려움	“아이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아버지 됨 기준의 불분명성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혼란	“좋은 아버지가 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	정체성 혼란 해소 욕구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정의 필요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자신감 회복에 대한 기대	“교육을 받으면 아빠로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도래 아버지와의 상호지지	경험 공유의 필요성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어요.”
		공감과 위로 경험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힘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	정서적 관계 중심 교육	자녀와의 감정 교류	“아이 감정을 어떻게 읽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교육적 역할수행	학습 및 양육 코칭	“숙제나 공부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 관계 확장	가족 간 소통 증진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실생활 적응 중심	“바로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요.”

5)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인식 및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단순한 행동 빈도의 증가나 기술 습득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체성 중심 개입을 통해 지속할 수 있고 내면화된 양육참여 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아버지됨 정체성 이론, 공동양육 개념, 가족체계 이론과 더불어, 본 연구의 양적, 질적 요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개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첫째,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심리교육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주요 발달 과업(학업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자기조절 발달)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학령기 자녀에게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범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을 단순한 보조 양육자나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자녀의 정서·사회·학습 발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체적 양육자로 재인식하도록 돕고,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과 양육 효능감 증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관계적 맥락에서의 아버지 역할 정체성 확장을 위한 가족 관계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동양육 관점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협력적 의사소통, 역할 분담의 조율,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 조절 및 대화 전략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가족체계 내에서 일관된 양육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아버지됨 정체성이 개인 차원을 넘어 부부 및 가족 관계 속에서 재구성·강화되도록 하였다.

셋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 행동 실천을 위한 양육코칭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령기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 상호작용, 생활지도와 훈육, 학습 동기 지원과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사회성 및 또래 관계 지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양육 원칙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와 역할 인식에 근거하여 일관된 양육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적용과 역할 연습을 강조하였다.

넷째, 아버지됨 정체성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반성적 사고(정신화) 실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정서와 욕구를 인식, 해석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에 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훈련하는 감정코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정서 경험과 양육 반응을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됨 정체성이 인지적 이해를 넘어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서 통합되도록 하였다. 각 회기 말에는 개인별 실천 다짐과 가족 공동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정체성 변화가 실제 양육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이 참여자의 인지, 정서,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Yalom & Leszcz, 2005)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각 회기는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관계 경험-행동 실천-성찰의 순환 구조를 따르도록 구성하였으며, 강의, 실습, 피드백, 집단 나눔, 가정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아버지들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학령기 자녀 양육에 있어 지속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아버지의 역할 인식(인지), 정서적 민감성(정서), 양육 행동의 실천(행동)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아버지됨 역할을 재정의한 후, 이를 실제 양육 행동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유지해 나가는 단계적 변화 과정을 목표로 하였다.

1회기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버지 역할 이해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을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 과업(학업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자기조절 발달)을 이해하고, 해당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범위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 신념과 실제 행동을 점검·공유함으로써, 아버지를 단순한 보조 양육자가 아닌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회기에서는 일상 루틴과 생활지도를 주제로, 아버지 역할을 일상적 실천 수준에서 구체화하였다. 가정 내 기본 생활 규칙(수면, 식사, 학습, 미디어 사

용)을 점검·재구성하고, 아버지-자녀 공동 일과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양육 참여 자기점검 활동을 통해 참여 시간과 활동 유형을 성찰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이 일회적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속 책임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3회기에서는 감성코칭과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정서적 민감성을 강화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정서 신호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명명하는 기술을 학습하였고, 경계 설정과 문제해결 단계를 실습하였다. 비디오 피드백을 활용하여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의 강점과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됨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4회기에서는 협력적 의사소통과 갈등 완화를 중심으로 관계 조율 역량을 다루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점검하고, 관찰-감정-욕구-요청(Observation-Feeling-Need-Request) 구조의 대화 기법을 실습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권위적 통제자가 아닌 관계 조율자이자 협력적 양육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가족 대화 규칙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5회기에서는 학습코칭과 양육 자기효능감 강화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교육 참여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아버지들은 칭찬과 격려, 구체적 피드백 제공의 원리를 학습하고, 과제 난이도 조절과 스캐폴딩 전략을 실습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학습 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통제자가 아닌 지지적 조력자로 재정 의하도록 하였다.

6회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가정 규범 설정을 주제로, 일관된 양육 원칙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자녀의 미디어 사용 시간, 콘텐츠, 장소 등에 대한 가족 합의를 하고, 규칙 위반 시의 결과와 회복 절차를 설계하였다. 이후 실제 적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버지가 규칙 설정과 실행 과정에서 일관성과 책임성을 지닌 양육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7회기에서는 사회성과 또래 관계 지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역할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공감적 경청, 문제해결 대화, 갈등 중재 전략을 실습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 발달 지원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화하였다.

8회기에서는 양육 행동의 유지와 일반화를 목표로, 이전 회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실천 다짐과 가족 공동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점검 일정을 안내 받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는 아동·가족 영역의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예비 적용을 통해 일부 활동의 난이도와 절차를 조정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주요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회기	주제	회기 목표	주요 활동	아버지됨 정체성 요소
1	학령기 발달과 아버지 역할 이해	아버지 역할 인식 재구성	발달 특성 심리교육, 양육 신념 점검	양육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2	일상 루틴 생활지도	일상 속 역할 책임화	일과표 작성, 참여 자기점검	지속적 책임 주체
3	감정코칭 및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민감성 강화	감정 명명, 경계 설정 실습, 비디오 피드백	정서적 반응자
4	협력적 의사소통	관계 조율 능력 향상	OFNR 대화 훈련	협력적 양육 파트너
5	학습코칭과 자기효능감	교육참여 역할 강화	구체적 피드백 제공, 스캐폴딩 실습	지지적 학습 조력자
6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가족 규범	일관된 양육 기준 확립	규칙 합의, 실행 점검	책임 있는 규칙 설정자
7	사회성과 또래 관계 지도	사회적 적응 지원	갈등 중재 연습, 학교, 지역사회 활동 계획	사회적 발달 지원자
8	행동 유지와 일반화	지속적 실천 강화	실천 다짐, 가족 공동계획 수립	통합된 아버지됨 정체성

7)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회기별 구성의 구체화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적 적절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효과성 검증에 앞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타당화 절차로서, 본 프로그램이 이론적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입인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먼저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아동·가족 영역에서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부모교육 및 가족 중재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검토를 시행하였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핵심 구성 요소, 회기별 주제와 활동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버지 역할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버지됨 정체성 개념이 프로그램 전반에 일관되게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기 간 구성의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검토는 회기별 활동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서술형 의견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활동의 설명 방식, 난이도 조정, 예시의 학령기 적합성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성과 방향성은 학령기 아버지 대상 개입으로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용성은 예비 적용 과정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전달 중심의 부모교육과 달리, 자신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아버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또래 아버지들과의 경험 공유, 실습 중심 활동, 실제 가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 과제 구성은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버지들의 요구와 생활 맥락에 부합하는 개입으로서 충분한 수용 가능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성은 프로그램 운영 구조의 현실성과 수행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의 구성은 학령

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직장 일정과 가정생활을 고려할 때 운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각 회기의 활동과 가정 과제 역시 과도한 부담 없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또는 가족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실행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표 8〉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

영역	기준	내용	결과
내용 타당도	목표 적합성	프로그램 목표의 학령기 아동 발달 특성 및 아버지 역할 요구 반영 적절성	학령기 발달 과업(학습, 사회성, 정서 조절)과 아버지 역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이론적 일관성	아버지됨 정체성 개념의 회기 전반 통합 및 이론적 일관성	정체성 인식-관계 조율-행동 실천-성찰의 흐름이 회기 간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됨
	구성의 논리성	회기 주제 및 활동의 단계적 구성과 상호 연계성	회기 간 목표와 활동이 점진적으로 심화·확장되는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수용성	참여 동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 및 동기 지속 수준	또래 아버지 경험 공유 및 실습 중심 활동이 참여 동기 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내용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실제 양육 맥락 부합성	학령기 자녀 양육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만족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기존 강의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실행 가능성	운영 구조	회기 수·시간·빈도 및 운영 방식의 현실성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 구성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로 평가됨
	수행 부담	과제 및 활동 수행의 부담 수준(적정성)	가정 과제와 활동이 과도하지 않으며 참여 지속에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평가됨
	현장 적용성	지역사회 및 가족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	가족센터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로 평가됨

참여자의 수용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향후 효과성 검증 연구로 확장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 타당도,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의 요약은 <표 8>에 제시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단순한 행동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인식과 의미 재구성을 포함하는 발달적·관계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기준과 정체성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양육참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역할 기준과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중간 수준의 참여 아버지 집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요구는 본 프로그램이 정체성 인식, 관계적 조율, 양육 행동의 실천, 반성적 성찰을 통합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 개인의 양육 역량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 양육과 가족체계 전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커뮤니티 관점에 부합한다. 협력적 의사소통, 가족 규칙 설정, 공동 실천 계획 등의 구성요소는 아버지를 가족 내 보조적 존재가 아닌 관계 조율자이자 책임 있는 양육 주체로 재위치 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센터, 학교 기반 부모교육, 지역사회 상담 및 가족지원 기관 등 기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아버지의 양육 고민을 지속해서 지지,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인지·정서·행동의 다차원적 구조로 통합하여 접근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양육참여의 시간이나 빈도에 초점을 두었던 한계를 넘어, 아버지됨 정체성이라는 내적 기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비 타당화를 시도함으로써 부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8회기의 집단 구성으로 학령기 아버지들의 생활 맥락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또래 아버지 간 상호작용과 성찰을 통해 정체성 기반 변화가 촉진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단회성 부모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속 가능한 아버지 개입 모델로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비 타당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써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참여자가 제한된 지역의 비교적 소규모 표본에 국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운영 모델을 적용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변화의 지속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비 타당화를 통해, 어떤 아버지에게 특히 유효한 개입인지와 이를 지지할 지역사회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를 가족 내 주변적 존재가 아닌 관계와 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근거 기반 개입으로서, 향후 가족 연구와 부모교육 실천 현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수아 (202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5(3), 101~124면.
- 보건복지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세종: 보건복지부.
- 양소남 (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한국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면.
-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 77~101.
- Cabrera, N. J., Volling, B. L., & Barr, R. (2018). Fathers are parents, too! Widening the lens on parenting for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pp. 152~157.
- Cowan, P. A., & Cowan, C. P. (2019). Enhancing parenting effectiveness, fathers' involvement, couple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Breaking down silos in family policy-making and service-delivery.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11(1), pp. 92~111
- Cowan, C. P., Hawkins, A. J., & Cowan, P. A. (2022).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Children benefit from a more integrated family approach (Child Evidence Brief No. 14).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Cummings, E. M., Merrilees, C. E., & George, M. W.(2010). (해제)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adjustment.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5th ed., pp. 154~176). Hoboken, NJ: Wiley.
- de Montigny, F., Lacharité, C., & Devault, A. (2020). The role of fathers in family function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Studies*, 26(2), pp. 1~16.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pp. 95~131.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 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pp. 307~331.
- Havighurst, S. S., Wilson, K. R., Harley, A. E., & Kehoe, C. E. (2019). Dads Tuning in to Kid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n emotion socialization parenting program for fathers. *Social Development*, 28(4), pp. 979~997.
- Marsiglio, W., & Roy, K.(2012). *Nurturing dads: Social initiatives for contemporary fatherhoo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pp. 985~99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Palkovitz, R.(2019). Expanding our focus from father involvement to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4), pp. 576~591.
- Puglisi, N., Rattaz, V., Favez, N., & Tissot, H. (2024). Father involve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12, 675.
- Rollè, L., Gullotta, G., Trombetta, T., Curti, L., Gerino, E., Brustia, P., & Calderara, A. M. (2019).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0, 2405.
- Sethna, V., Murray, L., Netsi, E., Psychogiou, L., & Ramchandani, P. G. (2017). Father-child interactions at 3 and 24 months: Contribution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t 24 month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3), pp. 378~390.
- Volling, B. L., Cabrera, N. J., Feinberg, M. E., Jones, D. E., McDaniel, B. T., Liu, S., ... Cookston, J. T. (2019). Advancing research and measurement on fathering and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4(1), pp. 7~160.
- Yalom, I., & Leszcz, M. (200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Abstract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Fathering Identity-Based Program to Enhanc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Kim, Yong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thering identity-based parenting involvement enhancement program for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and to preliminarily examine its content validity,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on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hood intervention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nd both quantitative surveys an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o explore their parenting experiences, perceptions of fathering identity, co-parenting dynamics, and program need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fathers demonstrate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illingness to engage in parenting, their criteria for performing the father role and identity structure were insufficiently organized. Parenting difficulties were closely related not to a lack of skills, but to the underdeveloped fathering identity and co-parenting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an 8-session group program integrating identity awareness, relational coordination, parenting practice, and reflective processes was developed. Expert review confirmed the program's content validity, and pilot implementation indicated high acceptability among participants. The program structure—weekly sessions lasting 90–120 minutes—was evaluated as feasible within the life contexts of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a fathering identity-based intervention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effectiveness research and community-based parent education.

Key Words: Fathering identity, Father involvement, Co-parenting, Program development, Preliminary validation

미혼모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페미니즘 분석

— KCI 등재후보지 이상을 중심으로 —

김태영*

목 차

-
- | | |
|------------------|---------------------------|
| 1. 서론 | 4. 미혼모 담론의 변화와 젠더 부정의 재생산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미혼모를 어떠한 관점에서 규정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 방식이 젠더 부정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낸시 프레이저의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70~90년대 미혼모 관련 연구들은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 수혜자로, 최근 연구에서는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담론적 규정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이 서로 얽힌 구조 속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의 담론적 전환을 젠더화된 시민권 논의 속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미혼모, 젠더 부정의, 비판적 페미니즘, 낸시 프레이저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박사과정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에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세대 가구 39.6%, 1인 가구 33.6%, 1세대 가구 25.1%로 나타났다.¹⁾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비혈연 관계의 가족, 성소수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성이 사회적 현실을 차지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인 초혼 이성에 핵가족의 형태가 가족 규범 모델이라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공동체를 인정받기 위해 친구를 입양하거나²⁾, 동성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 평등소송³⁾을 제기하는가 하면,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등 새로운 가족 실천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존의 협소한 가족 규범을 재고하고 ‘가족 구성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역시 가족 다양성 인식 확산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다.⁵⁾

그러나 가족의 형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⁶⁾와 그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은 여전히 그 가족의 형태를 사

1)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2)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의 저자 은서란은 친구를 ‘딸’로 입양하여 현행 가족제도의 한계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저서를 통해 알렸다.

3) 2025년 10월, 6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다.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와 이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한국 사회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모두의 결혼’이라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5)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1.

6)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미혼 여성’이라는 의미인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적으로 공식화된 개념은 아니다.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혼모는 제도적으로 ‘한부모’ 범주에 포함된다. 이때 ‘한부모’가 법과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는 제도적 용어인 반면, ‘미혼모’는 성적 도덕 규범과 결부되어 서로 결이 다른 낙인 효과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적 차이를 문제화하고, 주변화된 ‘미혼모’의 위치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분석 범주를 ‘미혼모’로 한정하였다. 다만,

회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⁷⁾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가족 규범에 균열을 일으켰고, 2011년, 입양인 당사자권리운동과 양육에 대한 권리 제고에 따른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 기존 「모부자복지법」의 협소한 부모 범위에서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등 좀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련의 흐름으로 보아 혼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허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미온한 변화로 보이며, 결혼제도 바깥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⁸⁾ 따라서 미혼모가족은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낙인의 대상이자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정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주로 ‘한부모’라는 포괄적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⁹⁾ 이들 연구는 주로 빈곤 여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여성가장 가족의 사회권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혼모는 법률상 한부모 범주에 포괄되지만, 엄밀히 말해 ‘한부모’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포괄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한부모 범주에는 사별, 이혼, 별거,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기 때문에, 혼인제도 바깥에서 ‘미혼모’가 경험하는 고유한 낙인 구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분석적 한계를 갖는다.

그동안 미혼모 문제는 ‘한부모’라는 제도 범주의 포괄성 속에 흡수되어 미혼 여성의 성적 도덕 규범과 결합된 낙인 구조와 이와 얽혀 있는 재분배 문제

권리 주체 담론은 한부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의 담론 공백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부 한부모 연구를 보조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때는 원문의 표기인 ‘한부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7)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7~115면 참조.
- 8) 성정현·김희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한국가족학회, 2016.,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 9) 김정현, 2013, 성미애·진미정, 2009, 성정현 외, 2018, 송다영, 2006, 장수정 외, 2021.

등이 면밀히 분석되지 못하며, 학술적 분석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미혼모를 한부모 범주의 하위단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재분배, 차별과 배제,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다.¹⁰⁾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복지 정책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기존 관점을 비판하면서 미혼모를 젠더화된 시민 주체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다.

미혼모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미혼모와 관련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¹¹⁾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¹²⁾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을 정책 차원에만 국한하여 분석하거나, 또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떤 연구주제와 방법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분석들은 미혼모 관련 연구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가 이론화한 젠더 정의, 즉 재분배-인정-대표성의 젠더 정의론을 분석틀로 삼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분배의 차원, 인정의 차원 중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석된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의 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를 다루면서, 미혼모 정체성과 결부된 낙인과 차별, 배제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루거나¹³⁾, 분석의 초점이 인정의 차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재분배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¹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미혼모가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다

10) 권희정, 2011, 김혜영, 2013, 성정현·김희주, 2016, 소영현, 2025, 정지연, 2023, 정지연, 2025.

11)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12) 윤소라·장진경,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9(3),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13) 김지혜·김희주, 2018, 문순영, 2015, 장운정, 2017, 홍봉선·남미애, 2011.

14) 강라현, 2021, 김혜영, 2013, 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정지연·이미정, 2020.

층적 층위를 충분히 포괄하여 논의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더 나아가 대표성의 차원, 즉 권리 주체로서의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한부모’ 연구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혼모’ 연구에서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권희정(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기가 어렵다.¹⁵⁾ 이러한 분석의 공백은 미혼모의 담론적 위치성이 주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가 정의한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이라는 세 차원을 분석틀로 삼아 기존의 미혼모 관련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로 낙인화하거나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위치시키는 기존 담론을 넘어, 미혼모에 대한 부적절한 재분배 문제, 낙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 미혼모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혼모 관련 연구의 분석 지평을 확장하고, 기존 한계를 넘어선 다각적 연구의 전환을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낸시 프레이저는 젠더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축을 재분배-인정-대표성이라는 세 차원으로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이 삼중 구도를 통해 기존의 재분배 중심 또는 인정 중심 접근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며 젠더 정의의 관점을 재구성한다. 즉, 프레이저는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부정의가 단일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분배-인정-대표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이 얽혀 발생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다.

프레이저는 20세기 이후 정치적 갈등을 표현하는 패러다임이 인정 투쟁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인정 투쟁 속에서 재분배 투쟁이 사실상 종속되었다고 비판한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민족성, 장애유무, 국적 등 차이에 기반한 문화적 인정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재분배보다 더 강

15)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조되는 시대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프레이저의 관점에서 재분배와 인정은 실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얽혀 있으며,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는 정치·경제적 차원과 문화·상징적 차원을 가로지르며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이저는 ‘여성’을 “이가적(bivalent)” 집단으로 규정한다¹⁷⁾. 이는 계급이 주로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로, 섹슈얼리티가 주로 문화적 인정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과 달리, 젠더 부정의가 단일한 층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상징적 평가 구조라는 두 축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하지만,¹⁸⁾ 프레이저는 두 차원의 구분이 실체적 분리가 아니라 분석적 구분임을 강조한다.

재분배의 차원에서 젠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배치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 젠더화된 노동분업은 임금노동과 돌봄·가사노동을 포함한 재생산노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며, 여성에게 무임금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임금노동 내부에서도 고임금·남성 중심 직종과 저임금·여성 중심 직종의 위계화를 고착시키고, 젠더 기반의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구조로 만든다. 한편, 인정의 차원에서 젠더는 사회적 지위질서를 조직하는 문화적 기표로 기능한다.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는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속성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여성적’ 속성은 평가절하한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들은 일상세계의 상호작용, 대중문화, 제도적 실천 등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 여성에게 지속적인 지위중속을 부과하며, 이것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인정의 부정의를 단순한 문화적 편향이나 상부구조의 잔여로 축소하지 않고, 재분배 차원과 독립적으로도 고유한 치유를 요구하는 구조적 부정의로 파악한다. 요컨대, 젠더 부정의는 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지위질서의 얽힘 속에서 생산되는 복합적 부정의이며, 이는 재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축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분석틀에서만 조명될 수 있다.

프레이저는 자신의 논의를 확장시키며, 젠더 부정의를 구성하는 또 다른

16)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14면 참조.

17) 낸시 프레이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2016, 44면.

18) 같은 책, 42~43면 참조.

차원으로 ‘대표성’을 추가한다. 이는 젠더 부정의가 재분배와 인정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으며,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불능이 구조적 배제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분배의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더라도, 여성성을 평가절하하는 문화적 틀이 존속하면 인정의 부정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인정의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가 재구성되더라도, 대표성의 부재가 유지된다면 재분배와 인정의 개선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세 차원은 서로를 대체하거나 환원할 수 없는 독립적 차원인 동시에, 상호적으로 얽혀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¹⁹⁾ 따라서 특정 차원을 특권화하거나 다른 차원을 부차화하는 접근은 부정의를 재생산하며,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젠더 부정의의 메커니즘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은 젠더 부정의를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버틀러는 프레이저가 젠더와 섹슈얼리티 억압을 ‘인정’, 즉 문화·상징적 차원의 문제로 분류하는 방식이 억압의 물질적·제도적 성격을 축소하고, 탈정치화할 위험을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프레이저의 삼중 젠더 정의론은 경제·문화·정치 차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강점을 지니지만, 버틀러의 입장에서는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규범적 폭력이 어떻게 주체를 구성하는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이 한국의 미혼모 문제를 젠더 부정의의 구조 속에서 분석할 때, 유용한 지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국의 미혼모 담론은 주로 경제적 빈곤과 돌봄 부담이라는 재분배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미혼모 정체성에 결부된 낙인과 차별, 배제 문제에 집중해왔다. 앞서 논의한대로, 두 차원 중 하나에 치우쳐진 분석 관점은 미혼모가 경험하는 구조적 젠더 부정의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미혼모를 비도덕적이거나 일탈적 존재로 규정하는 문화적 낙인은 인정 부정의를 강화하며, 미혼모를 지속적으로 무시, 멸시, 배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인정 부정의는 재분배의 부정의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분배와

19)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270면 참조.

20) 주디스 버틀러, 임옥희, 「단지 문화적」, *오늘의 문예비평* 56, 2005.

인정, 두 차원이 얽혀 젠더 부정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는 자신들의 삶과 재생산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 구조에서 거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관련된 정치적 절차에서 주변화된다. 이는 대표성의 부재가 재분배와 인정 차원의 개선 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를 논하려면, 경제적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시에 문화적 지위질서를 전환하고, 미혼모 당사자가 공적 영역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레이저의 젠더 정의론은 미혼모 담론을 다층적 젠더 부정의의 구조로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분석틀이 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²¹⁾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샌드라 하딩은 지식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특정 연구자와 비평가들의 관계에서 구성된 결과물임을 지적하였다.²²⁾ 하딩은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관점만이 여성주의 지식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²³⁾ 따라서 페미니즘 연구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구성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특정한 범주로 규정하고 위치시키는 지식 생산의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텍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담화와 담론을 접합하며, 그 과정에서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재구성한다.²⁴⁾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에서 재현되는 관점을 찾아내서 분석하고자

21) 본 연구에서 KCI 등재후보지 기준은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 조건으로 활용되었기에, KCI 제도 도입 이전에 발간된 논문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22)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218~291면 참조.

23) 조주현, 「샌드라 하딩」, 『여/성이론』 14, 2006, 156면 참조.

하며,²⁵⁾ 이를 통해 미혼모를 둘러싼 담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연구가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개념 정의, 문제 설정 방식, 원인 진단, 정책 제안의 논리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고,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학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로 규정한 연구들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호명이 젠더 정의의 관점, 즉 재분배-인정-대표성 차원에서 어떻게 상호 얽혀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미혼모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젠더 부정의에 대한 분석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KCI 제도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두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정한 질을 보장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학위논문, 서평, 보고서 등은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논문들과 형식이 다르고, 분석 범위에 포함된 연구들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RISS, DBPIA, KCI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미혼모’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논문 제목, 핵심 키워드, 초록에 검색어가 포함되는 논문을 ‘OR’ 방식을 이용하여 최대한 검색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RISS(165편), DBPIA(122편), KCI(170편), 총 457편의 논문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논문 169편을 제거하여 288편의 문헌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에 따라 이차적으로 논문을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은 다음과 같

24) 노먼 페어클립, 『담화 분석 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2012, 297면 참조.

25) 같은 책, 285면 참조.

은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첫째, 미혼모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시설 종사자, 전문가 집단, 의료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혼모 담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둘째, 입양아, 아동권리, 아동복지 등 아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혼모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미혼모와 연관된 익명출산 또는 보호출산제, 출생신고제도와 같은 제도적 논의 또한 제외하였다. 넷째, 검색 과정 중에 ‘비혼모’와 ‘한부모’ 용어를 사용한 논문들이 함께 검색되었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의 논의와 상응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함하였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50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미혼모’라는 범주를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미혼모만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성과 그에 따른 젠더 부정의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혼모 관련 선행연구 150편을 대상으로,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재분배-인정-대표성의 각 차원을 이론적 분석틀로 두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선행연구를 단순히 분류하는 데 있지 않고, 해당 연구가 미혼모를 어떠한 규범적 주체로 구성하는지, 어떠한 정의의 차원을 주로 문제화하는지를 분류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미혼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연구가 미혼모를 보호 대상,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로 규정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해당 연구가 미혼모 문제를 빈곤, 자립, 복지제도, 제도 개선 등 물질적 조건의 문제로 설정한 경우 재분배 차원으로, 낙인, 차별, 문화적 재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 등을 핵심 문제로 설정한 경우 인정 차원으로, 시민권, 사회적, 당사자 권리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우 대표성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모든 논문은 복합적인 논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 초록, 결론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분석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전에 판정 규칙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제도 분석과 낙인 비판을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결론부에서 정책 개선의 방향이 급여 확대나 제

도 접근성 강화에 귀결되면 재분배 차원으로, 차별 구조와 문화적 낙인 해체에 귀결되면 인정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권리를 언급하더라도 시민권, 정책 참여, 당사자 배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성 차원이 아니라 인정 차원으로 판정하였다. 미혼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했지만 분석의 초점이 스트레스 요인이나 심리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한정되어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논문 편수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논문수	1	2	4	25	78	40

〈표 2〉 학술지 분과학문별 논문 편수

분과학문	사회복지	사회과학	여성	간호	기타
논문수	46	37	15	14	38

〈표 3〉 미혼모 담론별 논문 편수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 주체	기타
논문수	17	85	18	30

〈표 4〉 이론적 틀에 의해 분류한 논문 편수

	재분배	인정	대표성	기타
논문수	77	28	3	42

4. 미혼모 담론의 변화와 젠더 부정의의 재생산

1) ‘요보호 여성’으로서의 미혼모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현상이 대두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전쟁 ‘미망인’의 구호사업을 포함한 “요보호 여성”에 대한 ‘부녀보호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⁶⁾ 전후 국가 재정비와 근대 국가 건립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부녀보호사업의 기본 방향은 ‘요보호 여성’의 수용·교정·갱생을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그 범주에는 미혼모,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근대화 시기에 규범적 여성상으로 간주된 여대생, 여성지도자, 중산층 가정주부를 제외한 상당히 광범위한 여성들을 지칭한다. 국가가 제시한 보호의 논리는 이들을 ‘도덕 위험’에 노출된 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설 수용과 직업훈련을 통해 이전의 ‘정상적 삶’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²⁷⁾ 그리고 이들의 자녀는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이 아동의 보호와 복지의 최선의 선택지로 간주되며, 국내외 입양이 제도화되었다.²⁸⁾ 이러한 국가 사업 체계에서 미혼모 문제는 그 자체로 호명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된 집단 내부에서 파생되는 부차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즉 미혼모 문제는 다양한 여성 범주 가운데 성적으로 일탈했다고 판단된 여성들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혼모는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관리와 통제,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미혼모’라는 용어는 1960년대 사회복지연구에서 “unwed mother”과 “unmarried mother”에 대한 번역어로 소개되었고, 1970년대부터 학술 영역을 넘어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²⁹⁾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26)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9면.

27)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195~196면 참조.

28)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한국여성연구소, 2015.

29)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

1975년, ‘미혼모’라는 용어가 학위논문을 제외한 일반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³⁰⁾ 또한 국내 입양기관인 한국기독교양자회가 주관하는 친권 포기 상담 등을 통해 미혼모 상담 사업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이 이어서 미혼모 상담 및 보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미혼모 문제는 단일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여성 문제’를 포괄하는 부녀보호사업의 일부로 환원되었다.³²⁾

성영혜(1975)의 「韓國 未婚母의 現況分析(한국 미혼모의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당시 한국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적 도덕 규범과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미혼모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 현상이 증가한 결정적 원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정환경의 불안정성,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결핍, 성교육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 심리학·정신분석학 이론을 인용해 미혼모가 의존적이거나 성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식의 병리적 설명을 강화한다. 이러한 초기 연구의 관점은 미혼모 문제를 심리적 취약성과 같은 개인적 문제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결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성교육 강화, 가정 기능 회복, 청소년 보호, 미혼모 시설 확충, 상담 강화, 입양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해당 연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사업학의 전형적 시각을 반영하며, 미혼

학회, 2025, 140면.

30) 성영혜, 「韓國 未婚母의 現況分析」, 『아시아여성연구』 1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75.

31) 권희정,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과 역사」 『구술사연구』 5(2), 한글구술사학회, 2014, 51-52면 참조.

32)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모를 도덕적 규범과 개인 병리 모델, 가족기능주의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초기 미혼모 관련 연구가 이들에 대해 비도덕적이고 비구조적인 관점을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에도 이어진다. 허남순(1986)의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에서도 미혼모 문제를 서구 산업사회에서 겪은 병리적 현상, 즉 성 규범 문제로 바라보는 점³³⁾에서 앞서 언급한 성영혜의 논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⁴⁾.

성규탁(1983)의 논문 「低所得家庭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에 寄與하는 社會事業: 美國의 境遇(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기여하는 사회사업: 미국의 경우)」는 당시 미국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과다 출산’과 ‘가족기능 약화’를 빈곤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사회사업적 시각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미혼모’를 직접적으로 호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빈곤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미혼모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계획사업이 저소득층 여성의 높은 출산율, 불안정한 생활, 의료 접근성의 부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진다고 전제하며, 사례관리, 상담, 교육, 탁아서비스, 의료 및 직업자원 연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결국 개인적 태도 변화, 가족 기능의 강화, 빈곤, 저소득층 여성의 임신·출산을 ‘예방’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여전히 미혼모를 병리적 존재로 낙인화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미혼모를 위한 “사회사업 서어비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미혼모를 빈곤, 가족 해체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 학교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동시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설명한다.³⁵⁾ 그러나 그 해결책은 심층 상담, 보호시설 연계, 피임교육, 직업훈련 제공 등 ‘교정·보호’ 중심의 개입으

33)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107면 참조.

34) 허남순(1986)의 논문은 일부 페이지(130, 131)가 누락되어 결론부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35) 성규탁, 「低所得家庭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에 寄與하는 社會事業」 『신학논단』 16,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428면.

로 제시되며, 미혼모 문제의 ‘발생’과 ‘예방’이 강조된 앞서 언급한 논문들과 관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규탁의 연구는 당시 사회사업계가 저소득층 여성을 포함한 미혼모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기능적 결함과 도덕적 규범의 약화로 설명하던 시대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1970~80년대 연구 동향을 분석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윤락 여성, 빈곤 여성, 부랑 여성 등과 함께 ‘요보호 여성’이라는 제도적·도덕적 범주 속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젠더 정의의 세 차원인 재분배·인정·대표성, 어느 차원에서도 미혼모를 주체적 존재로 사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가와 사회사업계의 지배적 서사는 미혼모를 구조적 불평등의 담지자가 아니라 ‘도덕적 일탈’이나 ‘가족기능 붕괴’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부적절한 재분배, 문화적 불인정,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부정의 차원의 문제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미혼모는 보호·교정·수용이라는 언술과 함께 사회문제로 다루어졌으나, 더 근본적으로 파악하자면,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과 함께 국가적 관리·통제·규율의 대상으로 위치지워지는 것이었다. 즉, ‘보호’라는 언표는 오히려 관리·통제·규율의 논리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기에, 미혼모를 제도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시민 주체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미혼모를 젠더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대의 학술 지형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억압을 분석하는 언어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그와 같은 개념들을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현재주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 조건이 어떻게 미혼모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며, 어떤 사회적 효과를 재생산 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가 ‘요보호 여성’으로 묶여 일종의 낙인화를 겪었다는 점은 학술 담론 지형에서 젠더 정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기보다 젠더 정의라는 문제 의식이 성립할 여지가 애초에 마련되지 않았던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 동향은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 범주 속에서 병리화하는 사회적 관점을 수용하며, 젠더 부정을 재생산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달리 말해, 학계는 정책적·제도적 실천과 연계되는 지식의 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동향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혼모 낙인과 차별의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학술논문은 그 자체로 사회적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권위를 지녔기에, 당대의 연구들이 구성한 문제의식의 틀은 미혼모를 시민 주체로 상상할 여지를 더욱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2) 복지 수혜자로서의 미혼모

1990년대까지의 미혼모 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혼모를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며, 이들을 병리적 존재로 분류하는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³⁶⁾ 주연옥·김상순·최연희(1997)는 입양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미혼모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습득”과 “가정의 불화”를 지적하고 있다.³⁷⁾ 한영란과 양순옥(1997)은 간호학적 측면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출산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과 간호, 지역사회 지지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³⁸⁾ 이 연구에서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임신중지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된 임신과 출산을 문제적이라 보았다. 이처럼 1990년대 연구에서 미혼모의 모성은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삶의 형태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연구의 동향은 주로 미혼모의 발생 요인과 인구적 특성, 실태조사, 예방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모는 여전히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해야 할 사회문제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학술적 담

36) 윤희미, 1999, 주연옥·김상순·최연희, 1997, 한영란·양순옥, 1997.

37) 주연옥·김상순·최연희,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1997, 345면.

38) 한영란·양순옥,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한국보건간호학회, 1997.

론은 병리화 중심의 접근에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³⁹⁾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성적 일탈’과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오가며 이중적 낙인 서사가 드러난다. 청소년 미혼모는 양가적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발달 과업 과정 중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자녀의 양육자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⁴⁰⁾ 이러한 청소년 미혼모를 둘러싼 낙인은 1990년대의 청소년 문제의 일환으로서의 미혼모 병리화 관점과는 다른 결을 지닌다. 이현주·송진아(2011)는 청소년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점이 201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⁴¹⁾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는 더 이상 일탈적이거나 위협한 존재로만 치부되지 않으며, 청소년의 성관계에 따른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수용되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 이른바 “리틀맘 담론”과 결합하여 나타났다.⁴²⁾ 그 과정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일탈과 그에 책임을 다하고자 기꺼이 양육을 선택한, 그렇기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0대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구성되었음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정부는 “근로가능한 자에게 일자리를, 근로가 불가능한 자에게는 사회보조”라는 기치 아래 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4대 사회보험의 확대 및 적용,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통한

39)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40) 은주희·임고운,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1)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57~58면.

42) 같은 논문, 58면.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등 국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단행하였다.⁴³⁾ 그밖에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같은 가족제도의 재편, 저출산·고령화 담론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의 수립 등 재생산과 가족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가족에 대한 복지 제도가 자리잡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인구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명명하며, 그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복지 책임을 다시 가족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가족은 한국의 복지시스템에서 전통적인 “복지공급원”이며, 한국의 복지체계는 ‘정상가족’과 “여기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잔여적 복지 유형”에 부합한다고 평가받는다.⁴⁴⁾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인 성장중심주의는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강화하였다. 즉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상을 복지의 수혜자로 한정하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족’에서 미끄러진 존재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결핍된 주체로 타자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주체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잔여적 존재’로 남게 된다. 복지제도는 이런 구도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낙인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⁴⁵⁾ 또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체계는 선별주의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함, 취약함, 무능력함 등이 서류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결핍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복지혜택은 ‘얼마나 취약한가’, ‘얼마나 가난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분배된다.

43)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100면.

44) 같은 논문, 106면.

45) 김지혜, 「권리 기반의 가족복지정책 : 기능주의를 탈피하는 관점의 전환을 모색하며, 『비판사회정책』 8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5, 17면.

한편,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은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가 유지된 조건 속에서 강화되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여성의 재생산권이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970년대 인구 억제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국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던 임신중지는 ‘저출산 시대’에 진입하면서 범죄로 전면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법적 통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라는 불법과 출산이라는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국가가 설계한 합법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국가는 이들의 임신을 ‘위기임신’으로 명명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복지체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과 출산을 선택한 여성 모두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임신중지 행위는 공식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면서도,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법을 어긴 존재이자 생명을 경시한 비도덕적 주체로 낙인찍혀 왔다. 동시에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은 출산 이후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모성애가 결여된 여성’ 혹은 우울과 죄책감을 느끼는 ‘불행한 여성’으로, 반대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없이’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존재’로 평가되기 쉬웠다. 즉, 미혼 여성이 출산 이후에 양육을 선택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승인 가능한 경로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혼모는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⁴⁶⁾

2000년대 초반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위와 같은 이중적 낙인 구조에 의해 미혼모 복지정책이 보호적인 장치로만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정책은 미혼모를 지원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그 지원은 ‘가난하지만 노력하는 어머니’라는 도덕적 조건 위에서만 정당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도, 출산 이후 다양한 삶의 경로를 인정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출산을 전제로 한 복지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구성되었다.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일탈자’

46) 권희정, 2011, 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122면 참조.

나 ‘병리적 존재’로 규정하던 시기를 지나,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보다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복지 수혜자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혼모 관련 연구는 미혼모가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거나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혼모의 삶을 복지 수혜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⁴⁷⁾ 이러한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핵심에는 ‘자립’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놓여 있다.⁴⁸⁾ 해당 연구들은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며, 돌봄에 대한 책임 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미혼모는 홀로 양육과 돌봄을 수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개인의 노동과 돌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받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접한 경제적 자립 상태에 도달한다면,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는 해소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복지정책은 오랫동안 재분배와 인정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해 왔다. 표면적으로 복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자립촉진수당 등 재분배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지만,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단순한 재분배의 장이 아니다. 복지체계는 누가 그 재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규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질서와 결합된 인정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소년 미혼모는 낙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등 ‘정상적 삶’의 궤적을 벗어난 이탈적 존재로 규정된다.⁴⁹⁾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는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매개

47) 김희주·권중희·최형숙, 2012, 문순영, 2015, 이운정, 2024, 하지선·김지선·황경란, 2020.

48) 김지혜·조성희, 2020, 윤정혜, 2014, 이용우, 2017, 장운정, 2017, 홍봉선·남미애, 2011.

49)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71~76면 참조.

하는 핵심 규범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학업 중단은 향후 빈곤 위험과 쉽게 결부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다시 ‘문제적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낙인은 반복적으로 강화되기 쉽다. 다른 한편, 실제로 미혼모들은 복지 수혜 신청을 할 때, 공무원의 차별적 태도나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복지 수급 신청을 주저하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사례는 복지가 단순한 재분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차원과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인정 역시 재분배의 조건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복지 체제는 재분배와 인정의 문제가 상호 얽혀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젠더 부정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미혼모는 역사적 담론의 장에서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포섭된 수동적 존재로 고정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미혼모를 하나의 시민 주체로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미혼모에 대한 보호사업과 복지정책은 미혼모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나 반대로 취약한 존재로 상정해왔기에,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되어 왔다. 일련의 연구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난과 빈곤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미혼모의 정치적 배제가 단지 가난과 빈곤이라는 경제적 조건에서만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은 미혼모는 시민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혼모에게 경제적 조건 이전에, 혹은 동시에 혐오와 낙인이라는 문화적 폭력이 끈질기게 부착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복지 수혜자로 규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혐오, 차별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나, 그 해결 방안은 정책 지원 확대에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그러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미혼모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 주체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50) 이나련·정유진·유현경. 「양육미혼모의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2(6), 2023, 741면.

3) 권리 주체로서의 미혼모⁵¹⁾

최근 연구 동향은 현행 복지체제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의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이중적 어려움을 주변화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⁵²⁾ 일부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민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거나⁵³⁾ 한부모에 대한 관점을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최근 연구 동향은 권리로서의 모성권, 재생산권, 노동권, 돌봄권,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권, 교육권, 주거권, 가족구성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관점을 권리의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연구들⁵⁵⁾이 제기하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미혼모를 복지체제 내의 예외적 존재나 특수한 정책 집단으로 다루는 접근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제도의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51) 권리 주체 관점은 한부모 연구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미혼모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이 아직 적극적으로 차용되거나 이론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혼모 논의를 포함한 한부모 연구를 주된 분석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미혼모’와 ‘한부모’라는 키워드가 일상적·정책적 맥락에서 종종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와 제도적 위치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담론적 긴장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미혼모 연구가 독자적인 문제틀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기존 미혼모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두 담론 간의 차이를 가시화함으로써 미혼모 연구 내부에서 권리 주체 논의를 보다 다층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2) 강은화, 2006, 권희정, 2011, 김영정, 2020, 박주희, 2023, 성미애·진미정, 2009, 성정현·김지혜·신원우, 2011, 송다영, 2006, 이해정·송다영, 2021, 장수정 외, 2021, 추주희, 2022.

53) 성정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의 변화: 연민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0.

54) 이해정·송다영, 「한부모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35면.

55) 장수정,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장수정 외,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한국여성학회, 2021.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이들을 의존적 복지 수혜자로 규정하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젠더화된 돌봄 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의존’ 개념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돌봄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재배치하고,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복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혼모 관련 연구의 이러한 관점 변화는 젠더화된 시민권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에서 권리의 언어가 확장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되지만, ‘권리 주체’라는 호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 주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권희정(2011)은 미혼모가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해 온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을 권리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분명해 보인다.⁵⁶⁾ 하지만 논의 전반에서 모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젠더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의 권리를 재생산권, 모성권, 아동복지의 틀로 구성하는 방식은 미혼모를 자율적 시민 주체로 상정한다기보다 ‘어머니’라는 규범적 정체성으로 환원시킨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시민적 권리는 모성의 윤리와 아동의 복리에 종속되는 형태로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권리가 조건부로 승인되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러한 접근은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젠더 부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치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연구들 역시, 권리를 정의하는 방식과 그 정치적 방향성에서는 서로 다른 결을 보인다. 김영정(2020)과 추주희(2022)는 모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신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전자는 재생산권·교육권·노동권을 제도 개선의 언어로 차용하며 권리 주체성을 정책 설계의 근거로 조직하는 반면, 후자는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56)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정상가족’ 규범과 청소년의 성적 지위를 비판적으로 문제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⁵⁷⁾ 이러한 차이에서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규정이 서로 다른 문제 설정과 정치적 상상력 위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권리가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모를 둘러싼 개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작업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권리들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립되는가를 비판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한부모여성의 가족구성권을 논의한 김순남(2022)이 인용한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은 논의를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⁵⁸⁾ 김순남(2022)은 미혼모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권운동을 ‘박탈된 시민권’의 문제로 재구성하며,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차별 구조를 해체하는 접근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개별 권리를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시민으로서 말할 자격을 가지는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가 된다. 이처럼 권리 주체 담론의 핵심은 젠더화된 시민의 얼굴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남성,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시민성 규범을 해체하고, 그로부터 배제되어 온 이들의 시민적 지위를 재구성할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권리 주체 담론은 미혼모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 즉 부적절한 재분배, 불안정, 대표불능의 문제를 현행 복지 체제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배제의 문제를 포괄하는 시민적 권리 박탈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혼모를 보호의 대상이나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시민 주체로 상정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혼모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시민성의 경계를 구획하는 젠더화된 사회 구조를 해체하는 정치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57) 김영정,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추주희,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가족과 문화』 34(1), 한국가족학회, 2022.

58)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10면.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을 낸시 프레이저의 젠더 부정의, 즉 불평등한 재분배-불인정-대표불능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미혼모 관련 연구가 ‘요보호 여성’, ‘복지 수혜자’, ‘권리주체’로서 미혼모를 규정해왔다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동향이 젠더 부정의의 세 차원, 즉 부적절한 분배, 불인정, 대표불능의 문제가 얽혀 젠더 부정의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80년대 미혼모는 여성에 대한 포괄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부녀보호사업의 대상으로 환원되었다. 이들은 빈곤 여성, 윤락 여성, 부랑 여성 등을 포함한 ‘요보호 여성’으로서 수용·교정·갱생을 통한 ‘정상적 삶’으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의 연구들은 미혼모를 일탈자로 간주하거나 병리화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미혼모의 모성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었다. 이는 1990년 미혼모 관련 연구의 관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2000년대 이후, IMF 금융위기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위기’ 담론의 대두,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과 같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미혼모 관련 연구의 동향은 이들을 낙인의 대상보다는 복지 수혜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자녀를 입양 보내는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맞물리는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가 미혼모에 대한 젠더 부정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젠더 부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복지체제는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이 얽혀 있어 젠더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는 소득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재분배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미혼모에게 부과되는 낙인과 규범적 모성의 요구를 충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반대로 미혼모의 권리 주체성을 강조한 일부 연구들 역시, 이러한 인

정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가족주의적 복지체계를 전제로 한 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혼모는 ‘자립한 시민’이라는 이상적 기준에 도달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미혼모에게 구조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최근 연구 동향이 주로 한부모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 주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혼모를 시민적 주체로 상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축적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미혼모를 포괄하는 한부모 담론에서 모성권, 재생산권, 노동권, 돌봄권,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권, 교육권, 주거권, 가족구성권 등 권리의 언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일부 논의는 이를 모성 윤리와 아동복리의 틀로 환원함으로써 미혼모를 자율적 시민 주체가 아닌 조건부적 권리 주체로 다시금 고정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가 강조하는 점은 미혼모를 권리 주체로 호명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권리가 어떤 불평등 구조 위에서 구성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모 권리 논의는 ‘권리를 통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를 구획해 온 젠더화된 시민성의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정치적 문제로 재배치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혼모 관련 연구를 복지 담론이나 권리 담론의 확장으로만 이해하는 접근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미혼모 문제를 재사유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혼모 당사자의 경험을 보다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포착하면서, 젠더화된 시민권과 정치적 대표성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라현,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한국가족복지학회, 2021, 387~425면.
-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한국여성학』 22(3), 한국여성학회, 2006, 39~59면.
-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미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100~150면.
- _____,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5(2), 한국구술사학회, 2014, 37~80면.
- _____,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한국여성연구소, 2015, 51~98면.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김영정,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교육권·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69~109면.
-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181~236면.
- 김정현, 「복지국가 유형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족의 노동권과 모성권 지원정책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한국가족복지학회, 2013, 115~142면.
- 김지혜, 「권리 기반의 가족복지정책: 기능주의를 탈피하는 관점의 전환」, 『비판사회정책』 88, 비판사회학회, 2025, 7~31면.
- 김지혜·조성희, 「미혼모의 자립의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7), 한국콘텐츠학회, 2020, 478~490면.
- 김지혜·김희주, 「여성 한부모의 자립 경험과 강점 자원」, 『사회복지연구』 49(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159~193면.
- 김혜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 젠더와문화연구소, 2013, 7~41면.
- 김희주·권종희·최형숙,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한국가족복지학회, 2012, 121~155면.
- 노먼 페어클립, 『답화 분석 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2012.
- 문순영,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31(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73~103면.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97~122면.
- 박주희, 「청소년 한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23(1),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인권연구소, 2023, 103~139면.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 성규탁,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기여하는 사회사업」, 『신학논단』 16, 연세대학교 신학연구소, 1983, 423~435면.
- 성미애·진미정, 「빈곤 한부모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한국가족문화학회, 2009, 1~28면.
- 성영혜, 「한국 미혼모의 현황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14, 아시아여성연구소, 1975, 153~167면.
- 성정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의 변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0, 3~19면.
- 성정현·김지혜·신원우,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학교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3, 한국가족복지학회, 2011, 223~258면.
- 성정현·김희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가족과 문화』 28(1), 한국가족문화학회, 2016, 33~58면.
- 성정현·장명선·김희주·김지혜·박영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 『이화젠더법학』 10(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77~108면.
- 소영현,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현대소설연구』 9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137~171면.
- 송다영, 「한부모가족과 여성사회권」, 『사회복지정책』 2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171~200면.
-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사회적 재현」,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3~357면.
-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21.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3.
- 윤소라·장진경,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9(3),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535~552면.
- 윤정혜, 「원가족과 미혼모자의 합가 경험과 의미」, 『사회과학연구』 30(4),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259~291면.
- 윤혜미, 「청소년 임신·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한국아동복

- 지학회, 1999, 161~186면.
- 은주희·임고윤,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교육연구논총』 41(2),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31~159면.
- 이나련·정유진·유현경, 「양육미혼모의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2(6), 한국생활과학회, 2023, 735~746면.
- 이윤정,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보건사회연구』 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26~251면.
-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7~115면.
- 이현주·송진아, 「10대 미혼모의 학업 중단 경험과 의미」, 『사회복지연구』 42(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57~83면.
- 이혜정·송다영, 「한부모운동의 형성과 발전」,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35~72면.
- 장수정,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한국여성학회, 2021, 1~34면.
- 장수정·백경흔·김병인·이혜정·오진방,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적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한국여성학회, 2021.
- 장운정,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한국가족치료학회, 2017, 497~528면.
- 정지연, 「미혼모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가족과 문화』 35(3), 한국가족문화학회, 2023, 1~30면.
- _____, 「노동시장에서의 미혼모 차별경험」, 『사회통합연구』 6(2), 사회통합연구소, 2025, 121~159면.
- 정지연·이미정,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젠더와 문화』 13(2), 2020, 115-151면.
- 조주현, 「샌드라 하딩」, 『여/성이론』 1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6, 146~165면.
- 주디스 버틀러, 임옥희, 「단지 문화적」, 오늘의 문예비평 56, 2005.
- 주연옥·김상순·최연희, 「일부 보호시설 등록 미혼모의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지역사회간호학회, 1997, 337~346면.
- 추주희,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가족과 문화』 34(1), 한국가족문화학회, 2022, 1~34면.
-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서울: 돌베개, 2017.

- _____,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문현아·박건·이현재 옮김, 서울: 그린비, 2016.
- 하지선·김지선·황경란, 「‘시설 입소 중심’ 미혼모 지원의 한계와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0, 95~119면.
- 한영란·양순옥,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한국보건간호학회, 1997, 194~208면.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청소년학연구』 18(9), 한국청소년학회, 2011, 19~52면.
-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한국사회복지학회, 1986, 107~121면.

| Abstract |

The Critical Feminist Analysis of Studies on
Unwed-mothers
: Focusing on KCI-indexed and Candidate Journals

Kim, Taeyoung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how studies on unwed mothers in South Korea have defined unwed mothers and how such modes of definition have reproduced gender injustice.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studies related to unwed mothers published in KCI-listed or KCI-candidate journals. The analytical framework employed Nancy Fraser's theory of gender injustice, specifically the three dimensions of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isrepresent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studie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predominantly framed unwed mothers as "women in need of protection," while studies since the 2000s have increasingly depicted them as welfare recipients. More recent studies tend to address unwed mothers as rights-bearing subjects. Although these discursive framings have shifted over time, they continue to reproduce gender injustice through the intertwined structure of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isrepresentation surrounding unwed mothers.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reexamine the discursive transformation of unwed mother studie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gendered citizenship.

Key Words: Unmarried Mothers, Gender Injustice, Critical Feminism, Nancy Fraser

유연근무제 이용,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를 중심으로 —

사용진*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논의 | 5. 결론 및 시사점 |
| 3. 연구설계 및 연구 방법 | |
-

■ 국문초록

유연근무제는 전형적인 근무제도 및 여건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에게 근무 여건 및 방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개인 수준의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갖는 조직결과변수들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재택근무 활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갖는 조직결과변수들의 대한 효과 검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공공부문 재택근무제 연구의 이론적·학문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과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단일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가설 검증을 수행한 점 그리고 응답자의 소속기관 등 다른 유의미한 통제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대한 내용도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기술하였다.

주제어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 업무성과, 직무만족

1. 서론

유연근무제는 전형적인 근무제도 및 여건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에게 근무 여건 및 방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¹⁾. 구체적으로, 유연성을 근로 행위의 시간, 장소, 형태, 방법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유연근무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직장에서의 삶과 가족에서의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영향요인들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y)의 한 유형이다²⁾.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는 2010년 8월에 도입되어, 현재 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유연근무제 전체 활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 상기 기술한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초점에 따라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그리고 원격근무제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탄력근무제는 유연성을 근로 시간에, 재량근무제는 유연성을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그리고 원격근무제는 유연성을 근로장소에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행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복무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는

-
- 1) 안세연·김효선. 「스마트워크센터근무 도입 사례를 통해서 본 성공적인 직장 유연화 과정의 조건」, 『Korea Business Review』 제23권 1호, 2019, 153~179면; 김유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워크 선호도 증대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3호, 2020, 159~186면.
 - 2) 진중순·장은영.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1권 2호, 2015, 235~263면.
 - 3) 사용진.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업무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녀 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2호, 2024, 49~61면.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등의 탄력근무제와, 재량근무제, 그리고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형 등의 원격근무제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 근로행위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긍정적 기대효과(예, 개인성과,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조직시민행동 등)와 조직적 차원의 긍정적 기대효과(예, 조직생산성, 조직신뢰도,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를 전제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개인 삶의 여건에 따라 혹은 개인 직무의 특성 및 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따라 상기 기술한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기대효과 간의 인과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교환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Social Exchange Theory(사회교환이론)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상기 기술한 다각적인 차원의 긍정적 성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논의한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재택근무제를 그리고 유연근무제의 결과변수들 중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정부조직에서의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개인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는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학문적 기대효과와 실무적·정책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국내 공공부문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따른 조직결과변수들의 효과 차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⁶⁾. 이는 단순히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를 넘어 유연근무

4)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2025.12.15.

5) 강성환. 「상사-부하 교환관계(LMS)가 부하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사 성격 5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경영연구』 제54권 1호, 2017, 125~150면.; Cropanzano & Mitchell.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Vol. 31 No. 3, 2005, pp. 874~890.

6) 김태희·오민지. 「근무지유연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 영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6권 4호, 2018, 189~220면; 민경률·박성민. 「유연근무제가 조직결과

제를 실제 이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인식하는 이용 만족도 수준이 조직결과변수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한지 여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활발히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의 재택근무 이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한 연구는 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과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조직에서의 재택근무제 활용이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재택근무제의 개념과 현황

원격근무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유연성을 근무장소에 부여하는 것으로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워크형은 근로자의 자택과 주 근무지가 아닌 제 3의 장소,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택근무 형은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격근무제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PC, 인터넷, GVPN 등 본 근무지에서의 근무 여건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스마트워크형 그리고 재택근무형 모두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의 원격근무제, 특히 재택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재택근무제 활용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행정안전부

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5권 4호, 2013, 1211~1248면; 진종순·장은영,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1권 2호, 2015, 235~263면.

7)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2025.12.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주체가 되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접속을 허용하여 재택근무 등 정부조직에서의 원격근무 환경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⁸⁾. 또한, 공무원 인사 행정의 총괄 부서인 인사혁신처에서는 재택근무제 메뉴얼을 재택근무자 버전과 관리자 버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재택근무 워크북 등 실제 재택근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다⁹⁾.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용 권장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로 할 것을 규정화하였으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⁰⁾.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에서 공무원이 실제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원 총조사(2023)¹¹⁾에 따르면 시차출퇴근형(주 5일 근무 준수, 1일 8시간 근무시간 유지,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의 경우, 본 조사 응답자 950,610명 중 약 20.50% 정도의 공무원이 해당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선택형(주 5일 근무 준수, 1일 4~12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은 약 7.25% 정도의 공무원이 이용하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무시간선택형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대부분은 월 1회 이하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약근무형(주 3.5~4일 근무 가능)의 경우 응답자의 2.18%만이 해당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량근무형(특별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전에 합의된 성과 및 실적 달성 등으로 근무실적 평가)의 경우 매우 작은 비율인 1.84% 응답자만이 재량근무제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스마트워크 센터 등 자택

8)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2025.12.15.

9)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2025.12.25.

10)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2025.12.25.

11) 공무원 총조사 통계표. 인사혁신처. 2023.

과 주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스마트워크형의 경우, 본 조사 응답자의 1.70% 만이 스마트워크제도를 활용하여 근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워크제 활용 빈도에 따른 현황을 살펴 보면, 월 1회 이하 활용이 0.97%, 월 2~3회 활용이 0.47%, 주 1회 활용이 0.16%, 주 2~4회 활용이 0.08%, 그리고 주 5회 활용이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택 근무형의 경우, 응답자의 4.11%만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활용 빈도에 따라 살펴 보면, 월 1회 이하 활용이 2.97%, 월 2~3회 활용이 0.72%, 주 1회 활용이 0.24%, 주 2~4회 활용이 0.15%, 그리고 주 5회 활용이 0.03%로 조사되었다.

상기 기술한 국내 정부조직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근로자의 근로 행위에 있어 부여하는 유연성의 수준(정도)이 비교적 낮은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로의 유연성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그리고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제의 활용 수준은 정부조직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2010년 8월 이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가 전면으로 시행되고 지금까지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의 총 활용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근로 유연성의 수준이 높은 유연근무제 유형의 활용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제 보다 재택근무제의 활용 빈도 수준이 현저히 낮은 데에는 다각적인 차원의 원인과 배경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개인 직무특성(과업 범위)과 재택근무 활용 간의 낮은 부합성, 근무환경으로서 재택이 갖는 환경적 한계, 재택근무로 인한 동료 및 소속 기관과의 심리적 고립감 혹은 정서적 유대감 저하 우려,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이 동일한 조건인 재택근무에서 비롯된 업무집중도 및 직무몰입도 저하, 정상적인 재택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인프라) 한계, 공동업무(협업)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제한, 동료에게로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 그리고 재택근무 활용에 대한 경직된 조직문화 혹은 상급자의 부정적 인식 수준 등¹²⁾ 정부기관에서 공

무원이 재택근무를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재택근무제,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

재택근무제 이용이 개인 수준의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의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¹³⁾을 근거로 설명된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기관 조직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상호 간의 일종의 교환 관계가 균형있게 자리잡을 때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방지되고, 보다 건설적인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일주일에 일부 근무시간 혹은 근무 요일을 재택근무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명확한 필요(예, 양육 문제, 출퇴근 환경, 자기 개발 등)가 있는 공무원은 상급자 혹은 기관에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것이다. 기관은 해당 공무원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해 준다면, 그 공무원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준 조직에 대해 충성심, 신뢰성 등이 형성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신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성과,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을 달성함으로써 조직에게 기여하려는 동기를 제고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정리하자면, 공무원과 소속 정부기관 간의 재택근무 활용을 둘러싼 일종의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호 간의 긍정적 교환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은 재택근무제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유형근무제와 조직결과변수들(직무만

12) 김용운. 「공무원의 스마트워크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집 3호, 2013, 117~135면; 배귀희·양건모.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탄력근무,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집 4호. 2011, 125~153면; 이주경·한동숙. 「공무원의 재택근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집 1호, 2023, 114~151면; 이효주·김재형·박성민. 「스마트워크 만족도의 선행 및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협업과 초과근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9집 4호, 2020, 143~198면.

13) 강성환. 「상사-부하 교환관계(LMS)가 부하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사 성격 5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경영연구』 제54권 1호, 2017, 125~150면.; Cropanzano & Mitchell.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Vol. 31 No. 3, 2005, pp. 874~890.

족, 업무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생산성 등) 간의 긍정적 영향 관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재택근무제 활용과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긍정적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제 활용과 두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다소 혼합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택근무 활용이 업무성과(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¹⁴⁾이 있는 반면에, 재택근무는 오히려 업무성과(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¹⁵⁾도 있다. 업무성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재택근무 활용이 개인의 직무만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는 연구들¹⁶⁾이 있는 반면에, 재택근무제의 활용이 오히려 근로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분석들¹⁷⁾도 존재한다. 물론 상기 연구들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택근무 활용이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언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14) Sanchez, A. M., M. P. Perez, P. de Luis Carnicer and M. J. V. Jimenez. 「Teleworking and Workplace Flexibility: A Study of Impact on Firm Performance」, 『Personnel Review』 Vol. 36 No. 1, 2007. pp. 42~64; 김재영·이동주. 「재택근무가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 특성의 조절효과: 대규모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5권 1호, 2024, 113~129면; 사용진·윤주영. 「재택근무 경험(빈도)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2호, 2025, 37~50면.

15) Golden, T. D., Veiga, J. F., & Dino, R. N. 「The Impact of Professional Isolation on Teleworker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s: Does Time Spent Teleworking, Interacting Face-to-face, or Having Access to Communication-enhancing Technology Matt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3, No. 6, 2008. pp. 1412~1421.

16) 사용진·윤주영. 「재택근무 경험(빈도)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2호, 2025, 37~50면.

17) 서아영. 「스마트워크(Smart Work) 환경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3호, 2012, 427~459면; Caillier, J. G. 「The impact of teleworking on work motivation in a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42 No. 4, 2012, pp. 461~480.

단순히 재택근무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간의 수준 차이를 검증하는 논의에서 진전하여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과 해당 결과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찾는 논의는 중요하다 하겠다. 만약 재택근무 신청이 허용된 근로자가 실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함, 어려움 등으로 이용 만족도 수준이 낮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단순히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용률을 기관 혹은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용실적 제고 차원의 노력에 앞서,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ას계도,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공공부문 재택근무제 관련 연구는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 수준이 여러 조직결과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상기에서 기술한 국내 재택근무제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개인적 수준의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본 연구의 주요 목적과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성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¹⁸⁾. 본 공직생활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광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조직, 성과, 조직문화 등 공공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생성되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다.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18)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 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57명,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534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784명 등 총 6,075명의 공무원들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만 한정해서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본 연구의 통계분석의 최종 샘플 규모는 885명이며, 통계분석 결과에서 제시되는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두 885명의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2) 연구가설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반영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아래의 두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은 개인 업무성과에 정(+)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가설 2: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은 개인 직무만족에 정(+)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3) 변수 설계와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무원 개인적 수준의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업무성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은 1) '나는 담당업무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 '나는 담당 업무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나는 업무성과를 올리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다. 또한,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설문문항은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나는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이다. 두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모두 응답

자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응답 결과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단일 문항만으로 변수를 측정하는 것에 따른 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속변수 모두 복수의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다. 즉, 본 설문문항의 응답자 범위에는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제외가 되어 처리되었다. 재택근무 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외에 본 연구의 통계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직급 등 총 4개의 통제변수가 활용되었다. 각 통제변수별 코딩 내용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1=남성, 2=여성), 2) 연령(1=20대, 2=30대, 3=40대, 4=50대 이상), 3) 학력(1=고졸 이하, 2=전문대학 졸업, 3=대학(4년제) 졸업, 4=대학원 석사 졸업, 5=대학원 박사 졸업), 4) 직급(1=9급, 2=8급, 3=7급, 4=6급, 5=5급, 6=4급, 7=3급, 8=2급, 9=1급).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정부기관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해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뿐만 아니라 인구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두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설문문항들 간의 타당도, 즉 측정도구가 측정대상(변수)에 적합한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와 더불어,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설

문항들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 여부를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6,075명 중, 재택근무 이용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총 885명의 응답자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인식 수준은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885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재택근무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비율은 매우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 혹은 근무시간선택제 등과 같은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고려해 보면, 공무원의 재택근무 활용률 제고를 위한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개선, 공무원 인식 개선, 직무수행 환경 개선, 직무설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 포함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업무성과

<표 1> 기술통계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업무성과	885	1	5	3.674	.659
직무만족	885	1	5	3.365	.753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885	1	5	3.641	1.039
성별	885	1	5	1.476	.500
연령	885	1	5	2.732	.851
학력	885	1	5	3.014	.613
직급	885	1	5	3.627	1.042

와 직무만족 모두 본 설문지의 공무원 응답자는 개인의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도 수준에 있어 평균(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설문지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개인의 직무만족 수준 보다 업무성과 인식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은 3.641로 ‘보통이다’ 수준과 ‘만족하다’ 수준의 중간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택근무 활용률 제고를 위해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향상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용 만족도 수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해당 변수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2) 상관관계분석

다음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는 아래 <표 2>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업무성과, 직무만족,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r=.534, p<.001$)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업무성과 수준에 대해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만족 수준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와 업무성과 그리고 직

<표 2> 상관관계분석

변수	1	2	3	4	5	6
2	.534***					
3	.171***	.167***				
4	-.055***	-.072***	-.039			
5	.154***	.181***	-.087**	-.133***		
6	.077***	.077***	-.028	.003	.184***	
7	.140***	.173***	-.020	-.154***	.613***	.254***

1: 업무성과, 2: 직무만족, 3: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4: 성별, 5: 연령, 6: 학력, 7: 직급
 * $p<.05$, ** $p<.01$, *** $p<.001$

무만족 간에는 유사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들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모두 동일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의 경우는 유일하게 연령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은 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복수의 측정도구(설문문항)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Kaiser-Meyer-Olkin(KMO) 표본적합도 측정값은 0.825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상 요인분석 수행에 적합한 기준인 0.8¹⁹⁾ 이상을 충족한 결과이다. 둘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근사 카이제곱값이 21058.088로 나타났으며,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요인적재량 관련하여 업무성과 종속변수는 제1요인에 높은 적재량(0.678~0.760), 그리고 직무만족 종속변수는 제2요인에 높은 적재량(0.413~0.502)을 보였다. 두 종속변수 모두의 요인적재량이 0.4를 초과하는 값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각 변수의 측정 항목들간의 타당도 수준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측정대상에 대한 복수의 측정결과 값이 일정 수준의 일관성 값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에는 통상 크로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가 0.7²⁰⁾ 이상일 경우,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3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업무

19) Hutcheson & Sofroniou. 「The multivariate social scientist: Introductory statistic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 Sage Publications. 1999.

20)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1978.

성과와 직무만족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이 각각 0.890, 0.849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종속변수의 측정항목들은 모두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신뢰도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인식 수준과 개인의 업무성과 인식 수준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와 업무성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B=.113, p<.001$). 다시 말해, 재택근무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개인 업무성과 수준 역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재택근무의 긍정적 기대효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 이용 여부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검증의 논의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실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이용 만족도 수준이 업무성과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업무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t
(상수)	3.013***	.170	17.714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113***	.021	5.402
성별	-.092*	.044	-2.062
연령	.068*	.031	2.159
학력	.027	.037	.739
직급	.032	.026	1.230

F=10.312***, R=.055, Durbin-Watson=2.013

N=885, *p<.05, **p<.01, ***p<.001

통제변수들 중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된 변수는 성별($B=-.092, p<.05$)과 연령($B=.068, p<.05$)이다. 여성 보다 남성 공무원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그들의 개인 업무성과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인식 수준과 개인의 직무만족도 인식 수준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를 통해 제시하였다.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와 업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양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과 개인의 직무만족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B=.128, p<.001$).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들의 직무만족 수준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업무성과와 직무만족 두 종속변수에 대한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의 긍정적 영향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업무성과 보다는 직무만족 수준에 대한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변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들 중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된 변수는 성별($B=-.101, p<.05$), 연령($B=.110, p<.01$), 그리

<표 4>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t
(상수)	2.470***	.192	12.852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128***	.024	5.432
성별	-.101*	.050	-2.019
연령	.110**	.036	3.102
학력	.011	.041	.275
직급	.067*	.030	2.230

F=14.446***, R=.076, Durbin-Watson=2.000

N=885, *p<.05, **p<.01, ***p<.001

고 직급($B=.067, p<.05$)이다. 여성 보다 남성 공무원이, 연령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그들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개인 수준의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용 만족도 수준이 갖는 조직결과변수들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재택근무 활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갖는 조직결과변수들의 대한 효과 검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공공부문 재택근무제 연구의 이론적·학문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수준의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 수준 역시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수준과 업무성과 그리고 직무만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상급자 혹은 기관으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내지는 불만족 경험을 하였다면 재택근무 이용이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일반적인 수준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물론, 근로 공간과 가정(삶)의 공간이 동일한 재택근무로 인해 직무몰입 저하와 직장 일과 가정 일의 명확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오히려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개인의 직무수준도 동시에 낮아지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택근무 활용이 갖는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개인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시간관리 개선 등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택근무제를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 기술적 환경(ICT 지원, 원격회의 환경, 공문 기안 및 결재

시스템 여건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근무지에서 근무했을 때 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이 발생한다면 재택근무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용 만족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특히, 실제 재택근무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지원 요구사항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공공부문 재택근무제 제도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추가로, 공공부문에 비해 근로자의 재택근무의 양적 그리고 질적 수준이 높은 민간부문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부조직의 재택근무제 활용에 도입 가능한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다각적으로 수행된다면, 재택근무제 이용 만족도 수준은 제고될 것이며, 향상된 이용 만족도 수준은 재택근무제 활용 자체가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국내 공공부문 재택근무 후속연구에서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시점에서 생성된 2024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설문조사의 경우 연도별 다소 상이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복수 년도가 확보된 재택근무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 분석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4개 변수들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위계에 따라 기관의 미션, 직무 성격, 조직문화 등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의 영향을 집단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의 직무특성 혹은 재택근무 이용과의 직무 적합성 등과 같은 변수를 측정 및 조작화하여 향후 국내 공공부문 재택근무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다면 재택근무제도 집행 측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실무적·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성환. 「상사-부하 교환관계(LMS)가 부하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사 성격 5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경영연구』 제54권 1호, 2017, 125~150면.
- 공무원 총조사 통계표. 인사혁신처. 2023.
- 김용운. 「공무원의 스마트워크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집 3호, 2013, 117~135면.
- 김유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워크 선호도 증대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3호, 2020, 159~186면.
- 김재영·이동주. 「재택근무가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 특성의 조절효과: 대규모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아태비즈니스 연구』 제15권 1호, 2024, 113~129면.
- 김태희·오민지. 「근무지유연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 영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6권 4호, 2018, 189~220면.
- 민경률·박성민. 「유연근무제가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5권 4호, 2013, 1211~1248면.
- 배귀희·양건모.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탄력근무,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집 4호. 2011, 125~153면.
- 사용진. 「유연근무제 활용 만족도가 업무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녀 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2호, 2024, 49~61면.
- 사용진·윤주영. 「재택근무 경험(빈도)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2호, 2025, 37~50면.
- 서아영. 「스마트워킹(Smart Work) 환경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3호, 2012, 427~459면.
- 안세연·김효선. 「스마트워크센터근무 도입 사례를 통해서 본 성공적인 직장 유연화 과정의 조건」, 『Korea Business Review』 제23권 1호, 2019, 153~179면.
- 이주경·한동숙. 「공무원의 재택근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집 1호, 2023, 114~151면.
- 이효주·김재형·박성민. 「스마트워크 만족도의 선행 및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협업과 초과근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9집 4호, 2020, 143~198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2025.12.15.

진중순·장은영,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1권 2호, 2015, 235~263면.
한국행정연구원. 2024.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2025.12.15.

Caillier, J. G. 「The impact of teleworking on work motivation in a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42 No. 4, 2012, pp. 461~480.

Cropanzano, R., & Mitchell, M. S.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Vol. 31 No. 3, 2005, pp. 874~890.

Golden, T. D., Veiga, J. F., & Dino, R. N. 「The Impact of Professional Isolation on Teleworker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s: Does Time Spent Teleworking, Interacting Face-to-face, or Having Access to Communication-enhancing Technology Matt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3, No. 6, 2008. pp. 1412~1421.

Hutcheson, G., & Sofroniou, N. 「The multivariate social scientist: Introductory statistic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 Sage Publications. 1999.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1978.

Sanchez, A. M., Perez, M. P., Carnicer, P. de Luis, & Jimenez, M. J. V. 「Teleworking and Workplace Flexibility: A Study of Impact on Firm Performance」, 『Personnel Review』, Vol. 36 No. 1, 2007, pp. 42~64.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Flexible Work System, Wor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using telecommuting
for public officials

Sa, Yongjin

The flexible work system is a system that gives workers flexibility in working conditions and methods by breaking away from the typical work system and condi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verify the effect of public officials' satisfaction with telecommuting on wor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technical improvements for the use of telecommuting by verifying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al outcome variables for public officials who have used telecommuting.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oretical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e telecommuting system research in the domestic public sector, where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outcome variables of whether or not to use telecommut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elecommuting use, wor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such as performing hypothesis verification between variables using single-year data and not including other significant control variables such as respondents' agencies in the analysis model.

Key Words: Flexible work system, Telecommuting system,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telecommuting, Work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왜 아직도 어려운가?

—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영향요인 —

우양호*

목 차

- | | |
|-----------------------------|------------------|
| 1. 서론 | 3. 분석틀의 구성과 조사설계 |
| 2.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 분석의 결과 및 해석 |
| | 5. 결론 및 제언 |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동기는 우리 사회의 세대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중은 여전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대한 원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의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 요인을 직장의 차원, 가족의 차원, 개인 및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론적으로 총 19개의 요인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직장의 차원, 가족의 차원, 개인 및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총 11개의 유의적인 요인이 발견되었다. 둘째, 직장 차원의 영향요인은 5가지였는데, 일·가정 양립 제도, 직장의 조직문화, 노동조합의 존재, 직장의 규모, 직장의 근로조건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셋째, 가족 차원에서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맞벌이가 가정, 자녀의 연령 등의 3가지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넷째,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요인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에서는 임금, 휴직급여액, 연령 등의 3가지 요인이 중요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 단계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했으며, 이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과 개선 방향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육아휴직, 기혼남성, 아빠 돌봄, 직장, 가족, 영향요인.

1.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5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아빠나 배우자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고 특별한 일에 가까웠다. 50대~60대 기성세대는 아내와의 가사나 육아 분담률도 높지 않았고, 육아휴직은 주로 기혼 직장여성이 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20대~40대 초반의 젊은 세대는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 젊은 MZ세대 기혼남성은 육아휴직에 대해 개방적이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크게 다를 개연성이 있다.¹⁾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세대와 가치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통계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전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정체되고 있다. 특히 45세 미만의 기혼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육아 지원 제도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직장인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근래 몇 년 동안 계속 정체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직장에서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대한 원

1) 송유미·이선자, 「20~30대 예비 아버지의 자녀 돌봄 인식 유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0.4, 2023, 235~261면.

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의성을 가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론에서 다시 논의한다.

젊은 아빠의 육아휴직은 가족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기혼남성 근로자의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아빠 혹은 남편으로서 젊은 생각과 변화된 가치관이 아니라, 제반의 다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업무량 자체가 많고 직장에서의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 육아휴직은 직장에서 제도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직장의 조직문화나 분위기도 중요하고, 주변 상사나 동료도 남성 육아휴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생계와 가정경제를 책임지려는 관념이 높은 기혼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의문에 대한 설명을 경험적으로 해보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진 취지이다.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의 토대가 제한적이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이론적 기반이 튼실하지 못한 편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방법론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보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연구나 특정한 사례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즉 기혼남성, 특히 젊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선택에 대한 제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과 경험적 연구는 아직 희소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집중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의 기존 논의구조 상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미도 있다.

이상의 배경과 취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요인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아빠의 육아휴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남성 일·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족공동체의 유지,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변화되는 인구정책 등에도 성공적인 지향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개념을 현실적으로 좁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혼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한다는 현실적 의미는 가사 및 양육 역할을 남성이 맡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행동의 표시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개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²⁾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기혼남성, 아빠 육아휴직 선택의 개념을 가족 영역과 가정의 문제인 육아휴직으로 인해 개인의 직장영역에 부정적 전이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지를 살핀다.³⁾ 즉 직장의 업무와 자녀의 돌봄 사이에 상충하는 갈등이 생기면 기혼남성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직장의 상황과 가족의 상황, 개인적 상태가 균형감(Balance)을 이루면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⁴⁾

기존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시각 차이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과 가족의 균형감을 인식하는 시점이 기혼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쟁점을 부각하였다.⁵⁾ 아빠는 엄마와 달리 공동양육의 역할 균형에 대한 의무감이 덜하며, 이를 크게 느끼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의사를 행동으로 옮긴다.⁶⁾ 이러한 논거들에 따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Parental Leave Choices)은 육아휴직을 선택하려는

2) Brandth, B. & Kvande, E., 「Fathers and Flexible Parental Leav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0(2), 2016, pp.275~290.

3) Beglaubter, J., 「Balancing the Scales: Negotia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54(4), 2017, pp.476~496.

4) Cannito, M., 「The Influence of Partners on Fathers' Decision-Making about Parental Leave in Italy: Rethinking Maternal Gate-keeping」, 『Current Sociology』, 68(6), 2020, pp.832~849.

5) 정수빈·배은경,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 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2022, 111~146면.

6) Olsson, M. & Martiny, S. E., 「Gender Gap in Parental Leave Intentions: Evidence from 37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44(6), 2023, pp.1163~1192.

의사와 역할 균형감, 역할 의사, 만족감 등으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배우자로서의 역할 균형감과 의사, 아빠로서의 역할 균형감과 의사, 기타 자기 시간의 균형감과 만족감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1) 직장 차원의 영향요인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직장 차원의 요인이다. 첫째, 직장의 규모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다. 반대로 여성의 육아휴직은 기업의 규모와는 인과관계가 적다는 보고와 통계가 나와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 여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고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편이다.⁷⁾ 하지만 남성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 이거나, 적어도 상시직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존중받는다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므로,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이 어려울 개연성도 있다. 또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 민감하므로, 아빠 육아휴직이 장려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기혼남성에게는 직장의 규모가 육아휴직 선택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직장의 근로조건은 육아휴직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기혼남성에게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좋으면, 육아휴직의 선택 가능성도 올라가는 비례관계가 있다. 근로조건은 직장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신분과 근무조건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봉과 각종 수당, 출·퇴근과 근무시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수준, 유연근무의 가능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신분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⁸⁾ 예컨대, 계약직 신분은 육아휴직을 사

7) Naz, G., 「Usage of Parental Leave by Fathers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0(5/6), 2010, pp.313~325.

8) 최숙희,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18, 2016, 37~

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고용 안정성을 걱정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신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재계약 걱정이나 승진에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근로조건은 직장의 공식적 약속이자, 육아휴직 선택을 위한 기본적 조건과 특성이 되기 때문에 기혼남성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⁹⁾

셋째, 직장의 조직문화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문화는 관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유연하고 관대한 조직문화를 가질수록, 기혼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직장의 조직문화는 육아휴직 분위기나 관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단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부서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전례가 거의 없다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분위기상 남성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조직의 관행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처우상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⁰⁾

넷째, 직장의 인간관계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직장의 인간관계는 곧 상사나 동료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관계를 의미한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가 육아휴직을 먼저 해봤다거나, 육아휴직의 경험이 서로 공유되면 육아휴직의 선택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기혼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포용성과 지원은 상사나 동료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형적 혹은 무형적 지지와 지원은 육아휴직 선택에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상사나 동료의 관계적 지원에는 공감, 이해, 격려, 관심, 조언, 도움, 배려 등이 있다. 직장의 상사가 육아휴직을 공감하면서 권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부담 없이 대리해준다면 남성의 육아

62면.

9) 김진욱, 「일에서 가족으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015, 265~302면.

10) 홍승아, 「남성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 『젠더와 문화』, 11.1, 2018, 145~183면.

휴직 선택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은 어려워진다. 기혼남성은 육아휴직 이후의 복직과 근무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육아휴직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¹¹⁾

다섯째, 조직몰입과 업무몰입은 육아휴직 선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조직몰입과 업무몰입은 직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일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남성에게 이것은 직장인으로서 자부심과 근로의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직몰입과 업무몰입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개념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종종 논의된다. 즉 일터에서의 업무적 몰입과 가족 영역에서의 육아에 대한 몰입은 서로 간의 양립이 쉽지 않다고 한다.¹²⁾ 조직과 일에 대한 몰입은 육아나 가정과의 균형 찾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에서 남성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업무에 대한 몰입과 책임감이 크다면, 주로 가정보다는 일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남성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몰입과 업무몰입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의 가능성과 반비례 관계로 볼 수 있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높으면 가족과 육아 문제가 나중 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¹³⁾

여섯째, 직장의 일·가정 양립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제도는 여성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논의가 많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을 확실히 보장하고,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책 등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회사가 대체 근로자를

11) 조계정·최정숙, 「남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2021, 259~301면.

12) Gheaus, A. & Robeyns, I., 「Equality-Promoting Parental Leav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2(2), 2011, pp.173~191.

13) 이옥경·안영혜,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107, 2017, 33~59면.

14) Moreno-Mínguez, A. & Moral, A., 「Father Parental Leave Use in Spain: The Role

채용하고,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조치도 일·가정 양립 제도에 포함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혼남성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가족 구성원과 아버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직장이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에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은 수월해진다.¹⁵⁾

일곱째, 직장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직장에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직장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은 제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연차나 가족을 위한 휴가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직장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에 힘을 얻어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¹⁶⁾ 또한 노동조합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과 근무에 있어서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혼남성에게 육아휴직과 관련된 각종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의 실질적 기능도 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¹⁷⁾

2) 가족 차원의 영향요인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 차원의 요인이다. 첫째, 자녀의 연령 변수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대부분 어린 자녀의 존재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사용자에 대한 근로

of the Female Partner Labour Situ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7(1), 2023, pp.293~305.

15) 성민정·원숙연,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4, 2018, 157~188면.

16) 최세은·정은희·최슬기,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보건사회연구』, 39.4, 2019, 280~319면.

17) Gregory, A. & Milner, S., 「Men's Work-Life Choices: Supporting Fathers at Work in France and Britain?」, In 『Men, Wage Work and Family』, Routledge, pp.50~64.

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한정된다. 통상적으로 생후 29일부터 만 6세 미만을 통틀어 영·유아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미취학 영유아(Preschool Children)를 둔 직장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기혼남성이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녀에게 시간과 자원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시기도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이다.¹⁸⁾

둘째, 맞벌이 가정의 여부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임금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곧 배우자의 수입, 가계의 금전적 수입,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모두 대리하는 변수(Proxy Variable)로서의 의미가 있다.¹⁹⁾ 기혼남성을 기준으로 외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 배우자의 수입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남편 혼자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논의된다. 외벌이 가정은 아무래도 맞벌이보다 가계 수입과 경제적 안정감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해 맞벌이를 선호하고, 또 그렇게 직장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은 부부 중에서 남녀에 상관없이 수입이 적은 쪽에서 먼저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²⁰⁾ 따라서 기혼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 맞벌이인가의 여부는 육아휴직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가사의 분담 수준 및 정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사는 가족의 영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하는 전반적인 노동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 분담의 문제는 누가, 언제,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남성의 가사 분담 시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육아휴직 선택

18) Choi, Y., 「Individual, Family, and Employer: Factors Associated with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Family Relations』, 72(5), 2023, pp.2731~2753.

19) Hirschi, A., Shockley, K. M. & Zacher, H.,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An Action Regulation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1), 2019, pp.150~171.

20) 유미경·안윤정,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본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42.2, 2023, 135~179면.

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평소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성은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지지를 받는다. 여기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행복감을 알게 되면, 남성은 육아휴직을 통해서 일과 가족의 더 큰 균형감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화합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직결되는 기혼남성의 가사 분담 수준은 육아휴직의 선택 확률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²¹⁾

넷째, 가족과의 소통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족과의 소통은 남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지원(Support)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의 지원이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와 행동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다.²²⁾ 이와 반대로 가족과의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경우나 배우자 등과의 불화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의 선택이 어렵다. 가족과의 소통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가까이 지내는지, 심리적으로 가족이 버팀목이 되고 있거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정도도 포함한다. 가족과의 소통은 가족과의 대화 및 의사소통의 수월성을 통해서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배려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혼남성이 가족을 위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²³⁾

다섯째,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기혼남성의 결혼생활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 자녀에 대한 만족,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을 모두 포함한다.²⁴⁾ 이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의도와 큰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21) 광원준, 「남성 육아휴직이 남성 근로자와 배우자의 경력개발 활동과 경력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4.2, 2021, 83~101면.

22) Stertz, A. M. & Wiese, B. S., 「Dual-Earner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ir Parental Leave Decisions: A Longitudinal Study of Partner Influences」, 『Sex Roles』, 2024, pp.1~22.

23) Reimer, T., 「Why Fathers don't Take More Parental Leave in Germany: Comparing Mechanisms in Different Work Organizations」, 『Community, Work & Family』, 23(4), 2020, pp.419~438.

24) 김연진·김진욱, 「스웨덴은 어떻게 아버지 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정책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22, 73,

가족의 영역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시간과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결혼만족도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의향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²⁵⁾

여섯째,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과 연관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의 육아는 남편과 아내, 서로 간의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은 통상적으로 여성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출산 이후에 맞벌이 가족은 아내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직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또한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첫 아이에 대한 아내의 육아휴직 경험을 참고하여, 연이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보모 등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닌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부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둔 것에도 이런 점들이 고려되었고, 이것은 젊은 아빠나 기혼남성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3) 개인 및 사회적 영향요인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과 가족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사회·환경적 차원의 외생적 요인도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것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영향요인에는 연령, 직급, 학력, 임금, 휴직급여액, 합계출산을 등이 있다.

첫째, 기혼남성의 연령은 육아휴직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다. 개인의 나이 또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세대를 가르는 변수이며, 가족의 가치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5~46면.

25) Brandth, B. & Kvande, E., 「Masculinity and Fathering Alone during Parental Leave」, 『Men and Masculinities』, 21(1), 2018, 72~90.

사회에서 남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육아휴직의 나이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²⁶⁾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아빠는 육아휴직에 대한 시각이 세대별로 각각 다르다는 논의도 있다. 남성은 결혼 후에 나이가 들수록,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아빠일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보고가 많다. 이것은 기혼남성의 특정 연령대에 육아휴직에 대한 선택의 변이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²⁷⁾

둘째, 기혼남성의 학력은 육아휴직의 선택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개인의 학력과 교육적 수준(Education Level)이 가지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남성이 고학력자일수록 직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며, 직장과 가족의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직장과 사생활의 구분, 일과 가족의 균형을 원한다는 기존 문헌의 논의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달리 고학력자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분 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육아휴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반론도 있다.²⁸⁾ 따라서 기혼남성의 학력과 교육 수준에 따라 적어도 육아휴직 선택의 유의적인 변이가 나타난다는 점에는 기존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셋째, 개인의 직급도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는 직장 생활의 경력(Carrer)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경력이 쌓이면, 그만큼 책임이 커지고 성과가 중요해진다. 이는 가족의 영역에서 육아휴직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이와 반대로 기혼남성의 낮은 직급과 경력에서는 직장의 분위기나 상사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낮은 직급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챙기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상관없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있어서 직급이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점에는 기존 연구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²⁹⁾

26) 통계청,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2025

27) 김지현·최영준, 「가족정책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6.2, 2022, 359~394면.

28) 김민주·서정재,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의 출산 의향에 관한 분석」, 『미래사회』, 15.1, 2024, 51~71면.

넷째, 임금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은 자신의 임금 수준과 정비례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 개인에게 임금의 수준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며, 이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는 일반화된 변수이다.³⁰⁾ 또한 임금은 개인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의 산출기준도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된다. 즉 직장인 기혼남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이다.

다섯째, 휴직급여액은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혹은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혼가정의 주된 소득원은 남성인 경우가 더 많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정책은 기혼남성의 근로기간 기회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휴직급여액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달라진다는 연구보고나 결과가 많다.³¹⁾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사회환경적 통제변수로서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수준과 연관성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여성 가임기간(15-49세)의 예상 출생아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일단 남녀의 육아휴직 빈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사회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으면 신생아 숫자가 적어지고, 육아휴직 신청의 빈도와 절대량도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원리이다. 물론 육아휴직이 어려워져 출산이 기피될 수 있다는 일부의 보고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극히 제한적인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출산율의 영향요인에는 혼인율, 주택, 경제적 상황

29) 우양호,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2013, 173~202면.

30) Wood, J., Marynissen, L. & Van Gasse, D., 「When is it About the Money? Relative Wages and Fathers' Parental Leave Decis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2(6), 2023, pp.93~98.

31)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안내서 리플렛(정책안내서)』, 2024.

32) 우양호,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행정논총』, 52.1, 2014, 271~301면.

등 육아휴직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환경적으로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지면, 남녀 육아휴직자가 함께 감소한다는 통계적 증명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여성 육아휴직과 친화성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사회·환경적으로 합계출산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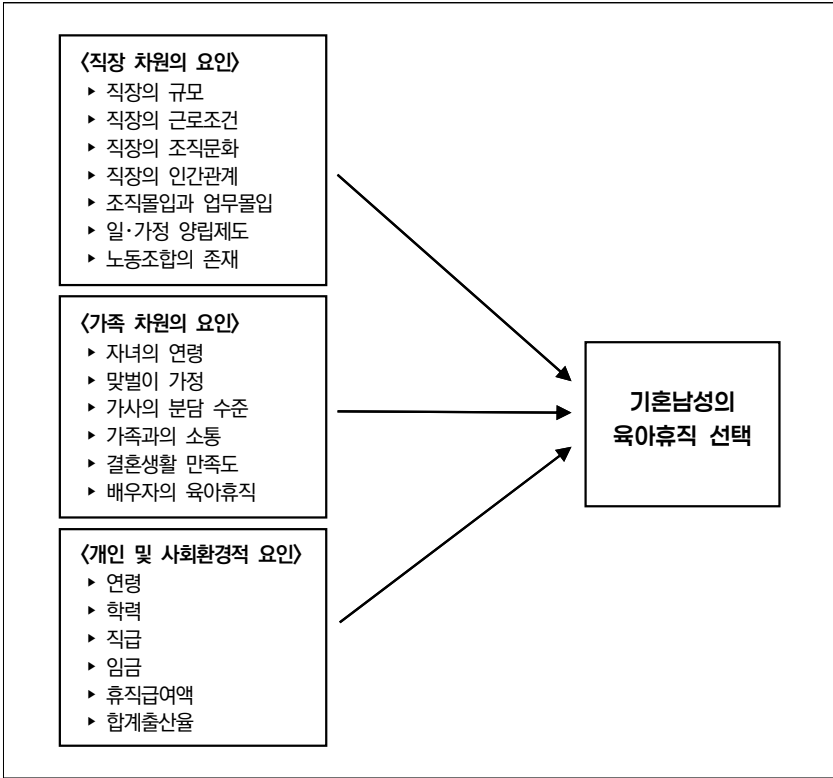
3. 분석틀의 구성과 조사설계

1) 분석틀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변수들은 총 20개이다. 종속변수는 1개이며, 독립변수는 이론적 논의에 따라 총 3가지 차원에서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앞선 이론과 논증에 따르면, 연구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이 설정되었다. 종속변수가 갖는 성격은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할 주관적 의사로서 정의된다. 그리고 기혼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 느끼는 효능감, 배우자 및 아빠로서의 역할 균형과 만족감, 기타 자기 시간의 균형과 만족감과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는 앞선 이론에서 19가지로 선별되었다. 직장 차원의 요인으로는 직장의 규모, 직장의 근로조건, 직장의 조직문화, 직장의 인간관계, 조직몰입과 업무몰입, 일·가정 양립 제도, 노동조합의 존재 등 7가지가 설정되었다. 가족 차원의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맞벌이 가정, 가사의 분담 수준, 가족과의 소통, 결혼생활 만족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6가지가 설정되었다. 독립변수이면서 통제되는 변수의 성격으로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연령, 학력, 직급, 임금, 휴직급여액, 합계출산율 등 6가지가 설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되었다.

33) 한국노동연구원,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 2023.



〈그림 1〉 분석의 틀 구성

2) 측정 방식과 도구 설계

본 연구는 육아휴직에 관한 경험적 연구 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절차를 통해 측정 도구를 타당성 있게 설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가족학, 사회학, 여가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요인은 해외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의 시각에서 장기간 연구되고 있었으며, 이론과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의 기존 연구가 논의한 기준과 측정요인을 최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 문항을 선별하였다. 둘째,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론과 제작된 측정

〈표 1〉 측정 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

변수(문항 갯수)	문항 구성과 내용	신뢰도
직장의 규모(1)	대기업·중견기업(=0), 중소기업(=1)	D.V.*
직장의 근로조건(3)	신분계약의 안정성, 근로조건의 유연성, 처우 만족도	.9164
직장의 조직문화(3)	조직의 육아휴직에 대한 시각, 관행과 분위기, 불이익 가능성	.9271
직장의 인간관계(3)	상사 및 동료와의 소통, 배려와 이해, 공감과 격려	.8984
조직몰입과 업무몰입(3)	조직 충성도, 근로의욕과 적극성, 자부심과 효능감	.9030
일·가정 양립제도(3)	육아휴직의 대체근로, 복직 보장, 휴가/조퇴/단축근무	.8902
노동조합의 존재(3)	노동조합 독립성, 단체협약 수준, 휴직교육과 정보제공	.8793
자녀의 연령(1)	6세 미만 영·유아(=0), 그렇지 않음(=1)	D.V.*
맞벌이 가정(1)	맞벌이 부부(=0), 그렇지 않음(=1)	D.V.*
가사의 분담 수준(3)	가사노동과 육아 분담의 공정성, 참여도, 효능감	.8734
가족과의 소통(3)	가족과의 대화시간, 소통의 수월성, 지지와 배려도	.8570
결혼생활 만족도(3)	배우자 만족감, 자녀 만족감, 기타 결혼생활의 만족감	.9213
배우자의 육아휴직(3)	배우자의 육아휴직 만족감, 부부공동 육아휴직, 연계 의사	.8606
연령(1)	20대(=0), 30대(=1), 40대(=2)	D.V.*
학력(1)	대학 졸업(=0), 대학원 졸업(=1), 고졸 및 기타(=2)	D.V.*
직급(1)	사원/대리급(=0), 팀장/과장급 이상(=1)	D.V.*
임금(1)	300만 미만(=0), 300~400만(=1), 400만 이상(=2)	D.V.*
휴직급여액(1)	200만 미만(=0), 200~300만(=1), 300만 이상(=2)	D.V.*
합계출산율(1)	자녀 출생연도의 TFR 0.9(=0), 0.8(=1), 0.7(=2)	D.V.*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4)	육아휴직 선택 의사, 부모 육아와 역할 균형 의사, 배우자 육아와 역할 균형 의사, 기타 가족생활 역할 균형 의사	.9649

주 1) 직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고용노동부, 2025).

주 2) 합계출산율은 자녀(8세 이하) 출생 기준연도의 정부 공표 통계(2018~2025년: T-1).

주 3) D.V.*는 모조변수(Dummy Variable),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도구를 서로 비교하였으며, 공통된 요소를 선별하고 1차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셋째, 1차 수정된 도구에 대하여 5인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2차 수정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예비조사(Pilot Test)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직장인 기혼남성 10명에게 진행하였으며, 질문 형식과 문항의 내용적 오류의 가능성을 보면서 3차 재수정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단계적 절차로 제작 및 수정된 최종 측정 도구는 총 20개 변수에 대해 43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최종 도구에 대한 응답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등간비율척도는 매우 긍정(5점), 보통(3점), 매우 부정(1점)을 양극단으로 삼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설정했다. 명목척도는 범주형으로 측정되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모조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다. 이상의 절차로 만들어진 도구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신뢰도에 관한 검증 수치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변수를 구성한 문항의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0.8570~0.9649 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인 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높은 편이었다.

3) 조사설계와 표집의 과정

조사설계와 표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분석단위와 분석 수준을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과 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수준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모집단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혼남성 근로자로 설정되었으며, 전문가와 조사팀 회의를 통해 세부적 범위를 다시 정하였다. 예컨대 구체적인 조사표본은 기혼남성 근로자로 설정하되, 표본의 연령은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로 한정하였다. 즉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휴직 공식통계 기준을 표본 범주에 준용하여, 여기에 반영되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 기혼남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직장인 표본의 기본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남성이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과 자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남성 직장인을 선별하였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

권과 전국 6개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민간기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5:5 지역 할당으로 배분하였다.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 10곳 외에도 지방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9곳과 중소기업 24곳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이들 기업에는 대부분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남성 근로자가 각각 연령과 직급별로 나누어 재직하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조사 진행방식은 사전 연락을 통해 면접조사가원이 직접 응답자를 만나서 질문지를 회수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조사의 신뢰성과 응답오차 방지를 위해서였으며, 단순 배포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총 700부의 질문지가 투입되었는데, 회수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이었다. 질문지는 69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기재의 오류나 결함을 보이는 4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인 유효표본은 690부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앞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표본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기혼남성을 어느 정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⁴⁾

4. 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자료에 대한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

34) 총 유효표본(N=690) 집계에서 나타난 기혼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전체 표본의 연령대는 30대가 394명(57.1%), 40대가 195명(28.3%), 20대가 101명(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62명(70.0%), 대학원 졸업이 95명(13.8%), 2년제 대학 졸업이 79명(11.4%), 고등학교 졸업이 54명(7.8%) 등이었다. 셋째, 직급은 사원급이 381명(55.2%), 대리급이 186명(27.0%), 팀장/과장급 이상이 123명(17.8%)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금은 월 단위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미만이 402명(58.3%), 300~400만 원이 205명(29.7%), 400만 원 초과는 83명(12.0%)의 분포를 보였다. 다섯째, 직장의 규모에서 대기업은 302명(43.7%), 중소기업은 293명(42.5%), 중견기업은 95명(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혼남성은 457명(66.2%), 그렇지 않은 경우는 233명(33.8%)이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기혼남성은 419명(60.7%), 그렇지 않은 경우는 271명(39.3%)으로 나타났다.

과 그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앞서 이론적 논거와 연구 개념의 정립, 분석틀의 구성과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의 신뢰도는 검증하였지만, 분석개념의 타당도는 정확하게 입증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조사로 확보한 등간비율척도(Likert Scale) 표본자료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타당도는 통계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기법으로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한 요인분석의 결과, 자동으로 하위 개념을 추출하여 변수별 타당성이 도출된 결과는 <표 2>이다.

여기서는 측정된 문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변수로 지정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요인의 속성이 산술적으로 요약되었다. 타당도 검증의 결과치에서 변수가 보여준 판별적 타당도, 집중적 타당도, 단일 차원도 등을 계량화시킨 수치는 절대부합도지수(GFI, AGFI), 증분적합지수(NFI), 원소간평균 차이(RMSR)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표본자료의 검증에 있어 변수별 타당도는 통계적 유형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적합한 변수로 귀속되지 못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등간비율척도(Likert Scale) 자료의 타당도

항목	최초	최종	GFI	AGFI	NFI	RMSR	x2	p
직장의 근로조건	3	3	0.990	0.903	0.972	0.026	7.254	0.059
직장의 조직문화	3	3	0.985	0.957	0.921	0.013	6.423	0.064
직장의 인간관계	3	3	0.933	0.919	0.981	0.024	6.743	0.058
조직몰입과 업무몰입	3	3	0.937	0.928	0.954	0.039	5.791	0.086
일·가정 양립제도	3	3	0.939	0.934	0.955	0.042	6.524	0.062
노동조합의 존재	3	3	0.926	0.920	0.947	0.038	6.249	0.075
가사의 분담 수준	3	3	0.981	0.951	0.974	0.026	4.623	0.088
가족과의 소통	3	3	0.983	0.902	0.978	0.022	8.412	0.023
결혼생활 만족도	3	3	0.952	0.940	0.962	0.047	6.606	0.032
배우자의 육아휴직	3	3	0.927	0.923	0.963	0.030	6.529	0.091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	4	4	0.989	0.945	0.027	0.948	8.458	0.052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모든 변수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변수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지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 미만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다공선성을 재확인해 본 결과에서도 변수의 독립성에 별다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등간비율척도(Likert Scale)에 대한 확인요인분석(CFA)으로 추출된 요인은 새로운 변수로 저장하여 인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료의 타당도에서 적합한 검증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본 연구가 육아휴직 요인 관련 연구의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의 경험치를 충실하게 질문지로 반영하고, 여러 차례의 정제를 했기 때문이었다.

2)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영향요인

앞선 분석의 틀과 구성과정에서 제안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다. 그것은 독립변수 차원에서 직장 차원의 범주, 가족 차원의 범주, 개인 및 사회환경 차원의 범주에 속한 다층적 원인이 종속변수로 정의되었던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Parental Leave Choices)에 갖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초 분석의 틀을 구성했던 논리와 가정에 따라, 본 연구는 3가지 차원의 19가지 독립변수가 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회귀함수 모델의 최초 설명력(R²)은 0.684였고, 조정된 설명력(Adjusted R²)은 0.627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관한 요인의 62.7%가 11가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었음을 뜻한다. 총 11가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p-value)과 표준화계수(β)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요인은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 예측에 있어서 일반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가능하다.

〈표 3〉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TOL	VIF	
(상수)	12.564	6.514		1.853	.120			
직장 차원	직장의 규모	.138	.066	.061	2.089	.040	.402	2.475
	직장의 근로조건	.366	.174	.146	2.256	.025	.398	2.539
	직장의 조직문화	.225	.027	.148	4.397	.000	.284	3.476
	직장의 인간관계	4.962E-02	.142	.027	.348	.724	.127	8.103
	조직몰입· 업무몰입	-3.647E-02	.113	-.012	-.322	.747	.391	2.511
	일·가정 양립제도	.795	.036	.515	24.860	.000	.470	2.110
	노동조합의 존재	.133	.059	.198	2.141	.035	.243	3.288
가족 차원	자녀의 연령	.321	.026	.149	4.623	.000	.385	2.618
	맞벌이 가정	.406	.155	.182	2.794	.010	.229	4.452
	가사의 분담 수준	8.867E-02	.072	.033	1.195	.232	.372	2.667
	가족과의 소통	3.636E-02	.088	.017	.417	.688	.321	3.083
	결혼생활 만족도	.204	.093	.072	2.122	.064	.290	3.351
	배우자의 육아휴직	.237	.026	.150	5.111	.000	.338	2.996
개인사 회환경	연령	.332	.174	.109	1.915	.050	.123	7.733
	학력	-.268	.183	-.088	-1.473	.142	.128	8.048
	직급	-7.552E-02	.033	-.063	-2.052	.076	.192	5.081
	임금	.321	.162	.146	1.994	.048	.323	3.064
	휴직급여액	.125	.057	.124	2.221	.030	.371	2.673
	합계출산율	-.153	.169	-.054	-.960	.338	.310	2.982
모델	R ² =.684		Adjusted R ² =.627		F=152.948			

주) N=690, *: 가변수(Dummy Variable), 통계적 유의성은 $p \leq 0.05$
 다공선성 기준: Tolerance>0.1, Variance Inflation Factor<10.0.

첫째, 직장 차원의 요인에서는 5가지 요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직장 차원에서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대해 가장 많은 요인이 유의성을 보였다. 유의확률과 표준화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가정 양립 제도($\beta = .515$), 직장의 조직문화($\beta = .248$), 노동조합의 존재($\beta = .98$), 직장의 규모($\beta = .161$), 직장의 근로조건($\beta = .146$) 등이었다. 먼저 일·가정 양립 제도는 전체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의 요인이었다. 이 요인은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회사의 대체 근로자를 채용, 타인의 업무 대행, 복직 보장, 경력단절을 위한 지원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직장의 조직문화는 기혼남성 육아휴직에 유연하고 관대한 조직문화를 뜻한다.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의 분위기나 관행이 우호적이고, 복직의 어려움이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음을 뜻했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를 의미했다. 즉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이 더 수월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직장의 규모와 근로조건 통계적 유의성은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신분의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음을 암시해준다.

둘째, 가족 차원의 요인에서는 3가지 요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의확률과 표준화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배우자의 육아휴직($\beta = .201$), 맞벌이 가정($\beta = .182$), 자녀의 연령($\beta = .149$) 등이었다. 먼저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 서로 간의 육아휴직을 통해 부부 공동의 육아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 점이 현실적으로도 재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가족 차원에서 맞벌이 가정 변수도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가계 수입과 경제적 충격이 덜해서,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이 더 수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맞벌이 가정과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상황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연령 변수가 보여준 유의성의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Preschool Children)를 둔 기혼남성이 육아휴직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서는 3가지 요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의확률과 표준화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임금($\beta = .156$), 휴직급여액($\beta = .124$), 연령($\beta = .109$) 등이었다. 먼저 임금의 통계적 유의성은 직장 기혼남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기준은 변수의 조작적 의미로 보자면, 약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잠정 추정된다. 휴직급여액의 통계적 유의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현재 정부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 급여액은 개인별 통상 임금에 근거하여 기간별 80%~10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변수의 조작적 의미로 보자면, 평균 약 200만 원 이상의 휴직급여액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혼남성의 연령도 육아휴직의 선택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이른 나이대에서는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방증했다. 따라서 가족의 가치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기혼남성의 가치관도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선택의 변이가 나타난다는 가설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왜 아직도 어려운가?”라는 연구 질문을 던지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 경험적 연구로서 현실 측면의 실천적 제언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 또는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시각의 확대를 학계와 정부, 우리 사회에 제안한다. 연구 결과로 보건대,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높이고 직장 아빠들의 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말아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예컨대,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저조한 원인

을 정부나 기업이 지금처럼 낮은 혼인율, 출생률, 실업률, 금전적 문제, 불경기, 가구구조의 변화 등 어느 한 편에만 뒤서는 곤란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층적 차원에 그 원인이 두루 분포하고 있었다. 앞으로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만들고 그 비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회사,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 시각과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을 위해서는 직장의 기존 업무 제도와 문화가 크게 변화되어야 함을 연구 결과가 말해주었으며, 그 수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은 직장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강화와 직장의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을 위한 직장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은 지금껏 올바른 방향이었고, 실제 현실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기혼남성에게 진정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 제도의 질을 계속 높이고, 운영의 모미를 살리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민간기업과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 시에 직장의 노동조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정부가 직장별 노조 단체협약 등에 남성의 육아휴직 조항을 권고하고 장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의 규모와 근로조건에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남성의 육아휴직보다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을 보조하는 정책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이후에 직장으로서의 복직과 고용안정 방안을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추가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사직 권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기타 인사차별을 고용주책임으로 하지 못하도록 노조와 정부의 감시역할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셋째, 가족 차원에서는 부부 공동육아의 취지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남편과 아내의 ‘동시 혹은 교대’ 육아휴직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엄마 출산 이후에 아빠 육아휴직의 강제 필수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 특히 자녀가 어리고 돌봄이 많이 필요할 때, 엄마의 육아휴직이 끝나서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아빠의 육아휴직 ‘연결(Connecting)’을 기업과 정부

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자녀를 기준으로 삼아 아빠, 엄마 육아휴직 기간의 상호 이전 및 양도(Transfer)를 가능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혼남성에게 새로운 초점이 두어지는 남편 출산휴가, 가족 휴가, 남편 직장 보육 등에서 제도적 정비와 정책의 질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개인과 사회환경 차원에서는 기혼남성 근로자의 임금과 휴직급여액이 육아휴직 선택에 상당히 중요하였으므로, 현재의 급여 보조 정책을 더 강화하고 유연화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무척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그 효과성과 강도를 더 높여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기혼남성 개인의 임금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와 ‘정액제’를 적절히 혼합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남성의 임금과 가정경제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경직된 돈의 ‘액수’보다는 탄력적 ‘수요’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높아지는 아빠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자기가 필요한 때에 육아휴직을 더 쓰거나,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육아 집중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곽원준, 「남성 육아휴직이 남성 근로자와 배우자의 경력개발 활동과 경력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4.2, 2021, 83~101면.
- 김민주·서정재,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의 출산 의향에 관한 분석」, 『미래사회』, 15.1, 2024, 51~71면.
- 김연진·김수영,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 이분법적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2015, 285~319면.
- 김연진·김진욱, 「스웨덴은 어떻게 아버지 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정책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22, 73, 5~46면.
- 김지현·최영준, 「가족정책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6.2, 2022, 359~394면.
- 김진욱, 「일에서 가족으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015, 265~302면.
- 박지현·주영아, 「워킹대디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개념도 연구」, 『인문사회 21』, 11.4, 2020, 307~322면.
- 성민정·원숙연,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4, 2018, 157~188면.
- 송유미·이선자, 「20~30대 예비 아버지의 자녀 돌봄 인식 유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0.4, 2023, 235~261면.
- 우양호,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토큰여성(tokens)과 여왕벌신드롬(queen bee syndrome)」, 『지방정부연구』, 14.4, 2011, 61~85면.
- _____,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2013, 173~202면.
- _____,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행정논총』, 52.1, 2014, 271~301면.
- _____,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우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108.1, 2021, 5~38면.
- _____,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의 성공조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2006, 77~101면.

- _____,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가족과 커뮤니티』, 10, 2024, 293~320면.
- _____,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행정연구』, 38.1, 2024, 221~256면.
- 유미경·안윤정,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본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42.2, 2023, 135~179면.
- 이옥경·안영혜,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107, 2017, 33~59면.
- 정수빈·배은경,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2022, 111~146면.
- 정우영, 「MZ세대 남성의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탐색: 육아휴직 경험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9.1, 2024, 133~163면.
- 조계정·최정숙, 「남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2021, 259~301면.
- 진수정·최새은, 「남성 육아휴직을 통한 성평등한 공동양육 문화의 조성 가능성 탐색: 교사 직군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연구』, 3.2, 2023, 1~22면.
- 최속희,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18, 2016, 37~62면.
- 최새은·정은희·최슬기,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보건사회연구』, 39.4, 2019, 280~319면.
- 홍미영, 「지방공무원의 여성관리자에 대한 차별원인과 태도 및 행태의 구조적 관계」, 『한국행정논집』, 17.4, 2005, 1207~1230면.
- _____,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의 성차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007, 65~87면.
- _____, 「여성관련 연구수요와 전망에 관한 델파이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008, 235~259면.
- _____, 「공직부처의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탐색적 분석: 단순한 차이인가? 의도적 차별인가?」, 『지방정부연구』, 22.1, 2018, 25~44면.
- 홍승아, 「남성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 『젠더와 문화』, 11.1, 2018, 145~183면.
- 통계청,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2024.

- Beglaubter, J., 「Balancing the Scales: Negotia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54(4), 2017, pp.476~496.
- Brandth, B. & Kvande, E., 「Fathers and Flexible Parental Leav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0(2), 2016, pp.275~290. ㄷ<ㅅ
- Brandth, B. & Kvande, E., 「Masculinity and Fathering Alone during Parental Leave」, 『Men and Masculinities』, 21(1), 2018, 72~90.
- Cannito, M., 「The Influence of Partners on Fathers' Decision-Making about Parental Leave in Italy: Rethinking Maternal Gate-keeping」, 『Current Sociology』, 68(6), 2020, pp.832~849.
- Choi, Y., 「Individual, Family, and Employer: Factors Associated with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Family Relations』, 72(5), 2023, pp.2731~2753.
- Gheaus, A. & Robeyns, I., 「Equality-Promoting Parental Leav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2(2), 2011, pp.173~191.
- Gregory, A. & Milner, S., 「Men's Work-Life Choices: Supporting Fathers at Work in France and Britain?」, In 『Men, Wage Work and Family』, Routledge, pp.50~64.
- Hirschi, A., Shockley, K. M. & Zacher, H.,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An Action Regulation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1), 2019, pp.150~171.
- Moreno-Mínguez, A. & Moral, A., 「Father Parental Leave Use in Spain: The Role of the Female Partner Labour Situ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7(1), 2023, pp.293~305.
- Naz, G., 「Usage of Parental Leave by Fathers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0(5/6), 2010, pp.313~325.
- Olsson, M. & Martiny, S. E., 「Gender Gap in Parental Leave Intentions: Evidence from 37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44(6), 2023, pp.1163~1192.
- Philipp, M. F. & Spiess, C. K., 「Parental Leave Policies, Usage Consequences and Changing Normative Beliefs: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Gender & Society』, 37(4), 2023, pp.493~523.
- Reimer, T., 「Why Fathers don't Take More Parental Leave in Germany: Comparing Mechanisms in Different Work Organizations」, 『Community, Work & Family』, 23(4), 2020, pp.419~438.

- Stertz, A. M. & Wiese, B. S., 「Dual-Earner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ir Parental Leave Decisions: A Longitudinal Study of Partner Influences」, 『Sex Roles』, 2024, pp.1~22.
- Wood, J., Marynissen, L. & Van Gasse, D., 「When is it About the Money? Relative Wages and Fathers' Parental Leave Decis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2(6), 2023, pp.93~98.

| Abstract |

Why Is It Still Difficult for Fathers
to Take Parental Leave in Korea?
: Factors Influencing Young Married Men's
Parental Leave Choices

Woo, Yangho

The theme a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parental leave among young married men in Korea. This study categorized the factors of married men's choice of parental leave into workplace, family, personal and social dimensions, and theoretically constructed a multilayered model with a total of 19 influencing factor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young married men's parental leave choices were diverse and widely distributed. A total of 11 significant factors were found across the workplace, family, personal, and socio-environmental dimensions. Second, 5 factors were empirically significant in the workplace dimension.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workplace organizational culture, presence of a union, size of the workplace, and working conditions were important influences on married men's parental leave. Third, 3 factors were empirically significant in the family dimension. The factors related to wife's parental leave, dual income, and child's a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ed men's parental leave. Fourth, 3 factors were empirically significant in the personal and social dimension.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salary, parental leave benefits, and age were important for married men's parental leave.

Key Words: Parental Leave, Young Married Men, Nurturant Father, Working Fathers, Workplace, Family, Influencing Factors.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결혼이주여성 인식 연구*

이지영**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5.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
| 2. 선행연구 및 분석대상 | 6. 서울시 결혼이주여성 초점집단면접 조사 |
| 3.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 7. 나오며 |
| 4.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 |
-

■ 국문초록

본 글의 목적은 가족센터 통합 시행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주요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센터 통합과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센터 통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다문화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차별감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자녀 언어발달지원, 입학정보 제공, 상담, 결혼이주여성 정서상담, 한국어 교육에서 높았으나, 한국어 심화과정 부족, 강사 역량 편차, 프로그램 다양성 한계, 출신국 통번역 인력 유무에 따른 정보 접근 격차가 개선 과제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관련 자격·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자립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적 여부에 따른 대상 선별을 완화하고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5S1A6B5A02004223),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사회로의 통합연구」 내용의 일부를 가필 수정하였음.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제공에 대한 바람이 컸다.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통합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만족 실태 점검, 보편 서비스와 특수 수요를 결합한 지원 강화, 통합 운영을 정확히 반영하는 성과관리·통계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사회통합,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1. 들어가며

전 세계 이주민¹⁾ 수는 1990년에 1억 5,300만 명에서 2020년 현재 2억 8,100만 명으로 30년간 약 1억 2,8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의 3.8%에 달한다.²⁾ 21세기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제이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초국적 가족³⁾과 다문화가족⁴⁾의 증가일 것이다. 국제이주에 의해

- 1)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이주를 ‘국내이동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타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광의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주, 이민의 정의는 아직 없다. 이민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1997년의 유엔사무총장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이민이란 ‘거주지 이외의 국가로 이동하여 적어도 12개월 간 당해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주민은 등록된 외국인을 칭하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에서 원문을 인용할 경우는 외국인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4, 2024, 22면.
- 3) 초국적 가족은 노동, 결혼,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의 국제이주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가족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의 복지와 가족이란 소속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함(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29면).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2011년과 2014년의 동법 개정으로 혈통주의가 약화되고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촉발된 이러한 양상에 있어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은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11월 1일 현재 252만 명에 이르며 총 인구 대비 4.9%를 기록하고 있다.⁵⁾ 한국으로의 이주는 아시아 역내 이주라는 특성을 지니며 비숙련 단순 노동력의 노동이주, 그리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한 결혼이주가 대다수를 차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초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농후계자단체나 여성단체, 지자체에서 한국계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 주선하면서 시작된 결혼이주는 1999년에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급증하게 된다. 2000년에 1,385명의 필리핀 여성이 결혼이주한 것을 필두로 태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들로 확대되면서 결혼이주가 본격화된 것이다.⁶⁾

결혼이주의 본격화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민의 단기체류와 관리·통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심은 이주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차세대 구성원을 출생, 가족을 형성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과 그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출발에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된 가족위기, 가족체제 담론이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위기가 곧 전체 사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는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중앙,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정책이 실시되었다.⁷⁾

포함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 5) 법무부,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3.
- 6)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작용: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76~78면.
- 7) 류도향·김청우·강의혁,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지표 제언」,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292면.

이러한 가운데 2006년부터 정부의 이주민정책이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여성가족부⁸⁾가 주무기관이 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8년에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실시되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로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주민과 다문화, 다문화정책을 가시화하였고, 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은 최근 10년 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의 변화이다.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형태에 대한 개별적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의 추이가 하향 정체되면서 다문화가족 관계의 질과 안정적인 가족 구성, 유지를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이 요구되고 이들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예산과 조직의 통합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원화되어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한 후 2016년부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사업 목적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문화가족에게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⁹⁾

2021년에는 ‘가족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8) 여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됨.

9) 박복순 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3면.

발표되고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 북한이탈가족, 입양가족 등이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글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부터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센터의 통합과 통합 이후의 다문화가족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달체계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분석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센터로의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족정책 중심의 통합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구별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간주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적합하다는 정책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둘째는 이주민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정책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이주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다.¹¹⁾ 전달체계의 통합과 분리, 정책적 보편성과 특수성, 다

10) 이승미·송혜림·라휘문·박정윤,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5면; 송혜림·박정윤·진미정·정지영,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49~71면.

11) 김정흔,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한국다문화교육

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둘러싼 이와 같은 정책이념의 차이는 가정학과 이주 연구 등 연구자 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기관 간의 논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정책이념을 아우르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의 분리와 통합 자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¹²⁾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국 가족정책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되고 다문화가족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결혼이주 여성은 가족센터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과 다문화정책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본 글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큰 과제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이다. 서울시는 2014년에 자치구 중 관악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9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가족센터로의 통합을 실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가족센터 최다 이용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과 만족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기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관종사자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각각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연구는 가족센터 통합 이전이거나 통합 진행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통합 초기의 최새은 등의 연구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양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연구의 혼합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 다음과 같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이용자들이 통합 센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프

학회, 2017, 89~124면.

12) 주정,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개편에 관해서」, 『젠더와 문화』 7(2),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14, 245~285면.

로그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다문화가족의 평가가 비다문화가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 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만남의 장으로서 인적 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선점으로는 종사자의 잦은 교체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교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거론되었다.¹³⁾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과 통합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된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의 하나로 위치 지을 수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글은 먼저 최근 10년간 다문화가족의 현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가족센터의 통합 과정과 그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책환경적 맥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3.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2023년 현재 서울 거주 이주민은 약 44만 명, 서울시 인구의 4.7%로 인구 21명 중 1명이 이주민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곳이며, 이 중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는 10%를 상회한다. 이주민 비율 5%가 다문화정책이 적극 도입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때 현재 서울시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다문화가족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2015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의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중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자녀에 대한 각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한다.¹⁴⁾

13) 최재은·김미영·손서희,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통합 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5면.

14)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https://www.mois.go.kr>/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표 1〉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15~202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국인 근로자	102,081	85,878	70,077	80,567	75,322	63,526	49,668	43,667	41,962
결혼 이민자	27,573	33,139	32,061	32,677	33,281	31,661	31,098	31,777	31,675
외국인 주민 자녀	-	30,761	31,052	32,930	36,532	36,336	38,376	39,076	39,729
		① 2,666 ②28,095	① 2,728 ②28,324	① 2,922 ②30,008	① 3,032 ②33,500	① 3,927 ②33,039	① 3,481 ②34,895	① 3,571 ②35,550	① 3,503 ②36,226

출처: 필자 작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¹⁵⁾는 2015년 102,081명에서 2023년에는 41,962명으로, 총 60,119명 감소했으며 비율로는 58.9% 축소됐다. 이는 서울시 주거비용의 폭등과 경기·인천 지역의 신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자¹⁶⁾는 2015년 27,573명에서 2023년 31,675명으로 총 4,102명 증가했으며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팬데믹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혼이민자는 2023년 현재 2,000명대가 넘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외에도 16개 자치구에서 1,000명이 넘는다. 지속적인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외국인주민자녀¹⁷⁾ 현황에 관해서는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와 ‘국내

15)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서 전문인력(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과 단순인력(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을 포함한 것이다.

16)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거주 국민배우자, 영주 국민배우자, 국민배우자, 자녀 양육, 혼인단절, 그 외 체류자격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17) 외국인주민자녀는 한국인과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 및 국적취득자의 자녀로, 국내출생 자녀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구분이 신설되었으며, 0~18세의 국제결혼 초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외국인, 귀화)로 다문화자녀만이 대상

출생자녀'의 구분이 신설된 2016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표 1>의 외국인주민자녀의 ①은 귀화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를, ②는 국내출생 자녀 수를 나타낸다. 외국인주민자녀는 2016년 30,761명에서 2023년 39,729명으로 총 8,968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9.2%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출생아수가 75,536명에서 39,456명으로, 총 36,080명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47.8%였다. 이에 비하면 외국인주민자녀 수의 증가는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도 소폭의 증감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다문화자녀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구성의 다양화일 것이다. 결혼이주가 본격화된지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다문화가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입국 결혼이주자의 감소, 장기 거주 결혼이주자·귀화자의 증가, 결혼이주자의 적응 수준 분화, 학령기 자녀 증가, 한부모 가족 발생, 재혼 가족 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¹⁸⁾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린 시절 모국에서 보내다 한국인과 재혼한 부모의 가족동반으로 입국한 자녀와 국내 출생 이주민 자녀이다. 다문화자녀 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지역 사회와 공교육 현장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가족센터 통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4.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관악구가 최초로 이에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영등포구와 서초구가 추가로 참여했다.¹⁹⁾ 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건강가

이며,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는 제외된다.

18) 이혜림,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2022, 3~4면.

〈표 2〉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현황²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가족센터 통합
2004	용산구		
2005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2006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등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2007	금천구, 서울시(거점 센터)	영등포구, 성북구, 동작구	
2008	강서구, 양천구		
2009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2010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관악구, 구로구	
2011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2012		중구	
2013			
2014			관악구
2015			영등포구, 서초구
2016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종로구
2017			강동구, 동작구, 성북구
2018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2019			광진구, 중구
2022			서울시(거점 센터)

19) 여성가족부,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6, 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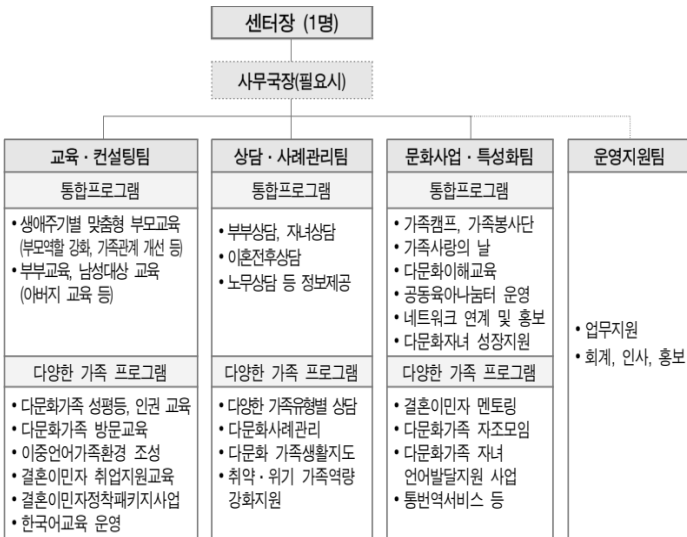
20) 서울시가족센터, 『202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3, 12~13면 자료에서 작성함.

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혼재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9년에 25개 자치구 전체, 2022년에는 서울시 거점센터의 통합으로 100%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족센터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2016년에 통합서비스 개시 때 가족센터 통합 조직의 예시로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림 1] 대상별 분류



[그림 2] 기능별 분류

첫째는 대상별 분류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능별 분류로 다문화가족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²¹⁾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각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5년 5월 기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한 24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은 다문화가족 전담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6곳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 가족서비스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해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별도지원사업(특성화사업)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²²⁾

기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영역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성평등영역프로그램(배우자부부교육 등) ■ 인권영역프로그램(다문화이해교육 등) ■ 사회통합영역프로그램(취업지원, 자조모임 등) ■ 상담영역프로그램(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 홍보 및 자원연계
별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멘토링사업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21) 여성가족부, 2016, 13면.

22) 여성가족부,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114면.

〈표 4〉 가족센터 영역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주요 내용²³⁾

<p>가족 관계</p>	<p>■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성평등, 가족간 성평등 인식고취 등 성평등 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및 인권감수성 교육 등</p> <p>■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업</p> <p>■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정체성·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존 서비스 기관과 연계 등</p>
<p>가족 돌봄</p>	<p>-</p>
<p>가족 생활</p>	<p>■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내·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서비스</p> <p>■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자격증·면허증 반 운영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p> <p>■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기본학습을 지원하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p>
<p>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p>	<p>■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자조모임</p> <p>■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및 성장 지원,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소통을 위한 공간 지원</p> <p>■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한국생활 초기적응이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p> <p>■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지원</p> <p>■ 다(多)함께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공존을 유도</p>

23) 여성가족부, 『2022 가족사업 안내(1)』, 2022, 95~99면에서 작성함.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가족센터 통합과 통합서비스 개시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선 기본사업은 <표 4>에서와 같이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3개 사업영역에 통합되어 실시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되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역할 지원 및 가족상담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혹은 가족특성별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사업이다.

가족돌봄 영역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한부모·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특정 가족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사업,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특정한 서비스 대상에 맞춰진 사업들이 운용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초기정착지원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이음사업, 다(多)함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²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기본사업은 보편적 가족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상기와 같이 4개 분야에 통합, 실시되게 되었다면 별도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통합 이후 별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7년 연간실적보고서에서부터 확인 가능하다. 2017년, 2022년, 2024년 각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별도지원사업 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고선강 외,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51~52면.

〈표 5〉 다문화가족 대상 별도지원사업 영역²⁵⁾

2017	2022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한국어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이중언어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2024년 현재 별도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 교육서비스, 자녀 생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초기지원, 일상생활, 교육지원, 사회생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그리고 이중언어 부모,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지원, 마지막으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사전 교육과정, 총 7개 과정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이다.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책 수요의 다변화와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가 진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이중언어 교육의 중시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센터 통합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원화 되었던 가족정책이 일원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유예가 필요하다. 가족센터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지원사업은 기존의 틀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17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에서 작성함.

〈표 6〉 서울시 가족통합서비스 이용 총수 (2019, 2022~2024)²⁶⁾

(단위: 명)

연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합계
2019	168,976	55,271	48,022	501,905	774,174
2022	196,785	70,560	87,492	666,180	1,021,017
2023	179,007	84,131	120,683	730,881	1,114,702
2024	149,773	275,418	151,896	881,247	1,458,344

이러한 가족센터와 통합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통합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서울시 건강건강가정센터의 사업실적분석보고서부터 가장 최근의 2024년 가족센터의 동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과 2021년은 제외한다.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2019년의 774,174명에서 2024년 1,458,344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분야가 그 밖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 분야에 비해 높은 이용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가 많다는 것으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센터 이용자 중 다문화가족의 이용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기간 3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유형에서는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최다 이용자는 다문화가족이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9년도, 서울시가족센터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에서 작성함.

〈표 7〉 서울시 다문화가족 이용 총수 (2019, 2022~2024)²⁷⁾

(단위: 명)

연도	남성	여성	비구분	합계
2019	20,052	77,399	8,137	83,733
2022	26,268	79,736	10,743	116,747
2023	18,834	60,142	40,353	119,329
2024	53,673	137,814	36,530	228,017

6. 서울시 결혼이주여성 초점집단면접 조사

지금까지 서울시의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센터 통합 시범사업으로부터 10년,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가족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경과했다. 여기서는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 변화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이다. FGI는 면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동질집단의 경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²⁸⁾ FGI에서는 우선 결혼이주 선택 이유와 가족 구성, 그리고 생활에서 어려운 점, 가족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통합된 후의 변화, 그리고 가족센터에 바라는 점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결혼이주여성 간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따라 질문을 조정하며 진행했다.

초점집단은 가족센터 통합 이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이후의 가족센터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고,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명과 가족센터만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27)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9년도, 서울시가족센터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에서 작성함.

28) 서경혜, 『질적연구입문』, 학지사, 2024, 176~177면.

〈표 8〉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출신 국가	서울 거주 기간	자녀	국적
참여자 1	일본	21년	1명	일본
참여자 2	캄보디아	12년	2명	한국
참여자 3	베트남	3년	-	베트남
참여자 4	베트남	15년	2명	한국
참여자 5	몽골	20년	2명	한국

출처: 필자 작성

FGI 참여자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은 서울시 A가족센터의 추천을 통해 FGI에 참여했고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FGI는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에 익숙한 공간인 가족센터에서 2025년 10월 17일에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됐고 녹취한 내용은 그대로 전사하여 자료화하여 분석에 활용됐다. FGI에 앞서 본 조사는 생명윤리심의를 완료했으며 참여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그리고 원치 않을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

우선 결혼이주 선택 이유 및 가족 구성에서 서울시 거주 3년차인 참여자3을 제외하고는 참여자 모두 유자녀였다. 자녀 수는 1명이 1인, 2명이 3인이었고, 자녀는 학령기 아동과 중고교 학생에서 성인까지 다양했다. 장기 거주 자일수록 20대 초반에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연령 차가 큰 한국 남성과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는데 한국 드라마나 k-pop, 겨울에 내리는 눈 등 한국의 사계절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이주를 결정했다.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이주 선택의 배경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간 세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큰 이유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가족 생계에 너무 어려워서 한국 이미지 드라마나 그런 거 보고, ‘한국 너무

잘 살고 있다. 내가 그쪽에 시집가면 내가 또 잘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동네에서 산 언니가 한국 먼저 시집 왔어요. 왔는데 애기 한 명 놓고 고향으로 놀러 간 거예요. 언니 잘 사는 모습 보고 저도 결심했어요. 한국은 괜찮다. 한국 국제 결혼은 사기 아니다. 그런 그리고 저도 K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한국 한국에서 너무 드라마도 너무 좋았고 저는 장금이 때 봤고 드림 하이도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눈, 저희 나라는 다 여름이 완전 더 눈 구경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눈 진짜 만지고 싶고 구경하고 싶다. 해서 한국 결혼해도 괜찮다. 결심했어요.”(참여자 2)

“지인 소개로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27살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앨범 그런 거 관심이 많아서. 한국 남자도 드라마 나오는 남자 잘생기고, 한국의 날씨가 사계절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사계절 없어서, 눈 그런 거 많이 좋아해서.”(참여자 3)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공통적으로 언어문제, 시어머니와 남편 등과의 가족관계, 그리고 육아 방식과 음식 등의 문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언어.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생활 속에서는 괜찮아요. 간섭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아이 키우는 방법과 불편하고 하는 게 차이는 있어요. 시어머니 손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애기 아프면 감기약이라 이렇게 먹이래요. 집에서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서 진료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참여자 4)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아듣기 좀 힘들고, 왜냐하면요 한국어 발음은 어려워요. 제가 살면서 어려움은 좀 없고, 그런데 하나는 있는데, 남편은 맨날 여행할 때마다 둘이 가고 싶는데 맨날 자기 가족을 같이 다녀서 엄청 힘들어요. 그런 점이 너무 힘들고, 한국 사람이랑 저랑 음식 좀 차이, 남편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 나도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싶는데.”(참여자 3)

“음식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주식을 해서 먹는 거 제일 힘들었어. 음식이. 우리는 또 돼지고기 잘 안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깐, 그게 너무 심하고 양고기랑 소고기를 먹어보고 싶은데 소고기 비싸더라고요. 여기 와서 생각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생각하는 것도 엄청 많구나.’ 처음 힘들지만, 지금 제가 참고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힘든 거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 저 10년 동안 엄청 1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참여자 5)

“우리 남편 얘기 올면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남편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건 제일 힘들어요. 신랑이 진짜로 잘 도와주지도 않고, 한국에서 모든 생활 다 제가 다 해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제가 다 해요.”(참여자 2)

“제가 아이한테 일본어를 대화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없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엄마 언어를, 일본어 하면 아이가 말이 늦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이중언어로 하면 좋은데’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참여자 1)

다음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언어발달지도, 취학이나 입학 설명 프로그램, 상담, 한국어 수업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기초 수업에 비해 심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적은 것, 강사의 역량이 높지 않은 것,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하지 못한 것, 취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지 않고 적은 것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출신국 언어에 따라 정보접근이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글 입문인데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담당 선생님은 엄청 가르쳐 줘도 잘 집중 안 해서 그런가 따라 못하고, 그런 거는 보조 선생님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처음에는 좀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서 그 한글말도 되게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점점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선생님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알고 싶은데, 선생님이 좀, 그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거 실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좋은 선생님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 찾아 가서 수업 듣고.”(참여자 1)

“저 캄보디아 사람이잖아요. 여기 통번역 선생님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베트남, 중국 그리고 여기 몽골도 있고, 그 나라 선생님 잘 전달해요. 그런데 저는 저 캄보디아 여기 선생님 안 계시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 못 받아요. 그런데 문자 오긴 와요. 사람 별로 참석하지 않은 프로그램 문자 와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거 이중언어. 이중언어 그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저한테 안 맞아요.”(참여자 2)

“담당 선생님이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면 되잖아요. 저는 오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귀찮아요. 안 들어가 봐요. 또 들어가면 로그인해야 돼요. 까먹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문자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그 회원한테. 왜냐하면, 딱 좋은 프로그램은 다 찾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선생님 안 계시니까 못 받아요.”(참여자 2)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식당 가서 설거지 밖에 없어. 자격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았으면 좋겠다. 자유시간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돈은 벌어야 되고 밤에 5시간 정도면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참여자 5)

“컴퓨터 수업 좀 많이 늘리면 좋겠어요. 오전 오후 다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다문화가족센터의 가족센터 통합 후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나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감소 등은 없으며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로 구분 지워지지 않고 모든 자녀, 가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별이나 배제되지 않고, 다문화가족만 특별 대우 받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비다문화가족과 어울리면서 육아, 교육, 각종 행정서비스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 교육과 남편과의 관계 등 비다문화가족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문제나 겪고 있는 곤란을 보편적인 삶의 문제, 젠더 문제로 상대화하게 되고 생활에 대한 긍정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처럼 되고,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있으면 자꾸 따로 따로 마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외국인들은 또 배우고 할 거 가니까.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해서 어울리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5)

“한국 엄마 오면은 우리 정보도 알려주시고, 아이 교육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좋아요. 저는 한국 아이 엄마가 학교 갔을 때 만나게 되는데 아이 엄마랑 얘기 기다리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있다. 여기 수영이 좋아요. 아이 수영시키면 좋다.’ 저한테 소개해주셨어요. 같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 서로 만나고 ‘어디서 살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서로 아이 공부 얘기하면서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참여자 2)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외국 사람인데 힘든거 있지만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한국 사람들 힘든 사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아 아이 들한테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더 많아요. 욕심이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때부터 놀면서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엄

마들은 아침부터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이렇게 너무 많이 시켜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이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힘들다. 그런 소리 들어서 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공부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생각이랑 외국 엄마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공부.”(참여자 4)

“저는 무슨 프로그램 참석한다’ 하는데, 한국 엄마가 ‘부럽다. 한국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 받을 수 없어서 외국 사람만 지원해 주니까’ 해요.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깝다고 한국 사람이 우리 샘플까 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 다 뺏아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되니까 좋은 프로그램 다 같이 하고 저랑 제 아이랑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그런 차별 없이 다문화하고 한국하고 분리되지 않아서 좋아요.”(참여자 2)

“통합돼서 좋았어요. 외국인 애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문화가족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갔더니, 우리 애는 혼자서 다른 애들은 딱 모아 갖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제일 마음이 아프고 울고.”(참여자 2)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가족센터에 바라는 점은 취업 관련 사항이 많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외국인, 다문화, 한국인 구별 없이 국적에 관계 없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지원할 때 그 토픽 자격증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토픽 6급 땀는데 또 이렇게 2년 만기, 2년 또 시험 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신청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3일 정도 신청하는 기간인데 아침부터 기다리고, 컴퓨터 잘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토픽 기간 만기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취업 못 해요. 고 시기를 놓치면 2년 지났으면 토픽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료도 비싸요. 요즘 컴퓨

터도 이렇게 시험 보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아요. 한 10만 얼마, 8만 얼마 그렇게.”(참여자 4)

“전에 제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봤거든요. 그 합격했는데요. 관광통역안내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바로 다시 시험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은 너무해요”(참여자 3)

“저도 다문화강사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이음강사 활동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게 저도 속상했는데. 다른 직업을 지금 공부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를 원하는 데가 없어지나요?”(참여자 4)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그런 게 해결되면 좋겠다.”(참여자 1)

“저는 수업 끝나면 자격증 만들자마자 취업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저는 심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우울증으로 병원도 많이 다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상담하고 제가 마음속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엄청 도움이 돼요. 요가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아프다는 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서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5)

“다문화 혜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고 바꾸지 않은 사람은 대상 안되는 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참여자 1)”

“글로벌쪽으로 그 가족이나 다 같이 글로벌로 같은 혜택이나(참여자 4)”

6. 나가며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 시행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주요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센터 통합과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전달체계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센터 통합 이후 이용상의 불편이나 지원 축소를 크게 체감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별도로 분리되어 ‘다문화’로 규정되며 경험하던 낙인과 거리감이 완화되고, 비다문화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감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통합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인 부모들과의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개인의 어려움을 ‘다문화’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보편적 삶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자긍감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입학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등 자녀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서적 상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나, 한국어 심화과정의 부족, 강사 역량의 편차,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가 개선 과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출신국 통번역 인력의 유무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달라지며 지원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관련 자격·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센터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을 포

용하고 2006년 이래 목표로 설정했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본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는 가족센터의 최다 이용자는 여전히 다문화가족이고, 가족통합서비스의 많은 시책들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별도 예산의 별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다. 가족통합서비스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이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통합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다문화가족 기본사업이 기존의 방식 그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유형별로 분리, 분단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프로그램에 진입 장벽은 없는지 가족센터의 가족통합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는 다양화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맞춰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획일적이고 전국 단일의 정책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족정책에 포괄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자녀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일몰사업과 강화사업에 대한 검토, 지역특성화사업의 자율성 증진 등이 고안되어야 한다.

셋째는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연간 사업결과보고서에 있어서는 통합 이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당시의 사업 분류로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의 이용자 수, 그리고 가족유형별 이용자 수만 제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삶터이자 일터인 지역에서 실제 다문화가족정책이 보편적 가족정책에 어떻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와 실태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고선강 외,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 김정훈,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89-124면.
- 류도향·김청우·강의혁,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지표 제언」,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289-309면.
- 박민정 외,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2022.
- 박복순 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송혜림·박정윤·진미정·정지영,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49-71면.
- 서경혜, 『질적연구입문』, 학지사, 2024.
- 서울시가족센터, 『202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3.
- _____, 『2023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4.
- _____, 『2024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5.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9 서울시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0.
- 여성가족부,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6.
- _____,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 _____, 『2022 가족사업 안내(1)』, 2022.
- 이승미·송혜림·라휘문·박정윤,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6면.
- 이혜림,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2022.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68-103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18.

_____,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3.

_____, 『20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4.

_____, 『20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5.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4, 2024.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5>.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6>.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7>.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8>.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9>.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0>.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1>.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2>.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3>.

| Abstract |

A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Perceptions of the Integration of Seoul's Family Centers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Lee, Jiyoung

This paper examines how marriage migrant women—the primary beneficiarie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perceive the integration of Family Centers and the resulting shifts in multicultural policy, roughly a decade after the integration was implemented, using Seoul as a case study. The findings indicate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integrated Family Centers. In particular, they positively evaluate the reduced sense of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being labeled “multicultural” while participating in programs alongside non-multicultural families. Program satisfaction is high for child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school admission information provision, counseling, emotional counseling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key areas for improvement include the lack of advanced Korean courses, uneven instructor capacity, limited program diversity, and disparities in information access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interpretation/translation staff for women's countries of origin. Participants also call for expanded self-reliance support—such as employment-related certifications and digital competency training—along with less stringent eligibility screening based on nationality and more universal services encompassing migrants more broadly. Overall, the study suggests that Family Center integration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social integr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by alleviating stigma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hile highlighting the need for ongoing monitoring of regional patterns of service use and satisfaction, strengthened support that combines universal provision with targeted responses to specific needs, and improv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atistical systems that more accurately reflect integrated operation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marriage migrant women, social integration, Family Centers, migrant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이희정**

목 차

-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논의 | 5. 결론 |
| 3.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잘 드러나는 플랫폼의 특성에 주목해 플랫폼의 행위자 중 하나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6차 자료와 21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기반궤적분석을 통해 동태적 이행 경로를 추적하고 다항로지트회귀분석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첫째, 플랫폼 노동이 전일제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보이고,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의 디딤돌 또는 함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자율성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정기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공유경제, 행위자, 노동시장 이행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0405).

** 국립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1. 서론

아마존, 알파벳, 메타,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플랫폼이 사회의 전 영역에 깊이 스며 들어 있다. 플랫폼이 인간이나 사물을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빠르고 쉽게 연결해 주는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 여가, 소비, 교육, 금융, 교통, 문화 등과 같은 우리 일상의 양식과 상호작용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출현하여 소규모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던 공유(sharing)를 느슨한 디지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확장시키고 있다.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우버 운전기사 등과 같이 플랫폼의 행위자 중 하나인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2016년 미국인의 8%에서 2021년엔 16%로 증가하였다.¹⁾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도 2021년 66.1만 명에서 2023년 88.3만 명으로 늘어났다.²⁾ 급속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와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유연하지만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는 디딤돌(steping stone)로 작용하는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불안정한 노동으로 고착되는 함정(entrapment)으로 기능하는 디스토피아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완한다. 기존 연구는 주된 관심을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부족 등과 같은 노동자의 취약성에 두고³⁾ 특정 시점의 플랫폼 노동 실태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

1) Pew Research Center, 『Gig work, Online Selling and Home Sharing』, November 2016. Pew Research Center, 『The State of Gig Work in 2021』, December 2021.

2)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8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보도자료, 2024. 8.6.

3) 정인관,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고용 및 일의 세계 변화」, 『한국의

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을 일시적으로 선택하고 단기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⁴⁾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50.5%가 플랫폼 노동에서 이직을 희망하고 이들 중 49.6%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기를 원한다고 조사되었다.⁵⁾ 또한 플랫폼 노동의 반복적이고 파편화된 작업,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중간 지대로서 비정형적이고 비연속적인 노동 등의 특성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노동 경력 등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실질적인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동태적인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추적한다.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행을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보는 접근법과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보는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행 사건 중심의 접근법은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이나 미취업으로 전환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상태 변화 여부, 변화 시기, 결정요인 등을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다양한 양태와 노동자 집단 내 이행의 차별화 양상을 포착해 내기 어렵다. 반면에 이행 과정 중심의 접근법은 플랫폼 노동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혹은 플랫폼 노동에 고착되거나 미취업으로 이탈하는 함정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선형적이고 다양한 이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 집단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노동자들의 플랫폼 노동 경험이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다.⁶⁾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동 동기가 다양하고 플랫폼에 대한 종속 수준, 특히 경제적 의존성이 노동자 집단 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⁷⁾ 노동자

사회동향 2022』, 통계청, 2022, 174면.

- 4) Newlands, G., 「'This isn't forever for me': Perceived employability and migrant gig work in Norway and Sweden」,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2024, 56(4), p.1263.
- 5) 박보람·김준영·김태환 외,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23, 72~73면.
- 6)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Dependence and precarity in the platform economy」, 『Theory and society』, 2020, 49(5), p.833.
- 7) *ibid.*, p.838.

간 상이한 플랫폼 종속 수준은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적 의존성이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2. 이론적 논의

1) 플랫폼 노동 연구

플랫폼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⁸⁾ 플랫폼의 특성은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잘 드러난다.⁹⁾ 공유경제 플랫폼은 자원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알고리즘을 통해 자원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연결해 준다. 자원 제공자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자신의 생산 도구를 사용하고 운영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작업 일정과 자율성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게 된다. 사용자는 줄어든 거래비용으로 원하는 자원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자원의 소유를 넘어선 접근(access)을 통해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플랫폼 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서 잘 확인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 중 플랫폼 기업 수가 2008년 1개에서 2018년에는 7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재화, 콘텐츠, 정보의 증가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의 확대로 이어졌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의 정의 역시 다양하다.¹¹⁾ OECD는 앱이나 웹사

8) Eurofound, 『Automation, digitalisation and platforms: Implications for work and employ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p.19. 장지연·이호근·조임영 외,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2면.

9) 이재열, 「플랫폼 사회, 코로나19가 재촉한 변화와 대응」, 이재열 편,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 2021, 21면.

10) Schenker, J. L., 「The Platform Economy」, 『Medium』, January 19, 2019.

11)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논의는 장지연·이호근·조임영 외, 2020, 8~19면.

이트를 매개로 거래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용역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노동이라고 규정한다.¹²⁾ EU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디지털 방식으로 용역 제공자와 이용자 간 매개되며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결제가 수행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한다.¹³⁾ 한국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이라고 설명한다.¹⁴⁾ 플랫폼 노동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4천8백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년에는 1억 5천4백만 명에서 4억 3천5백만 명 수준에 달한다고 추산되고 있다.¹⁵⁾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급증은 학계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플랫폼 노동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0.5~10.0% 수준에 불과하지만¹⁶⁾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고 그 영향력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중층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¹⁷⁾

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 플랫폼 노동의 일자리, 소득, 노동조건 등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안정망 등의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 플랫폼 노동의 고용 지위 분류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과 규율 방안을 고찰하는 연구,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에 대한 알고리즘 방식의 관리와 통제를 분석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¹⁸⁾ 이들 연구는 플랫폼 노

박보람·김준영·김태환 외, 2023, 11~20면, 참조.

12) OECD,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OECD Publishing, 2019, p.14.

13) Urzi Brancati, C., Pesole, A. and Fernandez-Macias, E., 『New evidence on platform worker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0, p.14.

14) 장지연·이호근·조임영 외, 2020, 9면. 이는 협의의 플랫폼 노동 정의이며 광의의 플랫폼 노동은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어플)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여부로 정의되기도 한다. 김준영·장재호·김강호·박상현, 2021, 16면, 참조.

15) Datta, N., Chen, R., Singh, S., et al., 『Working without Borders: The Promise and Peril of Online Gig Work』, World Bank, 2023, p.19.

16) 박보람·김준영·김태환 외, 2023, 21면.

17) 장지연·이호근·조임영 외, 2020, 2~3면.

18)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동의 실태와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한계와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선행 연구가 플랫폼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은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우려로 양분된다. 유토피아적 관점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거의 모든 사람에게 노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 언제, 얼마나 자주 일할지에 대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¹⁹⁾ 반면에 디스토피아적 관점은 플랫폼 노동이 일자리, 소득, 노동조건 등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노동과정에 대한 알고리즘 방식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약탈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²⁰⁾

흥미로운 점은 상반된 두 관점에 따른 연구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특정 시점에서 정태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태적인 접근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노동 경력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탐색하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경계에 위치한 비정형적·비연속적 노동이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은 작업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노동자에게 배분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노동을 단순·반복적이며 고도로 파편화된 형태로 조직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경력의 연속성에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잠재적 요인이다. 이를테면 일시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노동이 소득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steping stone)일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저숙련 플랫폼 노동은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에 장기간 머물거나 실

2020, 125, 300~302면. 이승운·백승호·남재욱,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산업노동연구』, 2020, 26(2), 79면. 방미현·이영민, 「플랫폼노동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21(3), 430~440면.

19) Sundararajan, A.,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IT Press, 2016.

20) Ravenelle, A. J., 『Hustle and gig: Struggling and surviving in the sharing econom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업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함정(entrapment)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질적인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해외 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 인식 연구,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노동시장 이행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 경험 이력서의 반응을 실험을 통해 플랫폼 노동 경험이 전통적인 노동 경험보다 유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연구²¹⁾, 가사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디딤돌로 인식하지 않음을 밝힌 분석²²⁾, 플랫폼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플랫폼 노동이 장기적으로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됨을 발견한 연구²³⁾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칠레의 국가고용조사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플랫폼 노동, 전통적 노동, 실업 간의 전환 확률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노동이 일반적으로 과도기적 일자리이지만 비공식 일자리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여 머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²⁴⁾ 국내 학계에서도 일부 연구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하지만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경력을 분석하여 플랫폼 노동 결정요인을 탐색하거나 미래 진로 계획과 희망 근로 조건을 설문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국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해외 연구들도 노동 상태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행 사건 중심의 분석이라는 한계를

21) Adermon, A., and Hensvik, L., 「Gig-jobs: stepping stones or dead ends?」, 『Labour Economics』, 2022, 76, 102171.

22) Floros, K., and Galis, V., 「Platform Labour as a Stepping Stone? Challenging the Dominant Narrative for Danish Housecleaning Platforms」, 『Critical Sociology』, 2024.

23) Lam L. and Triandafyllidou A., 「An unlikely stepping stone? Exploring how platform work shapes newcomer migrant integration」, 『Transitions: Journal of Transient Migration』, 2021, 5(1), pp.11~29.

24) Fuentes, A., and Gonzalez, R., 「Transitions into and out of the gig econom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25.

25) 신인철, 「플랫폼노동은 새로운 일자리인가: 플랫폼노동의 일자리 특성과 생애 직업력 분석」, 『KLI패널 워킹페이퍼』, 2022(7), 한국노동연구원, 2022. 민순홍, 『플랫폼 노동 선택의 결정 요인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 이동 경로 분석』, 산업연구원, 2023.

보인다. 이에 다양한 이행 궤적을 포착해 내고 노동자 집단 내 차별화된 이행 양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결정 요인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디딤돌로 작용할지 아니면 함정으로 기능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교육, 훈련, 경험 등의 인적자본은 생산성과 임금을 결정하고 높은 인적자본이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비정형적·비연속적 노동이므로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어렵고 플랫폼이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유인도 부족하다.²⁶⁾ 이에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력, 경력, 인종 등의 신호를 근거로 고용과 임금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의 낮은 진입장벽과 비대면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²⁷⁾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관리, 비정형적·비연속적인 노동 등의 특성은 고객 평점이나 후기와 같은 플랫폼 특유의 디지털 신호가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 유효한 신호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은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갖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을 지닌 2차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고 두 시장 간 이동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고

26) 민순홍, 2023, 16면. Fuentes, A., and Gonzalez, R., 2025, p.3. Wood, A. J., Graham, M., Lehdonvirta, V., and Hjorth, I., 「Good Gig, Bad Gig: Autonomy and Algorithmic Control in the Global Gig Econom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19, 33(1), p.59.

27) Gussek, L., and Wiesche, M., 「IT Professionals in the Gig Economy」,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2023, 65(5), p.558.

용 불안정성이 내재된 플랫폼 노동의 경력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을 촉진하기보다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으로의 고착을 초래할 수 있다.²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또 다른 경제학적 관점 중의 하나는 플랫폼 노동의 효율성과 기회를 강조한다.²⁹⁾ 낮은 노동 진입장벽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새로운 노동 기회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노동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과 자율성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반복적인 진입과 이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단순한 선형적인 경로보다는 복잡한 비선형적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들은 학력, 노동 경력, 자율성 등의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경험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노동자 간 이질성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일부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질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⁰⁾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허용함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지닌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자 간 플랫폼 종속성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자원과 생계의 의존도에 따라 플랫폼 의존 수준이 달라지고, 이는 노동자가 언제, 어디서 일하며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7개 플랫폼 노동자 1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의존성이 낮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조건을 누리지만, 의존성이 높은 노동자는 노동 불안정성과 함께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8) Cieslik, J., and van Stel, A., 「Solo selfemployment-Key policy challeng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8(3), 2024, p.763.

29)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2020, p.835.

30) *ibid.*, p.835.

연구문제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차별화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플랫폼 노동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의 디딤돌인가? 아니면 불안정한 일자리의 함정인가?

연구문제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노동자의 경제적 의존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3.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차~26차 조사자료와 21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1차 부가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이들의 노동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차 부가조사 자료로 분석대상을 선별하고 기본조사와 직업력 자료를 토대로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추적하고,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일자리 특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플랫폼 노동자이다. 노동패널조사에는 협의의 플랫폼 노동을 식별하는 문항³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 연구의 기준³²⁾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를 선별한다. 구체적으로는 21차 부가조사 응답자 중에서 명백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가 아니고, ‘고객이나 일감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나 핸드폰, PDA 등의 기기를 이용’하며, 상품의 생산·판매나 자산 임대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장소가 ‘내 점포(사무소)’, ‘내 집’, ‘고객이 있는 곳’이라고 대답한 노동자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주요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356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1) 협의의 플랫폼 노동의 식별 조건은 “①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이 서비스나 가상재화일 것 ②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할 것 ③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보수)를 중개함 ④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일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함”이다. 장지연·정민주, 2019, 8면, 참조.

32) 김윤중·백준봉·이재홍,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 연구-이론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2020, 47면. 신인철, 2022, 5면.

〈표 1〉 분석 대상 주요 특성

(단위: %)

		플랫폼 노동 진입 시기				계
		1998 ~2000	2001 ~2006	2007 ~2012	2013 ~2018	
계		7.3	16.3	23.6	52.8	100.0
성별	남성	73.1	60.3	72.6	60.1	64.0
	여성	26.9	39.7	27.4	39.9	36.0
연령	34세 이하	0.0	0.0	6.0	11.7	7.6
	35~44세	3.8	15.5	25.0	33.5	26.4
	45~54세	38.5	39.7	40.5	30.9	35.1
	55~64세	38.5	32.8	17.9	19.7	22.8
	65세 이상	19.2	12.1	10.7	4.3	8.1
일 평균 근로 시간	4시간 미만	3.8	5.2	6.0	6.9	6.2
	4~8시간 미만	11.5	20.7	20.2	21.8	20.5
	8~10시간 미만	61.5	43.1	36.9	41.5	42.1
	10시간이상	23.1	31.0	36.9	29.8	31.2
연간 개인 소득	2000만원 미만	19.2	32.8	35.7	30.3	31.2
	2000~4000만원 미만	34.6	34.5	31.0	42.0	37.6
	4000~6000만원 미만	30.8	12.1	16.7	12.8	14.9
	6000만원 이상	15.4	20.7	16.7	14.9	16.3
노동 지위	상용·고용 자영업	34.6	24.1	22.6	29.3	27.2
	임시·일용·1인 자영업	65.4	75.9	77.4	70.7	72.8

이들의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다. 플랫폼 노동 조사 시점이 2018년인 점을 고려해 플랫폼 노동의 진입 시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추세가 확인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연도별 진입 비중이 2001~2006년 16.3%에서 2013~2018년 52.8%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64.0%)이 큰 남성 노동자는 2007년부터 플랫폼 노동 참여가 늘어난 반면에, 여성 노동자는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5~54세 집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집단이 35~44세이며, 두 집단에 속한 노동자가 61.5%에 달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45세 이상 집단이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였다면, 점차 진입 연령대가 40대와 30대로 하락하고 최근 들어 34세 이하 청년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8시간 미만 종사하는 노동자가 26.7%에 달하지만 8~10시간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42.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시간 이상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31.2%)도 많다.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31.2%로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후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노동패널조사의 비(非)플랫폼 노동자의 해당 비중(29.4%)보다 소폭 크다. 상용임금·종업원 고용 자영업자의 비중이 27.2%로 최근 들어 약 30%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노동패널조사의 비(非)플랫폼 노동자의 해당 비중(58.3%)보다 크게 낮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 노동시장 이행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항로지트회귀 분석을 시행한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변화 궤적의 상이한 유형을 식별하고 각 유형 내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³³⁾ 동태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배열분석과 유사하지만,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하여 변화 궤적 형태와 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 절차는 이행 과정의 측정, 최적의 이행 궤적 도출, 이행 과정의 특성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행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분석단위 시점별 이행 상태를 노동 안정성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안정성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종사자 지위와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한다.³⁴⁾ 종사자 지위 차원

33) Nagin, D. S.,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999, 4(2), p.139.

34)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2017, 54, 500~501면. 변금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학』, 2018, 70(3), 121~122면.

에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은 미취업 상태로, 임시·일용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는 불안정 고용 상태로, 상용 임금근로자와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안정 고용 상태로 분류한다. 임금 차원에서는 연도별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중위임금 수준³⁵⁾과 비교하고, 중위임금의 2/3미만인 저임금, 중위임금의 2/3 이상 중위임금 미만인 중간임금, 중위임금 이상인 고임금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종사자 지위 차원과 임금 차원을 교차함으로써 분석단위 시점의 노동 안정성을 미취업, 저임금 불안정 고용, 중간임금 불안정 고용, 고임금 불안정 고용, 고임금 안정 고용으로 분류한다. 노동 안정성은 1차~26차 노동패널조사 기간인 312개월을 대상으로 월 단위로 측정하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측정은 플랫폼 노동 진입 시점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이행 궤적 함수와 궤적 유형 수를 다르게 설정하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최적의 모형을 선정한다. 이행 궤적 함수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로 설정한다. 이행 궤적의 복잡성과 312개월의 장기 분석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선행 연구의 기준을 원용해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절댓값이 낮을수록, 베이지 요인(Bayes factor) 제곱의 자연로그값($2\log_e(B_{10})$)이 6 이상일 경우, 집단 분류율이 5% 이상일 경우 그리고 효율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할수록 적합하다고 평가한다.³⁶⁾ 마지막으로 선정된 최적의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이행의 차별화 양상을 탐색한다. 다항로지회귀분석은 인구학적 요인, 가구 배경 요인, 일자리 요인 등을 통제하고, 플랫폼 노동 요인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자율성을 포함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35) 중위임금은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임금·비임금근로자 소득의 중위값으로 산출한다.

36) Jones, B. L., Nagin, D. S., and Roeder, K.,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01, 29(3), pp.389~390.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and Tremblay, R. 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018, 27(7), p.2019.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이다. 집단기반 궤적분석으로 이행 궤적을 식별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도출된다. 독립변수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등의 인구학적 변수, 고교 이하 자녀 가구 여부, 가구 자산, 가구 부채,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의 가구 배경 변수, 플랫폼 노동 진입 이전의 일자리 수와 2018년 플랫폼의 종사 기간 등의 노동 경력 변수, 일평균 근무시간, 직무만족도, 직업 종류 등의 일자리 변수³⁷⁾, 경제적 의존성, 자율성, 플랫폼 노동 유형 등의 플랫폼 노동 변수 등으로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의 경제적 의존성은 플랫폼 노동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³⁸⁾하고, 자율성은 “일자리의 일하는 방법,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플랫폼 노동 유형은 일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내 점포(사무소)’ 또는 ‘내 집’이라고 답한 ‘웹 기반 플랫폼 노동’과 ‘고객이 있는 곳’이라고 답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나눈다.

4. 분석 결과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분석

① 노동시장 이행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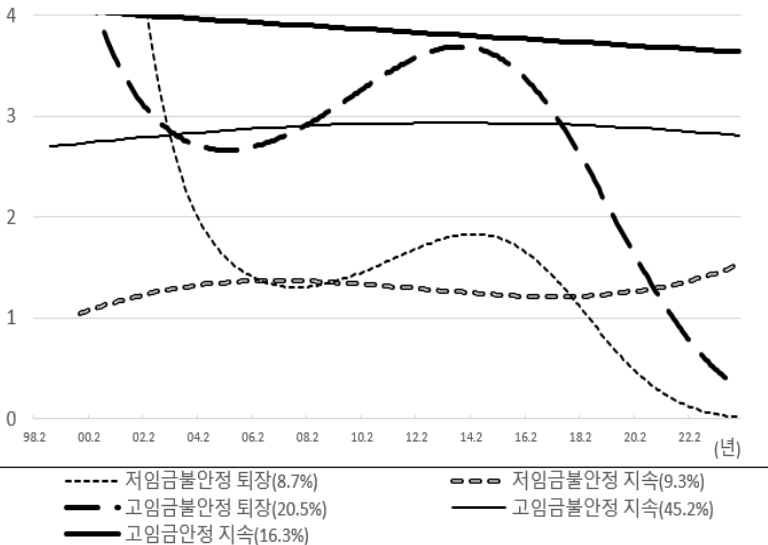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식별하는 모형별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최적의 분석 모형은 5개 궤적을 3차, 3차, 3차, 2차, 1차 함수로 추정한 모형으로 결정한다. 궤적 수가 증가할수록 BIC 절댓값이 감소하고 $2\log_c(B_{10})$ 도 6 이상이지만, 6개 궤적에서 집단 분류율이 5% 미만인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7) 일자리 특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태·안준홍, 2023, 62면 참조), 첫 직장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남재욱, 2021, 141면 참조)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

38)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2020, p.841.

〈표 2〉 모형적합도

궤적수	함수식	BIC	2log _e (B ₁₀)	집단 분류율(%)					
				1	2	3	4	5	6
1	3	-91923.1		100					
2	31	-84866.1	7056.97	31.7	68.3				
3	331	-82512.7	2353.40	14.6	23.6	61.8			
4	3331	-81833.4	679.33	14.3	23.3	45.8	16.6		
5	33331	-81054.9	778.49	8.7	9.3	20.5	45.2	16.3	
5	33321	-81052.0	781.39	8.7	9.3	20.5	45.2	16.3	
6	333321	-80880.9	171.09	9.3	4.8	8.7	20.5	40.5	16.3



[그림 1] 플랫폼 노동자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궤적

5개 유형의 이행 궤적은 [그림 1]과 같다. Y축은 노동 안정성으로 0은 미취업, 1은 저임금 불안정, 2는 중간임금 불안정, 3은 고임금 불안정, 4는 고임금 안정을 뜻한다. 5개 유형은 저임금 불안정 상태로 급격히 하락한 후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저임금불안정 퇴장형’, 저임금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불안정 지속형’, 안정성의 하락과 상승을 보이다가 고임금의 고용불안정 상태를 거쳐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고임금불안정 퇴장형’, 고임금의 고용불안정이 유지되는 ‘고임금불안정 지속형’, 안정성이 점차 하락하지만 고임금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고임금안정 지속형’으로 각각 명명한다.

②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특성

노동시장 이행의 차별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5개 이행 유형별 특성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가장 많은 플랫폼 노동자(45.22%)가 속해 있는 유형은 ‘고임금불안정 지속형’이다. 고임금의 임시직·일용직·1인 자영업 상태 비중이 전체 기간 중 43.91%를 차지하고, 2018년 플랫폼 노동 당시와 2023년 현재도 각각 77.02%, 67.70%로 현저히 높다. 남성이 많고(67.70%), 평균 연령(47.36세)도 낮으며, 고졸 이하 학력이 가장 많다(61.49%). 상대적으로 결혼과 고교 이하 자녀 가구 비율이 높고,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배경이 양호하다. 이전 일자리 수가 3.2개로 가장 많은 이직 경험을 보이고, 운송배달·노무업 종사 비율(37.89%)이 높다. 이처럼 이 유형은 낮은 학력 수준과 빈번한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임시직·일용직·1인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은(20.51%) ‘고임금불안정 퇴장형’은 플랫폼 노동 당시에는 고임금의 임시직·일용직·1인 자영업 상태(58.90%)와 고임금의 상용직·고용 자영업 상태(28.77%)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 현재 미취업(65.75%)과 저임금의 불안정 상태(32.88%)로 이행한 집단이다. 남성(64.38%)이 많고, 대졸이상 학력(39.73%) 비중도 큰 편이다. 플랫폼 노동 당시 상대적으로 근무시간(8.58시간)이 길고 전문사무직 비율도 높은 집단이다.

16.29%의 노동자가 속한 ‘고임금안정 지속형’은 전체 기간, 플랫폼 노동 당시, 2023년 현재 모두 고임금의 상용직·고용 자영업 상태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이다. 여성(25.86%)과 고졸 이하 (39.66%) 비율이 가장 낮다. 결혼과 고교 이하 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배경이 가장 양호하다. 플랫폼 노동 당시 종사 기간이 가장 길고(151.9개월), 자율성이 가장 크며, 전문사무직 비중(55.17%)이 가장 많다. 이처럼 고학력과

〈표 3〉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주요 특징

		저임금 불안정 퇴장형	저임금 불안정 지속형	고임금 불안정 퇴장형	고임금 불안정 지속형	고임금 안정 지속형
관측값 수		8.71	9.27	20.51	45.22	16.29
안정성 비중	미취업	39.24	18.18	29.84	11.90	7.76
	저임금불안정	31.65	37.50	19.90	20.40	12.07
	중간임금불안정	2.53	4.55	2.09	2.55	4.31
	고임금불안정	17.72	27.27	29.84	43.91	25.86
	고임금안정	8.86	12.50	18.32	21.25	50.00
18년 플랫폼 안정성	저임금불안정	48.39	84.85	10.96	11.18	3.45
	중간임금불안정	0.00	3.03	1.37	0.62	0.00
	고임금불안정	35.48	12.12	58.90	77.02	20.69
	고임금안정	16.13	0.00	28.77	11.18	75.86
23년 안정성	미취업	83.87	24.24	65.75	6.21	3.45
	저임금불안정	16.13	39.39	32.88	8.07	3.45
	중간임금불안정	0.00	0.00	0.00	0.00	0.00
	고임금불안정	0.00	24.24	1.37	67.70	22.41
	고임금안정	0.00	12.12	0.00	18.01	70.69
여성		38.71	69.70	35.62	32.30	25.86
연령 ¹⁾		57.10	51.18	50.41	47.36	46.79
학력	고졸이하	64.52	54.55	49.32	61.49	39.66
	전문대졸	3.23	12.12	10.96	12.42	22.41
	대졸이상	32.26	33.33	39.73	26.09	37.93
결혼		70.97	69.70	75.34	79.50	87.93
고교 이하 자녀 가구		25.81	30.30	32.88	49.69	53.45
수도권 거주		58.06	66.67	50.68	59.63	56.90
개인 소득 ²⁾		17.35	12.02	34.29	35.47	53.55
가구 소득 ²⁾		47.16	46.20	64.06	61.82	77.21
가구 자산 ²⁾		228.58	123.57	263.55	200.05	278.81
가구 부채 ²⁾		54.03	32.18	79.37	63.06	118.33
이전 일자리수 ³⁾		2.48	2.82	2.86	3.20	2.14
18년 플랫폼 종사기간 ⁴⁾		81.71	138.45	121.97	131.30	151.90
일평균 근무시간 ⁵⁾		7.61	5.91	8.58	8.33	8.55
직무만족도 ⁶⁾		2.77	2.76	2.73	2.71	2.50
자율성		41.94	33.33	35.62	34.16	70.69
직업	전문사무직	35.48	45.45	45.21	40.99	55.17
	서비스직	19.35	30.30	30.14	21.12	22.41
	운송배달노무	45.16	24.24	24.66	37.89	22.41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		48.39	54.55	45.21	43.48	32.76

주) 단위는 1)세 2)백만원 3)개 4)개월 5)시간 6)점이며 그외 나머지 단위는 %

양호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고임금의 안정적 노동 지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과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은 각각 9.27%, 8.71%를 차지한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은 저임금의 불안정 상태(37.50%)나 미취업 상태(18.18%)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저임금의 불안정 상태의 비중이 플랫폼 노동 당시(84.85%)와 2023년 현재(39.39%) 전체 유형 중 가장 많다. 여성 비중(69.70%)이 가장 크고 결혼 비율(69.70%)은 가장 낮다. 수도권 거주자 비율(66.67%)이 가장 높고,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배경이 가장 열악하며, 일평균 근무시간(5.91시간)이 가장 짧다.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은 미취업 상태 비중(39.24%)이 가장 큰 유형으로 가장 낮은 학력 수준과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보인 집단이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에 사무직 종사자(45.45%)가 많은 반면에,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에는 운송배달노무직 종사자(45.16%)가 많다.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결정요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이 다양하고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5개 유형이 존재하므로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준거집단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으로 설정한다.

〈표 4〉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가구 자산, 가구 부채, 플랫폼 노동 진입 이전의 일자리 수, 2018년 플랫폼의 종사 기간, 일평균 근무시간, 자율성, 직업 종류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저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이나 ‘고임금불안정 퇴장형’에 속할 확률이 낮다. 나이가 많을수록 ‘저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고임금불안정 지속형’과 ‘고임금안정 지속형’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결혼한 노동자는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에 비해 ‘고임금불안정 퇴장형’, ‘고임금불안정 지속형’, ‘고임금안정 지속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표 4〉 플랫폼 노동자 노동시장 이행 요인(준거집단: 저임금불안정 지속형)

	저임금 불안정 퇴장형	고임금 불안정 퇴장형	고임금 불안정 지속형	고임금 안정 지속형
여성	-1.763** (0.888)	-1.084* (0.636)	-0.893 (0.615)	-0.741 (0.692)
연령	0.094** (0.040)	-0.017 (0.034)	-0.075** (0.032)	-0.060* (0.036)
학력 고졸 이하	1.882 (1.218)	0.935 (0.953)	1.267 (0.868)	0.039 (0.947)
대졸 이상	1.560 (1.084)	0.393 (0.842)	-0.091 (0.750)	-0.657 (0.813)
결혼	-0.058 (0.749)	1.322* (0.727)	1.614** (0.685)	2.561*** (0.823)
고교 이하 자녀 가구	0.860 (0.850)	0.291 (0.727)	0.936 (0.702)	0.401 (0.798)
개인소득 비중	-0.071 (1.597)	4.350*** (1.315)	4.960*** (1.235)	7.106*** (1.367)
자산	0.280*** (0.100)	0.147* (0.082)	0.061 (0.070)	0.102 (0.087)
부채	0.070 (0.070)	0.043 (0.052)	0.035 (0.047)	0.100* (0.058)
수도권 거주	0.015 (0.588)	-0.432 (0.532)	0.072 (0.498)	-0.226 (0.597)
이전 일자리 수	-0.264** (0.126)	-0.035 (0.108)	0.081 (0.100)	-0.077 (0.120)
18년 플랫폼 종사기간	-0.025*** (0.006)	-0.005 (0.004)	0.001 (0.004)	0.005 (0.004)
일평균 근무시간	0.106 (0.155)	0.355*** (0.100)	0.280*** (0.092)	0.358*** (0.123)
직무만족도	0.105 (0.529)	-0.096 (0.446)	-0.172 (0.434)	-0.560 (0.500)
자율성	0.138 (0.557)	0.087 (0.508)	-0.075 (0.475)	-1.809*** (0.548)
직업 서비스직	-0.288 (0.778)	-0.832 (0.696)	-1.369** (0.690)	-1.128 (0.772)
운송배달노무	-0.330 (0.992)	-1.792* (0.928)	-0.818 (0.861)	-1.458 (0.976)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	-0.393 (0.571)	-0.058 (0.533)	-0.442 (0.474)	-0.676 (0.569)
상수	-6.019* (3.409)	-3.529 (2.735)	-0.487 (2.461)	-2.721 (2.808)
Wald test	$\chi^2(72)=224.41***$			
관측값 수	356			

주 1) * p<0.1, ** p<0.05, *** p<0.01

2) ()은 robust standard error.

3) 학력과 직업의 기준 범주는 각각 전문대졸과 전문사무직.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 비중이 높아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클수록 ‘저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고임금불안정 퇴장형’, ‘고임금불안정 지속형’, ‘고임금안정 지속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저임금불안정 퇴장형’이나 ‘고임금불안정 퇴장형’일 가능성이 크고, 가구 부채가 많을수록 ‘고임금안정 지속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플랫폼 노동의 일평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저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고임금불안정 퇴장형’, ‘고임금불안정 지속형’, ‘고임금안정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의 자율성이 클수록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전문사무직이 아닌 서비스직에 종사하면 ‘고임금불안정 지속형’보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에 속할 확률이 커진다. 운송배달노무직에 종사하면 ‘고임금불안정 퇴장형’보다 ‘저임금불안정 지속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플랫폼 행위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어떻게 실현되고 전개되는지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기반귀분분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다항로지회귀분석으로 이행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추가 소득을 얻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인지 아니면 불안정 노동으로 고착되는 함정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이 전일제의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일평균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약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친 반면에, 다수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55.6%가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종사한다는 분석³⁹⁾과 맥을 같이 한다. 유럽의 노동자 중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2.7~

39) 박보람·김준영·김태환 외, 2023, 58면.

24.5%에 불과⁴⁰⁾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연성은 제한적으로 작동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비(非)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중이 소폭 높고, 상용임금근로자나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와 같은 안정적인 고용 형태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 구조, 취약한 노동 지위 등은 한국의 플랫폼 노동이 지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대안이라기보다 기존의 불안정 노동의 위험을 재생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동시간 보호,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다양하고 차별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고용 안정성과 경제 안정성의 결합 양상에 따라 5개 이행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유형은 노동 안정성의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 이탈로 귀결되는 집단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시장 내 지위 변화가 제한적인 집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저임금불안정 퇴장형과 고임금불안정 퇴장형은 노동 안정성의 변동 폭이 크고 결국에는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이행 궤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행 양상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단선적이거나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비선형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 안정성의 변동성이 낮은 집단은 저임금·불안정 상태에 머무는 집단과 고임금 노동 지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의 양극화가 누적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플랫폼 노동 정책의 설계에 있어 정태적인 접근이나 선형적인 이행 경로를 전제로 한 접근의 한계를 잘 드러내 준다. 노동시장 이탈로 귀결되는 집단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불안정성의 누적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노동시장 주변부로의 이탈 위험이 구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이행 유형별 위험 수준과 이행 궤적의

40) Urzi Brancati, C., Pesole, A. and Fernandez-Macias, E., 2020, p.16.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시장 이탈 위험이 높은 이행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저임금·불안정 상태에 고착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행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의 디딤돌 또는 함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의 다양하고 비선형적인 이행 경로는 플랫폼 노동의 역할을 디딤돌 또는 함정으로 단순히 규정하는 접근이 부적절함을 방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임금·불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집단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함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임금·불안정 상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집단은 노동안정성이 일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로를 보인 후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므로, 플랫폼 노동의 역할이 디딤돌인지 함정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에는 플랫폼 노동이 일시적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고임금·불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의 노동안정성이 점차 감소하고, 고임금·불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역시 임시·일용·1인 자영업 형태의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 정책 설계에 있어 집단별 특성과 노동시장 경로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플랫폼 노동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 인정 제도 지원, 전통적 노동시장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노동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의 함정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 안전망 강화,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경제적 의존성과 자율성 효과가 발견된다.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동자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속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⁴¹⁾와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의 단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고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41)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2020, p.849.

보고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에서 2018년 플랫폼 노동 당시 고임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⁴²⁾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의존성이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은 고임금·안정 일자리보다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지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된다. 노동 소득, 근무시간, 경제적 배경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노동자는 유연한 노동조건을 허용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선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자산 효과도 확인된다. 자산이 많을수록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머무르기보다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보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최근 들어 여성의 플랫폼 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결혼이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제약상 플랫폼 노동의 엄밀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 정의를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의 이질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 노동 정의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소 집단 분류를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분류·분석하였으나, 보다 확충된 표본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상 임금 차원의 노동 안정성을 충수입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다양한

42)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2020, p.844. <표 3>에 따르면 고임금·불안정 지속형과 고임금·안정 지속형의 18년 플랫폼 노동의 고임금 비중이 각각 88.2%, 96.65%이다.

비용 부담을 고려한 순수입 기준 등을 활용함으로써 노동 안정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의 진입, 활동, 이탈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분석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시점의 일회적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 진입 시점부터의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 내부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거나 플랫폼 노동시장과 전통적 노동시장 간의 연계 양상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또한 종단적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장형’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높은 학력 수준이나 전문사무직 종사 비중이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분석도 요청된다. 플랫폼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과 플랫폼 노동의 관리·통제 방식에 대한 대응하는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8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보도자료, 2024.8.6.
- 김윤중·백준봉·이재홍,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 연구-이륜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2020.
-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2020, 125, 296~322면.
- 김준영·장재호·김강호·박상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 남재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1, 28(1), 133~160면.
- 민순홍, 『플랫폼 노동 선택의 결정 요인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 이동 경로 분석』, 산업연구원, 2023.
- 박보람·김준영·김태환·황광훈·박상현·조영은·신수림·전이영·김강호,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23.
- 방미현·이영민, 「플랫폼노동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21(3), 430~440면.
- 변금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학』, 2018, 70(3), 113~137면.
- 신인철, 「플랫폼노동은 새로운 일자리인가: 플랫폼노동의 일자리 특성과 생애 직업력 분석」, 『KLI패널 워킹페이퍼』, 2022(7), 한국노동연구원, 2022.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2017, 54, 487~521면.
- 이승윤·백승호·남재욱,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산업노동연구』, 2020, 26(2), 77~135면.
- 이재열, 「플랫폼 사회, 코로나19가 재촉한 변화와 대응」, 이재열 편,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 2021, 21면.
- 이태·안준홍,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노동경제논집』, 2023, 46(4), 41~84면.
- 장지연·이호근·조인영·박은정·김근주·Weber, E.,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 장지연·정민주, 『플랫폼 노동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 설문 방안 검토』, 일자리기획단,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인관,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고용 및 일의 세계 변화」, 『한국의 사회 동향 2022』, 통계청, 2022, 170~178면.

Adermon, A., and Hensvik, L., 「Gig-jobs: stepping stones or dead ends?」, 『Labour Economics』, 76, 2022. 102171.

Cieslik, J., and van Stel, A., 「Solo selfemployment—Key policy challeng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8(3), 2024, pp.759~792.

Datta, N., Chen, R., Singh, S., et al., 『Working without Borders: The Promise and Peril of Online Gig Work』, World Bank, 2023.

Eurofound, 『Automation, digitalisation and platforms: Implications for work and employ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Floros, K., and Galis, V., 「Platform Labour as a Stepping Stone? Challenging the Dominant Narrative for Danish Housecleaning Platforms」, 『Critical Sociology』, 2024.

Fuentes, A., and Gonzalez, R., 「Transitions into and out of the gig econom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25, pp.1~17.

Gussek, L., and Wiesche, M., 「IT Professionals in the Gig Economy」,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2023, 65(5), pp.555~575.

Jones, B. L., Nagin, D. S., and Roeder, K.,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01, 29(3), pp.374~393.

Lam L. and Triandafyllidou A., 「An unlikely stepping stone? Exploring how platform work shapes newcomer migrant integration」, 『Transitions: Journal of Transient Migration』, 2021, 5(1), pp.11~29.

Nagin, D. S.,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999, 4(2), pp.139-157.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and Tremblay, R. 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018, 27(7), pp. 2015~2023.

Newlands, G., 「This isn't forever for me': Perceived employability and migrant gig work in Norway and Sweden」,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2024, 56(4), p.1262~1279.

- OECD,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OECD Publishing, 2019.
- Pew Research Center, 『Gig work, Online Selling and Home Sharing』, November 2016.
- Pew Research Center, 『The State of Gig Work in 2021』, December 2021.
- Ravenelle, A. J., 『Hustle and gig: Struggling and surviving in the sharing econom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 Schenker, J. L., 『The Platform Economy』, 『Medium』, January 19, 2019.
- Schor, J. B., Attwood-Charles, W., Cansoy, M., et al., 『Dependence and precarity in the platform economy』, 『Theory and society』, 2020, 49(5), pp.833~861.
- Sundararajan, A.,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IT Press, 2016.
- Urzi Brancati, C., Pesole, A. and Fernandez-Macias, E., 『New evidence on platform worker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0.
- Wood, A. J., Graham, M., Lehdonvirta, V., and Hjorth, I., 『Good Gig, Bad Gig: Autonomy and Algorithmic Control in the Global Gig Econom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19, 33(1), pp.56~75.

| Abstract |

An Analysis of Platform Workers' Labor Market Transition

Lee, Hee-Jeong

Focusing 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latforms exemplified by sharing economy platforms such as Uber and Airbnb, this study examines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rocesses of platform workers as a key agency and identifies the determinants shaping these transitions. Drawing on data from waves 1-26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the 21st wave supplementary survey, I employ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trace dynamic transition pathway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how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work shape labor market transition proces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latform work exhibits characteristics of full-time precarious employment. Second, platform workers' labor market transition trajectories demonstrate considerable diversity and differentiation. Third, platform work cannot be definitively characterized as either a stepping stone or a trap in labor market transitions. Finally, economic dependence and autonomy are found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labor market transition process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long-term, customized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labor market transitions among platform workers, as well as conducting regular and systematic platform work surveys.

Key Words: Platform work, Platform worker, Sharing economy, Agency, Labor market transition

| 서평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여생의 약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리질리언스

김병인*

I. 왜 리질리언스인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사업단은 2025년부터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을 통한 플루리질리언스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아젠다(이하, ‘리질리언스 아젠다’로 칭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취약한 기능의 복구’ 또는 ‘정상화’를 뜻하며, 플루리질리언스(Plural Resilience)는 ‘다층적 재도약’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 사용하는 ‘리질리언스’는 ‘회복력’이나 ‘재도약’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잘 전달될 것이다.

‘리질리언스 아젠다’는 복합적 사회 난제와 문명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공생, 소통, 연대, 감응, 기억 등 다섯 영역에 걸친 ‘리질리언스’를 매개로 다종(多種) 주체의 공동미래 창출을 위한 ‘플루리질리언스’를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리질리언스 아젠다’ 연구를 통해 고립, 외로움, 세대 불평등, 차별, 지방 소멸, 디지털 소외 등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아젠다’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이 전제되었다. 첫째, 개인의 취약성은 공동체적, 지역적, 구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둘째, 고립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은 어떤 구조적 문제 속에서 형성되는가? 셋째, 고립된 개인의 감응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표현되는가? 넷째, 개인의 삶에서 감응이 파급하는 공동체적, 지역적, 구조적 효과는 무엇인가?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마을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7인의 생애에서 ‘리질리언스’의 발현 과정과 파급 효과의 탐색을 시도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의 출간은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 압축적 산업화와 절차적 민주화, IMF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격변의 80년을 지내왔다. 통상적으로 국가사는 전쟁, 혁명, 경제 성장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국가 통계와 공식 기록이 포착하지 못한 이면에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온갖 고난을 어렵게 버텨낸 개인들의 ‘일상 세계’가 존재한다. 이 책은 그 간난(艱難)의 시간을 견뎌낸 60~70대 여성 7인의 삶을 더듬어,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의 생애사를 서술한 것이다.

이처럼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는 간과되기 쉬운 일상의 기억과 경험을 복원하여 역사의 시각을 ‘기층으로부터’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해야 한다. 7인의 여성이 겪은 삶의 질곡과 이를 뛰어넘어 ‘리질리언스’로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을 촘촘히 그려낸 이번 작업은, 거대 담론의 빈틈을 채우는 미시적 기억과 기록의 힘이 얼마나 의미있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7인의 ‘기억(구술)’을 ‘기록’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박미선 교수의 「커뮤니티방법론연구」 수강 대학원생 14명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구술자 7인과 1:2로 매칭되어 세 차례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세대 간의 교감은 단순한 기록 작업을 넘어 기억을 매개로 한 관계 회복과 상호 치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번 작업은 구술생애사가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공동체적 회복을 촉진하는 ‘기억 리질리언스’의 실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는 공동체 속 개인의 기억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리질리언스’의 발현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고난’에서 ‘약동’으로

구술자 7인의 생애는 매우 파란만장(波瀾萬丈)하다. 파란만장은 ‘사람의 일생이 기복이 많고 변화가 몹시 심하다’라는 뜻으로, ‘만 장(3만m)’의 파도를 맞닥드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쓰나미의 파도가 20~30m 정도라고 하니, 파란만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파란만장’했으나 현재는 ‘기고만장’하다. ‘약속은 나의 재산이고, 정직은 나의 신분이다’는 이심열, ‘휘어질지언정 꺾이진 않았다’는 조화경, ‘넘어질 수 없는 나의 삶, 회복의 기록’을 남긴 김정순, ‘잊히지 않는 그날의 무게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끈 박춘자, ‘시련에서 피워낸 감사’를 외친 윤정옥, ‘동천마을 긍정과 패션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이명미, ‘빨간 구두를 신고 비로도 한복을 입은 7살 소녀가 동천마을에 오기까지’의 삶을 기록한 성영애, 이들 7인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앞으로 나아갈 ‘리질리언스’의 힘을 발견해 냈다.

60~70년의 삶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지금 동천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7인의 생애사에는 이질적인 과거와 동질적인 일상이 중첩되어 있다. 이들 7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리질리언스’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동천마을에서 함께 ‘리질리언스’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7인의 여성이면서 동시에 동천마을이라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7인의 삶의 궤적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예비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의 생애를 관철하는 키워드를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여성’, ‘아파트’, ‘IMF와 격변기’, ‘리질리언스’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은 가부장제와 빈곤을 뚫고 피어난 주체로 설명되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60~70대 여성들의 구술은 가사 노동과 생계형 노동이라는 이중고를 넘어, 어떻게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정서적 독립을 꾀했는지 알려

준다.

둘째, ‘아파트’는 삶의 궤적을 투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펼쳐진다. 7인의 구술자는 다양한 주거 변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고했으며, 아파트에서 맺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리질리언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IMF와 격변기’는 시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뚫고 전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외환위기로 무너진 가계 경제와 가족을 지켜낸 이들의 경험은, 처절한 생존 전략과 고통의 수용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넷째, ‘리질리언스’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으로 작동한다. ‘리질리언스’는 단순히 역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단계를 넘어, 시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이다. 7인의 여성들이 과거의 상처를 언어로 발화하고 서사로 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기 치유’이자 ‘자기효능감’을 발견하는 ‘인문학적 리질리언스’의 구현인 것이다.

네 가지 주제어를 매개로 소개된 7인의 생애는 정확하게 두 축으로 갈린다. 하나의 축에는 가난, 아버지, 남편, 시대, IMF, 실패, 배신 등이 영겨 있다. 다른 하나의 축에는 가족, 자식, 정직, 근면, 텃밭, 노래, 그림, 자전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전자가 좌절과 고통과 고난과 질곡의 원인이었다면, 후자는 극복과 희망과 전진과 약동으로의 전화라 할 수 있다.

새해 벽두에 동네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딸이었다는 이유로 구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은 그들의 시대는 ‘야만’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어 IMF에서 고작 550억 달러를 빌리면서 30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니, 망국의 단계에 다름 아니었다.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시대에 흐름에 떠밀린 개인은 어찌할 수 없는 피해자였고 희생자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구했고, 가정을 살렸고, 공동체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해방되었고 ‘리질리언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전거로 대자연을 질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영혼을 치유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웃으며 사는 ‘자유’를 얻었다. 반신욕을 하며 ‘가족과 믿음, 그리고 책임’으로 버텨온 삶을 보상받았다고 여

겼다. 암울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생을 가장 젊은 순간으로 삼아 행복하게 지내기를 다짐한다. 울면서 들어왔지만, 정말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지없이 행복하다고 한다. 웃으면서 꾸밈없이 지나치게 깊어지지 않고,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것을 되뇌인다. 미움과 원망을 놔버리고 마음 한쪽의 따뜻함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린다.

얼핏 보면 7인의 ‘리질리언스’는 대단한 각성도 놀라운 변신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평화롭고 편안하기 그지없다. 동시에 환희마저 느껴진다. 과거의 고난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동천마을 여성 7인의 앞날에 펼쳐질 ‘여생의 약동’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Ⅲ. 개인과 커뮤니티, 연결의 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로 ‘PC(Personal Computer)’의 등장을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80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야심작 ‘PC’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미국 인텔사가 1993년 발표한 마이크로프로세서 ‘펜티엄(Pentium)’을 통해 컴퓨터가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명실공히 ‘PC시대’가 도래하였다. ‘PC시대’는 디지털을 만나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극점을 누리는가 싶더니, 현재는 ‘AI’를 장착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상상 이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집약할 수 있고, 무한하게 확산시킬 수도 있다. 개인이 정보를 모으고 퍼트릴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끊임없이 분자화되었고 독립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지금 개인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혼밥’, ‘혼술’, ‘혼여’, ‘혼행’, ‘혼글’, ‘혼영’, ‘혼족’, ‘혼쇼핑’ 등의 유행어는 ‘PC시대’에 홀로 생활하는 개인의 위상을 반영한다.

개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초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커뮤니티[공동체]’와 무관하게 생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들’이 끊임 없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참여하고 있다. ‘카톡 단톡방’에서 타인의 행적을 살피고, 누군가의 블로그를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초대형 카페를 찾아 대중들 속에 놓인 자신의 안정성과 항상성을 확인하고, 대형교회에서 주일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야구장을 찾아 팬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공연장에서 또래들과 즐기며 살아간다. 다양한 크루활동과 독서모임, 맛집모임, 동호회에 모인 분자화된 개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거나 스스로 ‘잘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초개인화된 이들이 찾는 커뮤니티는 얼핏 있다가 없어지는 ‘헛것’처럼 보인다. 예전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중심의 커뮤니티와 다른 점이다. 어떤 올바름의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자화된 개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주는 방어 기제로서의 커뮤니티를 찾는다. 나를 존중하고 환대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특성을 가진 커뮤니티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방만하고 무력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초개인화시대’에 분자화된 개인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존재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커뮤니티의 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커뮤니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내재하고 있다.

지난해 계엄정국에서 ‘응원봉’과 ‘K-팝’의 등장은 분자화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들은 어떤 조직화된 커뮤니티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그때그때 모이고 흩어졌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었다. 오로지 응원봉을 들고 계엄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통로일 뿐이었다. ‘키세스’로 불린, 눈발 속의 분자화된 개인들이 구성한 거대한 커뮤니티는 계엄정국을 돌파한 큰 기둥 가운데 하나

였다. 마치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구조나 개인의 능력이 필요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거대한 자본, 문화 권력, 다국적 기업의 횡포, 국가 폭력 앞에서 ‘피해자’에 불과했던 ‘개인들’이 이를 보상받고 회복하려는 노력과 투쟁을 일삼는 것은 이미 일상 속에서 체계화되었다. ‘회복을 위한 욕망’은 개인을 움직였으며, 이로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작동하게 만들었다.

동천마을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가난과 좌절을 겪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서러움을 겪었던 7인의 주민은 동천마을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리질리언스’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독자적으로 재도약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그가 속한 커뮤니티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아파트 공동체가 제공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선진지 견학, 스마트폰 교육, 노래 교실 등에서 회복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천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성적 업무를 뛰어넘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해 주민들이 ‘리질리언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의 역할이 유독 눈에 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한 것처럼 인식되어 온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은 ‘개인’에게 ‘커뮤니티’의 힘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7인의 여성들은 기꺼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함으로써 ‘리질리언스’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이번에 발간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인문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융복합 인문학 연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의 또다른 ‘리질리언스 아젠다’ 성과를 기대해 본다.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 바. 심사료는 없으며, 게재료는 전임 10만원, 교내연구비 20만원, 교외(연구재단 등)연구비 30만원이다.
- 사. 학회지 면수를 기준으로 30면 초과시 초과된 면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

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2일 수정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 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은 이번 호에는 게재될 수 없고, 다음 호에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나.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의 경우에는 최초로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기존의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할 수 없거나 재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마.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 수정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

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

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04. 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김청우(부경대), 김형주(전남대), 박미선(전남대), 신선혜(호남대), 이현재(서울시립대), 정미선(전남대), 최대희(전남대), 한우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하현정(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설배환(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이원석(전남대), 김태완(전남대), 강의혁(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p>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p>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종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의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황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9.)

특별기고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종구 | 정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3.)

일반논문

-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2016)에 대하여
김중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9.)

일반논문

-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먼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종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稷)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

위민호·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

홍성호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최영진 | 일반계고등학교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가족과 커뮤니티』 8집 (2023. 7.)

기획특집: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정란 |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홍양희 |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반논문

진서금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정천구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양소영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김덕삼·이경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서평

정미선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9집 (2024. 1.)

민무숙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김병인 |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 류명옥 |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 유해인 | <황릉뫼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 황지현 |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 김주원·강의혁 |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 김란영·주승섭·임윤정·류도향 |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 김나경·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 최마티·신지원 |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 김덕삼·이경자 |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 Issue

황민호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평

한우리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10집 (2024. 7.)

기획특집: 미래 커뮤니티를 그리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커뮤니티의 진화

- 박미선·신항수 |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가족 담론의 변화: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대현·이유나 | 비(이성애)혼 게이커뮤니티의 명암
- 김순남·나영정 |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
- 최대희 |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 류도향 | 초개인화시대,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방안 연구

일반논문

- 정천구 |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적 특성과 효선 재해석
- 김동연 |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공간 인식과 여행 인식
- 최은주 |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
- 김중수 | 유(儒醫) 석봉(石峰) 김병태(金柄泰) 가문의 대택(大宅) 경영
- 김동규 |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 『전체성과 무한』 4부 C “번식성” 및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한 가지 해석
- 우양호 |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 윤선숙·조유영 |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 정승경 |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정책의 전환: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을 위하여

서평

김재민 | ‘잃어버린’ 모성과 상실의 트라우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족과 커뮤니티』 11집 (2025. 1.)

기획특집: 복합위기의 시대 이주, 노동, 그리고 공동체의 대응

- 김경학 | 국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박아름·강혁민 | 복합위기 시대 로컬평화의 실천양식: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
 이기연 | 코로나19 경협이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 현안을 중심으로
 최대희 |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일반논문

- 류명옥 | 상사뻘 설화에 나타난 결핍과 죽음의 이면적 의미
 한의승 | 玄谷 趙緯韓 漢詩 研究 - 挽詩를 중심으로
 김정녀 |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궤절 양상과 의미: <李花實傳>과 <吳後姜傳>을
 중심으로
 안서현 |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 이진영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김남석 | <별에서 온 그대>에 반영된 가족 제도의 혼종성과 여성 주체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김 의 | 畢柳鶯의 『斷食善終』에 나타난 타이완의 단식 존엄사 논의
 박영민 |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D대학을 중심으로
 박주희 | 만화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연결 요인: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

서평

- 강소희 | 공동성과 취약성 위에서 ‘감염’을 사유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12집 (2025. 7.)

일반논문

- 류명옥 | 구비 설화에 나타난 질병 서사와 여성의 역할
 김남석 |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세대 전환과 문화 충돌
 김 의 |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방안 연구: 타이완 허우통(猴硢) 고양이 마을
 사례
 박성은 | 스포츠 관람 커뮤니티의 개별화 현상: KBO와 e스포츠 비교 분석
 박영민 |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강의를
 중심으로
 박정하 | 이동하는 주체, 구성되는 감정: 조기유학 귀국 청년의 감정 서사와 사회적 맥락
 사용진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인식 차이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유진영 |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탐색: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따른
 시설 공유 방안
 이은희 | 감정의 정치학으로 읽는 K-드라마 가족극: <폭삭 속았수다>의 서사와 수용의 권력
 구조
 정종민 | 수의 만들기를 통해 본 삶과 죽음의 창발적 얽힘: 다알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진소영 | 루리디야 디아스포라의 테랑가(Teranga) 실천에 관한 연구: 종교적 현대, 의례적 송금,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최장미·추주희 | 지역에서 ‘완벽한’ 엄마로 살아가기: J지역 40대 전업주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평

- 강익혁 |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평화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박미선 외, [연구총서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Elsa Dolin 외, [연구총서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Uma Krishnan 외, [연구총서4], 가족커뮤니티와 다성적주체론, 한국문화사,
2024. 2. 23.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
문화원, 2021. 1. 29.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한의승 외, [국가전략총서4] 가족커뮤니티 윤리와 가족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 31.

류도향 외, [국가전략총서5]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8.
30.

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6] 퀴어한 가족커뮤니티에 대한 상상과 실천,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8. 30.

박미선 외, [국가전략총서7] 경계를 넘어서는 가족커뮤니티의 미래, 전남대학교 출판문
화원, 2025. 4. 28.

2. 번역총서

Tony Blackshe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

-
- 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Lodger Pries 지음, 최대희·장영숙 옮김, [번역총서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4] 기억의 윤리, 한국문화사, 2023. 6. 19.
- 岡野八代 지음, 이수진·박경희 옮김, [번역총서5] 가족 — 새로운 「친밀권」을 찾아서, 한국문화사, 2023. 9. 27.
- 许琪 지음, 장복동·최만원 옮김, [번역총서6] 계승과 변천-현대 중국 가정의 구조와 가정 양로, 한국문화사, 2024. 11. 13.
- Cesare Casarino·Antonio Negri 지음, 강의혁·박선아·한우리 옮김, [번역총서7] 공통예찬, 한국문화사, 2025. 3. 31.
- Richard Kearney 지음, 김연민·김은혜 옮김, [번역총서8] 터치,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다, 한국문화사, 2025. 2. 21.
- Landon Hancock·Christopher Mitchell 지음, 강의혁·박선아 옮김, [번역총서9] 평화시대, 한국문화사, 2025. 4. 30.
- Tobias Meier 외 지음, 김일두 외 옮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란 무엇인가?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2. 28.
- Loretta Pyles 지음, 김희송 외 옮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2025. 2. 28.
-

3. 시민문화총서

-
-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2. 28.
-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

4.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3]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2. 28.

5. 기억과 기록 총서

박미선 외, [기억과 기록 총서1]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12. 22.

가족과 커뮤니티 (제13집)

FAMILY AND COMMUNITY

발행일: 2026년 1월 31일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연락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인쇄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연락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062-530-0571~5

팩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tp.co.kr>

E-mail: cnup0571@hanmail.net

이 학술지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23)